

영화 <명량>에 나오는 배설장군 이야기는 새 빨 간 거 짓 말!!!!

영화에 나오는 명량해전은 당시 경상우수사였던 배설장군이
오래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직하고
보름후 9월16일(양력 10월25)에 일어난 전쟁!!!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작가가
관람객을 상대로한 기만 사기질!!!

난중일기 내용

- "배설이 제 종을 시켜서 소지(자신의 뜻을 밝힌글)을 냈는데 병세가 몹시 중해서 조리를 하겠다고 했다" 1597년 정유년 8월21일자(양력 10월 1일) 노성석 옮김. 난중일기. 민음사. 1966. P413

- "..배설이 제 종을 시켜 솟장을 냈는데, 세가 몹시 중하여 몸조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몸조리를 하고 오라고 공문을 써 보냈더니 배설은 우수영에서 뭍으로 내렸다."
난중일기, 1597년 정유년 8월 30일자 (양력 10월 10일)

배설장군 가족의 임진왜란과 공적

배설장군의 아버지 배덕문 할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하여 많은 벼슬을 지내고 고향에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 성주에서 68세의 노구로 의병장이 되어서 배설장군의 아들인 배등암 할아버지와 함께 왜병장을 죽였습니다. 배설장군의 아버지인 배덕문 의병장은 전쟁동안 제독으로 성주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또 배설장군의 아들 등암 할아버지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 의병장이 되어서 지금의 달성군인 화왕산성을 지켜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설장군의 동생인 배건 장군은 할머니와 함께 의병활동을 하다가 임진왜란에서 목숨을 잃어 그 공로로 나라에서 병조참의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동생 배즙장군은 임진왜란때 배설장군과 함께 조방장(수사의 바로아래 계급)으로 나가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여 나라에서 선무원종 2등공신 가선대부 병조참판 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배설장군의 억울한 죽음

임진왜란이 모두 끝나고 나라는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무능한 선조왕은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나라 안에서 백성들에게 크게 지지를 받던 배덕문 가문의 배설장군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다.

배설장군의 명예회복

그후 11년 뒤 배설장군의 죽음이 잘못되었음을 나라는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선무원종1등공신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책록하였다. 다시 274년 후 한번더 나라에서는 과거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선무원종1등공신 자헌대부 병조판서에 증직하였다.

용서받지 못할 작가의 만행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역사적 부관참시로 수많은 자손은 물론 민족 앞에 반역한 용서 받지 못할 사악한 행위임.

자손된 일가들에게 알림

조상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이 모두 방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조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조상의 업적도 모른채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이 맞은 내용으로 알고 바보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명예회복의 차원을 너머 조상의 자랑스러운 공적을 널리 알리는 자손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일을 하는 운동입니다. 또 자손들에게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자손된 모든 일가들이 동참하여 조상님과 자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구 연락처: 배재회, (우)704-9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486-2번지 2층 053-623-4091 (Fax 053-625-0580)
홈 페 이 지: http://cafe.daum.net/1525-
(까페지기: 배운호, sowoo6500@hanmail.net)
http://cafe.daum.net/seungsanbae
(까페지기: 배재기, baejaeki@hanmail.net)

후원금 계좌는
351-0732-9939-63 농협 배원호

대동단결!!! 명예회복!!! 승리쟁취!!!

성산성주배씨 종친회
분성배씨 종친회
경주배씨 대종회
달성배씨 종친회
소설 영화 <명량> 허위 비상대책위원회

우강 배설장군 역사왜곡 규명(증보2판)

- 뜨거웠던 8,9월의 가슴앓이 -





“우국충정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경상우수사 배설장군”을 기리며...

칠천량 해전에서 12척의 배와 조선수군을 살린 병조판서 배설의 역사적 진실을 밝힌...

소설 영화 <명량> 허위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일지

2014년 9월

성산성주배씨 종친회

경주배씨 대종회

소설 영화 <명량> 허위 비상대책위원회

목차

종친여러분께 이글을 올립니다 (배한동) ····· 1
소설과 영화명량의 역사왜곡 진실규명 (서암공파 종친회 회장 배재소) ····· 3
명량 영화와 소설의 배설 장군 조작에 대한 대책 (성주성산배씨 배효열 회장) ····· 5
영화 “명량”과 우리 裵문의 대책 (경주배씨 대종회 회장 배영진) ····· 7
성산배씨 서암공파 일가분들께 드리는 글 (배윤호) ····· 9
영화 명량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배한동 칼럼) ····· 12
경상우수사 배설 요약 (배한동) ····· 14
경상우수사 신재 배설 장군의 임란시 활동과 공적 (배한동) ····· 16
의병장 서암 배 덕문(裵德文) 선생의 의병 활동과 학덕 (배한동 배재영) ····· 42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의 생애 (배재영) ····· 64
조선수군 살린 배설 장군-배재영 ····· 87
영화 소설<명량>의 허위대처 비상대책 위원회 활동일지 (배한익) ····· 144
명량 영화 허위, 조작 내용에 대한 분석(별첨)-배재영 ····· 156
영화 “명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배재영 ····· 169
문광부 민원 요청서 (질의서)-배재영 배윤호 ····· 175
인터넷 반박 쪽지문 정리-배재영 ····· 178
소설 이순신 작가에게 답한다.~~2014.9~~-배한동 ····· 181
명량 허위 조작 대처방안 ····· 183
국민신문고에 영화 명량의 상영중지를 청원하는 민원서 제출과 일차답변 208
우리가 반박하는 글입니다-배윤호 ····· 213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소송장(배윤호) ····· 214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비상대책위 보도자료)-배윤호 ····· 218
비대위 활동 종친의 업적평가에 대한 생각-배한익 ····· 223
배가 종친회 주소록 ····· 225

기타 자료들

기타자료1-인터넷 자료 ····· 233
기타자료2-영화 명량 실제 역사와 비교해 볼까요-대구교육청 ····· 235
기타자료3-그날 시청 소감(정유재란) ····· 239
기타자료4-후손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배설 장군 이야기 ····· 243
기타자료5-성주배씨 진사공위현세계보 ····· 247
기타자료6-진사공파 종사록 ····· 258
기타자료7-성주 배씨를 찾아서 (정규복) ····· 261
기타자료8-배씨 명단 ····· 263
기타자료9-대종회 비대위 원로종친 활동사진 ····· 271
기타자료10-박은우 소설 '명량'에서 본 배설장군-배한순 ····· 276
기타자료11-경상우수사 배설 장군 기념 사업회 ····· 279
기타자료12-윤재욱 달서구출신 국회의원님께 협조 요청 내용 (배재회) ····· 280

종친 여러분께 이 글을 올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 계절 입니다. 가내가 두루 편안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8월 9일은 우리 서암공파 종친들은 요즘화제가 된 영화 '명량'을 단체 관람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성을 부각하기 위해 우리 선조 배설장군을 여지없이 폄하,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장면 앞에 우리 종친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선조 배설 경상우수사는 청년 시절 의병장인 부친 서암 공을 도와 의병으로서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합천, 진주, 밀양, 선산 등 여러 고을의 수장을 거치는 동안 선정을 베풀어 공적을 세워진 분이십니다. 40대 중반 경상 좌도와 우도의 수군절도사를 역임하며 많은 공적을 남기셨고, 조선수군이 전패당한 칠천량 해전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전선 12척을 구해내어 조선 수군을 살려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의 승리의 토대를 마련한 자랑스러운 명장이십니다. 공이 억울하게 모함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그 공로가 인정되어 광해 2년(1610) 선무원종 일등공신에 책록되어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번 '명량'이라는 영화(전철홍·김민한 감독 극본)와 소설(김호경)에서는 우리의 배설 선조가 이순신의 시해 사건의 주모자이고, 거북선을 불태우고 도망가다 거제 현령 안위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적에 매수되어 조선을 죽이는 간첩으로 조작하여 또 다시 배설 장군을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보다 더 나쁜 역적으로 조작 하였습니다. 영화와 소설이 픽션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장면은 역사적 기록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왜곡 날조된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 임란 일등공신과 병조 판서로 증직된 우리 선조 배설장군의 명예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우리 후손들의 받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형언하기 어렵고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영화 감상 후 우리 친족들은 차제에 우리 선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배설 선조 관련 왜곡된 자료를 바로 잡기 위한 서암공파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선조의 명예를 여지없이 짓밟고 훼손시킨 이 영화의 작가, 감독, 제작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엄격

하게 추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후손들이 훌륭한 배설 선조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배설 선조에 대한 역사 왜곡, 명예 훼손, 폄하나 비하 언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화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친 여러분! 1500만 관객을 모으고 흥행한 성공한 거대 영화사를 상대로 하는 이번 투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란 역사의 대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에 굴하지 않고 '배설 선조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임란 시 3대에 걸친 선조의 위업을 후손들과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문의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비상 대책위원회는 의병장 서암공, 아들 신재 공과 4형제, 손자 등암 공에 이르는 3대의 거룩한 공적을 한권의 책으로 출판하려고 합니다. 여러 종친들의 물심양면의 협조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비상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 8. 14

성산배씨 서암공파 비상 대책위원회(가칭)

위 원 장 배 한동 (31대손, 경북대)

1. 성산성주배씨 daum 까페 (까페지기: 배윤호)
   http://cafe.daum.net/seungsanbae
   성산(성주) 배씨 종친회 daum cafe (까페지기: 배재기)
   http://cafe.daum.net/1525-
   배한일 종친 개인 Blog
   http://blog.naver.com/hibae7418

2. 후원금 통장계좌는 아래입니다.
   351-0732-9939-63 농협 배원호

소설과 영화 <명량>의 배설 장군의 역사왜곡 규명

성산·성주 배씨 서암공파 종친회 회장 배재소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 <명량>의 작가 김호경과 명량 영화 감독 김한민은 흥행과 상업주의에 물들어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의 역사적 행적을 왜곡 조작하여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하게 하였으며, 정신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하여 고통과 아픔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좋아하는 성웅 이순신을 시해하는 배설장군(과 군사)으로 설정하여 함께 나라지킨 배설 호국공신을 지독히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거북선 방화범이 배설장군(과 군사)으로 추측하게 만들었고, 배를 타고 도주하다가 안위에게 화살을 맞는 장면을 넣어 역사의 진실을 아는 종친들을 대단히 화나게 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던 종친이 더 이상 보지 않고 중간에 나가시고, 선조를 욕되게 함이 분하고 죄송스러워 눈물을 흘리셨고, 일리 손에 잡히지 않아서 가슴앓이를 하던 종친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서 영화 소설 <명량>의 허위사실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배설 장군이 배 12척을 수습한 칠천량 해전은 1597년 7월 15일에 있었던 전투이고, 난중일기 1597년 8월 21일자에는, 『배설이 제 종(奴)을 시켜 소지(신하의 뜻을 밝히는 글)를 냈는데 오랜 수질로 병세가 몹시 위중하여 조리를 하겠다고 하여, 이순신 장군이 공의 병가를 허가하고 뭍(육지)으로 내렸다』는 기록이 난중일기 8월 30일자에 있습니다.

요양 중, 모함과 수배를 받고 권율에게 체포되어 서울에서 처벌되셨으나 곧바로 10년 후 1610년(광해 2년)에 1차 신원되어 선무 원종1등 공신 호조참판으로, 1873년(고종 10년)에 2차 신원되어 병조판서로 증직되신

분입니다.

더구나 황금에 눈먼 소설가 김호경(전철홍 김민한 감독 극본)은 소설<명량>에서 우리의 배설 선조가 왜적에 매수되어 조선을 죽이는 간첩으로 표현하여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역적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역사적 픽션이라고 유의하라는 안내나 자막조차 없이 영화와 소설에는 왜곡 날조된 내용을 역사적 고증을 받은 듯이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임란 일등 공신과 병조 판서로 증직된 배설장군의 명예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우리 후손들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영화 감상 후 우리 친족들은 차제에 우리 선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배설 선조 관련 왜곡된 자료를 바로 잡기 위한 서암공파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바랍니다.

성산배씨 서암공파 회장 배재소

성산성주배씨 daum 까페.
http://cafe.daum.net/seungsanbae

성산(성주) 배씨 종친회 daum cafe
http://cafe.daum.net/1525-

배한일 종친 개인 Blog
http://blog.naver.com/hibae7418

후원금 통장계좌는 아래입니다.
351-0732-9939-63 농협 배원호

“명량” 영화와 소설의 배설 장군 조작에 대한 대책

(성산 성주 대종회장 신문 게재 원고 초안)

성산·성주 배씨 종친 여러분께 삼가 문안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유난히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바로서면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행복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며 민생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종친들은 국가적인 어려움과 함께 조작 된 ‘명량“ 소설과 영화 상영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 김한민과 작가 김호경은 명량 해전에 참전하지 않은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등장시켜, 허위 날조함으로써 명에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후손은 이 영화를 보다가 배설 장군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잘 못 되어 끝까지 보지 않고 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후손은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다가 영화의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배설 장군의 날조 된 장면을 보고 분개하여 작은 아버지에게 배설 장군에 대한 조작 된 내용을 즉시 휴대 전화로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 명량 영화 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배설 장군이 칠천량 전투에서 도망 갔다는 장면이 나오고, 배설 장군이 왜놈의 간첩이 되어 부하들을 시켜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려다 실패하자 거북선 불태우고 도망 가다가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조카는 격앙 된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아버지에게 명량의 조작을 상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배설 장군의 직계 후손들은 대구에 모여 단체로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와 소설을 보고 격분한 많은 종친들은 즉시 이 사실을 배씨 문중에 알리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량 영화는 상업화 흥행화를 위하여 역사의 실존 인물인 배설 장군에 대하여 허위 날조하여 그의 인격과 명예와 업적을 송두리 채 훼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적잖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명량 영화는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단결하고 화합하여야 할 시기에 역사의 인물에 대한 조작으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문중의 명예를 크게 훼손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성산·성주 종친는 영화 감독 김한민과 작가 김호경에게 엄중 경고하고 훼손 된 명예를 찾기 위해 적극 대응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중은 모두 힘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일이 성사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경주 배씨 대종회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문중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성산·성주 배씨 종친 여러분!

세상은 변하여도 역사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수백 년 수천년 흘러도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칠천량 전투 당시 왜적에게 전멸 상태에 있는 조선 수군을 살리고 전선 12척을 살린 장군이 누구입니까? 이순신이 아닙니다. 권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조 배설 장군입니다. 배설 장군이 살려 낸 전선 12척이 있었기에 조선 수군이 존재 하였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 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와 조작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실은 영원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다시는 배설 장군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종친들이 더욱 조상들을 공경하고, 서로 서로 도우며 화합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4. 8. 25

성산·성주 배씨 종친회 회장 배효열

(배재영 작성)

영화“명량”과 우리 裵문의 대책

현재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후, 정치권에는 지도력이 상실되어 국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책임지는 풍토가 없고, 경제는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군대는 군기가 문란하고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다.

이 처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때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정유재란 시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승리한 “명량해전”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의 통쾌한 전투 장면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보여 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 한다. 그러나 “명량”영화 감독 김한민이 이순신 장군의 공만 내세워 영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배설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허위 날조하여 명예를 훼손 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문의 후손들의 명예도 크게 실추 시켰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지휘한 전선 13척 중 어선 1척을 제외한 12척은 배설 장군이 칠천량 전투에서 전멸 직전에 구해낸 전선이다. 이 전선 12척이 없었다면 이순신이 죄인에서 다시 수군통제사가 될 수 없었고, 정유재란 동안 조선은 수군이 없이 육군만이 전투를 하였을 것이며. 명량해전도, 노량해전도 있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배설장군이 아니었다면 조선 수군은 없었다. “명량” 영화 감독은 이러한 위대한 배설 장군을 왜장에 매수 된 첩자로 날조하여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게하고, 거북선을 불태우는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매국노로 만들었다.

이러한 허위와 조작 된 영화를 본 많은 국민들은 역사적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화 속의 조작 된 배설 장군만을 인식하게 된다. 배설 장군하면 왜군의 첩자로서 이순신을 암살하다 실패하여 거북선을 불태우고, 작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 배설 장군의 부하인 안위의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알게 된다.

이 조작 된 영화는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배설 장군과 연계시켜 배씨를 업신여기거나, 나쁜 사람의 집안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 배씨 후손들이 날조 된 명량 영화를 보고 영화 속의 조작 된 배설 장군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결여 되었거나. 기가 죽었거나, 용기를 상실 하였거나, 명예가 실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배설장군의 후손들은 명량 영화와 소설을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배설 장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업적에 대한 진실을 각계 각층에 전파하고 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하고 만다” 고 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선조에 대한 업적을 제대로 알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우리 경주 배씨가 대동단결하여 조작 된 ‘명량’ 영화로 인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이것을 기회로 우리 경주 배씨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주배씨 대종회 배영진 회장

성산배씨 서암공파 일가분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 청용에 살았고 성주읍에서 유선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가야산 아래에 살고 있는 윤호입니다.**

지금 명량이라는 소설과 영화에서 이순신의 영웅 부각을 위해 경상우수사를 지내신 배설 할아버지에 대해 역사를 허위 날조하여 역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문중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족심이 많은 몇몇 일가분들이 십수년동안 배설 할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발굴하여 할아버지의 공적들을 정리하여 그간 세간에 알려진 내용들이 모두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에 조정의 당쟁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두 차례에 걸쳐서 명예가 회복되고 더 높은 벼슬로 추서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량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죽임을 당하는 문중적 차원의 치욕과 만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후손 모두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의 근원이며 우리의 혼과 정신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상님들의 뿌리로 자라난 거대한 한그루 나무의 줄기와 가지들입니다.

우리의 뿌리인 조상님이 다시금 억울한 두 번째 죽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말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저는 긴급히 정말 급박하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호소를 합니다.
지금은 정말 후손이면 모두가 나서야 할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대로 몇몇 일가분들이 할아버지의 자랑스런 역사 기록물들을 모두 발굴하였습니다.
이제는 후손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만 듣거나 읽음으로써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발굴된 역사자료들을 보게 된다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조상님들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공 할아버지의 부친인 서암공 할아버지는 임진란 당시에 왜장이 성주목사를 죽이고 성주백성들을 모두 살육하려는 계획을 알고, 68세 노구에도 불구하고 의병대장으로써 전투에 참가하여 왜장을 죽이고 성주 고을을 구한 자랑스런 어른이십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어르신들의 업적을 기리고 알리는 기념사업을 우리가 나서서 추진 해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 조상님들을 비하하는 소설들이나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명량영화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전국 종친회와 연대하여 법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공 할아버지의 본세거지인 뒷개마을에서 두손을 놓고 있어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나 전국단위 일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마을에서 중심이 되어 이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화 명량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앞으로 또다시 300년 4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기회를 얻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우리의 아버지들과 그 위 아버지인 할아버지들이 대대로 숨죽이며 기죽어 지내왔던 삶을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계속 이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려지고 잘못 알고 있는 역사는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새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가문이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일에 나섭시다!!

그간에 발굴 수집된 자료집은 대구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석아래 벌초를 하기위해 대소간, 집안들이 모일 때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시면 아래에 명단을 참고로 전화 하십시오.
그러면 만나서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 가족이 임진란당시 나라를 위해 왜군과 전투에 나섰던 자랑스러운 가문의 후예인 여러분들께서도 한번만 조상님들에 대해서 들어 보시면 저처럼 너무 신나고 기쁠 것입니다.

지금 대구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구종친회 분들도 너무 기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거두게 될 영광스러운 열매는 우리 모든 일가분 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일이 순탄히 진행되기 위해서 모든 일가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대적으로 요구 됩니다.
제가 급박한 마음에 두서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더 많이 알려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이 일에 힘쓰고 계신분 들 중 일부의 명단을 적습니다.
이분들께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서로 한두 분씩은 연락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여 명단만 올립니다.
배한동(대구) 배재영(부산) 배한익(대구) 배두호(대구) 배재회(대구) 배한경(대구) 배원호(대구) 배재기(대구) 배준영(대구) 배한욱(서울) 배한상(서울) 배한원(서울) 배한일(대구) 배재관(갈밭) 배재소(대구) 배한곤(대구) 배관호(청용) 배재경(대구). 윗분들 중 연고가 없어서 연락이 안되는 분은 저에게 010-7267-5080으로 전화 주십시오. 대구 비대위 참가 문의는 배두호(010-9354-6927)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은 이번 대구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에 일가분 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가분 들이 사회지도층 곳곳에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문중의 중흥과 활성화가 상당히 기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야산 포천계곡 배윤호)

영화 `명량`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경북매일신문 오피니언 칼럼, 2014년 8월 25일)

영화 `명량`의 관객이 벌써 1천600만 명을 넘어 섰다고 한다. 언론 매체에서는 연일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상처난 우리 국민들을 이순신의 영웅적 행위를 통해 대리만족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세월호 사건 등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린 위기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영웅 대망론`이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불러모으고 있다. 여하튼 이 영화가 대박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화가 역사적 진실과는 괴리가 심각한데 문제가 있다.

임진왜란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던 필자도 이 영화를 찬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영화는 여러 곳에서는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보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아닌 장면이 자주 노출되어 안타까웠다. 이순신 장군의 임명 교지에 쓰인 날짜의 오기에서부터 명량해전 전야의 거북선 소실과 암살음모 사건, 대장선이 왜군과 치른 백병전 등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 영화 작품도 일종의 픽션(fiction)이기에 스토리의 구성이나 배경 설정은 작가의 창작의 영역에 속하여 용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순신 장군을 영웅화하기 위하여 특정 인물을 악역으로 설정한 장면은 아무래도 이해될 수 없었다.

이 영화는 당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이순신 장군 암살 사건의 주모자로 각인시키고 있다. 이 영화의 초반에 이 순신 암살사건의 가담자를 배설 장군의 `부장(副將)`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배설 장군이 이 사건의 주모자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기록에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조작된 내용이며, 역사의 분명한 왜곡이다. 배설 장군은 당시 수질로 인해 명량해전 발발 전 이미 신병치료차 휴양신청을 하고 이순신장군이 허락했다는 내용이 난중일기에도 소개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데도 이 영화는 배설 장군이 마치 당시 상관인 이순신장군에 대한 하극상을 음모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오도하고 있다.

더욱이 이 영화에는 배설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거북선을 불태우고 도망가다 거제 현령 안위의 화살에 맞아 죽는 장면(1597년 9월)이 있다. 명량대첩 당시 거북선은 건조되지도 않았으며 없었던 거북선을 소실케 하고, 배로 도망치는 비굴한 장면 역시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배설 장군은 당시 죽지 않았으며 2년 후 모함에 의해 처형(1599년 3월)되었다. 더구나 배설의 억울한 죽음은 곧 신원되어 임란 원종 일등 공신에 책록 되고 병조 판서로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배설을

침략자인 왜군보다 더 악랄한 이미지의 악역 캐릭터로 묘사한 것은 역사를 왜곡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이 영화 초반에서 배설에 관한 수차례의 악역 설정과 인격모독은 죽은 자에 대한 명예 훼손일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줄 것이다. 이 영화의 작가와 감독은 어느 언론을 통해 이 영화가 역사적 고증에 충실하였다고 자랑했지만 이 말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물론 소설, 영화 등 예술의 창작 활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용인되어야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타인의 손해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영화나 소설의 창작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문제가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영화나 소설 속의 `가공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고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을 영웅화 하기위해 실존 인물을 최악의 악역의 캐릭터 설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는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역사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후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실추된 명예는 회복될 수 없으며, 후손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는 어떤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차제에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역사물의 창작과 공연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

경상우수사 배설(裵楔)장군의 임란 활동과 공적(발표요약)

배한동(裵 漢東)*[1)]

목차

I. 서론
II. 가계와 생애
III. 임진왜란시의 활동
IV. 정유재란시의 활동
V. 장군대한 모함과 신원
VI. 결론

표1. 배설 장군의 공직활동

년대	주요 직책	주요활동	비고
1583선조 16)	무과 별시 급제	변방 방어 활동 주력	
1592(선조25)	주부(主簿)승진, 가장(假將)으로 활동	방어사 조경과 남정, 황간, 추풍령 전투 참전후 향병 규합, 부상진 전투에서 흑전구침(黑甸句沈)제거, 개산 진 전투 평의지 (平義智)격퇴	금부채1개, 칼2자루 노획
1594(선조 27)	합천군수, 동래부사, 부산 첨사, 진주 목사	의병활동 지원, 해안지역 치안 유지, 주민들에 대한 선정	진주거사비
1595(선조 28)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겸 부원수(水軍節度使兼副元帥), 밀양부사	좌수영, 군기 확립, 군사 사기 함양, 조정에 시국 건의문 상신	
1596(선조 29)	선사 부사겸 금오산 별장	금오 산성 수축, 9정 7택, 혜창 건립, 의병활동 지원	금오산성사적비 참조
1597(선조 30)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부산포 왜선 8척 전소, 다대포 전투 참전, 칠천포 전투에서 전선 12척 구함, 청야 작전 성공, 거북선 건조	수질 악화로 요양 신청
1599(선조 31)	병가에 의한 휴양중	모함에 의한 수배와 처벌	
1610(광해 2)	1차 신원	선무 원종1등 공신 책록, 가선대부호조참판	
1873(고종10년)	2차 신원 (유림)	자헌대부 병조판서 증직	

1) *경북대 명예 교수, 정치학 박사, 전 대한정치학회 회장

III. 장군의 임진왜란시의 활동

1. 왜적의 북진을 막은 용감한 의병 활동
2. 경상우수사의 부임을 가로 막은 진주 주민들
3. 도체찰사 본영이 되게 한 금오산성 수축(修築)

IV. 정유재란시의 활동

1. 부산포 전투와 왜선 8척 전소
2. 칠천량(漆川樑) 전투와 전선 12척 수습
3. 장작귀선(粧作龜船) 건조

V. 장군에 대한 모함과 신원

1. 수질 악화 따른 요양 신청과 허가
2. 패전의 책임과 모반죄
3. 신원과 선무 원종 1등 공신 책록
4. 유문(遺文)과 두 편의 시조

VI. 결론

<참고문헌>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징비록』

『난중일기 』

『동국사(東國史) 』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卷)』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충훈록(忠訓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현무공실록(顯武公實錄)』(김억추)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구미시『구미시 향토사 』, 2008

노성석 옮김, 난중일기, 믿음사, 1966

배석휘, 『가범(家範)』

송인호 편저, 『임란대장군(壬亂大將軍) 원균통제사(元均統制使)』 / 상권(上卷)임란사상(壬亂上) , 개벽공론사 1995

성산 성주배씨 대종회,『 성산 성주 배씨 대종보(수권),』 대보사, 2012

성주군청, 『성주군지』『내고장 성주』

이경석,(李炯錫,)『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이순신, 『난중일기』, 노성석 옮김, 믿음사, 1966,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壬辰亂精神文化禪讓會), 『임진란 문헌목록(壬辰亂 文獻目錄) 』I, 자료번호126, 배상룡(裵尙龍)

성산(성주)배씨카페 cafe.daum.net/seungsanbae

정만진, http://blog.naver.com/clean053 배설 장군은 어찌되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경상우수사 배설(裵楔)장군의 임란 활동과 공적

배한동(裵 漢東)*[1)]

목차

I. 서론
II. 가계와 생애
III. 임진왜란시의 활동
IV. 정유재란시의 활동
V. 장군대한 모함과 신원
VI. 결론

I. 서론

이글은 경상 우수사 신재공 (愼齋公) 배 설(裵楔)(1551 ~1599년) 장군의 임란 전후의 활동과 전투 공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배설 장군은 무과에 급제하여 합천, 진주 등 여러 고을의 수장을 역임하였고, 임란 시에는 두 차례의 경상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다. 장군은 임란 시 육전과 해전에서 어떠한 활동과 역할을 하였을까. 우선 장군의 공적을 살펴보기 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은 1592년 임진년(선조 25년) 4월 14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후 대대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1년 동안 전 국토를 초토화 시킨다. 이에 다급해진 조선은 왕이 의주로 피난하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원군(援軍)을 간절히 요청 한다. 명나라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면 자기 나라의 국방이 위태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조선에 지원군을 파병 한다. 일본은 명의 원군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명나라에 협상을 요구하며 왜군을 일단 조선에서 철수시키기로 한다.

그러나 일본은 재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부산포와 울산 일대에 병력을 배치시킨 후 지연전을 펼친다. 동시에 일본은 전투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나라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전투력을 보강한다. 그 후 일본은 1597년 정유년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보강하여 명과의 협상을 파기한 후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명분으로 조선에 대한 2차 침략인 정유재란(丁酉再亂)을 감행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 두 번의 전란을 합하여 통상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당시 왜적은 공이 살았던 성주 땅까지 점령하여 약탈이 시작되었다. 공은 의병장인 부친인 서암(書巖)을 도와 의병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임란시 해전에서도 배 12척을 구출하여 조선 수군을 살린 혁혁한 공적을 쌓았다. 그러나 공이 모함에 의해 49 세로 생을 마감함으로서 그의 임란시의 훌륭한 공적까지 묻혀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글은 장군의 임란 전후의 행적과 공적을 찾

1) *경북대 명예 교수, 정치학 박사, 전 대한정치학회 회장

아 정확하게 기술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물론 장군은 사후 11년 되던 1610년(광해2년) 임란 공훈 재 책정 시 원종 1등 공신으로 책록(冊錄)되고, 가선대부 호조판서로 증직되었다. 그후 장군은 후대인 유림들의 상소에 의해 1873년(고종10년) 다시 자헌대부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장군의 억울한 사정은 형식면에서는 서원을 통해 풀리고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군의 임란시의 거룩한 활동과 애국충절은 오해되기도 하고 무책임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 글은 그 동안 잘못 기술되거나, 그동안 오도된 장군에 관련된 임란 활동을 보다 바르고 정확하게 기술하는데 집필 목적이 있다.

이글은 한편으로는 임란이 끝난 지 벌써 7주갑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묻혀있는 장군에 관한 임란활동 관련 사료를 새롭게 점검하고 발굴하여 장군의 행적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장군의 묻혀진 활동과 행적은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징비록, 현무공 실기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고증할 것이며, 오늘의 인터넷의 새로운 자료까지 검색하여 보완할 것이며 그동안 잊혀진 업적과 공적은 후손들의 증언을 통해서라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의 이같은 임란시의 활동과 공적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뿐 아니라 충훈록(忠訓錄), 동국사(東國史), 경산지(京山誌), 성산지(星山誌), 한려승남 등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이글은 2장에서 장군의 가계와 49년의 생애를 조명해보고, 제 3장에서는 그의 임란 초기의 의병 전투 활동과 산성 수축 등 주요 업적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상론하려고 한다. 4장에서는 정유재란 시 경상우수사로서 장군의 당시 활동을 추적하여 그 공적을 논의하고 보완하기로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장군이 칠천량 전투에서 왜군의 기습 포위 공격을 받아 작전상 후퇴하면서도 조선 수군을 살린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려고 한다. 5장에서는 장군이 임란 전후의 이 같은 혁혁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패전의 책임과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된 배경과 신원에 의해 장군의 공직이 추증되는 결과 등을 상론하고자 한다. 6장은 결론의 장으로 장군의 임란시의 행적을 통해 학덕과 인품을 평가하기로 한다.

II. 가계와 공직

배설 장군의 활동과 행적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계와 생애를 조명해보기로 한다. 나아가 장군이 경상우군 절도사로 임명되기 전의 여러 공직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장군의 임란 전후의 활동이 주로 공직생활과 함께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1. 가계와 생애

경상우수사 배설(裵楔)(1551~1599)장군은 부친 서암(書巖公) 배덕문(裵德文,贈吏曹判書)선생의 장남으로 태어 나셨다. 자는 중한(仲閑), 호는 신재愼齋), 무당(武堂), 서강(西岡)이며 성산 배씨(星山裵氏) 진사 공파의 17세(世)이다.

공의 선대는 신라의 금산가리부장 지타(祇沱)[2]공을 득시조(得始祖)라고 하고, 고

려 개국 공신 무열공(武烈公) 현경 (玄慶)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다. 고려 삼중 벽상공신 휘 위준(位俊)을 1세 시조로 기세(起世)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8백여 성상 30여 세대를 계대승손(繼代承孫)하고 있다.[3] 5세인 흥안(興安) 부원군(仁慶)을 역임한 인경(仁慶)을 성산(星山) 배씨 득관조(得貫祖)로 모시고 있다.[4]

현손 중 8세 진손(晋孫)은 공조판서이며, 그의 삼남 현(俔)은 진사공파 파조(派祖)이시다. 11세 치(絺)는 수군총병마사이고 청백리로 저명하였으며, 이 분의 아들(萬戶) 윤후(允厚)는 장군의 5대조(五代祖)이시다. 장군의 증조 맹성(孟成)은 부위(副尉)이시며, 조부 주(綢)는 참봉이시고, 부친은 의병장인 서암(書巖) 배덕문(裵德文)선생 이시다. 공의 부친 서암 공은 한성 서윤(漢城庶尹)을 거쳐 여러 고을의 수장을 두루 거치고 낙향하여 후진을 양성하시다 임진왜란 시 의병장으로 활동하여 공적을 세워 사재감정(司宰監正, 정3품)에 승진되고, 선무원종 이등 공신에 책록되고 이조판서로 증직되었다.

공은 1551년(명종 6) 부친 서암(書巖) 공과 모친 선산 백(善山白氏)씨 사이에서 출생하셨다. 공은 4남 1녀 중 장남이며 현 성주군 금수면 광대원에서 출생하셨다. 공은 어려서 부터 용력이 출중하였으며, 국량이 과인(過人)이라고 칭송받았다. 어려서 부친 서암 공이 울산 군수로 부임할 때 장군도 함께 갔었는데 수군좌도 절도사 장필무(張弼武)가 공을 보고, 그 그릇이 범상치 않음을 간파하여 글보다 무예를 우선으로 힘쓸 것을 권고 하였다.[5]

공은 1583년(선조 16) 31세에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하여 1594년 합천 군수직을 시작으로 동래부사, 부산 첨사, 진주 목사,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밀양 부사, 선산부사직을 두루 수행한다. 공은 1597년 경상우도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직을 수행하면서 부산포 해전, 다대포 해전, 칠천량 해전에 참전하게 된다.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밀려오는 왜적에 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이어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장군은 칠흑같이 어두운 칠천량 해전의 위기상황에서도 적의 3중 포위 하에서도 배 12척을 수습하여 조선 수군을 살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승리의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장군은 여러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오랜 해상 생활에서 얻은 수질의 악화로 병가를 신청하게 된다. 난중일기에도 기록되었듯이, 이충무공(李舜臣)은 수질의 악화로 신청한 장군의 병가를 허가하여 병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군의 병세가 악화되어 진영으로 귀환치 않자 정인홍(鄭仁弘)등이 조정에 무고하여 1599(선조32. 기해년, 실록 3월 6일자) 음력 10월 16일 화(禍)를 입고 유명을 달

---

2) 당시 가리촌의 영역은 상, 하서지, 내아 등으로 지금의 감포, 양남, 양북 등이며 서라벌 건국 89년 3대왕 유리이사금 9년(서기32년) 금산가리부는 한지부로 명칭이 바뀌고 6성 중 배씨 성을 하사 받았다.(삼국사기)

3) 성산성주배씨 대종회,『 성산 성주 배씨 대종보(수권)』 대보사, 2012. p.1

4) 흥안(興安)은 성주목(星州牧)의 옛 이름이며, 인경(仁慶)공이 공(功)을 세워 이 지방에 봉(封)해지면서부터 성주 서문(西門)밖에 일가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성주 배씨 금산파 (星山裵氏, 金山派) 정해보(1707 년, 정해년)

5) 서강(西岡)공 배설(裵楔) 수사 신도비문 참조. 서기 1954년 갑오년(甲午年) 6월 일. 서원 정종호(西原鄭宗鎬)씀

리하게 된다. 정유재란의 맹장인 장군은 49세로 생을 마감(선조 32, 1599)하고 고향 땅 주현(酒峴)의 유좌(酉座)의 둔턱에 수장(修葬)되었다. 현재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 수름재에 묘소가 있다. 향사일은 음력 10월 15일이다. 그의 신도비(神道碑)는 근년에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숭조대(崇祖臺)에 3조 육현과 함께 건립되어 있다. 이곳은 찾은 후손들은 오늘도 공의 찬란한 업적을 기리고 있다.

여기에서 장군의 후손들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장군의 배위 야성 송씨(冶城宋氏)는 충순위(忠順衛) 원(源)의 따님이며 후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되었다. 장군은 부인 송씨와 사이에 2남 3녀를 두었다.[6] 장군은 부인 송씨가 돌아가자 병조판서 위(瑋)의 따님인 창원 황씨(昌原黃氏)와 결혼하여 슬하에 2 남을 두었다.

장남인 등암(藤庵)은 장군께서 모함에 의해 비명에 돌아가신 후 그 원한을 학문에만 전념하여 승화하였다. 등암은 평생을 한강(寒岡)과 여헌(旅軒)의 제자로서 절제있는 선비의 법도를 지키면서 생활하여 향내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는 여러 번 벼슬에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처사(處士)로서 생을 마쳤으며 돌아가신 후 사복시정에 증직되었다. 장군의 차남 괘재(愧齋) 상호(尙虎)는 인조 2년(1624) 갑자 식년시(甲子式年試)에서 진사(進士) 2위로 합격하였으나 병으로 요절하였으며 후일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이밖에도 장군의 슬하에는 여주 목사(驪州牧使)가 된 3남 상조(尙藻)와 명천 현령(明川縣令)이 된 4남 상보(尙黼)가 있다.

장군의 장남 상룡(尙龍)이 사재 감정 신인서(愼仁恕)의 따님과 결혼하여 아들 세유(世維)와 승정원 좌승지 세면(世綿) 형제를 두었다. 차남 상호(尙虎)의 아들로는 세안(世安)과 세위(世緯)가 있고, 상조(尙藻)의 아들은 세첨(世襜), 상보(尙黼)의 아들은 세의(世儀)가 있다.

장군의 고손으로는 세유(世維)의 아들 영휘(永徽)와 한휘(翰徽), 경휘(慶徽)가 있으며, 세면(世綿)의 아들인 영휘(永徽)와 중휘(重徽), 석휘(碩徽: 호 謙翁), 용휘(用徽) 및 도휘(度徽) 등이 있다.[7] 이중 석휘(碩徽)는 후일 고조인 배설 장군의 시조를 2편 찾아『가범』에 기록하여 오늘에 전하고 있다.

2. 주요 공직

여기에서는 장군이 무과에 급제한 후 경상도 우도수군 절도사로서 공직 활동을 하기까지의 주요 공직 활동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공은 1583년(선조 16) 31세에 무과(武科) 별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였다. 공의 초기 공직은 변방으로 기용되었는데, 부임지 마다 모두 치적과 명성을 얻었다. 1592년(선조 25)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공은 주부(主簿)[8]로 승진되어 방어사(防禦使) 조경(趙儆)을 따라 남쪽으로 출정하게 되었다. 황간, 추풍 등지에서 격전이 벌어져 조경 군대가 패전하자, 공

6) 장군의 장녀는 생원 박명윤(朴明胤), 차녀는 참봉 송광헌(宋光憲), 3녀는 집의 김즙(金楫)에게 출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7) 서강선생 신도 비문 참조,
8) 주부(主簿)는 조선 시대, 각 아문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육품 관직임

은 향병(鄕兵)을 규합하여 왜적에 대항 하였다. 그 후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이 공을 가장(假將)으로 삼아 적을 치게 하였는데, 이 때 공이 의병장이 된 부친을 도와 용맹히 적진으로 나아가 부상진(扶桑鎭)전투에서 적장 흑전구침(黑甸句沈)의 목을 베었으며, 개산진(開山鎭)에서는 적장 평의지(平義智)를 격파하는 전공을 세우고, 다시 무계진(茂溪陣)까지 출정하여 적을 평정하였다.[9)]

그 후 공은 이러한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어 1594년(선조 27) 초 행재소(行在所: 임금이 임시로 머문 곳)로 부터 합천군수를 제수 받았다.[10)] 왜적이 부산포 일대에서 소란을 피우자 공은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부산 첨사(釜山僉使)를 잠시 거쳐 동래부사(東萊府使)를)로 발령 받는다. 부산첨사 시에는 왜군의 국경왕래를 차단하였으며, 동래부사 시에는 관할구역을 옛날과 같이 평온하게 유지하는 치적을 남겼다.

공은 1594년 가을 진주목사(晉州牧使)에 제수되어 지역민들에게 덕을 베풀고 정사를 바르게 하고 온 고을을 내내 평안케하여 평판이 높았다. 그러나 1594년(선조 28) 왜적의 발호로 남해안 일대가 매우 소란하자 서애 유성룡선생은 공을 경상도 수군절도사로 천거한다. 선조실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11)]

중국에 자문을 보내는 일과 몇 가지 인사 문제를 논하다
"부하(部下)에 발탁할 만 한 자는 없는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곽재우(郭再祐)가 쓸 만한 사람이고, 배설(裵楔)도 우도 병사(右道兵使)로 삼을 만합니다."하였다.

공은 곧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겸부원수(水軍節度使兼副元帥)로 발령 받는다. 장군은 병사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군정을 바로 세워 군의 사기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서애 류성룡(柳成龍)과 완평 이원익(李元翼) 선생이 공을 일컬어 나라의 간성(干城)이라 높이 칭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국의 폐단에 관한 충직한 공의 건의문이 도원수 권율에 의해 문제가 되어 밀양부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그해 다시 선산부사로 전출된다.

선산 부사 부임 후 공은 심혈을 기울여 1596년까지 2년에 걸쳐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수축하였다. 또한 성내에는 9정 7택(九井七澤)을 파서 명실공히 체찰사의 군영으로서 손색이 없게 하였다. 금오산 폭포수 위 큰 바위에 선산부사 배설착금오산성구정칠택 (宣祖善山府使裵楔穿金烏山城九井七澤)이라는 큰 글씨는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산성 수축에 관련 상황은 뒤에서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공은 1597년(선조 30) 선산부사 재임 중 다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서 발령을 받게 된다. 부임과 동시에 공은 3도 수군통제사[12)] 원균의 지휘 아래 7월 초 다대포와 부산

9) 부상진(扶桑鎭)은 성주에서 김천 넘어가는 고개이며, 개산진(開山鎭) 현 김천의 개령을 말한다.
10) 고대일록의 배설 편, 11월 8일 갑자(甲子), 의병 대장 (大將) 김면(金沔)이 장악원정(掌樂院正)이 되었고, 성주 가장(星州假將) 배설(裵楔)은 합천 군수(陜川郡守)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1)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8월 10일(을묘) 2번 째기사
12) 수군통제사는 종이품 외관직의 무관 벼슬. 삼도 통제사 (三道統制使)는 경상, 전라, 충청도의 삼도(三道)의 수군을 통솔한 총사령관이며 현재의 해군 참모 총장 격이다.

포 해전에 참여한다. 그 후 칠천량 전투에도 참여하여 아군이 전멸될 위기에서도 배 12척과 일부 병사를 수습하여 한산도 본영으로 복귀하였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상유 12척(尙有12隻)이라는 명구는 바로 배설(裵楔)장군이 칠천량(漆川梁) 전투에서 확보한 배 12척을 인계받았기 때문이다. 한산도 귀환 후 장군은 청야작적을 성공리에 마쳐 왜적의 한산도 본영 침범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그러나 장군은 오랜 해전의 피로와 선상 생활로 질병이 악화되자 이순신 장군에게 휴가를 신청하고 육지에서 병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장군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수군 영으로 복귀하는 것이 늦어지자 정인홍 등의 모함에 의해 장군은 체포되었다. 장군은 충청도 일대에서 역모를 꾸민다는 모반죄로 몰려 1599년(선조 32) 10월 14일 향년 49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장군은 이처럼 의병 전투를 통한 혁혁한 전공이 있고, 금오산성 구축을 통해 북상하는 왜적을 막고, 칠천량 해전에서의 12척의 전함을 구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비명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어찌 슬프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있으랴.

그러나 공에 대한 모함은 1610년(광해 2년) 신원에 의해 선무원종 1등 공신으로 책록되고 호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다시 유림들의 상소로 고종시에는 2차 신원이 이루어졌다. 공의 임란전후의 혁혁한 활동과 보국충정은 재조명되고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임란 시 공의 주요 공직과 주요 활동과 업적을 정리하여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배설 장군의 공직활동

년대	주요 직책	주요활동	비고
1583선조 16)	무과 별시 급제	변방 방어 활동 주력	
1592(선조25)	주부(主簿)승진, 가장(假將)으로 활동	방어사 조경과 남정, 황간, 추풍령 전투 참전후 향병 규합, 부상진 전투에서 흑전구침(黑甸句沈)제거, 개산 진 전투 평의지(平義智)격퇴	금부채1개, 칼2자루 노획
1594(선조27)	합천군수, 동래부사, 부산 첨사, 진주 목사	의병활동 지원, 해안지역 치안 유지, 주민들에 대한 선정	진주 거사비
1595(선조28)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겸 부원수(水軍節度使兼副元帥), 밀양부사	좌수영 군기 확립, 군사 사기 함양, 조정에 시국 건의문 상신	
1596(선조29)	선사 부사겸 금오산 별장	금오 산성 수축, 9정 7택, 혜창 건립, 의병활동 지원	금오산성 사적비 참조
1597(선조30)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부산포 왜선 8척 전소, 다대포 전투 참전, 칠천포 전투에서 전선 12척 구함, 청야 작전 성공, 거북선 건조	수질 악화로 요양 신청

1599(선조31)	병가에 의한 휴양 중	모함에 의한 수배와 처벌	
1610(광해 2)	1차 신원	선무 원종1등 공신 책록, 가선대부호조참판	
1873(고종10)	2차 신원 (유림)	자헌대부 병조판서 증직	

III. 장군의 임진왜란시의 활동

신재 배설공은 1583년(선조16) 무과(武科) 별시에서 호방(虎榜)에 급제하여 변방에서 공직을 시작하였다. 그는 의병장인 부친을 도와 의병 전투에서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앞서 본바와 같이 공이 의병전투에서 세운 혁혁한 공적을 인정받아 횡재소로 부터 합천군수직을 제수 받았다. 공은 합천 군수를 시작으로 부산 첨사, 동래 부사, 진주 목사, 선산 부사 등 여러 고을의 수장을 두루 거쳐 두 차례나 경상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된다. 공의 임란 시 활동 중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하기전의 활동을 중심으로 공적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왜적의 북진을 막은 용감한 의병 활동

공은 1583년(선조16) 무과에 급제한 후 주부(主簿)[13]로 승진되었다. 1592년(선조25)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방어사(防禦使) 조경(趙儆)을 따라 남정(南征)에 나섰다. 북상하는 왜적을 막기 위하여 황간, 추풍령 등지의 격전에서 관군이 패하자, 공은 향병(鄕兵)을 규합하여 왜적에 끝까지 대항하여 기이한 전공을 많이 세웠다.[14]

임진란이 나던 그해 초유사(超諭使) [15]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은 공의 전과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임시 장수인 가장(假將)으로 삼아 적을 치게 하였다. 공은 당시 의병장 김면(金沔)에 요청에 의해 부상현(扶桑鎭))에 복병을 배치하여 개령(開寧)에서 북상하는 왜적의 응원군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1592년 공은 용맹스럽게 나아가 부상진(扶桑鎭)전투에서 부친 서암 공을 도와 적장 흑전구침(黑甸句沈)의 목을 베었으며, 개산진(開山鎭)에서는 적장 평의지(平義智)를 격파하였다.[16] 다시 무계(茂溪)에서도 동생 건(楗),과 함께 왜적을 격퇴시키는 공적을 쌓았다.[17]

---

13) 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의 낭관(郞官)벼슬를 말함
14) 정만진 http://blog.naver.com/clean053 '배설 장군은 어찌되었나' 인터넷 글 재인용, 단국대 진동혁 교수의 논문에도 조경군대가 (왜군에) 패하자 장군은 향병(鄕兵: 중앙 관군이 아닌 의병이나 지방의 병사)을 창솔(倉率))하여 기이한 공을 크게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음,
15) 초유사(超諭使)는 난리가 일어났을 때, 백성을 타일러 경계하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벼슬
16) 부상진(扶桑鎭)은 현 성주군초전면과 김천시 감천면의 경계지점임.

이처럼 공은 일찍 부터 의병 대장인 부친과 동생 건(楗), 즙(楫)과 함께 여러 의병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워 주위로 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공은 그 공로가 인정되어 임란 시 임금이 임시로 머문 행재소(行在所)에서 1594년 합천 군수 직을 제수받게 된다. 이처럼 공은 공직 초반부터 왜적의 부상을 막는 의병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많은 공적을 세운 것이다. 특히 부자가 함께한 의병 전투에서 보인 그의 투혼은 임란 사에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가치가 있으며 공의 뛰어난 전술과 용맹은 후일 두 차례나 경상도 수군절도사가 될 자질을 보여주었다. 공은 직접 협동전투를 요청한 여남현 전투에서 동생 건(楗)공을 잃었다. 동생의 전사 소식을 들은 공은 보국충정의 일념으로 더욱 왜적 소탕에 앞장서기를 맹세하였다.

2. 경상우수사의 부임을 가로 막은 진주 주민들

공은 1594년(선조27) 가을 진주 목사로 전근하여 더욱 임무에 충실하였다. 공은 정사를 바르게 펼치고 주민들에게 덕을 베풀어 지역민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 당시의 상황은 왜적이 경상좌우도를 점령할 정도로 급박하였다. 공은 진주 목사직을 수행 중 1595년(선조28)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겸부원수(水軍節度使兼副元帥)로 발령을 받게 된다. 공은 당시 경상우수사 원균이 다대포 해전의 참패로 탄핵당해 충청절도사로 전임 후 갑자기 경상좌수영을 이어 받게 된 것이다.

공이 수사 발령을 받아 임지로 향할 때 진주 지역민들은 재임 중 베푼 공의 선정을 아쉬워하면서 그의 부임길을 가로 막았다. 공의 부임이 늦어져 대책을 논의하는 장면이 선조실록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실록에는 수사 교체에 관한 선전관(宣傳官) 조광익(趙光翼)의 비변사에 보고한 내용이 이를 잘 입증한다.[18)]

“진주(晉州)의 백성들이 배설(裴楔)이 떠나는 것을 막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여 온 경내의 노인과 어린애들이 떼를 지어 에워싸고 지키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배설이 아직도 부임하지 못했다.’

뒤이어 윤선각이 아뢰는 내용도 실록에는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19)],

“선전관 조광익(趙光翼)이 도원수의 처소에서 와서 말하기를
‘배설이 부임하려고 하는데 진주 백성들이 길을 막고 더 머물러 주기를 원하여 성을 나가지 못하게 하니, 도원수도 난처하게 생각하여 선거이로 하여금 막하에 와서 있게 하려고 한다.’
또한 김응남이 아뢰기를, “배설은 이미 수사(水使)가 되었으니 즉시 부임해야 할 것인데, 백성들에게 차단당하여 성을 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같은 말이 조정에 들리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17) 서강 선생 신도 비문 및 구미 향토사 참조
18) 선조 6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4일(정미) 3번 째 기사
19) 선조 6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6일(기유) 1번 째 기사

연이어 실록에는 배설의 부임을 위한 체찰사 파견을 왕에게 건의하는 장면이 소개된다. 20)

“배설(裵楔)이 어찌 백성들에게 만류당하여 부임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하자, 이헌국은 아뢰기를, “도원수는 대궐 밖을 전제해야 하는데 임기응변하는 일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매양 품명(稟命)하는 것으로 규칙을 삼으니, 남쪽 지방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체찰사를 반드시 내려 보내서 진압하게 하고 모든 일도 재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은 이처럼 진주 목사로 재임 중 짧은 기간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민들을 보살피고 선정을 베풀어, 온 고을이 내내 평안케 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멸사봉공의 직무수행를 수행한 공의 치적을 평가할 수 있는 사료이다. 후일 진주 지역민들은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공의 업적을 오래도록 기렸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공은 경상 좌수사로 부임 후 군정을 바로 잡고 창고를 헐어 군병에게 급식하고 함선과 병기를 수리하며 전투에 대비하고, 수군영의 깃발을 교체하여 장졸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서애 류성룡(柳成龍)과 완평 이원익(李元翼)선생[21]은 장군을 ‘나라의 간성(干城)’이라고 높이 칭찬 하였다. 공은 병사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관할 지역의 안정을 회복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은 당시 시국의 폐단을 들어 상소한 것이 도원수 권율의 눈에 거슬려 밀양 부사로 좌천하게 된다.

3. 도체찰사 본영이 되게 한 금오산성 수축(修築)

서기 1595년 (선조28) 당시 영의정 이원익은 밀양부사였던 공을 선산부사로 전보하였다. 당시 남방과 북방의 위급한 형세에 대한 비변사의 대책 논의에서도 당시 금오산성의 수축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선조실록은 전하고 있다.[22]

“...선산 부사(善山府使) 김윤국(金潤國)은 오졸한 서생(書生)이어서 일을 초창하여 경영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니, 어쩔 수 없다면 배설(裵楔)에게 전적으로 맡겨 조치하게 하여야 거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 곳의 일을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체찰사에게 물어서 그 회보를 기다린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배설(裵楔)에게 전적으로 맡겨 조치하게 하여야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공이 선산부사로 발탁되고 금오산성 수축의 대장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동강(東岡) 김우옹[23]의 추천이 있었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다.

---

20) 선조 6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 2월 8일(신해) 6번 째기사, 《주역》을 강하고, 낙동강의 방어·기복의 제한 등의 일을 논의하다

21) 이원익은(李元翼)은 1592년 임진왜란 시 평안도순찰사가 되어 왕의 피란길을 선도하고, 1593년에 이여송(李如松)과 합세하여 평양을 탈환한 공으로 숭정대부가 되었으며, 1595년에는 우의정 겸 도체찰사에 임명되고 그후 명나라에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로 다녀와 영의정이 되었다.

22) 선조 66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8월 5일(을사) 1번 째 기사

23) 선조실록 29년 (1596. 병신, 만력 24) 2월16일(계축), 동강 김우옹은 삼척부사를 지낸 칠봉 김희삼(七峰 金希參)의 넷째 아들이며 대가면 칠봉 동 사도실(思道谷)에서 태어나 과거에 합격하여 당시 이

이조판서 김우옹이 시무를 논하면서, '만약에 별도로 대장을 두어 융무(戎務)를 총괄하게 한다면, 곽재우, 박진, 배설(裵楔)같은 사람이 적임자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결국 공은 밀양부사에서 선산부사(善山府使)로 전임하여 금오산별장(金烏山別將)직까지 겸직하여 중요한 방어진지인 금오산성 산성 수축을 서두르게 되었다.
또한 선조실록에는 유성룡이 고향에서 노모를 만나고 돌아와 영남의 정세를 묻자, 금오산성은 배설(裵楔)공이 성을 수축하고 있다는 보고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24]

유성룡이 노모를 만나고 돌아오자 영남의 정세를 묻고 여러 가지 정사를 논의하다
"체찰사가 성주(星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던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체찰사의 명령으로 공산 산성(公山山城)을 수축하니 영남 사람들이 모두 공산 산성에 들어가 계획을 펴며, 근일에는 모두 '천생 산성(天生山城)을 수축하면 거기에 들어가 웅거할 만하다.'고 하므로 배설(裵楔)로 하여금 이 성(금오산성)을 수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중국 장수들이 늘 '이 성을 수축함이 옳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금오산성의 수축과 수성에 관한 임금의 질문과 도체찰사 이원익의 답변과정에서도 장군의 역할은 실록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당시 도체찰사는 왜적의 방비책·기인·방납 등을 책임진 사람이다.

선조께서 "성주 산성(星州山城)은 수축(修築)하여 지키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수축했어도 성 모양이 좋지 않고 ..... 선산(善山)의 금오 산성(金烏山城)은 선산의 수령(守令)인 배설(裵楔)을 장수로 정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25]

이처럼 공은 선산 부사직을 수행하면서 1595년 금오 산성(金烏山城) 중수를 시작하여 1596년에 걸쳐 공사를 완공하였다. 공은 금오산성의 진지를 증축하였을 뿐 아니라 성내에 구정칠택(九井七澤)을 파서 안정적인 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곡식과 무기를 보관하는 혜창(惠倉)까지 설치하였다.[26] 이처럼 공은 허물어진 산성을 증축하여 도체찰사(都體察使)[27]의 전략본영이 되게 하였다. 이는 왜군의 북진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진 2. 금오산성과 금오산성 사적비

조 판서 직까지 오르고 1603년(선조 36년) 11월 향년 64 세로 졸하였다.
24) 선조 74권,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2일(무술) 1번 째 기사
25) 선조 82권,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1월 17일(기유) 2번 째 기사, 금오산성의 중요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29권(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참조
26) 구정칠택은 (九井七澤)은 아홉 개의 우물이며 군사의 식수용으로, 일곱 개의 못은 말의 음용수 등 다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7) 조선 시대, 왕명으로 할당된 지역에 파견되어 군정(軍政)과 민정(民政)을 총괄하던 전쟁 시의 임시직. 정일품(正一品)으로, 한 개 이상의 도를 맡았으며 휘하에 종사관(從事官)을 두었다.



그 후 금오산성은 조선시대에도 몇 차례 개축되어 오늘날도 산성의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공의 이러한 금오산성의 공적을 여대노(呂大老)공은 '평일에 공을 간 성의 재주 같다고 보았더니 금오산위에 또 하나의 장성(長城)을 쌓아 2중의 요쇄를 구축하였으니, 어찌 진백이(秦百二)와 같을 뿐인가'[28]라고 하였다. 이어서 대노공은 그의 공적을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청풍이 갑옷에 스며들어 심중(心中)의 무지개는 반공(半空)에 가로 질렀다"고 극찬하였다. [29]

이 처럼 공이 수축한 금오산성은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전략 본영이 되어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 시에는 왜군의 북진을 막는데 크게 기여하고, 임란 7년을 종식시키고 경상도의 군사 본영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였다. .

오늘날도 금오산 폭포수 위 도성 굴로 오르는 오른쪽 길옆 바위에는 금동병신(金洞丙申(1595년) 선산부사 배설(善山府使 裵楔)축금오성북공사(竺金烏城北共士) 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다. 금오산성의 기념각에도 선조 병신년 선산부사 배설천금오산성구정칠택<宣祖善山府使裵楔 穿金烏山城九井七澤>이라는 글씨기 현판에 보존되어 있다.

현재의 금오산성 사적비는 1991년 공의 12대 손 배기훈(裵基薰)의 후원으로 구미시장 양종득(梁鍾得)이 선산 부사 배설 장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이 비의 글은 김규련이 글을 짓고(撰)하고, 금인석이 글씨를 썼다.(書). 오늘도 1970년 6월 우리나라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오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산성을 둘러보고, 공의 당시의 공적을 찬탄하고 있다.

---

28) 진백이는 진(秦)나라 애공(哀公)을 말함. 주(周)나라 초에 진(秦)나라 군주는 작위가 백(伯)]이었음, 서강 선생 신도 비문 참조

29) 서강선생 신도비문, 정종호 찬 1920년

사진 3. **금오산 폭포위의 큰 글씨 (1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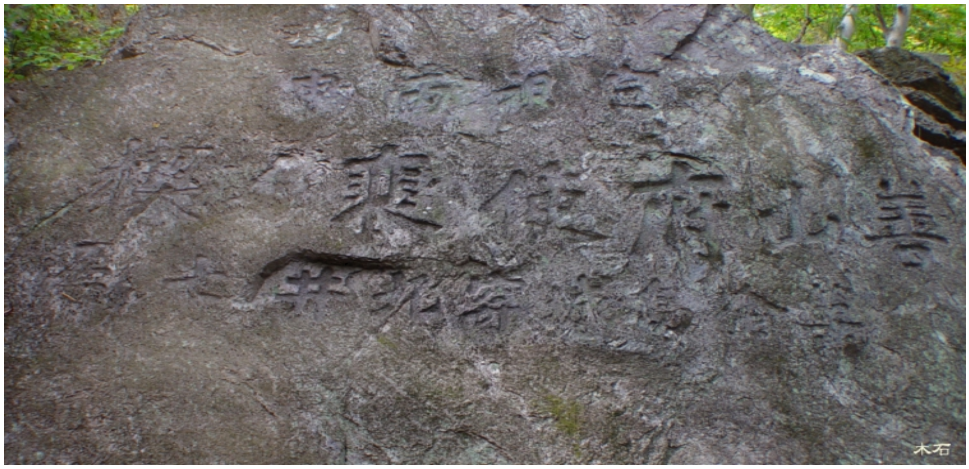


사진 4. 금오산상 사적비 정면 (1991년)
(소재지 :경북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내(內)



IV. 정유재란시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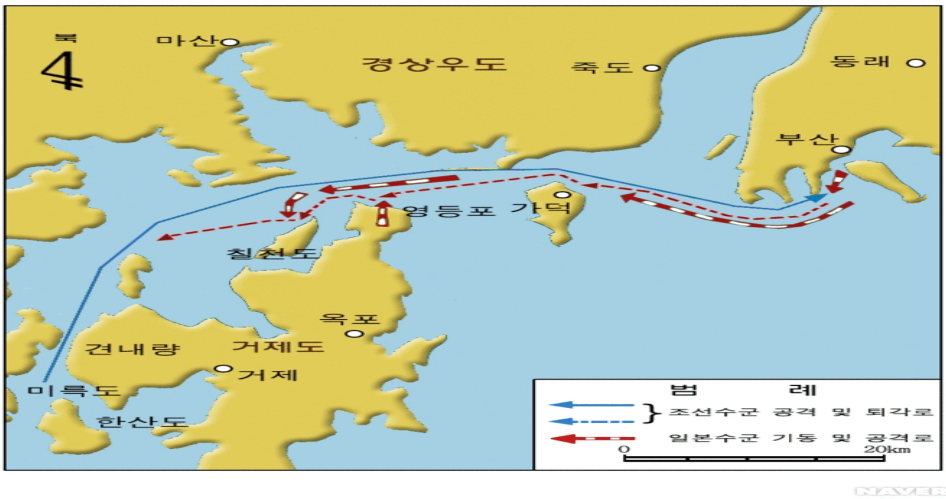
정유재란은 일본이 1597년 전열을 재정비하여 선단 600여척과 14만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부산포를 침범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3도 수군통제사인 이순신은 파직되고 1597년 2월26일 한산도 본영에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30] 일본의 재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조정은 원균(元均)을 삼도 수군통제사로 배설 장군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임명한다. 공이 과거 부산 첨사와 동래부사의 공직경험이 있어 부산포와 다대포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장군이 1957년 7월 정유년 부산포 해전을 시작으로 다대포 해전, 칠천량 해전을 거쳐 한산도 본영으로 귀환하기까지의 활동 상황과 공적을 기술하고자 한다.

30) 이순신은 조정을 속인 죄, 적을 두고 잡지 않았다고 나라를 저버린 죄, 남의 공로를 빼앗고 남을 죄에 빠뜨린 죄명으로 사형에 처해질수 있으나 이원익과 정탁 등의 구명 운동으로 곧 백의종군을 한다.

당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 수군통제사 원균 , 전라 우수사 이억기, 충청병사 최호(崔湖)와 함께 출전했던 당시의 출전 상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정유재란 시 공의 출전 지도



1. 부산포 전투와 왜선 8척 전소

부산포해전은 당시 조정과 도원수[31] 권율 장군의 성화에 못 이겨 원균이 무리하게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한 불가피 전투였다. 당시 삼도 수군통제사 원균 장군은 한산도에서 1차 출정하기 전 왜적이 진주한 안골포부터 육지에서 공격해야 한다고 장계(狀啓)[32]를 올렸다. 그러나 당시 조정과 권율과 군사 지휘 계통은 현지 사정도 모르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고 참전을 독촉하였다. 당시 도원수 권율은 수군통제사 원균의 장계의 부당함과 조정의 지시를 어긴 죄를 들어 원균을 형틀에 묶고 곤장 50대를 때린 사건이 있었다.

이에 수군통제사인 원균은 감정이 몹시 상하지만 무모한 전투임을 알면서도 참전을 결심하게 된다. 당시 원균 장군은 1597년 6월 18일 조선 수군을 한산도 본영에서 부산포 앞바다로 출범하도록 명령한다. 그는 배설 경상우수사도 수백 척의 전함을 거느리고 공격하도록 명령한다. 배설 장군은 부산포 해전의 선봉장으로서 휘하 장병들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부산포와 다대포의 왜적을 격파할 것을 하늘과 조선 조정에 맹서 하였다.

1597년 6월 26일 선조실록에는 조선 수군을 4개부대로 편성하여 왜적에 대항하여 해전에 임하도록 한 기록이 아래와 같이 소개되고 있다. [33]

---

31) 도원수는 고려와 조선시대 전시(戰時)에 군대를 통할한 임시 무관직이며 고려 이후 내외의 전쟁 때 대개 문신의 최고 관을 도원수로 임명하였으며, 도원수는 정 2품이고 삼도 수군통제사는 종2품이다.
32) 장계(狀啓)는 조선시대 관찰사·병사·수사 등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를 말함(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33) 선조 89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6월 26일(을유) 6번째 기사

“비록 우리나라 수군이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낱낱이 소탕해 막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선박을 합쳐 몇 개부대로 나누되 배설(裵楔)은 경상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이억기(李億祺)는 전라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며, 최호(崔湖)는 충청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원균(元均)은 그가 거느린 선박으로 일개 부대를 만듦으로써 한산도를 굳게 지켜 근본을 삼고 부대별로 교대로 해상에 나가 서로 관측하게 해야 합니다.”

1597년(정유년) 7월7일 원균 장군과 경상우수사인 장군은 한산도에서 견내량을 지나 칠천도, 영등포, 가덕도를 거쳐 다대포(多大浦) 앞 바다에 이른다. 당시 부산에 정박중이던 왜선 600여 척은 웅천을 거쳐 가덕도로 향하려 하였다. 이때 선봉장인 공은 왜선 8척이 다대포 앞 바다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놓치지 않고 용감히 선제공격을 단행하였다. 왜군들은 조선 함대가 갑자기 공격해 오자 전선을 버리고 산으로 일시적으로 퇴각하였다. 공은 이 전투에서 왜선 8척을 모조리 소각시키고 군량미까지 많이 노획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아군은 초기에는 선전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왜군의 위장 전술과 기만전술에 말려 패하고 만다. 결국 부산포 해전에서는 악천후까지 겹쳐 패한 후 원균, 배설, 이억기, 최호 장군은 남은 장병들을 거느리고 간신히 안전한 곳으로 복귀하였다. 이 전투에서 우리 수군은 수백 명의 병사가 전사하고, 군량미 200석, 전선 13척을 잃었다고 기록되고 있다.[34)]

그러나 원균은 다시 2차 부산포 해전을 결심하게 된다. 출전에 앞선 작전회의에서 배설 장군은 ‘다천(茶川)은 수심이 얕아 싸움에 불리하고 싸우면 패할 확률이 크다’고 건의 하였으나 원수(元帥) 원균은 이를 묵살하고 밤중에 무리한 진군 령을 내린다. 그 결과는 싸워 보지도 못하고 이 전투는 또다시 패배로 이어졌다.[35)] 이에 원균 장군은 급히 함대를 수습하여 아군의 진지가 있는 칠전도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왜적의 매복 작전에 걸려 20척의 전선이 파괴 되고 400여명의 수군이 전사 하였다. 이 전투에서도 조선 수군은 제대로 왜군과 전투도 하지 못하고 많은 병력과 물자를 잃어 전투 손실을 초래하여 또 다시 수군통제사 원균의 명예는 여지없이 실추 되었다.

2. 칠천량(漆川梁) 전투와 전선 12척 수습

1597년 7월 14일 가덕도를 지나 영등포를 거쳐 칠천도(漆川島)[36)]에 도착한 원균 장군과 예하 지휘관들은 밤을 새며 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원균 장군은 여러 장수를 소집하여 부산포 해전의 패배를 칠천량 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때 원균도 내심으로는 전황이 불리하여 전투할 의사가 없었지만 권율의 명령을

34) 난중일기 정유년 7월 16일자, 살아서 탈출한 세남이라는 종의 진술에 의함
35) 서강 선생 신도비 문 참조 , 정종식 찬
36) 칠천도(漆川島)는 경남거제시 하정면 연구리에 있는 작은 섬

또다시 어길 수 없어 입장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 작전회의에서 경상 우수사 배설 장군은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칠천도는 물이 얕고 협착(狹窄)해서 배를 운행하기가 불편하니 함대를 한산도로 옮겨 진을 치자”고 제안 했으나 원균(元均)은 듣지 않고 전투를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37)]

당시 우리 수군과 왜적의 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 수군은 1만5천여 명 남아 있었으며 배는 판옥선 120여척과 협선130여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왜군은 약 14만 여명이 부산으로 입항하여 남해안 일대에 분산 배치되었으며, 600여척의 대 선단을 보유하여 군사의 사기는 충만하였다. 그에 반해 조선 수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으며, 수군통제사 원균 장군까지 도원수 권율의 곤장 사건과 부산포 해전의 두 차례 실패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그림6. 칠천량 해전 상황도



장군의 예상과 같이 압도적 다수의 왜 수군은 칠천량 전투에서 조선군을 3중으로 포위하고 무차별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왜적 대 선단은 7월 15일 비가 내리는 새벽어둠을 이용하여 원균의 주력부대를 집중적으로 총 공격하였다. 왜군의 대포소리와 조총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선봉장인 배설 장군은 전투 초기에는 지략과 용맹으로 왜적에 강력히 대항하였으나, 전세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처음부터 불리한 이 무모한 전투에서 애석하게도 원균 통제사, 전라 우수사 이억기, 충청 병사 최호 역시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나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의 상황은 수군 패배에 관한 선전관 김식(金埴)이 왕에게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선조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38)]

원균이 지휘한 수군의 패배에 대한 대책을 비변사 당상들과 논의하다

“원균은 처음부터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남이공의 말을 들으면 배설도 ‘비록 군법에 의하여

37) 유성룡(柳成龍), 징비록(懲毖錄) 국보(國寶) 132호(号) 이 재호 옮김, p. 293
38) 선조실록 90권, 선조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2일(신해) 2번째 기사

나 홀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군졸들을 어떻게 사지에 들여보내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대체로 모든 일은 사세를 살펴보고 시행하되 요해처(지세가 자기편에게는 유리하고, 적에게는 불리한 곳)는 고수해야 옳은 것이다. 이번 일은 도원수(권율)가 원균을 독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배가 있게 된 것이다."

이 기록은 당시 이 칠천량 전투가 조정에서도 도원수 권율이 원균을 독촉하여 무모하게 감행되어 작전상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배설 장군의 칠천량 전투의 부당함을 항의한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다.

당시 칠천량 해전의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배설 장군 중심으로 재현해 본다. 당시 배설 장군은 왜군의 야간기습 공격이 개시되자 치열하게 전투에 임하였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장군은 "조선 수군을 살려야 한다. 한산 본영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서 전술상의 후퇴를 결심하게 이른다. 장군은 비겁한 후퇴보다는 죽음을 각오했지만 당일 새벽까지 추격해 오는 왜선의 공격을 차단하기는 어려웠다. 장군은 무모한 전투에서 배와 수군이 전멸하기 보다는 그가 거느린 전력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장군은 왜적의 포위망을 뚫고 구사일생으로 한산도 본영으로 복귀하였다. 장군의 이러한 작전상의 후퇴를 일부 문건에서는 패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전황이나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기이다.

결국 장군은 왜군의 포위망을 과감히 돌파하여 전선 12척과 조선 수군 120명을 살려서 한산 본영으로 복귀하였다.[39] 장군은 적의 끈질긴 공격을 받으면서도 여명을 이용하여 한산 본영으로 후퇴하였다. 그것은 장군이 매일 훈련하던 곳이라 칠천도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은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붉게 타오르며 침몰하는 조선의 전선을 보면서, 깊은 바다 속으로 붉은 피를 흘리며 수장되어 가는 수군을 바라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장군이 원균과 함께 참전한 칠천량전투의 참담한 모습은 당시 현지에 갔던 비변사의 보고서에도 아군의 피해 상황과 함께 소상히 기록되고 있다. [40]

선전관 김식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다

"15일 밤 2경에 왜선 5~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고 .... 우리의 주사(舟師)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 지역 추원포(秋原浦)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옥포(玉浦)·안골(安骨)의 만호(萬戶)[41]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전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

39) 위키 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배설 편'
40)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2일(신해) 2번 째기사
41) 만호는 조선 시대, 각 도의 여러 진(鎭)에 배치되어 만 가구를 관할하던 종사품의 무관 벼슬

당시 조선 수군 요충인 칠천량 전투의 패배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전투이다. 그러나 공이 칠천 량 해전에서 수습한 전선 12척과 병사 120명은 이순신 장군에게 그대로 인계되었다.[42]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 신에게는 아직 배 열두 척이 남아 있으니 죽을힘을 다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今臣戰船尙有十二 出死力拒戰則猶可爲也)라는 유명한 명구는 바로 공이 칠천량 전투에서 구해낸 배 12척임은 이미 밝혀져 있다. 만약 장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한척의 전선도 구하지 못한 채 원균과 함께 전사하고, 한산도 본영이 왜군의 수중에 넘어갔다면 임란의 전쟁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 배 12척과 군사는 이 순신장군의 명량해전의 승리의 초석이 되었음은 여러 문헌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공의 칠천량 전투에서 전술적 후퇴는 조선수군을 살렸다고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공은 한산도로 귀환한 후 한산도본영을 공격하려는 왜적에 대비하여 신속히 청야작전(淸野作戰)을 지휘하였다.[43] 청야작전은 선조가 왜군의 재침략에 대비하여 군사 지휘관에게 내린 일종의 작전 명령이다. 공은 군사시설 및 양곡·군기와 군용자재를 불태우고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킨 후 회룡포로 철수하였다. 이 철수 과정에서 배설 장군은 노량진 앞바다에서 조방장인 아우 즙(楫)까지 잃게 되어 더욱 실의에 빠졌다. 장군은 패전의 회한과 동생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3. 장작귀선(粧作龜船) 건조

거북선은 귀선(龜船)이라고도 불리며 왜구의 격퇴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장갑선(裝甲船)의 일종이다. 거북선은 판옥선에 비해 철갑선으로 실용화 되어 임진왜란 시 전투함(戰鬪艦)으로 해전에서 함대의 선봉이 되어 돌격선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중 해전에서는 주로 판옥선(板屋船)이 사용되었으며 옥포해전·당포해전·한산해전·부산해전 등 주요해전에 동원된 군선 중에는 소수의 거북선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거북선은 이순신(李舜臣)장군에 의하여 창제된 창제귀선(創製龜船)이라고 알려지고 명랑노량해전에서 활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시의 상당한 전과를 거둔 거북선의 제원(諸元)이나 제작에 과정에 관해서 전해지는 것이 없다.[44] 또한 장작귀선(粧作龜船)이라고도 불리는 거북선에 관해서는 그 제작자와 제원 등 기술적인 전승은 이루어 지지 않아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다.

1595년 왕조실록에는 비변사에서 건의하기를 "거북선이야말로 해전에서의 승리에

---

42)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배설 편'
원문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배설_(조선)&oldid=9767516"

43) 청야전술(淸野戰術)은 왜적이 침범 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농작물이나 건물 등 지상에 있는 것들을 말끔히 없애는 일종의 군사작전이며 전술의 일종이다.

4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6004&cid=1608&categoryId=1608,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요긴한 것이고 적이 가장 꺼리는 것이라고 보고하며 경상도와 전라도의 방어를 위해 거북선의 제조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45] 이를 미루어 보아 1595년과 1597년 두 차례 경상 좌도와 우도 수군통제사로 발령받은 배설 장군이 당시의 거북선의 제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로인해 거북선은 배설 장군이 제작했다는 주장이 오래 전 부터 제기되었다.[46] 송인호는 현무공 실록(顯武公實錄)을 토대로 '배설 경상우수사가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억추 장군(金億秋將軍)의 현무공 실록에도 이 같은 사실이 기록 보존되어 있다.[47]

"전라수사(全羅水使) 현무공 김억추(金億秋) 장군(將軍)이 말한 장작귀선(粧作龜船)을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배설장군(裵楔將軍)이 만들어 이것을 이 순신이 1597년(年) 9월(月) 16일 명량해전에서 사용하여 전승신화(戰勝神話)를 남겼다"

이 같이 현무공 실록에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鳴梁海戰)에서 승리한 것은 배설 장군이 만든 거북선과 전라우수사 김억추 장군이 진도 해남 간 쇠사슬을 만들어 포구(浦口) 앞 바다를 가로 매어 왜선을 전복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8]

V. 장군에 대한 모함과 신원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임진왜란 시 장군은 혁혁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1599년 선조 30 년 향년 49세로 모함에 의해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 그러나 장군의 억울한 죽음은 서거한지 11년 후인 1610 광해 2년에 신원설치(伸寃雪恥)되었다. 장군은 선무원종 1등 공신으로 공훈 록에 책록되고, 호조 판서의 공직이 증직되었다.[49]
본장에서는 시 장군이 수질 악화로 요양신청을 하고, 모함에 의해 처벌되는 과정과 신원되는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군의 행적을 다시 조명해 보기로 한다.

1. 수질 악화 따른 요양 신청과 허가

앞서 본바와 같이 장군은 1597년 정유재란 시 부산포와 다대포 해전에 이은 칠천량 해전에 참전하게 된다. 장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한산도로 구사일생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오랜 해상 생활과 겹친 전투로 인한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고 수질(水疾)까지 악화되었다.

여기에서 칠천량 해전 후의 수군진영의 혼란한 상황을 살펴보자. 당시의 이순신장

45) 선조실록, 60 권 선조 28년 (1595, 을미년)
46) 송인호 편저, 『임란대장군(壬亂大將軍) 원균통제사(元均統制使)』 / 상권(上卷)임란사상(壬亂史上) 처음 실록 270 여 곳 발췌 분석 주와 임란 사록 . 개벽 공론사, 1995 표지 글, pp.78-79.
47) 현무공실록(顯武公實錄)1597년(年) 9월(月) 16일(日). 현무공은 김억추 장군이며 칠천량 전투에서 전사한 이억기 장군의 후임 전라 우수사로 특명을 받고 전공을 많이 세움.
48) 송인호 편저, 앞의 책 p. 258
49) 정만진, http://blog.naver.com/clean053 배설 장군은 어찌되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참조

군은 명령 불복종 등으로 파직되어 백의종군하는 입장이었으며, 배설장군은 잔류 조선 수군을 지휘하는 경상우수사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장군은 칠천량 전투의 패전 후 어느 날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칠천량 전투에 대한 패전 정보 수집 활동 등에 같은 장수로서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난중일기에는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난중일기 7월 21일(양력 9월2일)자에는 이 순신 장군이 노량에 이르니 거제 현령 안위, 영등포 만호 조계종 등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경상수사(배설)는 도망가 보이지 않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7월22일(양력 9월3일) 에는 "경상수사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의 패망하던 일을 많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난중일기에는 장군이 도망을 했다고 기록했다가 또 다음날 일기에는 공이 이순신에게 전투 상황을 보고했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런 정황에서 장군의 숙배 거부 사건이 발생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순신이 정식 수군통제사로 복직하게 되었으니 장군은 왕의 교서에 숙배하지 않았던 것이다. 난중일기 정유년 8월 19일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50] 여기에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불손한 태도에 대해 이순신 장군의 불편한 심기가 잘 드러나 있다.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는데 경상수사 배설은 숙배하지 않았다. 그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는 꼴을 말로 다 나타 낼 수 없다. 너무 놀랍다. 이방과 그 영리에게 곤장을 쳤다."

당시의 장군의 숙배 거부의 정황과 배경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1597년 당시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인(罪人)의 몸으로 백의종군하게 된다. 그러나 원균장군의 전사(戰死)로 이순신은 권율장군(權慄將軍)의 명령으로 임시 수군통제사가 되었다. 또한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수군통제사로 복권시키는 대신 품계를 내려 조선 수군의 지휘 체계의 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다.[51] 당시 이순신 장군은 배설 장군뿐 아니라 전라우수사 김억추 장군과도 상당한 감정상의 충돌이 있었다. 이처럼 장군의 교서 숙배 거부는 후일 이 순신 장군이 배설 장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로서는 숙배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후일 도원수 권율에게 장군을 급히 체포할 것을 명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명랑해전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함으로서 선조는 두 달 후(後)인 11월 16일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에게 면사첩(免死帖)을 내렸다.

이러한 정황에서 배설 장군은 수질이 악화되자 이순신 장군에게 종을 보내 요양 신청을 하게 된다. 이점도 이 순신 장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난중일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52]

---

50) 난중일기, 1597년 정유년 8월19일 (양력 9월29일)

51) 삼도 수군통제사인 이순신이 파직당할 당시 계급은 정헌대부 정2품이었으나 복권 시에는 정3품의 계급이 부여되었다. 그로인해 이순신이 수군을 지휘하였지만 경상 전라 정 3품의 수군통제사들은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배설이 제 종을 시켜서 소지(:자신의 뜻을 밝힌 글)를 냈는데 병세가 몹시 중해서 조리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공의 병가를 허가했음을 재차 난중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53)

“ … 배설이 제 종[奴]을 시켜 솟장을 냈는데, 세가 몹시 중하여 몸조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몸조리를 하고 오라고 공문을 써 보냈더니 배설은 우수영에서 뭍으로 내렸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장군이 정식으로 신병치료를 위해 휴양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순신이 허락하여 육지로 내렸음은 분명하다.

일기는 개인의 감정과 회한 등이 뒤엉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일기는 사료로서의 객관적인 가치를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군과 같이 비명에 간자는 말이 없으니 일기는 아직도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량 대첩의 승리는 더욱 이순신을 영웅화하게 되고 그러한 정황에서 역사는 승자 편에 서기 마련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장군의 처벌은 숙배거부로 인한 불손함, 당시 선조의 인사 정책의 혼란, 장군의 수질악화로 인한 미복귀와 함께 장군에 관한모함 등이 더해져 작용한 결과이다.

2. 패전의 책임과 모반죄

임진왜란시 조정은 왜군 침략에 대비한 방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초기부터 패전을 거듭한다. 당시 조정에서는 부산포와 다대포 해전에서의 참패에 대한 책임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실록에는 패전 후의 상황에서도 배설 장군이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 54)

원균을 비롯하여 패주한 장수들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중론을 참고해 보니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사한 자는 조방장 김완(金浣)뿐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에게 모두 군법을 시행할 수 없다 해도 원균(元均)은 주장(主將)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조방장 배흥립(裵興立) 두 장수는 제장의 우두머리였으니 배흥립에게는 우선 군령을 시행하고, 배설은 지금 병선을 이끌고 바다에 있으므로 이 사람까지 제거하면 해로(海路)가 모두 비게 될 것이니 우선 뒷날을 기다려 논의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

52) 난중일기, 1597년 정유년 8월 21일자(양력 10월 1일). 노성석 옮김, 난중일기, 믿음사, 1966, P.413
53) 난중일기, 1597년 정유년 8월 30일자(양력 10월 10일),
54) 선조 91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8월 5일(계해) 4번 째기사

당시 조정에서는 패전 후 생존한 군사와 장군들에 대하여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고 방비책을 마련해야함에도 장군들에 재한 처벌부터 논의하는 모순된 역사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당시 조정에서는 임란의 패배에 따른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대책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원균을 필두로 한 조선 수군은 부산포, 다대포의 전투뿐 아니라 칠천량 전투에서도 패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당시 조정은 정유재란 후 민심의 동요를 막고 약해진 조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장군에게 칠천량 전투의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한다. 나아가 수질 악화에 따른 장기 휴양을 역모를 꾸민다는 명분으로 삼아 수배할 것을 결정한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병조 판서 홍여순이 중국군 철수 뒤 국내의 변란을 우려하여 왕께 아뢰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55]

"해상의 왜적은 이미 물러갔으나 중국군이 철수하여 돌아간 뒤에 국내의 변란이 일어날까 극히 우려되니,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배설(裵楔)이 지난 가을에 나주에서 도망하여 지금은 충청도에 와 있는데, 현몽(玄夢)과 합세하여 무뢰배들을 많이 모으고 있다. 그의 행적이 이미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지적하여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이와 같이 장군이 백성을 선동하여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병조 판서 홍여순의 보고는 정인홍의 모함으로 이어져 용양중인 장군을 선산에서 급격히 체포하기에 이른다.
선조 실록은 1599년(선조 32) 3월 6일 공이 처형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56] 장군은 향년 49세를 일기로 '도망과 모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기에 이른다. 당시 의병장인 부친과 아들 등암도 한양으로 압송되어 반역 혐의로 국문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실록에는 장군의 장례를 치를 때 경상감사 한준겸이 적극 도왔다고 파직을 청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다. 당시 경상 감사가 장군의 장례를 위하여 산을 빼앗아 장지 마련하고 호상 군을 보내 장례를 치른데 대하여 파직을 요청하는 내용이다.[57]

지평 윤홍이 경상 감사 한준겸과 대동 찰방 정묵 등의 파직을 청하다
지평 윤홍(尹宏)이 와서 아뢰기를, '배설(裵楔)은 방형(邦刑)을 받을 적에는 여정(輿情)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한준겸은 단지 인아(姻婭)[58]라는 것 때문에 사대부의 장산(葬山)을 빼앗고 또 호상(護喪)하는 군관(軍官)을 보내어 적의 뼈를 완전히 묻도록 하였습니다'

오호 통제라! 임란을 전후한 장군이 왜적을 소탕한 혁혁한 전공은 어찌한단 말인

55) 선조 107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12월 23일(갑술) 3번 째 기사
56) 선조 110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3월 6일(을유) 5번째 기사
57) 선조 122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2월 20일(갑오) 1번째기사
58) 인아**(姻婭)는** 사위 쪽의 사돈과 사위 상호 간, 곧 동서쪽의 사돈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위의 아버지를 '인(姻)'이라고 하고 사위 끼리를 '아(婭)'라고 한다.

가. 의병장인 부친을 도와 왜장의 목을 베고, 선산부사로서 북상하는 왜적을 미리 차단하고, 금오산성을 수축하여 도체찰사(都體察使)[59] 의 전략본영이 되게 한 공로는 어찌한단 말인가. 마지막 함흑 속의 칠천량 전투에서 전선 12척을 구하여 조선 수군을 살린 그의 공적은 어찌한단 말인가.

장군에 대한 처벌은 당시의 조정에서 전후의 민심 동요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응급조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권율과 이순신으로 이어 지는 인맥과 원균과 배설, 김억추로 이어지는 수군내의 경쟁과 갈등이 장군의 처벌을 서두른 배경이 되었다면 지나친 판단일까. 더구나 명량해전에서의 이순신 장군의 통쾌한 승리는 그의 대의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편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60] 그로 인해 배설 장군의 임란시의 혁혁한 공적마저 역사의 뒤 안으로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신원과 선무 원종 1등 공신 책록

조선조 역사뿐 아니라 해방 후 오늘날의 정치사에도 억울하게 희생자는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는 다행히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에 명예가 회복되고 복권되지만 당시의 조선조 봉건 왕조체제 하에서는 그것마저 봉쇄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에서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 진실은 후대에서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다. 장군에 대한 모함과 억울한 처형은 장군이 돌아가신 후 11년 되던 해에 신원(伸寃)[61]이 이루어 졌다. 역사에서 사필귀정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1610년(광해 2년) 임란공신을 재평가하여 녹훈할 때 공은 선무원종1등공신(宣武原從1等功臣)으로 녹권(錄卷)에 책록 되었다. 또한 장군은 동시에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역사의 교훈이 되살아나는 감격스런 순간이며 아들 등암이 36세에 맞이한 기쁨이다.

1871년(고종 8) 도내 유림들이 상소하여 장군은 자헌대부 병조판서겸지의금부훈련원사(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訓鍊院事)에 증직되었으며, 도정(都正))[62] 정교(鄭矯)가 분향문(焚香文)까지 지어올려 장군의 원혼을 달랬다. 이처럼 장군의 임란의 혁혁한 공훈은 다시 나라에서 인정하였다.

결국 장군의 억울함은 이렇게 신원되어 광명을 찾은 것이다. 장군은 빛나는 왕명(王命)이 전후(광해2년, 고종10년)로 거듭 내려 일등 공신과 호조, 병조 판서의 추증되었다. 그로인해 장군의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은 후세에 까지 전해지니 이는 역사의 대의이며 당연한 귀결이다.

---

59) 조선 시대, 왕명으로 할당된 지역에 파견되어 군정(軍政)과 민정(民政)을 총괄하던 전쟁 때의 임시직. 정일품(正一品)으로, 한 개 이상의 도를 맡았으며 휘하에 종사관(從事官)을 두었다.

60) 정 만진,http://blog.naver.com/clean053 2014.3.배설 장군은 어찌되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61) 신원(伸寃)은 억울함이 풀린다는 뜻이며 장군은 두 차례의 신원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사실은 녹권(錄卷: 공신도감이 왕명을 받아 각 공신에게 발급하는 공신임을 입증하는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62) 도정(都正)은 관원들의 성적을 평가하여 면직이나 승진시키던 일을 담당하던 관리를 말함

오늘의 성주 군지에도 '맹장(猛將) 배설이 수질(水疾: 오랜 물 생활로 생긴 병)이 있다'는 대목과 함께 '신병 치료를 위해 휴가 중'에 모함에 의해 주살(誅殺)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이처럼 공의 공적은 후일 바르게 인식되고 사후에 벼슬까지 증직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므로 장군의 그동안 묻혀 져 있던 공적은 임란 사에서도 재평가되고 보충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4. 유문(遺文)과 두 편의 시조

장군은 어려서 부터 유교의 엄격한 가풍을 체득하여 예의범절을 잘 지켰으며, 군막에서도 문장이 해박하고 필법이 정묘하여 주위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불행이도 장군이 일찍 비명에 감으로서 그의 유문(遺文)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유문도 종가에서 전래되다가 전화에 유실되고 현재는 의미 있는 두 글귀가 남아 있다. 공이 남긴 유문(遺文)인 <석양(夕陽)의 문 밖의 길은 동서(東西)로 나뉘어 졌다>(夕陽之門 路東西)와 <양가(兩家)의 좋은 인연이 만복의 근원이다>(兩家之好 萬福之源)이라는 글귀이다. 현재도 이 글귀는 종손 가의 보관된 혼함에 잘 보존되어 있다. 석양의 문밖의 길은 동서로 나누어 있지만, 양가의 좋은 인연으로 혼인으로 이어지고 자손 대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혼례의 중요성을 도덕 율로 표현한 간결한 글귀이다.

다행히도 수사공의 증손 배 석휘(裵碩徽)가 쓴 『가범(家範)』은 오늘도 전해지고 있다. 그는 고조부가 돌아가신 후 124년이 되던 해인 1723년 7월 16일(경종 3년) 성산배씨(星山裵氏) 『가범(家範)』이라는 제목의 필사본 책 한권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고조부 되는 수사 공 배설 장군의 시조 2수가 적혀 있다. 이 책을 청계천 고서점에서 습득한 진 동혁 교수는 '선조 시대의 시조 작품이 전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2수의 시조를 새로 발굴하게 된 것은 큰 다행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63]

靑山(청산)아, 됴히 있던다 綠水ㅣ(녹수가) 다 반갑다
無情(무정)한 山水(산수)도 이다지 반갑거든
하물며) 有情(유정)한 님이야 닐러 므슴하리오.

엊그제 언제런지 이러로 져리 갈 제
月波亭(월파정) 발근달애 뉘술을 먹던게고
鎭江(진강)의 휘든는 버들이 어제런가 하여라.

이 시조에 관한 진 동혁 교수의 해설을 들어 본다. [64]

" 배설은 노래한다. 한때 웅천해전에서 왜선 600여 척을 섬멸하였던 맹장이다. 그러나 그 다

63) 이 책은 1986년 1월, 청계천 고서점에서 단국대 진동혁(秦東赫)교수의 의해 발견된다. 진 교수는 이 책을 '배석휘는 성주 배씨로 자신의 역대 조상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가범"이라 이름을 붙였다.' 고 설명하면서 , '표지가 황지(黃紙)로 되었으나 세월이 많이 흘러 퇴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64) 정만진, http://blog.naver.com/clean053 배설 장군은 어찌되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음의 칠천포(자저 주) 해전에서는 적에게 참패를 당했다. 긴 물속 생활로 온몸은 병이 들었고, 패전의 치욕으로 마음도 스산하다. 사람들의 눈길도 예전처럼 따뜻하지가 않다. 주위를 둘러보니 푸른 산들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다. 변함이 없다. '청산아 잘 있었느냐?' 그렇게 물은 즉 청산을 넘어온 바람이 그의 뺨을 감돌며 그렀노라고 대답해준다. '푸른 물아 너도 반갑구나.' 거침없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던 강물이 그 흐르는 물소리로 화답을 해준다. 저렇듯 자연의 산과 물은 다 나를 변함없이 대해주거늘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랴. 하지만, 세상은 그처럼 따뜻하지가 않으니 바다를 누비던 맹장의 가슴이 어찌 불에 타올라 시커멓게 멍들어 가지 않으리.
강둑에 푸르른 버드나무들도 예전과 변함없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구나. 여기서 벗들과 술 한 잔 나누던 그 때가 까마득하도다. 밝은 달 아래서 우정을 주고받던 일들도 이제는 가물가물하여 그 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조차 흐릿하도다. 다만 버드나무만 그 잎이며 줄기가 같으니 정자에서 달빛서린 술잔을 주고받던 일이 마치 어제인 듯 여겨지누나."

이 시조에는 장군의 패전 후 수질로 인한 요양 길에서 마주친 인심의 메마름과 당시의 회한의 심정이 잘 토로되어 있다. 장군은 여러 고을의 수장을 거쳐 경상 우도 수군절도사 이르기 까지 수많은 인연은 떠났지만 홀로 병든 몸을 이끌고 그 때를 회상한다. 의병장인 부친과 함께한 의병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임금의 행재소에서 합천 군수로 배수 받은 일, 진주 목사로 재임 중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로 전격 명령을 받지만 주민들의 만류로 부임길이 늦어 졌던 일, 금오 산성 구축 후 그 공로로 경상 우도 수군절도사로 또다시 발탁되었던 일들이 주마등 같이 떠올랐을 것이다. 칠천 량 해전에서 장군의 작전상의 건의는 여지없이 상부로 부터 묵살되어 버렸다.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하고 병든 몸으로 고향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장군의 심정이 이토록 잘 묘사될 수 있을까.

장군은 병든 몸을 이끌고 요양 길에 들어섰지만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장군이 과거 육지에서 근무했던 옛 고을을 찾았지만 무심한 인정과 세태는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 장군의 깊은 뜻은 하늘도 알고 대자연도 알건마는 무심한 인심은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이미 장군을 모함하는 소리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신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길이 결국 역모로 몰리는 슬픈 운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 아! 당신을 모함하는 당시의 무리들은 무슨 마음 이었던가?

나라의 충신(忠臣)이요, 가문의 명조(名祖)인 배설 장군의 이 유작 시는 조용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장군의 고독한 심사를 절제된 언어로 잘 토로하고 있는 이 한글 시조는 오늘날 문학 작품으로도 가치를 지닌 수작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VI. 결론

우리는 앞서 임란 시 신재공(愼齋公) 배설 장군의 활동과 공적을 조명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공은 의병장인 부친 서암공의 뜻에 따라 일찍부터 두 동생과 함께 의병 전투에서 참여하여 많은 공적을 세운다. 공은 합천군수직을 시작으로

여러 고을의 수장 직을 수행할 시에는 헌신적인 위민봉공(爲民奉公)정신을 발휘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진주 목사직에서 경상 우수사로 부임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길을 막아 부임이 늦어진 사실은 왕조실록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선산부사직을 수행하면서 금오산성을 수축하여 경상도 체찰사의 군사 본영이 되게 하여 왜적의 북상을 막았다. 해전에서는 경상우수사로서 전선의 선봉에 섬으로서 다대포 해전에서 왜선 8척을 전소시키고, 조선 수군이 전패한 칠천량 해전에서 전함 12척을 산신히 구해 이순신장군의 명량 해전의 토대가 되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장군의 임란시의 혁혁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배설 장군은 1599년 49세로서 생을 마감한다. 오랜 해상 생활에서 얻은 수질로 인한 요양을 도망으로 간주되고, 역모라는 모함까지 당하여 처벌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장군의 억울함은 광해 2년 장군이 돌아가신지 11년 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선무 원종 일등 공신으로 추증되고 호조판서와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다.

결론적으로 장군의 임란 전후의 공적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고 재정리하면서 얻은 장군의 학덕과 인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으면서 이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장군은 여러 전투에서 전술 전략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였으며, 상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충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꿋꿋한 무인의 기계를 볼 수 있다. 수군절도사 장필무 선생이 장군이 어릴 때 무인 기질을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장군은 경상 좌도 수군절도사 공직 수행중 시국의 폐단에 관한 건의하다 권율의 눈에 벗어나 밀양 부사로 좌천된 적도 있다. 또한 부산포 해전과 칠천량 해전을 앞둔 시점에서의 전술적 대비책에 관한 장군의 용감한 건의는 권율에 의하여 좌절되었지만 선조실록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올바른 평가를 받고 있다. 장군이 칠천량 해전을 앞둔 시점에서 무리한 전투의 강행을 반대한 입장은 전쟁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 있다.

둘째, 장군은 문무를 겸비한 용장으로서 재직 중의 위민봉사의 활동과 전술적 상항 판단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장군이 남긴 유문과 시조 두 편은 장군의 문인으로서의 학덕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장군이 진주 목사로 재임 중 다시 수군절도사로 발령받았을 때 진주 시민들이 길을 막아 부임이 늦어진 실록의 예화는 그의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푼 목민관의 자세를 여실히 증명한다. 장군은 수군절도사로서 마지막 칠천량 전투에서 왜적의 3중 포위망을 뚫고 배 12척 까지 수습하여 한산본영으로 귀환한 업적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배 12척이 없었다면 이순신의 명량 해전의 승리도 이끌지 못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군의 인품은 지인용을 겸비한 장군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장군의 비문을 쓴 정종호는 장군을 삼달덕(三達德)을 구비한 인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65] 그는 “ 옛 부터 인신(人臣)이 국가를 위하여 큰 난리를 능히 막을 수 있는 자는 그 지혜(知慧)가 있은 연후에 가히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 인(仁)이 있는 연후에 가

65) 정종호 찬, 서강 선생 신도 비문 참조

히 대중을 복종시키고, 그 용기(勇氣)가 있는 연후에 가히 적을 칠 수 있으니 장군은 그것이 겸비한 사람이 장군"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나아가 "장군은 선조 때 임진왜란을 당하여 먼저 여러 전투에서 용병(用兵)이 귀신과 같았던 점이 지(智)이며, 백성을 자식과 같이 보고 혜창(惠倉)을 창립한 것은 인(仁)이며, 싸움에 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용(勇)이 였다"고 세기고 있음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장군의 임란시의 위업은 일방적으로 기술되거나 오도되어서 안 되며 함부로 평가될 수도 없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는 아직도 장군의 행적을 폄하하거나 오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글이 장군에 대한 그간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 장군의 임란시의 행적과 위업은 학술적으로도 반드시 재조명·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임진란 공훈 록에는 장군의 혁혁한 활동과 업적은 상세히 기록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징비록 』

『난중일기 』

『동국사(東國史) 』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卷)』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충훈록(忠訓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현무공실록(顯武公實錄)』(김억추)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구미시『구미시 향토사 』, 2008

노성석 옮김, 난중일기, 믿음사, 1966

배석휘, 『가범(家範)』

송인호 편저, 『임란대장군(壬亂大將軍) 원균통제사(元均統制使)』 / 상권(上卷)임란사상(壬亂上) , 개벽공론사 1995

성산 성주배씨 대종회,『 성산 성주 배씨 대종보(수권),』 대보사, 2012

성주군청, 『성주군지』『내고장 성주』

이경석,(李炯錫,)『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이순신, 『난중일기』, 노성석 옮김, 믿음사, 1966,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壬辰亂精神文化禪讓會), 『임진란 문헌목록(壬辰亂 文獻目錄) 』I, 자료번호126, 배상룡(裵尙龍)

성산(성주)배씨카페 cafe.daum.net/seungsanbae

정만진, http://blog.naver.com/clean053 배설 장군은 어찌되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의병장 서암 배 덕문(裵德文) 선생의 의병 활동과 학덕

배한동(裵　漢東)*·　배재영(裵在榮)**[1)]

I. 서론
II. 가계와 생애
1. 가계
2. 생애
III. 배 덕문가의 의병 활동
1. 배덕문가의 임란 활동 개요
2. 의병장 배덕문 선생의 활동
3. 대를 이은 임란 활동
IV. 유문과 학덕
1. 유문(遺文)『서암 실기 』
2. 인품과 학덕
VI. 결론

I. 서론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년)과 1597년(선조 32년) 2차례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일본은 1592년 4월 14일 군사 약 20만 명을 이끌고 부산포 전투에서 승리한 후 동래성, 김해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여세를 몰아 한 달이 안된 5월 3일 한양까지 점령하였다. 일본은 명과의 협상을 명분으로 일시 물러났다가 1597년의 제2차 침략을 감행하였는데 이이를 정유재란'(丁酉再亂)이라 부른다.[2)]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의 명분은 명을 정복하기 위하여 조선의 길을 열어달라는 정명가도(征明假道)였으며 당시 선조는 한양을 떠나 멀리 의주까지 파천하였다.

일본이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명분으로 침략한 임진왜란 7년 전쟁이나 대동아 공영(大東亞 共榮)을 주창하며 조선을 침범한 비극적인 역사는 사실상 그 괘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에서 일제 식민시대의 피나는 항일 운동도 중요하지만, 임

*경북대 명예 교수, 정치학 박사, 전 대한정치학회 회장, ** 신라대 초빙교수, 행정학 박사. 에비 역 육군중령

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8a1824b005 브래테니카 백과사전, '임진왜란'은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조선과 명(明)나라의 군사가 연합하여 물리친 국제 전쟁이며, 흔히 '7년 전쟁'이라고도 한다.

란시의 의병들의 거룩한 투쟁의 역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임란 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충하는 일이며, 민족의 정기를 바르게 세우는 우선 과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의 아베 극우 정권이 조선 식민지 침탈 역사 자체를 왜곡하고 위안부 문제 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에서는 과거 임란 시의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임진왜란 7년 전쟁 시 나라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한 의병장 서암(書巖) 배덕문(裵德文 1525~1603)선생의 당시의 의병 활동을 보다 자세히 조명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1592년 임란 발발시 공은 6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모아 성주 땅을 되찾은 공의 혁혁한 공적을 남겼다. 그러나 의병장으로서 서암 선생의 활동은 성주 향토사 수준에서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 임란 사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를 보완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임란시의 많은 활동과 공적을 남긴 의병장 배덕문 선생의 활동과 업적을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3]의 위훈록 작성의 기획취지에 맞추어 자료를 재 발굴하여 보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생의 가계에는 의병장 배덕문 선생을 필두로 아들인 설(楔),건(楗), 즙(楫) 3형제가 함께 의병 전투에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말년에는 손자 상룡(尙龍)까지 수사인 부친의 수군 영에서 전투의 승리를 기원하는 고유문을 올렸다. 3 형제뿐 아니라 장손에 이르기 까지 3대가 함께한 임란시의 거룩한 행적은 임란 7년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난 극복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업일 것이다.

그러므로 임란으로 인해 나라와 향토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처하자 3대가 함께한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자랑스러운 활동과 공적은 기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더구나 의병장인 서암 공은 의병전투 중 선무사인 차남 건(楗)을 잃었고, 노량 해전에서는 조방장인 3남 즙(楫)까지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임진란이 종식되는 말년에는 경상우수사인 장남 설(楔)까지 모함에 의해 저 세상으로 보내는 비운을 맞게 된다. 당시 선생의 찢어지는 가슴은 어찌 필설로 형언할 수 있었으랴. 그러므로 의병장인 서암공의 임란시의 활동과 가계의 공적은 보다 철저히 조사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병장 배덕문 선생의 임란시의 활동과 업적은 세월이 감에 많이 유실되었고, 후손들에게 구전되어오던 자료도 대부분 단절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글은 배덕문가계의 임란시의 활동을 선조실록(宣祖實錄), 징비록(懲毖錄), 난중일기(亂中日記), 현무공실록(顯武公實錄) 등의 원전에 의존하여 고증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서암 배덕문 선생 관련 자료는 선생의 유문인 서암실기(書巖實記)와 성산지

3)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에는 서암공 배덕문, 장남 신재공 설(楔), 삼남 명암공 즙(楫), 손자 등암공 상룡(相龍)의 후원회가 등록되어 있다. 이 단체에서 우선 서암공, 신재공, 명암공의 임란시의 활동을 위훈 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여 이 글을 우선 집필하게 되었음을 밝혀 둔다.

(星山誌), 성주군지(星州郡誌), 배씨종사 전감(裵氏宗史傳鑑), 배씨대종보(裵氏大宗譜), 서암 선생 신도 비문(碑文)등에 의존하여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관한 광범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성산 성주 배씨 카페(배재기) 등을 활용하였을 미리 밝혀 둔다.

이 글은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의병장 서암 공의 생애와 가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장에서는 서암 공이 의병제독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과 공적을 보다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임란 초기 의병 전투에 참여하여 장렬하게 전사한 차남 건(楗)과 장손 등암 상룡(尙龍)의 활동도 병기하기로 한다.[4] 4장에서는 서암 공의 유문인 서암실기(西巖實記)를 살펴보고 그의 학덕과 인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 가계와 생애

서암(書巖) 배덕문(裵德文)[1525(중종19)~1603(선조36)] 선생의 자는 숙회(叔晦), 호는 서암(書巖)이다. 시조인 고려 삼중 벽상 공신 배위준의 16세(世)이며, 진사공파 현(俔)의 8세 손이다. 의병장으로서 선생의 임란시의 활동을 살펴보기 전 선생의 가계와 생애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가계

성산(星山) 배(裵)씨 서암(書巖) 배덕문(裵德文)선생의 상조로 부터 가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성산 배씨(星山裵氏) 가문은 신라 6부 촌장이며 개국 공신 배지타(裵祇沱)공을 득시조[5]로 두고 있다. 지타 공은 금산가리촌 촌장이며 다른 5부 촌장과 함께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한 신라의 개국공신이다. 당시 지타공은 총재 태사(冢宰太師)의 관직을 부여 받고 32년(유리왕9)에 배씨 성을 하사 받았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6]

고려시대에는 개국 공신 무열공(武烈公) 배현경(裵玄慶)을 중시조로 하지만 세수 불명이며, 고려 삼중대광(三重大匡) 벽상공신(壁上功臣) 배위준(裵位俊)[7]을 1세 시조로 기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산 배씨는 그 후 8백여 성상, 30여 세계(世系)를 계대승손(繼代承孫)하고 있는데 배덕문(裵德文) 선생은 16세손이다.[8]

---

4) 의병장 서암공의 장남 경상우수사 신재공 배설장군의 활동은 별도로 기술하기 때문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5) 득시조(得始祖)는 성씨를 하사 받은 시조라는 뜻이며, 도시조(都始祖)라고도 하는데 이는 성씨 계대상 시조의 이름을 알 때 부르는 명칭이다.

6) 배(裵)씨 성(姓)은 서기 32년 신라 3대왕 유리이사금 9년에 건국에 공을 세운 사로 육촌에 6성(李, 崔, 孫, 鄭, 裵, 薛)을 사성함으로 연원이 되었다.

7) 배위준(裵位俊)은 성산 배씨의 파조(派祖)이며 현 성주의 숭덕사(崇德寺)와 흥안재에 배향되고, 5월 5일에 향사를 올리고 있다. .

8) 성산 성주 배씨 대종회, 성산 성주 배씨대보(星山 星州 裵氏 大譜, 首卷), 대보사, 2012, p.2

서암 공의 11대조 추밀원사(樞密院事) 배인경(裵仁慶)은 고려조 1314년(충숙 2)에 흥안(현 성주) 부원군에 봉하여져 성산(星山) 배씨(星山裵氏)의 본관을 얻게 되는 득관조(得貫祖)이다. 성산은 성주(星州)의 옛 지명인데 성산 가야국은 6가야국의 하나이며 후일 신라에 편입되어 벽진군(碧珍郡)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 940년(고려 태조23)에는 경산부(京山府)로 승격되었다가 흥안부(興安府)로 개편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 성주 목(牧)으로 승격되었다가 1616년 (관해 9년) 신안군으로, 1631년에는 다시 신안 현으로 개칭되었다. 1895년 (고종 32) 지방행정 제도 개편 시 대구부(大丘府) 성주군이 되었다.[9)]

서암 공의 가계 상 벼슬한 상조(上祖)를 몇 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득관조인 고려 시대 배인경(裵仁慶)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문적(文迪)은 판추밀 원사(判樞密院使)[10)]가 되고 동생 무적(武迪)은 삼한 벽상 공신이 됨으로 당시 가문의 위세는 당당하였다. 문적의 손자이며 공의 8대조 진손(晋孫)은 고려말 판추밀원사직을 수행하다가 이성계의 개국을 도와 공조 판서직에 이르게 되었다. 진손의 동생 진후(晉后)도 세종 때 좌승지와 좌사간을 역임하고 청백리로서 명성을 널리 떨쳤다. 한편 득관조 배 인경의 7세 손 배극렴도 고려조에서 조전원수(助戰元帥) 재임 시절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도와 조선 개국 1등 공신에 책록되고 성산 백(佰)에 봉해졌다.

이 처럼 서암 공의 상조는 신라시대 배지타, 고려 시대 배현경, 조선조의 배극렴에 이르기 까지 세분의 훌륭한 개국 공신을 모신 자랑스러운 가문이다. 이들의 새로운 왕조 탄생에의 기여는 당대의 개국 역사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대단하였다.

공의 7 대조인 성균 진사 배현(裵俔)은 후일 성산 배씨 진사 공파의 파조가 된다. 현(俔)은 공조 판서 진손의 3남으로 태어나 1396년 태조 5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여러 내외 관직을 두루 거쳤다. 현의 형 대사현 규(規)는 지례 현령을 지내고 화당공파 파조가 되고, 둘째형 배구(矩)는 서해도 안겸사를 지내 안겸사 공파의 파조가 되었는데 그는 '관서의 공자'로 불릴 만큼 문장이 뛰어 났다. 이들 삼형제는 선초에 성선 배씨 가문을 중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암 공의 현조(玄祖)인 배치(裵絺)는 세종 시 무과 별시에 급제하여 울산부사, 경상 좌도 수군 총 병마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정사를 바르게 처리하고 민생을 잘 보살피고 고을의 빈민 구제 사업에 힘써 청덕(淸德)거사비가 세워졌다. 공의 고조인 윤후(允厚)는 만호(萬戶)[11)]이며 공의 증조는 중손(仲孫)이며, 조부는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역임한 맹성(孟成)[12)] 이다. 이처럼 서암공의 가문은 일찍이 문무반(文武班) 관직을 두루 배출한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사족가문(士族家門)이라고 볼

9) 한국역대인물 종합 정보 시스템, <성산 배씨> 참조

10) 고려 시대, 추밀원(樞密院)의 으뜸 벼슬. 1095(헌종 1)년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고친 이름으로, 종이품(從二品)이다.

11) 만호는(萬戶)는 고려와 조선의 무관직이며 외적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 4품의 무관직

12) 증 이조판서배덕문선생 비문(贈 吏曹判書 裵 德文 先生神道碑文)은 통정대부 전행 홍문관 부교리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通政大夫 前行弘文館副敎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동학교수(東學敎授)이만규(李晩奎)가 지음, 서기 1920년 庚申 3월 건립

수 있다.

2. 생애

서암 배덕문 선생은 경릉참봉(敬陵叅奉)인 부친 주(綢)와 농서 이 씨인 모친 사이에서 1525(중종19)년 외동으로 출생하였다. 서암 공의 부친 주(綢:1483~1557)는 중종19년 효행이 뛰어나 참봉 직에 제수되었다. 공의 모친은 도은(陶隱)이 숭인(崇仁) 선생의 5세손이며 이 세무(世茂)의 딸이다. 부친 주는 오늘날 후손들이 세거하게 될 성주의 뒷개(後浦)마을 인근인 현 금수면 광대원(廣大院)에 이주하여 토착적 기반을 다졌다. 공의 모친이 서암 선생을 임신을 할 때 선친 주는 달(月)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길몽을 꾸었다고 전해 오고 있다.

공은 어릴 때부터 천성이 단아하고 기상이 묵중하였다. 공은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빗질하여 단정히 앉아 독서하면서도 종일토록 권태증을 잊었다고 전한다. 선생은 1531년 여섯 살 때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하루는 노루가 학당 앞으로 뛰어 다니니 모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 나갔는데 공만이 홀로 책을 읽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를 본 부친인 참봉 공께서 "매우 큰 그릇이 될 것이다" 하시며 공을 아끼셨다. 1535년 10세에 칠봉(七峰) 김희참(金希叅)[13] 선생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공의 인품이 온화하고 공손한 품성은 일찍이 스승 칠봉 선생의 훈도를 잘 받고, 엄격한 가풍을 몸에 체득한 결과일 것이다.

선생은 여러 번 향시(鄕試)에 장원급제하고, 1553년(명종 8) 문과(文科) 별시(別試) 에 급제하였다. 선생은 과거에 합격한 후 관직에 있을시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부여된 내외 직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아래는 자료는 명종 8년 (明宗 8年, 癸丑:1553년) 공이 별시 문과에 급제한 합격한 방목(榜目) 원문이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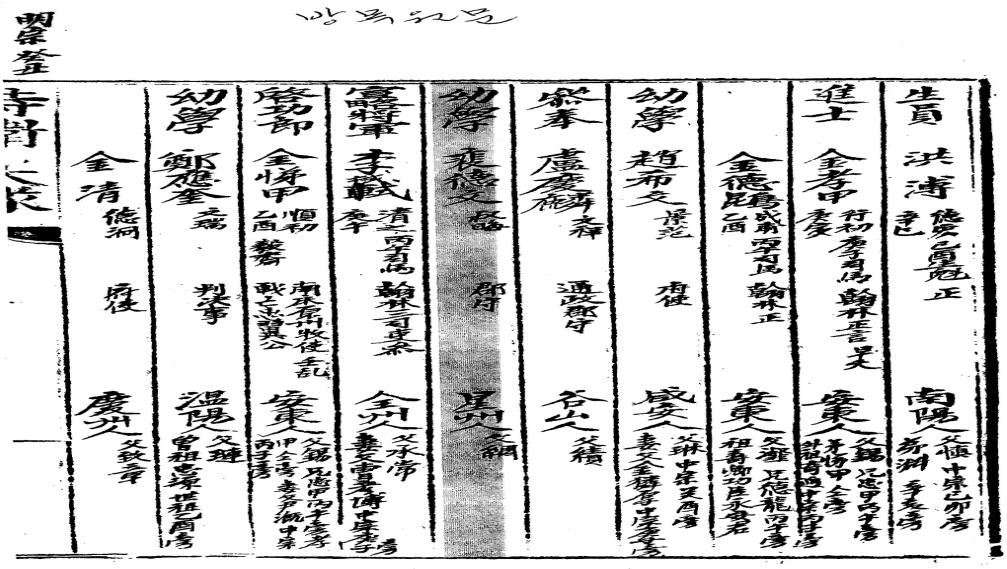
사진**1. 과거 합격 방목원문**

* 자료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대 인물 정보시스템에서 복사함.

선생은 32세인 1557 정유년 (丁巳年, 명종 12) 성균관의 종구품(從九品) 벼슬인 태학관 학유(太學館 學諭)직을 제수 받고 공무를 수행중 선친상(喪)을 당하게 된다. 효성 지극한 공은 주자(朱子)의 가례대로 3 년 상을 엄격히 치렀다. 선생은 초상장례예규에 따라 3년 동안 여막에서 시묘(侍墓)를 하고, 한 번도 이를 드러내서 웃음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공은 항상 예절에 충실하고 자신에게는

13) 칠봉 김희참(金希叅)은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자는 경부(敬夫), 호는 개암(開岩)으로 삼척 부사를 역임한 선비이다. 성주군 대가면 칠봉동 사도실(思道谷) 출신인 김우굉(1524~1590)과 동강 김우옹(1540-1603)의 부친이다.

14) 명종 8년(明宗 八年 癸丑) 1553年) 별시 문과 (別試 文科) 방목(榜目)에는 유학 배덕문 자 숙회 군수 성주인 부 : 주 (幼學 裵德文. 字 叔晦. 郡守. 星州人. 父:綢)라고 명기되어 있다.



엄격하였다.

상을 마친 후 선생은 1560년 주서(注書)[15]로서 경연에 참여하여 기주(記注)를 잘하여 임금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 명종(明宗)은 "네 재주가 참으로 비상하구나" 하며 공에게 형조낭관(刑曹郎官)직을 내렸으며 이어서 한성서윤(漢城庶尹) 및 사재감정(司宰監正)직을 수행하였다. 공은 뒤이어 형조, 호조좌랑, 한성서윤(漢城庶尹)직에 제수되었다.

외직으로 언양, 영덕, 울산, 고부 등지의 현감, 군수를 역임하였다. 선생은 임지에서 민생을 잘 보살피고 군수로써 청렴과 간소를 강조하여 정사를 바르게 펴서 주민들로 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재임 시 선정을 베푼 덕에 여러 곳에서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다.[16] 공의 재임 시의 행적과 활동은 기록으로 남은 것이 별도로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공은 1572년 임신년(壬申年. 선조 5) 47세에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나 낙향했다. 공은 공직수행 중 당시 왕후의 비호아래 권세를 누리던 당시 요승(妖僧) 보우(普雨)(1509 ~1565).[17]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공직을 떠난 것이다. 공은 보우의 선교(禪敎) 양종의 부활을 통한 불교 부흥책에 적극 반대하고 숭유억불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선생은 낙향한 후 현재의 후손들이 사는 후포 마을 인근 완의동(浣衣洞: 현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에 몇 칸의 집을 지어 제호를 서암(書巖)이라 붙이고 시서에 열중하였다.

공은 고향 성주에서 영남의 거유 한강(寒岡)과 동강 (東崗) 선생과 종유(從遊)하

15) 주서(注書)는 조선시대 정7품직이며, 승정원일기를 담당한 주요직책임

16) 서암실기 (書巖實記),1860년(철종 21) 후손 배석일(裵錫一)이 편집하여 간행한 유문임

17) 당시 보우는 1548년 명종의 모친 문정 왕후의 신임을 얻어 봉은사 주지가 되어 사찰 건립 등 불교 부흥에 노력하였다. 이에 선생은 요승 보우의 행적에 불만을 품고 그를 배척하는 입장에서 공직을 그만 두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보우는 조야의 배불상소(排佛上疏)와 유림(儒林)의 성화에 밀려 승직이 박탈되고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목사 변협(邊協)에 의해 참형(斬刑)되었다.

며 시문을 논하며 10여년을 선비로서의 말년을 보내고 계셨다. 공은 당시 나이도 많고 덕이 높아 훈도를 잘 한다고 하여 향토 성주의 교관에 차출되어 강연에 초빙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공은 특히 학생들의 능력과 재주에 따라 교육을 시켜 주변의 명성이 자자하였다. 이처럼 공은 강연 등 후진 양성에 열중하면서 성주의 유림들과 시문을 논하며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임진왜란이라는 큰 난리를 당하게 된다. [18] 배덕문 선생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고향 성주 땅이 왜적의 발아래 놓이게 되자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의병을 모아 왜적 소탕에 앞장서게 된다.[19] 오늘의 성주 군지에 '우리 고장을 수복한 의병대장 배덕문 선생'이라고 기록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20] 공이 왜적의 침범과 수탈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장로서의 상세한 활동과 공적은 후술하기로 한다. 선생의 활동과 업적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3회 기록 되었고, 경산지(京山誌)와 용사일기(龍蛇日記)등에 등재 되어 있다.

공은 정부인(貞夫人) 선산백씨(善山白氏)[21]와 사이에 4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설**(楔)**은 무과에 급제하여 선산 부사를 거쳐 경상우수사가 되고, 차남 건**(楗)**은 의병활동의 공적으로 선무량에 제수되었으며, 3남 즙(楫)과 4남 력**(櫟)은** 무과에 급제하여 각기 조방장과 훈련원 주부로서 활동하였다. 이들 4 형제는 임란 시 육전과 해전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차남은 개산진 전투에서 3남 즙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였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장남 설**(楔)**은 아들 4명을 두었는데 서암공의 손자인 셈이다. 숭정처사인 상룡(尙龍), 성균 진사 상호(尙虎), 이조 판서에 증직된 상조(尙藻), 서윤 상보(尙黼)이다. 선생의 장손 등암 상룡은 한강과 여헌의 문인으로서 영남 사림의 법도를 잘 지킨 선비로 향내에 명성이 자자하였다. 등암과 교유한 허목(許穆)은 그에게 보낸 서간문과 묘 비문에서 그의 학덕을 기리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동생 귀재(愧齋) 상호 역시 총명하여 과거 진사시에 합격하여 태학에 까지 올랐으나 애석하게 단명하고 말았다.

공은 과거에 합격하여 내외 관직을 두루 가치고 말년에는 성주 땅의 왜적으로 부터 구한 공적을 남겼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공은 완의동(浣衣洞)에 학당을 건립하고 거문고와 독서로 여생을 보냈다. 공은 1603(宣祖 36년 癸卯年) 12월 17일 79세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공의 묘소는 성주군 대가면 송라동(松羅洞, 현재 대가면 옥화2리) 곤향(坤向)의 둔턱에 예장되었다. 부인(配) 백(白)씨는 정부인으로 증직되었으며 묘는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 수름제 참봉 공조 하에 안장되어 있다.[22]

서암공의 후손들은 1920년 경신(庚申) 3월에 선생의 신도비를 고향인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도남동 후포리에 건립하였다. 몇 해 전 경향 각지의 후손들은 의병

18) 서강 선생신도 비문 참조
19) 성산 성주 배씨 대종회, 성산 성주배씨 대종보(수권), 대보사, 2012, p.56
20) 성주 군지 http://www.seongju.go.kr/tour/history/people_05.jsp 2014,03,20
21) 선생의 부인은 후일 정부인으로 추증 되었으며, 잠군 선산 백씨 백거추(白巨鰍)의 따님이다.
22) 부인은 참군(叅軍) 선산 백(善山白氏)씨 백거추 巨鰍)의 딸이며 정부인으로 증직되었다.

장인 서암공을 비롯한 3대 6현(賢)의 신도비를 한데 모아 후포(뒷개)마을 입구 청룡(靑龍)에 모셨다. 이곳에는 서암공(書巖公:德文,16世, 贈吏曹判書 宣武原從2等功臣), 그의 장남 수사공(修使公: 楔,17世, 贈兵曹判書 宣武原從1等功臣), 차남 고암공 (高巖公:楗, 17世, 贈兵曹參議), 3남 명암공(明菴公:楫, 17世, 贈兵曹參判 宣武原從2等功臣). 장손 등암공(藤庵公: 尙龍, 18世, 崇禎處士)과 차손 귀재공(愧齋公:尙虎,18世, 贈左承旨)의 신도비(神道碑) 여섯좌(座)가 숭조대(崇祖臺)에 나란히 모셔져 있다.[23)]

후포 마을에는 선생을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한 원래의 도천 서원(道川書院)은 고종 때 철폐되고, 최근 종친들이 힘을 모아 도천재(齊)를 중수하여 조상의 유지를 기리고 있다. 또한 재실에서 가까운 곳에는 공의 손자인 등암(藤庵)공의 영각(影閣)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오늘도 경향 각지의 후손들과 뜻있는 유림들이 이곳을 찾아 향배하고 있다.[24)]

지금까지 선생의 생애를 연대기별로 살펴보았다. 의병장 배덕문 선생의 후손들은 선생이 기거하였던 고향 땅에 집성촌을 이루어 4백여 년간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다. [25)] 경북 성주(星州)군 대가면 도남동 후포(後浦, 뒷개)[26)] 마을에는 공의 14대(代) 종손인 양호(良鎬)씨가 종택(宗宅)을 지키고 있다. 명절 시에는 아직도 경향각지의 후손들이 고향 재실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선조의 산소를 찾아 향사(享祀)를 올리고 있다.

III. 의병장 배 덕문 선생의 의병 활동

본 장에서는 서암(書巖) 배덕문(1525~1602)선생 임란시의 활동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의병장 배 덕문 선생의 임란시의 활동과 공적을 상론하기에 앞서 이들 가문의 3 대에 걸친 임란 시의 활동 개요부터 정리해보기로 한다.

1. 3 대에 걸친 임란 활동 개요

서암 공은 1592년 임란 시 왜군의 침략으로 고향 성주 땅이 함락 되자 68세의 노구에도 의병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한다. 공은 창의 제독으로 의병을 모으고 아들 삼 형제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여 부상진부상진(扶桑鎭) 전투(현 성주군초전면과 김천시의 경계지점)에서 적장 흑전구침(黑田句沈)의 목을 베는 등 많은 전공을 세우고 성주 땅을 수복하였다. 공의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려 성주 땅을 왜군의 수중에서 탈환한 공적과 헌신보국의 정신은 자손들에게 이어져 삼대에 걸친 의병가문을

23) 성주성산배씨대종회 카페, http://cafe.daum.net/seungsanbae/NeOA/80 우강 배재기(玕岡 裵在基)(배씨종사연구위원)제공

2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5370 1989년, 중앙일보사 발행 '姓氏의 고향'.

25) 경향신문, 1988.11.14 13면 생활/문화 기사(뉴스).

26) 후포(後浦) 마을은 생김새가 물위에 떠가는 배와 같다하여 명명하였다. 서암 공이 500여년전 이곳으로 입향 때 마을 형상이 풍수설에서 말하는 행주 형(行舟型)이라해서 갯포(浦)자를 붙여 뒷개라 했다. 배가 있으면 포구(浦口)가 있듯이 이곳 배씨 마을은 모두 포와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리섬(全仁: 席島), 청룡(靑龍)등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이 있다.

형성하게 되었다.

공의 장남 설(楔)은 무과 별시에 급제한 후 합천, 선산, 진주, 밀양 등 여러 곳에서 부사, 목사직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아들 설은 특히 선산 지역에서 부친을 도와 왜적을 소탕 등 많은 전과를 세웠으며 후일 경상 우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어 수차례의 해전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다.

차남 건(楗) 역시 임란 시 의병으로 참전하여 개산진에서 전공을 세우고, 여남현(汝南峴)전투[27]에서 왜적에 대항하다가 38세의 아까운 나이로 전사하였다. 3남 즙(楫)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습독(訓練院習讀) 사직(司直)을 거쳐 임란 시 조방장으로서 노량 해전에서 전투 중 35 세라는 젊은 나이에 전사하였다. 또한 손자 등암도 부친 설을 따라 한산도 수군영에서 전쟁을 앞두고 남해신(南海神)에게 고유문(告由文)을 지어 올려 전투의 성공을 빌었다.

1592년 임란이 발발하자 68세의 의병장이 된 서암 공 뿐 아니라 아들 3형제, 손자까지 조손 3대가 의병으로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당시 장남인 설은 41세, 차남 건은 37세, 3남 즙은 28세에 의병장 부친이 지휘한 전투에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다. 이러한 부자지간에 의병 전투에 참전하여 함께 혁혁한 공적을 세운 가문은 임란 사에 드문 일이며 이는 역사에 오래도록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서암 공은 불행하게도 생시에 세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비운을 겪었다. 임란 시 차남 건과 삼남 즙도 먼저 전사고 해전에서 공훈을 세운 장남 설은 모함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 셋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공의 심정은 필설로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공의 억울한 심정은 어찌 필설로서 형언 할 수 없어 평생에 한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아니던가. 서암 공의 임란시의 거룩한 의병활동과 아들 수사의 임란 시 혁혁한 전공은 1610년(광해군 2년)에 신원(伸寃)이 이루어 졌다. 이들 부자는 두 차례에 걸쳐 관직이 추증되고 책록에 기록되었다. 특히 모함에 의해 비명에 간 수사공의 신원이 이루어짐으로서 가계의 명예는 회복되고, 원종 일등 공신에 책록(冊錄) 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암 공의 가계의 임란시의 대를 이은 활동 상황과 업적은 상세히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임란 사에도 바르게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표1은 의병장 배덕문 가계의 대를 이은 임란시의 주요 공적과 공훈을 표로서 정리한 것이다.

표2 서암 배덕문가계의 임란시 공적

	주요 경력	임란 시 주요 전공	공훈 록 증직
배덕문(裵德文) **(1525~1602)**	문과 별시합격, 언양, 영덕, 울산, 고부 등의	성주에서 적승(賊僧) 찬희(贊熙)를 격멸하고, 부	1610년(광해2년) 선무원종2등 공신 책록, 가선

27) 여남현은 현재 구미시 어모면 구례3리에 있는 현재의 여남이라는 지명이라고 추정된다.

(진사공파16세)	현감, 군수 역임, 의병 제독, 기주관(記注官), 사재감정(司宰監正)	상진에서 적장 흑전구침(黑田句沈)을 죽임, 금부채 1 개와 대검 2 자루 노획	대부 호조참판, 1873년(고종10년) 자헌대부 이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증직
장남 설(楔) **(1551 ~1599년)** (진사공파 17세)	무과(武科)별시합격, 합천 군수, 동래부사, 진주 목사, 경상좌고 구군 절도사, 밀양 부사, 선산부사, 경상우도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개산진(開山鎭)전투 적장 평의지(平義智) 격파, 무계진(茂溪鎭)전투승리, 금오산성 수축, 칠천량 전투 배12척 수습, 한산도 청야작전 성공, 거북선 제작	1610년(광해2년) 선무원종1등 공신 책록, 가선대부 호조판서, 1873년(고종10년)에 다시 자헌대부 병조판서 증직
차남 건(楗) **(1555～1592년)** (진사공파 17세)	의병 활동, 음직 선무랑(宣務郞) 제수	개산진(開山鎭)전투승리, 여남현(汝南峴)전투에서 37세로 전사	1610(광해2년) 병조참의(兵曹叅議)증직
3남 즙(楫). (1564~1598) (진사공파 17세)	무과(武科) 별시 합격, 훈련원습독(訓鍊院習讀), 선무사(宣撫使), 사직(司直), 조방장(助防將)	개산진(開山鎭)전투, 한산도(閑山島)청야작전 수행, 노량해전에서 34세로 전사	1610(광해2년)선무원종2등 공신, 병조참판(贈兵曹叅判)증직, 의금부와 훈련원의 지사(知事) 증직
손자 **상룡(尙龍)** (1574~1655) 진사공파 18세	한강(寒岡) 정구(鄭逑),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수학 문인, 호소사참모관(號召使叅謀官)	곽재우(郭再祐)와 화왕산성 기무 논의, 수군영에서 남해 신에 고유문(告由文)올림	1774년(영조50년)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 성주 도천향사(道川祠) 배향

2. 성주 땅을 수복한 의병장 활동

공은 1553년(명종 8년)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20년간 내외의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많은 공적을 쌓고 1572년 낙향하였다. 공은 언양, 영덕, 울산, 고부 등지의 현감, 군수 등 여러 고을 수장을 거쳐 낙향한 후 한강과 동강 선생과 종유하면서 시서(詩書)를 논하였다. 공이 낙향하여 고향 땅의 선비들과 교유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중 성주 땅은 임란으로 초토화되기 시작하였다.

1592년(선조 25년) 공이 6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의병장으로서의 나서게 된 배경과 활동 상황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왜(倭)의 제3군 흑전장정(黑田長政)은 김해로 상륙, 거창, 고령을 거쳐 성주 땅을 점령하고 추풍령 이북으로 북상하는 중이였다. 당시 공은 왜적으로 부터 고향 땅을 지켜야겠다는 충정으로 의병을 소집하고 적군을 막는데 앞 장 서기로 결심했다. 당시 향토의 관직을 두루 거친 존경받던 선비로서 일신상의 안일을 마다하고 의병 제독이 된 공의 충정과 공의 기개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1592년 음력 4월27일, 왜군 대장 흑전장정(黑田長政)은 당시의 성주목사 제말(諸沫)을 죽이고, 왜의 앞잡이가 된 중(僧) 찬희(贊熙)를 목사로 임명하면서 성주

의 많은 백성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 찬희는 왜장 가등청정(加藤淸正)의 앞잡이가 되어 스스로 임시 목사로 행세하면서 지역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토록 급박해지자 당시 초유사(招諭使)[28]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은 공이 맨 먼저 의병(義兵)을 일으켜 적군의 선봉에 서는 것에 감탄하여 제독(提督)[29]으로 차출하였다. 이것이 공이 왜구의 침략으로 초토화되자 성주 따을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져 의병 제독(義兵提督)이 된 연유이다.

의병장으로 추앙된 공은 수백 명의 의병을 결집하여 성주 성 전투에서 적승(賊僧) 찬희의 목을 베는 전공을 세운다. 공은 당시 의분을 참지 못하여 대중들에게 맹세하기를 “지금 왕이 몽진하시고 사직을 옮겼거늘 찬희는 왕법으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와 이 역적은 불구대천의 원수이니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고 주창하자 많은 지역민 합세하여 동참하였다. 당시 성주 각지의 뜻있는 군중들이 모두 뛰쳐나와 의병장인 공을 따르고 그의 지휘 아래 먼저 적승 찬희를 처단했던 것이다.

1593년 선조실록에도 전(前) 군수 배덕문이 승려인 찬희(贊熙)란 자가 임시로 성주 목사(星州牧使)에 제수되어 권력을 남용하여 피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그를 잡아 죽였다고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30]

4월 12일(丙申), 대신들이 김성일이 말한 군공의 잘못을 해명하며 <전 군수 배덕문(裵德文)이 요승(妖僧) 찬희(贊熙.성주목사)를 잡아 죽인> 물의를 끼친 일을 대죄하다.

….전(前) 군수 배덕문의 경우는, 전번의 장계에서, 승려인 찬희(贊熙)란 자가 임시로 성주 목사(星州牧使)에 제수되어 권력을 남용하여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극언하면서 덕문이 그를 잡아 죽였다고 하였으므로, 정직에 초승(超陞)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조정에서 내려온 유시에는 “배 제독은 능히 역적 찬희를 죽여 영남의 충의를 다하였다고 ”고 기록하고 있다. 초유사 김성일이 공의 전공을 듣고 장하게 여겨 나라에 크게 기용하려 하였으나 공은 이를 극구 고사하였다.

그 후 공은 개령(開寧)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이 칠석(七夕)을 기약하여 성주를 약탈하려는 정보를 탐지하였다. 공은 장남 설(楔)로 하여금 적병이 오는 길목에 매복시키고, 자신은 왜적의 정예군을 유인하여 부상진(扶桑鎭: 현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감천면의 경계지점)에서 적장 흑전구침(黑田句沈)을 죽임으로서 기세등등한 왜적의 선봉을 패퇴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무계(茂溪)까지 왜적을 격퇴하니 적은 완전히 패주하였다. 이 전투에서 선생은 적장의 시(詩)가 적힌 금부채(金扇) 1개와 큰 칼 2자루를 빼앗아 후손에게 전하였다. 노획된 금부채는 유실되고, 지금은 큰 칼 1자루만 종가에 보존되어 있다. 충익공 곽재우(郭再祐)와 간송 조임도(趙任道)가 이르기를 "성주가 다행히 왜침을 면한 것은 배제독(裵提督)의 힘이다."라고

28) 초유사는 난리가 일어났을 때, 백성을 타일러 경계하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벼슬

29) 제독(提督)이라는 어휘는 무관 최고의 벼슬자리를 가리킨다. 제독은 최고 사령관에게 사용되는 칭호이며 영어에서는 Admiral이라고 하며 의병장에게도 붙일 수 있는 명칭이다.

30)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4월 12일(병신) 4번 째 기사,

격찬하였다.

이러한 의병장으로서의 공의 용맹은 왜적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597년 정유년 가등청정(加藤淸正)은 재침 시 그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령을 내렸다. “현풍의 곽 마우당과 성주의 배 제독은 그 예봉을 감당할 수 없으니 조심해서 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31] 당시의 적들에게도 공의 행적이 알려질 정도로 전략과 전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고을의 수장을 두루 거치면서 선정을 베풀었고, 말년에는 의병장으로서의 성주 땅을 지킨 공의 거룩한 투혼과 전공은 임란 사에 기리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그 후 공은 당시의 혁혁한 공적이 인정되어 사재감정(司宰監正)[32]에 제수되었다.

성주 향내의 사림에서 공의 공적을 수차 조정에 호소하여 당시에 이를 인정받았으니 가히 천리가 남아 있고 인심이 죽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공의 혁혁한 공적은 공이 돌아가신 후 8년째 되던 해 1610년 경술년(庚戌年, 광해 2)에 선무원종2등 공신 [33]으로 추록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으로 증직되었다. 1873년(고종 10년) 계유년(癸酉年)에는 다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사(知經筵義禁府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知春秋館成均館事),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으로 증직되었다. [34]

오늘의 성주 군지도 ‘우리 고장을 수복한 의병대장 배덕문 선생’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주군 옛 읍지, 향토사에도 ‘임진왜란 성주의병의 대표 배덕문가’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35] 그러므로 배덕문 선생의 의병 활동은 향토사를 넘어 임란 의병사에서도 정확히 기록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당시 노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창의 의병제독이 되어 성주 땅을 왜적으로 되찾은 공적과 공의 기개는 숭고한 보국충정(輔國衷情)의 발로이며 기리 후세에 전달되어야 것이다.

3. 차남 건(楗)공의 장렬한 전사

의병장 배덕문장군의 차남 건(楗)의 호는 고암(高岩)이며 1555년(명종10)에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 부터 성품이 단아하고 효행이 지극하였다. 일찍이 부친 서암공 슬하에서 행실을 몸에 익혀 태도와 몸가짐이 의연하였다고 전해진다. 일찍부터 칠봉(七峰) 김희참(金希叅)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뿐 아니라 정의감이 출중하고 행신이 반듯하였다. 과거에 두 차례나 응시하였으나 실패하자 영달의 뜻을 접

31) 贈吏曹判書 裵 德文 先生神道碑文, 서기 1920년 경신 (庚申) 3월 참조
32) 조선시대 궁궐 안에 쓰는 각종 물고기, 육류, 소금, 숯이나 땔나무, 횃불을 맡아보는 정 3품 관직
33) 선무공신(宣武功臣) 1592년(선조25년) 임진왜란 무공과 나라의 중흥에 일조한 공신들에 대한 1604년 선조37년 6월 25일 내린 공훈이며, (선조실록 권175, 갑진 조) 선무원종공신은 1610년(광해2년)에 신원 등 추가로 내린 공훈이다.
34)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조선 시대, 종이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 자헌대부(資憲大夫)는 조선 시대, 정이품(正二品) 하(下)의 문무관의 품계. 1865(고종2)년부터는 문무관, 종친, 의빈(儀賓)의 품계와 같이 쓰였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8j2631a>[2014. 4. 21
35) http://www.seongju.go.kr/tour/history/people_05.jsp

고, 효제충신(孝悌忠臣)의 네 글자를 써 붙이치고 자신을 깨우치는 평생의 좌우명(左右銘)으로 삼았다. 공은 1587년(선조 20) 32세에 음직(蔭職)으로 선무랑(宣務郞)에 제수 되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왜적이 동래성(東萊城)과 김해성(金海城) 등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성주지역도 점령하였다. 김해 방면으로 상륙한 왜군은 당시 상주에는 4000여명, 성주 1000여명, 금릉(선산 구미)에 1000여명이 진주해 있었다고 추정된다.[36] 왜적이 출몰 할 때 마다 당시의 관병이 이를 격멸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하지만 수적으로 중과부적이서 패하는 상황이었다.

공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친 의병장(義兵將) 배덕문 (裵德文)장군이 성주 성 탈환 전투를 지휘할 때 제1선봉장을 자임하였다. 그해 12월 성주성 밖 에서는 왜장 흑전구침과 두 차례 전투가 있었다. 당시 성주지역에는 많은 왜적이 침범하여 목사 제말을 죽이고 요승 찬희를 목사로 내세워 많은 인명을 살상하였다. 공은 창의 제독인 부친과 도와 의병 500여명을 규합하여 성주 성 밖 하천 쪽으로 적을 유인하여 적을 성주성에서 격퇴하였다. 왜적이 도망간 후 성주읍 성을 탈환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성주성 탈환 의병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이 때 고암 공은 부친과 함께 적승 찬희를 목 베고 성주 땅을 수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은 부친과 함께 부상진(扶桑鎭)[37]에서 적장 흑전구침(黑田句沈)의 목을 베고 금선(金扇) 1개와 칼 두 자루를 노획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성주 향토사에 " 임진왜란 성주의병의 대표 배덕문가"로 소개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38] 당시 건(楗)공이 부친을 도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공로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한편 1592년 말 백형 설(楔)공은 관군을 이끌고 상주, 선산, 금릉 까지 진주한 왜적을 몰아내기 위한 합동 전투 계획을 수립한다. 백형은 동생 건공에게 의병 전투에 참전하여 협력하도록 독려한다. 공의 부친 의병장공께서도 쾌히 차남의 여남현 전투 참전을 승낙하셨다. 당시 건(楗)공은 지금의 성주군 대가면 후포가 아닌 현 금수면 광대원(일명 새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공과 함께 출정한 의병은 200 여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성주군 금수면에서 집결하여 금릉방면으로 30여 명 씩 6-7개 조로 짜서 산악지대를 통해 주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1592년 12월 30일 건(楗)공은 애석하게도 여남현 전투[39]에서 왜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는 중 매복해 있던 왜적의 총탄에 맞아 내외가 함께 전사 하였다.[40] 공은 애석하게도 의병 전투 중 향년 37 세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산소는 현재 불명이다. 공의 배위는 의인(宜人) 상산 김씨(商山金氏)이고 슬하에 장남 상리

---

36) 고암 (高岩)배건 30대 후손 마산 거주 배태호의 현지 탐방 증언, 인터넷 자료 .

37) 현 성주군초전면과 김천시 감천면의 경계지점으로 추정됨

38) 성주군청, 성주 향토사, 2010, 참조

39) 여남현은 금릉군(구미시) 어모면 구례 3 리에 있는 여남으로 추정됨. 현재의 구미시(1990년대 부터)는 과거 김산군(1918년 이전),금릉군(1918년-1990년대)에서 수차례 바뀌었음 .

40) 성주군청, 내고향 성주, 1884, p.29

(尙璃:石巖), 상서(尙瑞) 등 2남 2녀를 두었다. 공의 후손들은 성산 배씨 선무랑파(고암파)로 현재 경남 창녕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그 여남현 전투에서 건(楗)공이 지휘하였던 의병들도 200여명이 모두 전멸하였고 왜적 약 200-300명도 소탕되었다고 추산되고 있다. 구미 향토사는 당시 여남현 전투에서 살아남은 왜적의 잔당들이 상주방면으로 이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41] 그러나 그의 살신성인의 순국 정신은 기리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다.

공은 1610년 (광해 2년) 백형 설의 신원이 이루어질 때 공로가 함께 인정되어 통정대부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증직 되었다. 현재 공의 신도비는 성주군 대가면 도남동 후포리 숭조대에 6현과 함께 모셔져 있다.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신기(新基)에는 공의 유허비(遺墟碑)가 마련되어 있다. 멀리 경남의 창녕에 있는 공의 후손들뿐 아니라 경향 각지의 있는 공의 후손들도 이곳을 방문하여 공의 위업을 기리고 있다.

4. 손자 등암(藤庵)의 학덕

등암 상룡(尙龍)(1574~1655)공은 부친 신재(愼齋)공 배설 수사와 야성(冶城) 송(宋)씨 원(源)의 따님인 모친 사이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공의 자는 자장(子章), 호는 등암(藤庵)이다. 등암은 의병장 서암(書巖)공의 장손이며 아래로 상호, 상조, 상보 삼형제가 있다. [42] 등암 공은 사재감정 신인서(愼仁恕)의 따님과 결혼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기품이 출중하였으며,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였다. 공은 일찍이 한강(寒岡) 정구(鄭逑)선생과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스승 한강의 총애를 받았다. 공은 부친이 누명을 쓰고 비명에 감으로서 일찍부터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뜻을 두고 자중 자애하였다. 스승 한강은 문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공자(孔子)께서 말씀 하시기를 “ 내가 자로(子路:공자의 제자)를 얻은 후 부터 악성(惡聲)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나도 자장 (子章, 裵尙龍)을 얻은 후 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함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한 적이 있다. 한강은 말년 공사적인 일을 모두 등암 공에게 일임하였으며, 당시의 선비들이 한강의 제자 중에서 공을 제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은 스승 한강이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치루고, 선생의 뒤를 이어 사문(斯文)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였다. 공은 한강서거 후 스승의 문집을 간행

41) 구미시, 금릉군 향토사자료, 고암 선생 후손의 증언 인터넷 자료 참조

42) 공의 동생 상호(尙虎) (1594년(선조 27)~1632년(인조 10)는 자는 계장(季章)이고, 호는 괴제(愧齋)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24년(인조 2) 식년시 진사 시험에 2등으로 합격하여 태학(太學)에 입학하였다. 괴재공은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형을 부친처럼 섬겨서, 주위로 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스승 한강의 가르침에 따라 행실을 독실하게 하고 자기 수양에 힘썼다. 공은 향년 38 세로 아깝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저서로 《괴제선생문집(愧齊先生文集)》 4권 2책이 있는데 1860년(철종 11)에 간행되었다.

하고, 비석을 세우고, 서원(書院)을 건립하는 등 스승의 유업 계승을 주도하였다. 또한 공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선생 문하에서도 수학하였는데 스승이 하세하자 공이 초종범절(初終凡節)을 모두 주관하였다. 이처럼 공은 영남 사림파의 학맥을 이으면서도 선고가 비명에 떠난 것에 심상하여 일체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23세 이던 공은 부친 설(楔)공이 관할하는 수군영(水軍營)을 방문한 적이 있다. 공은 그곳에서 전투에 임해 승전과 무사를 기원하기 위해 신에게 고유(告由)하는 글을 지어 올렸다. 이는 공의의 등암 문집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43] 또한 공은 임진왜란 시 창령 화왕산성(火王山城)에서 의병장 곽재우(郭再祐)와 기무를 논의하면서 함께 왜적의 침범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공은 곽마우당 문집 동고록(同苦錄) 서문을 서술할 정도로 마우당과도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이처럼 공은 어릴 때부터 의병장인 조부의 충절과 경상우수사의 부친의 기개를 이어 받아 남다른 우국(憂國衷情)의 가계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러한 공의 충정(衷情)은 임란 이후에도 변치 않고 이어갔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분개한 공은 도내 전역에 격문(檄文)을 보냈으며,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을 당하여서는 통유문(通喩文)을 지어 올려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스승 장여헌의 참모역할인 호소사참모관(號召使參謨官)을 지내면서 그의 기무(機務)를 적극 도왔다.

공은 당시 학문적으로 걸출하였지만 비명에 간 선고를 생각하면서 일체 공직에는 나아가지 않고 영남 사림의 곶은 자세를 견지하였다. 공은 여러 차례 자신의 공거문(公車文: 응시, 응제, 소장 등의 시문)이 뽑혔으나 과거에는 일체 응시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를 봉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동생 괴재(愧齋) 상호(相虎)를 잘 가르쳤다. 공은 그 후 여러 차례 조정의 부름이 있었으나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비명에 돌아가신 선고를 생각하여 일체의 관직제의도 거부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및 문헌비고겸옹가범교지(文獻備考兼翁家範敎旨)와 봉서(奉書)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공은 한강과 여헌의 수제자로서 영남 사림학파의 학맥을 이으며 벼슬 제의가 있었지만 일체의 관직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공은 53세가 되던 1637년 선교량의 벼슬이 내렸으나 그것마저 배수하지 않았다. 공은 모함과 누명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선친**을** 추모하며 평생을 조용한 선비로서 일생을 보냈다. 공은 덕(德)을 숨기고 의(義)를 실천한 영남 사림의 전형적인 선비의 모범을 보였다.

만년에는 수도산 산중에 등암정사(藤庵精舍)를 지어 학문에만 정진하여 문장은 탁월하고 학문은 더욱 심오해져 주변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공은 영남 사림의 종사(宗師)가 되어 원근의 학자들이 공에게 배움을 구하고자 모여 들었다. 성주 향내뿐 아니라 경향 각지에서 그의 행신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43) 고유문(告由文)은 국가나 개인이 큰일을 치르기 전후에 천지신명이나 조상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올리는 글

이러한 등암 공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수 허목(許穆)이 그의 묘갈(墓碣)문에 공을 '조선국 처사'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44)

" 공의 행적은 가히 영남 사림의 모범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공이 어느 해 정권을 뒤엎으려는 반역 행위로 고변(告變)된 일이 있는데 당시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연루되었는데, 공도 구속되어 심문당한 일이 있다. 당시 공이 서울로 올라와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45)을 자기(許穆)에게 보여 주면서 이르기를, '나는 죽어도 이 학설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46)

이글에서 공의 타협하지 않는 선비로서의 변함없는 지조와 정의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허목의 아래와 같은 글귀는 공의 학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7)

....공은 이미 몰하였으나, 그 유풍(遺風)과 여교(餘敎)는 자손에게서 또한 볼 수가 있다. .... 아! 보배를 안고서 숨어서 사니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치 않았으며, 확고하고 화충(和忠)스러웠으니 순실히 처세하여 자랑함이 없었는데, 고을 사람 감복하고 존경하여 아직도 노덕(老德)살아 있다 여기네....

공은 말년에 무흘산(武屹山)의 깊고 큰 골짜기인 동학(洞壑)을 찾아가 늙도록 그곳에서 살면서 별호를 등암(藤庵)이라 하고, 혹자가 현량(賢良)으로 천거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공은 임종 시 지방에는 벼슬을 쓰지 말고 '숭정처사(崇禎處士)'라고만 쓰라고 유언하였다.48)

공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배세유(裵世維), 배세기(裵世紀)이며 두 사위는 이유전(李惟銓)과 김시수(金是燧)이니 모두 사인(士人)이다. 공은 1655(효종6)년 81세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공의 상사(喪事) 소식을 듣자 미수 허목은 침문(寢門) 밖에서 곡(哭)을 하였고 장례를 모실 때에는 애사(哀詞)를 지어 애도하였다. 공의 묘지는 23년 전에 돌아가신 부인과 합장하여 지금의 경북 성주군 대가면 물법(勿法)리 후리곡(厚理谷)에 있다.

공은 떠난 지 19년 되던 해인 1774년(영조 50)에 통훈대부사복시정(通訓大夫司僕寺正)에 증직되었다. 같은 해 사림에서 도천서원(道川書院)을 세워 공을 배향하였으며, 서원 옆에 마련된 영각(影閣)에는 공의 영정(影幀)이 잘 봉안되어 있다.

---

44) 허목의 등암처사명(藤庵處士銘) 참조

45)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는 공의 스승인 한강의 저서로서 정호(程顥)·정이(程頤)·장재(張載)·사마광(司馬光)·주희(朱熹)의 예설을 분류한 것으로 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예를 통하여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생활을 이롭게 한다는 도덕 지상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책이다.

46) 1631년(인조 9) 권대진(權大進) 등이 영남의 최현(崔晛)·승려 천식(天植)과 함께 일으키려던 모역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은 금부도사에게 붙잡혀 추국을 당한 일이 있다.

47) 허목(許穆), 국조인물고 권41 ,사자(士子) 등암(藤庵) 묘비 명

48)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壬辰亂精神文化禪讓會), 임진란 문헌목록(壬辰亂 文獻目錄) I, 자료번호126, 배상룡(裵尙龍) , (주) 광교이텍스, P. 301

1785년(정조 9) 유림들이 모여 도천향사(道川鄕祠)에 배향하였다. 공이 남긴 문집 4권은 현재 안동 한국 국학 진흥원에서 번역작업이 끝난 상태이다. 곧 책이 출간되면 공의 소상한 학덕은 더욱 빛 날 것이다.

사진 3. 등암 선생의 묘소 전경



출처 : 성주군 대가면 물법(勿法) 후리곡(厚理谷)에서 촬영

IV. 서암공의 유문과 학덕

본장에서는 공이 남긴 유문과 그의 학덕을 정리하기로 한다. 서암 배덕문 선생은 문무를 두루 겸비한 선비이다. 선생의 이러한 풍모는 말년 고향 땅 성주에서 거유 한강, 동강과 종유하면 시문을 논하다가도 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의연히 창의 제독이 되어 왜적을 무찌른 공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본장에서는 그가 남긴 유문인『서암 실기를 통해 그의 학문과 사상을 개관하고 학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유문(遺文)『서암 실기 』

공의 임란시의 자세한 활동과 공적은 전화(戰火)에 유실된 것이 많고 구전되어 오던 것은 세월이 감에 따라 단절된 것이 많다. 공의 시문(詩文) 역시 전하는 것이 별로 없으나 선생의 유일한 유문(遺文)인 서암 선생실기(書巖先生實記)는 아직도 종택에 잘 보전되어 있다. 이 문집은 선생의 군자의 행실에 관한 논의을 바탕으로 가문의 상례와 제례에 관한 예절을 가첩 형태로 모은 자료집이다. 1860년(철종 21) 후손 배석일(裵錫一)이 편집하여 간행하여 오늘에 전하고 있다.

이 책의 체제 및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에는 배덕문 선생의 유문(遺文)을 정리하고, 하권에는 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49] 책머리에

49) 성산(성주) 배씨카페 cafe.daum.net/seungsan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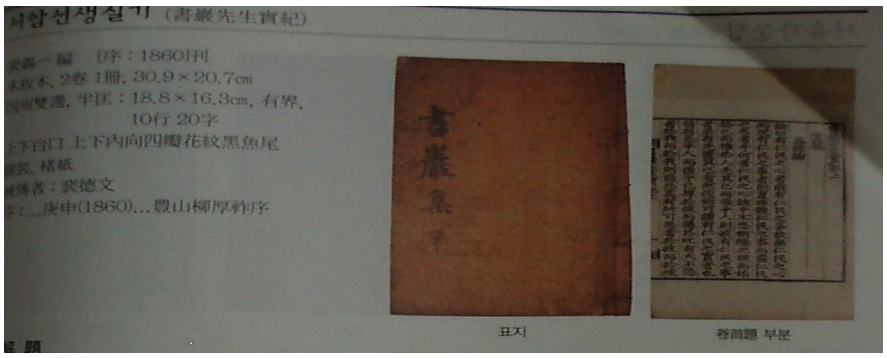
는 우의정을 역임한 유후조(柳厚祚)[50]의 서문이 기술되어 있다.

상권에는 탄질론(呑蛭論), 고참봉부군비공인롱서이씨합부묘표(考叅奉府君妣恭人隴西李氏合祔墓表), 처사도송묘지문(處士都松墓誌文)이 있다. 그 중 <탄질론>은 고전를 인용하여 주민들의 애민사상을 고취한 글이다. 공이 여러 고을의 수장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애민사상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인 방도를 논의한 책이다. 여기에는 공이 일찍이 자손들에게 경계한 "학문을 하는 도리는 오직 효제충신(孝悌忠臣)을 하는데 있으니, 대학의 경(敬)과 중용의 성(誠)은 이것을 일관하는 원리이니 오직 군자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주력하여 입지를 굳혀야 한다."는 도덕률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탄질론(呑蛭論)에는 평소 선생의 소신인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는 일이 있음이 참으로 좋은 것이니 밖으로만 치장을 하는 것은 비록 잘하는 것 같아도 귀한 것이 못 된다"고 하여 겉치래 형식주의적 가치를 버리고 실질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암 실기의 하권(부록)에는 서암공유사(書巖公遺事), 서암공묘표(書巖公墓表), 부유림정상(附儒林呈狀) 4수(呈本官鄕狀. 呈巡營道狀. 呈兼官到付鄕狀. 呈禮曹道狀), 본관보영문상초(本官報營門狀草)등이 기술되어 있다.[51]

이 문집은 후손들이 한국 국학 진흥원에 의뢰하여 번역 작업을 계획 중이다. 아래 사진은 서암공의 유문인 서암실기와 그의 책판이다.

사진4. 문집(文集) / 서암선생(書巖先生) 실기(實記)와 책판 .



2. 인품과 학덕

앞서 서암 공의 생애에서 보았듯이 문무를 겸비한 공의 성품과 학덕은 여러 곳에

50) 유후조(柳厚祚) (1798년, 정조 22 ~ 1876년,고종 13) 본관은 풍산(豊山) 유씨이며 호는 매산(梅山) 1858년(철종 9)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부사·부호군을 지내고, 1864년(고종 1)에 이조참판, 이듬해 공조판서를 지냈으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남인계 인사 중용 책에 따라 1866년 우의정에 이르다.

51) 성주 문화원간(星州文化院刊), 성주문원(星州文苑) 참조.



서 찾아 볼 수 있다. 선생의 공직 생활과 임란시의 의병활동 등 여러 행적을 통해 볼 때 그의 인품과 학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의 지극한 효심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공은 공직 생활 초반에 선친 상을 당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3년 상을 정중히 치르고 공직에 복귀 하였다. 공은 1557년 정사년(丁巳年명종 12) 선친상(喪)을 당하자 주자(朱子) 가례에 따라 3년 동안 여막에서 시묘(侍墓)를 하고, 한 번도 이를 드러내서 웃음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자고로 효(孝)는 백행지원 (百行之源)이라 하지 않았던가. 공의 이러한 효행은 남을 위하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선생은 성품이 온화하고 공손하며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으나 의리에 관계되는 일에는 확고하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생의 이러한 성품이 임란이라는 난세에 몸을 던져 싸워서 마침내 남다른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의 이러한 기개는 승려 보우의 불교 진흥책을 반대하여 공직을 버리고 낙향 한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유학자인 선생의 남다른 절개와 인품은 평소 꾸준히 학문을 연마하여 실천하려는 굳건한 용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이 선비로서 항상 숭상한 격물치지(格物致知)과 성의 정심(誠意正心)의 가치를 몸으로 체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문무를 겸비한 선생은 세상에 드문 공적이 많았지만 항상 겸손의 미덕을 보인 점이다. 의병장인 공은 성주 성 전투에서 의병대장으로 왜적을 성 밖으로 유인하여 승리를 거두고, 왜장 흑전구전의 목을 베는 등 탁월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공은 항상 자중자애(自重自愛)하는 선비의 겸손을 보였다. 공의 공적을 초유사 학봉선생이 듣고 장하게 여겨 나라에 상신하여 크게 기용하려고 하였으나, 공이 고사하였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공의 비문에는 '공은 홀로 대수(大樹)에 은거하였으니 가히 학문의 힘이 남보다 한등 더 높음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을 말하여 국사(國士)라 할 수 있고 군자라고 할 수 있다'고 칭송한 것도 그의 인품의 잘 표현한 구절이다.

공의 이 같은 훌륭한 인품은 이만규 선생이 쓴 서암 공의 신도비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공의 문무를 겸비한 국사(國士)이며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군자'라고 아

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52)]

“문장(文章)은 족히 후세의 법언(法言)이 되고, 무예는 족히 외적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자를 가히 국사(國士)라 하니, 이미 이 두 가지를 겸전(兼全)하였고, 또 청렴(淸廉)이 족히 써 양지(養志)를 하며, 학문이 족히 써 사리(事理)에 밝으면 이것을 가히 군자(君子)라고 말할 수 있다. 고 서암선생(故書巖先生) 배공(裵公)과 같은 분은 군자가 아니던가? 참으로 군자였다”.

V. 결론

지금 까지 의병장 배덕문 선생을 중심으로 가계의 3대에 걸친 임란시의 행적과 공로를 정리해 보았다. 서암 공의 일생은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재임 중에는 여러 고을의 수장 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말년에는 왜구의 침탈에 직면하여 분연히 일어서서 의병장으로서 향토와 국가를 위한 일생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공이 의병제독으로 추대되어 자식 3 형제들까지 동원하여 전투에서 승전하여 고향 성주 땅을 지킨 공로는 후대에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배덕문가의 3대에 이은 임란의 행적을 소상하게 밝히는 과업은 쉽지 않는 과업이었다. 임란의 역사가 오래됨에 따라 자료가 많이 소실되고 남아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은 조선 왕조 실록, 징비록, 서암선생 실기 등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두루 섭렵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현대적 자료는 성주군지, 성산 배씨 대종보, 서암 선생의 신도비문등을 토대로 보완하였다. 특히 성산(성주)배씨 카페(cafe.daum.net/seungsanbae)에 수록된 많은 자료는 이 글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둔다. 특기할 것은 이 글은 경향 각지에서 관심있는 후손들의 자료 제공과 협력으로 글의 수정·보완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밝혀 둔다.

이글을 맺으면서 서암 배덕문 선생의 3 대에 걸친 보국충정(輔國衷情)의 의병 활동과 공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생이 6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창의 의병장이 되어 전투에 앞장서고 향토를 지킨 기개와 공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 나라의 안위를 소홀히 하여 왕이 임란 발발 수개월 만에 의주까지 피란하고 선생의 고향 성주 땅까지 침탈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선생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전투에 참여한 왜적의 적장까지 제거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공로는 임란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공의 비문을 쓴 이만규도 만약 그 당시의 난리에서 공이 ‘성주(星州)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비단 경상도가 어육(魚肉)이 되었을 뿐 아니라 호남도 장차 큰

52) 贈吏曹判書 裵 德文 先生神道碑文, 서기 1920년 경신 (庚申) 3월, 통정대부, 홍문관 부교리, 동학교수 이만규(李晩奎 1845~1920)가 씀, 그는 진성인(眞城人)으로, 자(字)는 순칙(順則), 호(號)는 유천(柳川)이다. 1919년 고종의 인산에 참석하고, 김창숙(金昌淑) 곽종석(郭鍾錫) 등과 협의하여 파리만국평화회의에 유람단 대표로 독립청원서를 발송한 뒤 검거되어 성산(星山)감옥에서 옥사하였다.

화를 입었을 것'[53]이라고 기록하면서 선생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둘째, 의병장 서암 공의 찬란한 업적은 아들 3형제와 함께한 결연한 결과이며 이러한 보국충정의 정신은 아들에 이어 손자에게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남 설은 선산부사로서 금오 산성을 수축하여 왜적의 북상을 막았고, 여러 의병 전투에서 3형제는 합세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손자 등암은 어린 나이에 부친의 수군 진영을 방문하여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고유문을 올리고, 병자호란 시에는 도내 곳곳에 격문을 돌려 우국충정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처럼 3 부자와 조손이 함께한 임란 시의 전공은 임란 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의병장 배 덕문선생의 가계에서 차남 건과 3남 즙은 임란 7년 전쟁에서 형제가 동시에 희생되는 비운으로 충절의 가문임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앞서 기록 된 것처럼 차남 건은 1592년 의병활동에 자원하였다가 부부가 여남현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며, 3남 즙은 1597년 백형 밑에서 조방장으로써 노량 해전에서 참전 중 왜적의 총탄에 희생되었다. 이처럼 형제가 육전과 해전에서 각기 순국한 특기할 기록은 임란 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그러기에 역사에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넷째, 의병장으로서 활동하던 공은 생시 자식 3형제를 먼저 보내고 외로운 말년을 보내면서도 의연한 선비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점이다. 아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자식은 아비를 청산에 묻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아비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였다. 자식 3 형제를 생시에 잃은 공의 가슴은 어찌 말로 형언 할 수 있었을까. 특히 장남 수사공까지 모함에 의해 국문을 당할 때, 임란 시 의병대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선생까지 서울로 압송되어 손자와 함께 조사를 받고 방면된 일이 있었으니 이 억울한 사연은 어찌 통탄하지 않으리오. 조손이 수사공의 시신을 수습하여 오는 길에 흐르는 눈물을 어찌 필설로 형언할 수 있었겠는가.[54] 그러함에도 선생은 말년을 선비의 절제와 기상을 잃지 않고 보냈으니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흐름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아니던가. 1610년 (광해 2년) 아들 수사공의 신원이 이루어짐으로서 그 동안의 억울한 공적은 다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수사 공 본인 뿐 아니라 부친 서암 공과 아들 3형제의 임란시의 공적까지 공훈록에 책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우리는 임란 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3대에 이르는 배덕문 의병장의 혁혁한 임란 전공을 더욱 보완하여 역사에 오래도록 남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범(家範)』(배석휘)

53) 서강 선생 신도 비문, 이만규 찬

54) 선조 110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3월 6일(을유) 5번째 기사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난중일기 』
『동국사(東國史) 』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卷)』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충훈록(忠訓錄)』
『현무공실록(顯武公實錄)』(김억추)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구미시, 『구미시 향토사 』, 2008
노성석 옮김, 난중일기, 믿음사, 1966
성산 성주배씨 대종회,『 성산 성주 배씨 대종보(수권),』 대보사, 2012
성주군청, 『성주군지』『내고장 성주』
송인호 편저, 『임란대장군(壬亂大將軍) 원균통제사(元均統制使)』 / 상권(上卷)임란사상(壬亂上) , 개벽공론사 1995
이경석,(李炯錫,)『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이순신, 『난중일기』, 노성석 옮김, 믿음사, 1966,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壬辰亂精神文化禪讓會), 『임진란 문헌목록(壬辰亂 文獻目錄) 』 I, 자료번호126, 배상룡(裵尙龍)
성산(성주)배씨카페 cafe.daum.net/seungsanbae
정만진, http://blog.naver.com/clean053 배설 장군은 어찌되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허목, 국조인물고 권41 사자(士子), 등암(藤庵)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의 생애 · 업적

작성자 :진사공파 29대손 배재영(행정학 박사)

일자	생애 ·업적	내용
1551년 (명종 6)	출생 -성산인(星山人). 고려 삼중대광 벽상공신 배위준(位俊)의 16대(代)孫이다. -진사(進士)공파 10대손 9세:배현(俔)= 성균진사(進士) -서암공파 1세손 16세:배덕문 서암공파 시조	-父 : 배덕문(裵德文: 1525-1602) = 서암공파 시조 -母 : 농서 이세무(世茂)의 딸, 도은 선생 이숭인 (陶隱先生 李崇仁)의 5세손. - 배 설(裵楔) 공은 1551년 (명종 6) 서암공(書巖公) 덕문(德文:贈吏曹判書)의 장남으로 태어 났다.자는 중한(仲閑), 호는 **서강(西岡), 신재**(愼齋) 로 성산배씨(星山裵氏) 17세(世)이다. 공은 용력이 출중하였으며, 국량이 과인(過人)하였다. 어려서 부친(德文)이 울산군수로 부임할 때 공도 함께 갔었는데 절도사 장필무(張弼武)가 공을 보고, 그 그릇이 범상치 않음을 간파하여 글보다 무예를 우선으로 힘쓸 것을 권고 하였다. **1583년(선조 16)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하여** 변방으로 거듭 기용되었는데, 부임해서는 모두 치적의 명성이 있었다. -형제들 : 건(楗), 즙(楫), 력(櫟)
1583년 (선조 16)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 32세	

1592년 (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	**-주부 :** 방어사 조경 휘하 전투 **-의병 :** 부상진, 개상진, 무계진 전투	부상진(扶桑鎭)은 성주에서 김천 넘어가는 고개이며, 개산진(開山鎭) 현 김천의 개령을 말한다.
	합천 군수	고대일록의 배설 ○ 11월 8일 갑자(甲子) 대장(大將) 김면(金沔)이 장악원정(掌樂院正:음악 담당하는 관리)이 되었고, 성주 가장(星州假將) 배설(裵楔)은 합천 군수(陜川郡守)가 되었다.
1594년 (선조 27)	**동래부사(東萊府使)**	
1594년 (선조 27) 가을	**진주목사(晉州牧使)**	**▶선조 6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4일(정미) 3번째기사** 비변사가 김응서의 병세·병수사의 교체 등의 일을 아뢰다. “이일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므로 신들도 염려하였으나 대신 거느리게 할 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처럼 아뢰었는데, 지금 상교를 받고 보니 극히 윤당합니다. 단 선전관 조광익(趙光翼)이 새로 남쪽 지방에서 와서 비변사에 말하기를 **‘진주(晉州)의 백성들이 배설(裵楔)이 떠나는 것을 막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여 온 경내의 노인과 어린애들이 떼를 지어 에워싸고 지키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배설이 아직도 부임하지 못했다.’ 합니다.** **배설이 아직까지 부임하지 못했다면 원균(元均)과 선거이도 다 교대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만일 차차로 교대한 뒤에, 선거이가 남하한다면 지체될 듯싶습니다. 그러나 선거이로써 대신 거느리게 할 것을 도원수에게 하유하고, 만일 선거이가 미처 내려가

		기 전에 김응서의 병이 위중하고 대신 거느릴 사람이 없으면 곽재우(郭再祐)가 그대로 잠시 대신 거느릴 만하니, 이 내용을 하서(下書) 중에 아울러 기입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6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6일(기유) 1번째기사** 《주역》을 강하고, 관찰사의 임명·군공의 허위 문제 등을 논의하다. "김응서(金應瑞)의 병이 위중하니 그 군사를 대신 거느리도록 마땅히 전지를 하셔야 합니다. 선거이(宣居怡)가 차차로 부임한 뒤에 내려간다면 그 기간이 너무 멀고, 또 들으니 **배설(裵楔)은 수질(水疾)이 있어서 주사(舟師)의 임무에 합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설이 용맹이 있는 장수라고 하나 수질이 있으면 주사에 쓸 수 없을 것이다."**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윤선각이 아뢰기를, "선전관(宣傳官) 조광익(趙光翼)이 도원수의 처소에서 와서 말하기를 **'배설이 부임하려고 하는데 진주 백성들이 길을 막고 더 머물러 주기를 원하여 성을 나가지 못하게 하니, 도원수도 난처하게 생각하여 선거이로 하여금 막하에 와서 있게 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김응서는 병이 위중하여 군사의 일을 보살필 수 없으니, 우선 곽재우(郭再祐)로 대신 그 군사를 거느리도록 이에 대한 전지를 속히 내려 보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속히 하라."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배설은 이미 수사(水使)가 되었으니 즉시 부임해야 할 것인데, 백성들에게 차단당하여 성을 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같은 말이 조정에 들리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윤선각에게 이르기를, "경이 유사 당상으로 있으니, 속히 의논해서 하라."

1595년 (선조28) 2월	경상우수사	조정에서는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불화가 심화 되고 있어, 조선 수군의 지휘력과 전투력 발휘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원균 장군을 충청병사로 전출시켜 육군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고 선조에게 보고 하였다. 이에 선조는 **원균 장군을 충청병사로 전출** 시킨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은 당시 보직대로 전라좌수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원균 장군이 수행하던 경상우수사의 직책을 담당 할 장군을 모색 한다. 이에 선조는 조정 대신들의 추천에 의하여 진주목사**로 재직 중인 배설 장군을** 원균의 후임 경상우수사로 임명 한다. 배설 장군이 경상우수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정을 바로 잡고 창고를 헐어 군병을 급식하고 함선과 병기를 수리하며 장졸들의 사기를 높이자, 유성룡과 이원익이 배설 장군을 간성(干城)이라고 칭찬 하였다. 그러나 시국의 폐단을 들어 상주한 것이 도원수 권율에게 거슬려 **밀양 부사로 좌천** 되었다가 다시 **선산부사겸 금오산 별장으로 보직** 되어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쌓아 진지를 구축하고 성내에 구정칠택(九井七擇:아홉 개의 우물과 일곱 개의 못)을 파고 혜창(惠倉:곡식과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을 설치 하였다.
1595년 (선조28) 2월 이후	밀양부사	**▶선조 65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7월 14일(을유) 2번째기사** 도원수 권율이 김응서의 주장을 능멸한 죄에 대해 치계하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리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근래 무장들의 교만한 습관이 점차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설(裵楔)의 범죄 사실이 놀라왔으므로 잡아다 국문까지 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켰는데, 이 장계를 보건대 김응서가 주장(主將)을 능멸한 정상이 배설에 비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중한 벌을 주어 방자한 죄를 징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적병의 거류(去留)가 미정이므로 기관(機關)이 매우 염려되니 장수를 교체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우선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도원수로 하여금 김응서를 잡아다가 엄중히 곤장을 쳐서 경계를 보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리고 도원수도 다시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서 만약 부하 중에 법을 따르지 않거나 주장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처단하여 군율을 엄숙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관청에서 문서를 보내어 조회하는 일을 이르던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595년- 1596년	선산부사겸 금오산 별장	**▶선조 66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8월 5일(을사) 1번째기사** 남방과 북방의 위급한 형세에 대한 비변사의 대책 논의 **선산(善山)의 금오 산성(金吾山城) 및 인동(仁同)의 천생 산성(天生山城)도 형세를 살펴 아울러 요리하여 큰 진(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산 부사(善山府使) 김윤국(金潤國)은 오졸한 서생(書生)이어서 일을 초창하여 경영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니, 어쩔 수 없다면 배설(裵楔)에게 전적으로 맡겨 조치하게 하여야 거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 곳의 일을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체찰사에게 물어서 그 회보를 기다린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선조 74권,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2일(무술) 1번째기사** 유성룡이 노모를 만나고 돌아오자 영남의 정세를 묻고 여러 가지 정사를 논의하다 **"체찰사가 성주(星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던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그 사람은 애민(愛民)을 위주로 하여 수습하고 무마하는 뜻이 지성에서 우러나오며 자

		신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거처가 숙연합니다. 체찰사의 명령으로 공산 산성(公山山城)을 수축하니 영남 사람들이 모두 공산 산성에 들어가 계획을 펴며, **근일에는 모두 '천생 산성(天生山城)을 수축하면 거기에 들어가 웅거할 만하다.' 고 하므로 배설(裵楔)로 하여금 이 성을 수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중국 장수들이 늘 '이 성을 수축함이 옳다.' 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조 82권,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1월 17일(기유) 2번째기사** 도체찰사 이원익이 왜적의 방비책·기인·방납 등에 대해 아뢰다. "성주 산성(星州山城)은 수축(修築)하여 지키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수축했어도 성 모양이 좋지 않고 골짜기의 평평하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장사(將士)들이 다들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산(善山)의 금오 산성(金烏山城)은 선산의 수령(守令)인 배설(裵楔)을 장수로 정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1597년 (선조 30) 2월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이 죄인이 되어 관직을 삭탈 당하고 원균이 수군 통제사가 되자, 선조에 의해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재보직 되어 정유재란을 맞이 한다.** **▶선조 89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6월 26일(을유) 6번째기사** 수군의 여러 부대를 바다에 나가게 하여 위세를 삼도록 하다 남쪽의 일은 이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 보아도 매우 염려가 되는데, 근일에 이르러서는 남풍(南風)이 연달아 불어 전선이 연속적으로 와서 정박하게끔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나라 수군이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낱낱이 소탕해 막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선박을 합쳐 몇 개 부대로 나누되 **배설(裵楔)은 경상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이억기(李億祺)는 전라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며, 최호(崔湖)는 충청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원균(元均)은**

		그가 거느린 선박으로 일개 부대를 만듦으로써 한산도를 굳게 지켜 근본을 삼고 부대별로 교대로 해상에 나가 서로 관측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혹은 서로 가고 오기도 하고 먼 거리까지 혹은 가까운 거리를 다녀 정처(定處)가 없이 하면서 금고(金鼓) 소리로 서로 통하고 깃발이 연락하게 해야 합니다.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2일(신해) 2번째기사** 선전관 김식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다 **“15일 밤 2경에 왜선 5~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 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자 우리 나라 제장들이 창졸간에 병선을 동원하여 어렵게 진을 쳤는데 닭이 울 무렵에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왜선이 몰려 와서 서너 겹으로 에워싸고 형도(刑島) 등 여러 섬에도 끝없이 가득 깔렸습니다. 우리의 주사(舟師)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 지역 추원포(秋原浦)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元均) 및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했는데,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니 왜노 6~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옥포(玉浦)·안골(安骨)의 만호(萬戶)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전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2일(신해) 3번째기사** 원균이 지휘한 수군의 패배에 대한 대책을 비변사 당상들과 논의하다 “원균은 처음부터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남이공의 말을 들으면 **배설도 ‘비록 군법에 의하여**

		나 홀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군졸들을 어떻게 사지에 들여 보내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대체로 모든 일은 사세를 살펴보고 시행하되 요해처(지세가 자기편에게는 유리하고, 적에게는 불리한 곳)는 고수해야 옳은 것이다. 이번 일은 도원수(권율)가 원균을 독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배가 있게 된 것이다." **▶선조 91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8월 5일(계해) 4번째기사** 원균을 비롯하여 패주한 장수들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치계하기를, **"주사(舟師)의 각 장수들에 대한 생사와 거처는 전에 태안 군수 이광영(李光英)이 진술한 바에 의거하여 이미 장계를 올렸는데, 뒤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전후 말한 것이 각기 달랐으므로 권율(權慄)에게 전령하여 무사를 각처로 파견하여 사실을 확실히 조사케 한 후에 계문(啓聞)하려 합니다."** **임진난 이후 분궤(奔潰: 싸움에 져서 뿔뿔이 달아 남)한 장관(將官)들을 한 사람도 군법에 의해 치죄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관습이 되어 보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주사들은 처음부터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다가 패멸된 것이 아니라 살아 남은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중론을 참고해 보니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사한 자는 조방장 김완(金浣) 뿐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에게 모두 군법을 시행할 수 없다 해도 **원균(元均)은 주장(主將)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조방장 배흥립(裵興立) 두 장수는 제장의 우두머리였으니 배흥립에게는 우선 군령을 시행하고, 배설은 지금 병선을 이끌고 바다에 있으므로 이 사람까지 제거하면 해로(海路)가 모두 비게 될 것이니 우선 뒷날을 기다려 논의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이하 수령과 변장들도 등급을 나눠 죄를 주되 그 중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을 주장하여 서로 구원해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군법으로 처리할 것을 도원수 권율과 이미 의정(議定)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주사의 패군한 장수에게는 원래 해당되는 군율이 있으니 장계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수령이나 변장들도 거처를 찾아내어 등급대로 죄를 주되 그 중 먼저 도망할 것을 선동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자는 그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 모두 군법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배설은 지금 주사를 영솔하고 바다 가운데에 있으니 잠시 후일을 기다려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 **다만 원균(元均)을 죽이려 할 경우 균이 마음 속으로 복종하지 않을 듯하니,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원균이 군사를 잃은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간에 잘못한 죄를 오로지 원균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을 듯하니, 우선 원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선조 93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10월 11일(무진) 5번째기사** 비변사가 **도망친 수사 배설 등의 처벌을 논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주사(舟師)의 차장(次將)으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율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 내의 사연(辭緣)과 곧 선전관을 보내 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접반사 이덕형으로 하여금 경리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절(南截)과 송남수(宋枏壽)의 도망한 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왕옥(王獄)에**

		잡아왔으니 국문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망한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부득이 하나하나 잡아다가 문초해서 그 중에 범법한 정상이 가장 중한 자는 베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1597.6월18일(양력7월30일)	# 1차 부산포 공격) 안골포와 가덕도 앞바다에서의 전투 상황	조정에서는 왜군의 후속 부대가 올 것이라는 첩보를 듣고 수군통제사 원균 장군에게 즉각 부산 지역으로 출동하여 왜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 하였다.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부산 공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원균 장군은 육군이 먼저 안골포의 왜군을 격파한 이후라야 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출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과 권율 장군의 성화에 못 이겨 출동이 불가피 하였다. 원균 장군은 1597년 6월 18일 조선 함대를 이끌고 한산도를 출항 하였다. 그러나 왜군은 육지에서 조선 수군의 이동을 탐지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조선 수군의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전투를 회피 하였다. 따라서 조선 수군은 왜 수군의 수륙합동 작전에 의해 안골포와 가덕도 지역에서 별다른 전공도 없이 보성 군수인 안홍국이 전사하는 피해만 입고 한산 본영으로 철수 하였다. 그리고 안골포의 왜군을 지상에서 먼저 공격해야만 수군 공격이 가능하다고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마치 도원수 권율이 육군지원을 하지 않아서 부산 공격을 못하는 것처럼 장계를 올린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권율은 원균이 있는 사천까지 가서 원균의 부산 공격 회피를 추궁하였다. 이에 원균은 육군의 안골포 공격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장계 내용의 부당함과 조정의 지시를 어긴 죄명으로 원균을 형틀에 잡아 묶고 곤장 50대를 때렸다. 이것이 원균의 곤장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조선 수군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뻔 하였다.

	# 2차 부산포 공격 부산포 앞바다에서의 전투 상황	원균 장군은 전 수군과 함께 부산의 왜군을 공격하였다. 6월18일 1차 부산포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 함대는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선봉장으로 하여 한산도에서 견내량을 지나 칠천도, 영등포, 가덕도를 거쳐 다대포 앞 바다에 이르렀다. 왜선 8척이 보였다. 왜군들은 조선 함대를 보자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 하였다. 조선 수군은 힘들이지 않고 왜선 8척을 불태 울 수 있었다. 이에 사기가 충천한 조선함대는 부산포를 향해 계속 공격하였다. 부산만에 접어들자 원균은 왜군의 전선이 대마도에서 북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균은 부산포 공격을 뒤로 하고 북상하는 왜군의 전선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조선 함대가 공격을 시작하자 왜 선단은 전투를 회피하고 대마도와 서생포쪽으로 퇴각하였다. 때마침 불어 닥친 풍랑으로 조선 함대가 분산 되고 지휘가 어려워 추격을 중단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풍랑으로 7척의 전선이 풍랑과 조류에 밀려 서생포로 떠 내려가 왜군에게 섬멸 당하였다. (난중일기 7월 16일자에 살아서 탈출한 세남이라는 종의 진술 기록) 이 전투로 13척의 배와 수 백명의 수군이 전사 하였다.
7월7일(양력8월19일)	# 3차 부산포 공격 7월14일(양력 8월26일) 부산포, 가덕도, 영등포, 전투 상황	원균 장군은 2차에 걸쳐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였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악천후로 인한 전투 손실과 공격의 실패로 또 다시 명예가 실추 되자. 명예 회복을 위하여 재차 부산포 공격을 무모 하게 감행 하였다. 7월14일 새벽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조선 함대는 1, 2차 공격 시와 마찬가지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선봉으로 또 다시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기 위해 북을 울렸다. 조선 수군의 지휘관은 통제사 원균, 경상우수사 배설,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조방장 배흥립과 김완 등 이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어떠 하였을까? 조선 수군의 전선은 판옥선 120여척과 협선130여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만5천 여명의 수군이 있었다. *사기는 원균 장군의 곤장 사건과 일주전의 공격 실패로 인하여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반해 왜군은 600여척의 대 선단과 141,490명의 왜군이 부산에 입항해 있었으며 사기가 충천 하였다. 당시 조선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왜군의 전투력 수준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무형전투력도 왜군을 능가하지 못한 상태 였다. 조선 수군이 부산포를 공격을 위해 한산도에서 출항하자 왜 수군은 웅천, 안골포, 가덕도로 이어지는 육지의 첩보 부대 연락망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왜군의 수군은 부산진에 약 600척의 전선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왜군의 육군은 거제도, 가덕도, 웅천, 안골포, 김해, 죽도, 부산포와 연계 되어 있는 왜성을 근거지로 정찰대를 운용하여 조선 수군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다.
1597.7.16 (양력8월28일) 새벽	칠천량 전투	7월 15일 밤 통제사 원균 장군은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비를 맞으며 영등포에서 퇴각하여 칠천도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칠전도에 도착한 원균 장군과 예하 지휘관들은 밤새도록 차후 작전을 위하여 작전 회의를 개최 하였을 것이다. 다시 왜 수군을 공격 할 것인가? 아니면 한산 본영으로 철수하여 시간을 가지고 전투력을 보강한 후에 육군과 합동하여 연합 작전으로 공격 할 것인가? 당시 원균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하였을 것이다. 왜군과의 전투를 회피하고 한산도로 퇴각하자니 도원수 권율의 곤장이 생각 난다. 왜군을 공격하자니 원균 함대만으로는 승산이 없다. 패배 할 것이 뻔하다. 침묵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선불리 나서서 계책을 논하는 장군이 없었을 것이다.)** 얼마간의 침묵을 깨고 전투의 선봉장 임무를 수행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 말문을 열었다. “함대를 전투에 유리한 한산도 본영으로 철수 시켜 왜군의 공격을 잠시 피한 다음 전투력을 복원하여 부산포로 재 출병 하는 것이 조선 수군을 살리고 조선을 살리는 길입니다. 칠천도는 물이 얕고 협착(狹窄: 좁고 얕다)해서 전선을 운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니 함대를 한산 본영으로 옮겨 차후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당시 상황을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확인해 보자. **배설은 그 전부터 원균이 반드시 패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여러번 간 했으나 이 날은 칠천도 물이 얕고 협착(狹窄 : 좁다)해서 배를 운행하기 불편하니 다른 곳으로 옮겨 진을 치라고 말했으나 원균은 전혀 듣지 않았다.** 裵楔(先是屢諫均必敗 **(배설선시누간균필패)** 是日又言**(시일우언)** 漆川島狹窄**(칠천도협착)** 그러나 원균은 배설장군의 충성어린 충고를 듣지 않았고 부산포 공격을 감행하기도 전에 칠천도를 포위한 왜적에게 전멸 당한다. 선조 실록에 기록 된 내용을 보자. **▶선조 90권, 30년(1597년 7월 22일(신해) 2번째기사** **선전관(宣傳官) 김식(金軾)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다** **"15일 밤 2경에 왜선 5~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 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자 우리 나라 제장들이 장졸간에 병선을 동원하여 어렵게 진을 쳤는데 닭이 울 무렵에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왜선이 몰려 와서 서너 겹으로 에워싸고 형도(刑島) 등 여러 섬에도 끝없이 가득 깔렸습니다. 우리의 주사(舟師)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 지역 추원포(秋原浦)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元均) 및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했는데,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칡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니 왜노 6~7명이 이미 칡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옥포(玉浦)·안골(安骨)의 만호(萬戶)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전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배설은 왜군과의 전투 시 포위망을 뚫고 한산도로 후퇴 한다. **- 대사헌(대사헌) 김간(김간)이 쓴 원균 행장기에 의하면** **7월16일 날이 밝자 우리 배에서 불이 일어나므로 원균은 즉시 바라를 쳐서 변고를 알렸으나 그 때 돌연히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 오고 적탄이 비오듯이 날아 왔다. 적의 함성은 하늘을 진동하고 그 기세는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말아 올릴 듯하니 도저히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먼저 닻을 거두어 작전상 후퇴하는데 우리 수군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다. 원균 장군도 할 수 없이 배에서 내려 작전상 물으로 올라 갔는데 매복되어 잇는 6-7명의 적이 달려 오리지간(五里之間)을 싸우다 끝내 힘이 모자라 목을 베어 갔다.**
1597.7.16 (양력8월28일) 이후 상황	청야 작전 감행 한산 본영을 불사르고 한산도의 백성을 대피	7월 16일 새벽에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주도권을 장악한 왜군과의 치열한 교전에서 휘하의 많은 전선과 장병을 잃어 버린 채, 겨우 12척의 전선과 함께 한산 본영으로 후퇴를 시작 하였다. 한산 본영에 도착한 배설 장군은 주둔지에서 본영을 지키고 있던 장졸들을 집합 시키고, 전투상황을 알려 준 후에 청야 작전을 시작 하였다. 청야작전(淸野作戰)은 선조가 정유재란을 대비하여 장기전을 계획하면서 수령들에게 명령한 작전이다. 한강 이남에서 사태가 불리하게 되면 주변에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물자와 식량 등을 없애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을 말 한다. 배설 장군은 왜군에게 유리하게 사용 될 수 있는 양곡이이나, 병기, 막사 등을 불사르고 성안에 남아 있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란 시켰다. 왜군들은 칠전도에서의 승리를 기세로 한산도 본영을 공격하였다. 한산도에서 청야 작전을 전개하며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던 배설 장군은 왜군이 수백척의 전선과 함께 한산도로 공격해

		오자, 한산 본영으로부터 철수하여 회령포로 철수하였다.
	칠천량 전투 이후 상황 배설 장군은 칠천도에서 왜군에게 패하고 한산 본영으로 후퇴하여 한산 본영에서 청야 작전을 시행한 후에 적의 공격을 피해 회령포로 철수 하였다.	**난중일기 :** **7월18일(양력 8월30일)** **16일 새벽에 수군이 몰래 기습 공격을 받아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 여러 장수와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다. 수군이 대패 했다.** **7월21일(양력 9월1일)** **노량에 이르니 거제 현령 안위, 영등포 만호 조계종 등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경상수사(배설)는 도망가 보이지 않고 .....** **대장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물으로 달아 났고, 여러 장수들이 물으로 가서 이지경이 되었다. 그것은 대장의 잘못을 말한 것인데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고 그 살점을 씹어 먹고 싶다고들 하였다.** **7월22일(양력 9월3일)** **경상수사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의 패망하던 일을 많이 말 했다.** **(이 내용은 곧 전투 상황인데 기록 되지 않았고, 천율과 조정에 보고 되지 않았다. 이 기록을 찾으면 칠천량 전투 상황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 **8월2일(양력 9월12일)** **이 날 밤 꿈에 임금의 명령을 받을 징조가 있었다.** **8월3일(양력 9월13일)**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뜻밖에 교유서를 가지고 왔다. 명령은 곧 겸 삼도수군통제사의 임명이다.**

		8월12일 (양력 9월22일) 거제 현령 안위, 발포 만호 소계남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 갔다. 그들 편에서 배설의 겁내던 꼴을 들으니 더욱 한탄스러움을 이길 길이 없다. 8월13일 (양력 9월23일) 거제 현령 안위, 발포 만호 소계남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 갔다. 수사(배설)와 여러 장수 및 피해 나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들었다. 8월17일 (양력 9월27일) 장흥땅 백사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 군영구미(장흥군 안양면 해창리)에 이르니 일대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은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8월18일 (양력 9월28일) 회령포에 갔더니, 경상수사 배설이 멀미를 핑계 대므로 보지 않았다. 8월19일 (양력 9월29일)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는데 경상수사 배설은 숙배하지 않았다. 그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는 꼴을 말로 다 나타 낼 수 없다. 너무 놀랍다. 이방과 그 영리에게 곤장을 쳤다. 8월27일 (양력 10월7일) 경상우수사 배설이 왔는데 많이 두려워하는 눈치이다. 나는 불쑥 “수사는 어디로 피해 갔던 것이 아니오 ” 라고 하였다. 8월28일 (양력 9월 28일)

		새벽 여섯시 즘에 적선 8척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들어 왔다. 여러 배들이 두려워 겁을 먹고 경상수사는 피하여 물러나려 하였다. 8월30일 (양력 10월 10일) 저녁 나절에 배설은 적이 많이 올 것을 염려하여 달아나려고 했으나, 그 속 뜻을 알고는 있지만, 딱 드러나지 않은 것을 먼저 발설하는 것은 장수의 도리가 아니므로 참고 있을 즈음에, 배설이 제 종을 시켜 솟장을 냈는데, 병세가 몹시 중하여 몸조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몸조리를 하고 오라고 공문을 써 보냈더니 배설은 우수영에서 물으로 내렸다. 9월2일 (양력 10월 12일) 오늘 새벽에 경상수사 배설이 도망 갔다.
	칠천량 전투 패전 책임을 전가시키다.	▶선조 91천,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8월 5일(계해) 4번째기사 원균을 비롯하여 패주한 장수들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치계하기를, "주사(舟師)의 각 장수들에 대한 생사와 거처는 전에 태안 군수 이광영(李光英)이 진술한 바에 의거하여 이미 장계를 올렸는데, 뒤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전후 말한 것이 각기 달랐으므로 권율(權慄)에게 전령하여 무사를 각처로 파견하여 사실을 확실히 조사케 한 후에 계문(啓聞)하려 합니다." 임진난 이후 분궤(奔潰: 싸움에 져서 뿔뿔이 달아 남)한 장관(將官)들을 한 사람도 군법에 의해 치죄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관습이 되어 보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주사들은 처음부터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다가 패멸된 것이 아니라 살아 남은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증론을 참고해 보니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사한 자는 조방장 김완(金浣)뿐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에게 모두 군법을 시행할 수 없다 해도 **원균(元均)은 주장(主將)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조방장 배흥립(裵興立) 두 장수는 제장의 우두머리였으니 배흥립에게는 우선 군령을 시행하고, 배설은 지금 병선을 이끌고 바다에 있으므로 이 사람까지 제거하면 해로(海路)가 모두 비게 될 것이니 우선 뒷날을 기다려 논의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이하 수령과 변장들도 등급을 나눠 죄를 주되 그 중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을 주장하여 서로 구원해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군법으로 처리할 것을 도원수 권율과 이미 의정(議定)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주사의 패군한 장수에게는 원래 해당되는 군율이 있으니 장계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수령이나 변장들도 거처를 찾아내어 등급대로 죄를 주되 그 중 먼저 도망할 것을 선동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자는 그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 모두 군법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배설은 지금 주사를 영솔하고 바다 가운데에 있으니 잠시 후일을 기다려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 **다만 원균(元均)을 죽이려 할 경우 균이 마음 속으로 복종하지 않을 듯하니,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원균이 군사를 잃은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간에 잘못한 죄를 오로지 원균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을 듯하니, 우선 원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선조 93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10월 11일(무진) 5번째기사 비변사가 **도망친 수사 배설 등의 처벌을 논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주사(舟師)의 차장(次將)으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율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 내의 사연(辭緣)과 곧 선전관을 보내 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접반사 이덕형으로 하여금 경리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절(南截)과 송남수(宋枏壽)의 도망한 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왕옥(王獄)에 잡아왔으니 국문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망한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부득이 하나하나 잡아다가 문초해서 그 중에 범법한 정상이 가장 중한 자는 베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 107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 난중 일기 : 11월3일(양력 12월11일)** **선전관 이길원이 배설을 처단할 일로 들어 왔다. 배설은 벌써 성주 본집으로 갔는데 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본가로 왔다. 그 사정을 보아주는 죄가 더 크다.**
1599년 3월	모함을 받다 처형 되다.	12월 23일(갑술) 3번째기사 병조 판서 홍여순이 중국군 철수 뒤 국내의 변란을 우려하여 아뢰다

		“해상의 왜적은 이미 물러갔으나 중국군이 철수하여 돌아간 뒤에 **국내의 변란이 일어날까 극히 우려되니,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배설(裵楔)이 지난 가을에 나주에서 도망하여 지금은 충청도에 와 있는데, 현몽(玄夢)과 합세하여 무뢰배들을 많이 모으고 있다. 그의 행적이 이미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지적하여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떠도는 말이라 믿을 것은 못 되지만 뜻밖의 사변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이니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은밀히 하유하여 비밀리에 추격해 기필코 체포하도록 하고, 다른 도에도 아울러 유시하여 특별히 기미를 살피게 함으로써 그들이 용납될 것이 없게 하소서.** 다만 나라의 기강이 이미 해이해 졌으니 유시를 내리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심상하게 여길까 몹시 염려될 뿐입니다. **옛사람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잡게 하였으니 지금도 역시 높은 벼슬과 후한 상을 내린다고 한다면 필시 마음을 다해 고발하거나 체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모두 적이 물러갔다고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데, 신만 구구하게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110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3월 6일(을유) 5번째기사** **전 수사 배설이 법에 의해 처형되다** **전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복주(伏誅: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함)되었는데, 그 아비 배덕문(裵德文)과 아들 배상룡(裵尙龍) 등은 모두 방송(放送: 죄인을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어 주는 일)하였다. 배설은 지난 정유년 7월 한산(閑山)의 전투에서 패전한 수범(首犯: 우두머리 범인)이었으나 외지에 망명해 있었으므로 조정이 찾아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원수 권율이 선산(善山)에서 잡아 차꼬(두 개의 긴 나무토막을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한 옛 형구)를 채워 서울로 보냈으므로 참수(목을 벰)하였다. **▶선조 122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2월 20일(갑오) 1번째기사** 지평 윤홍이 경상 감사 한준겸과 대동 찰방 정묵 등의 파직을 청하다 지평 윤홍(尹宏)이 와서 아뢰기를, “남이신을 파직시키소서. 경상 감사 한준겸(韓浚謙)은 외람되이 아권(衙眷: 지방관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두 곳에 나누어 주거(住居)하게 하여 영(營)이라 호칭하고 온갖 지공(支供:필요한 물품)을 각 고을로 하여금 판출해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빙(藏氷:얼음을 떠서 곳간에 저장함)에 동원되는 1정(丁)의 댓가를 포목(布木)으로 환산해서 받는 등 그가 자행하는 탐학한 짓을 이루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설(裵楔)은 방형(邦刑: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체계)을 받을 적에는 여정(輿情: 어떤 일이나 사건 따위에 대한 여러 사람의 정적인 반응)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한준겸(인조의 장인)은 단지 인아(姻婭: 왕의 외척)라는 것 때문에 사대부의 장산(葬山)을 빼앗고 또 호상(護喪)하는 군관(軍官)을 보내어 적의 뼈를 완전히 묻도록 하였습니다. **▶선조수정실록 31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1일?(경인) 2번째기사**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리니 원균과 이억기, 최호가 전사하다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렸다. 통제사 원균(元均)이 패하여 죽고 전라 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 수사 최호(崔湖) 등이 죽었으며,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은 죽음을 면하였다.** 당초 원균이 한산도(閑山島)에 도착하여 이순신이 세워 놓은 규약을 모조리 변경시키고 형벌에 법도가 없어, 군중의 마음이 모두 떠났다. **권율은 원균이 적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고 하여 불러 매를 쳤는데, 원균이 분한 마음을 품고 가서 마침내 수군을 거느리고 절영도(絶影**

		島)에 이르러 제군(諸軍)을 독려하여 나아가 싸우게 하였다. 적은 아군을 지치게 할 계책으로, 아군의 배에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문득 피하였다. 밤이 깊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 배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원균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가덕도(加德島)로 돌아왔는데, 사졸들이 갈증이 심하여 다투어 배에서 내려 물을 먹었다. 그러자 적이 갑자기 나와 엄습하니, 원균 등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배를 이끌고 퇴각하여 고성(固城)의 추원포(秋原浦)에 주둔하였는데, 수많은 적선이 몰려와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원균은 크게 놀라 여러 장수와 더불어 힘껏 싸웠으나 대적해내지 못하고, 아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억기와 최호 등은 물에 뛰어들어 죽고, 원균은 해안에 내렸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배설은 도망하여 한산도에 이르렀다.
	사후에 배덕문가를 공신록에 등록 시킨다.	배덕문 1610년(광해 2년)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을 증직 하였고, 1873년(고종 10년)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겸지경연의금부사(知經筵義禁府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知春秋館成均館事),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을 증직하였다. 배설 임란공신을 녹훈할 때 공을 (선무원종1등공신(宣武原從 1等功臣))으로 책록 하였고, 녹권(錄卷)이 전한다. 1871년(고종 8) 도내 유림들이 상소하여 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훈련원사(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訓鍊院事)에 증직되었다. 배건

		그 공로로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증직 되었다. 배즙 1610년(광해 2) 선무원종 2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녹훈되었고, 가선대부 병조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에 증직되었으며, 의금부와 훈련원의 지사(知事)에 추증되었다.
	임진왜란 시 전 가족이 왜군과의 전투에 참전한 가문	전쟁 참여 자 현황 父 : 배덕문 : 의병장 子 : 배설 : 선산부사, 경상우수사 배건 : 의병 (38세 전사) 배즙 : 조방장 (35세 전사) 배력 : 주부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난중일기-징비록-충훈록(忠訓錄)-동국사(東國史)-경산지(京山誌)-성산지(星山誌)-족보-공신록-배덕문실기-백과사전

조선 수군을 살린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 (배재영 작성)

1592년 임진년 선조 25년 4월 14일 왜국(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을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고 한다.

조선은 이성계가 1392년 7월17일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를 세운 후 200년 동안 사대 주의 사상에 물들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평화를 누려 왔다. 일본은 문(文)을 중시하고 무(武)를 천시하며 당파싸움을 하며 국방을 소홀히 하고 있는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세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1592년 임진년에 대대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1년 동안 전 국토를 초토화 시킨다. 이에 다급해진 조선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원군을 간절히 요청 한다.

명나라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면 자기 나라의 국방이 위태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조선에 지원군을 파병 한다.

일본은 명의 원군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선을 뒤로하고 명나라와 협상을 요구 하며 왜군을 일본으로 철수 시킨다. 일본은 재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부산포와 울산 일대에 병력을 배치 시킨 후 지연전을 펼친다. 일본은 재침략을 위한 전투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나라에 어처구니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전투력을 보강 한다.

일본은 스스로 협상을 파괴한 후, 1597년 정유년에 일본의 전 역량을 집중하여 조선에 대한 2차 침략을 감행 한다. 이것을 정유재란(丁酉再亂)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 두 번의 전란을 합하여 통상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부른다.

배설(裵楔) 장군은 1583년(선조 16)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하여 변방에서 두루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부(主簿)로 승진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배설은 방어사(防禦使) 조경(趙儆)을 따라 남쪽으로 출정하였다.

이 후에는합천군수로서, 1594년(선조 27)에는 동래부사(東萊府使)로 부임하였고, 그 해 가을에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었다. 1595년(선조 28)에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겸부원수(水軍節度使兼副元帥)로 보직 되었다. 이 후 밀양부사를 거쳐 선산부사가 되어,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쌓았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다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원균 장군과 함께 해전에 참가 하였으며, 칠천도 전투에서 왜 수군의 무차별적인 기습 포위 공격에 조선 수군은 전멸 상태였으나, 배설 장군은 지략

과 용맹으로 용감히게 싸워 포위망을 돌파함으로써 젼선 12척과 수군을 살려내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다.
이후 죄인에서 풀려나 수군통제사가 된 이순신(李舜臣)장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다가, 오랜 수중 생활로 인한 질병이 악화되어 이순신에게 사직서를 올리고 이순신의 승인을 받아 육지에서 병을 치료 하였다.
당시 조선 조정은 전쟁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막고 약해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설 장군에게 칠천량 전투 패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백성을 선동하여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모함을 하여 충신을 역적 아닌 역적으로 만들어 참수를 하였다. 배설 장군은 1599년(선조 32) 49세의 나이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 하였다.

배설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 관군으로서, 육군과 수군의 임무를 두루 역임하면서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을 다하여 왜군과 대적하였다. 죄가 있다면 조선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성실하고도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 하면서 왜적과 싸우며 전공을 세운 것 뿐이다. 또 하나 죄가 있다면 칠천도 전투에서 왜군을 격멸하지 못한 죄이다. 또 하나 죄가 있다면 조선 수군과 전선 12척을 살려 내어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에게 인계 한 죄이다. 또 하나 죄가 있다면 왜군과의 전투 시 생긴 상처와 수질(水疾)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불가하여 이순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한 죄이다. 배설 장군에게 조선 조정이 부여한 죄목은 칠천량 전투에서 싸우지 않고 달아 난 죄, 또 하나는 전쟁 종료 후 민심이 흉흉한 틈을 타 선량한 백성을 선동하여 역모를 한 죄이다. 참으로 억울하다.
조선 조정이 정원 유지를 위하여 무고한 장수를 처벌하거나 처형한 사례를 들어 보자.
의병장 김덕령은 1596년(선조 29년)에 조선 조정이 충청도에서 민란을 일으킨 이몽학의 거짓 선전을 이용하여 김덕령을 죽이기 위한 작전에 말려 들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 한다. 조선의 위대한 의병장이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도 서른 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 한다.
1597년 뒤이어 이순신이 걸려 들었다. 이순신은 조정을 속인 죄, 적을 두고 잡지 않았으니 나라를 저버린 죄, 남의 공로를 빼앗고 남을 죄에 빠뜨린 죄로 사형을 받아야 하나 이원익과 정탁 등의 구명 운동으로 백의 종군을 한다.

1599년 임진왜란이 끝나자 백성들은 선조의 퇴위를 거론하며 전쟁의 책임을 묻기 시작 하였다. 이에 민심이 동요하자 조선 조정은 덕망 있는 자가 봉기하여 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권을 안정시키며 전쟁의 책임을 전가 시킬 대상을 물색 하였다. 조선 조정의 의도와 일치하는 가문이 있었다. 배설 가문은 신라 시대에서 부터 고려에 이어 조선 당대에 까지 심지어 임진왜란 시에도 많은 전공을 세우며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가문이었다. 문무를 겸비한 덕망 있는 가문이다.
조선 조정은 배설 장군에게 역모 죄를 부여하여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잡아 들인다. 그리고 배설 장군에게 역모 죄를 부여 한다.

필자는 글을 쓰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내가 배설 장군이 되어 보기도하고 배설 장군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과 사람이 되어 보기도 하였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많은 필주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을 쓸 소재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주위 배경과 사건과 관련 된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 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 된다.
예를 들어 보자.
1) 배설 장군과 관련된 선조 실록을 철저히 분석해 보아라. 실록에는 배설 장군의 당시 활약상과 배설 장군이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가 기록 되어 있다.
2) 난중 일기에 기록 된 배설 장군, 그리고 배설장군과 관련 된 사건과 인물들(원균, 이억기, 안위, 배흥립, 권율, 유성룡 등)의 기록을 분석해 보아라. 배설장군의 고뇌와 사기 저하, 병이 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지혜롭게 분석하여 진실을 밝히고 배설 장군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지금이라도 보상 받아야 한다.

배설 장군의 아버지와 형제들 역시 임진왜란에 참전 하여 왜군과 싸우며 공적을 세웠다. 아버지 배덕문(裵德文1525~1603)은 의병장으로서 성주를 지켰으며, 장남 설(楔)은 경상우수사로 동생 건(楗)은 의병으로서, 즙(楫)과 력(櫟)은 관군으로서 활약을 하였다. 4형제 중에 건(楗)과 즙(楫)은 임진왜란 시 전사 하였다.

배덕문(裵德文) 가(家)는 세종대(世宗代) 경상좌도 수군 도만호(都萬戶)를 역임한 치(絺)를 현조로 하는 성주의 대표적인 토성(土姓) 사족가문(士族家門:문벌이 좋은 선비 집안)이었다. 그의 7대조 현(俔)은 태조 5년에 진사에 급제했으며 5대조 치(絺)는 세종대에 무과에 급제하는 등 이 가문은 조선초기로 부터 출사로를 문무반(文武班) 관직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화해 갔다.

배덕문의 아버지 주(綢:1483~1557)는 중종19년 효행으로 경릉참봉에 임명되었으며, 뒷날 판서공(判書公:德文)파로 불리는 후손들이 세거하게 될 성주의 뒷개(後浦)로 이주하여 토착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

그리고 배덕문(德文)은 성주의 명망있는 관료학자였던 김희참(金希參)의 문인으로 활동하면서 유학적 소양을 쌓은 다음 명종 8년 문과에 급제 하여, 내직으로는 형조, 호조좌랑, 사재감정 그리고 외직으로는 언양, 영덕, 울산, 고부 등지의 지방관을 두루 역임하고 퇴관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 4형제는 문무를 두루 공부하여 관직에서 활동을 하였다.

배덕문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6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서 적장 흑전구침(黑田句沈)의 목을 베는 등 전공을 세우고 선무원종2등 공신에 책록 되었다.

배설 장군의 가문(家門)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 가족이 왜군과 싸우며 전사하고 희생을 당하였다. 그런데 조선 조정은 이 가문에게 상이 아니라 벌을 주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선조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 준다. 조선 조정의 잘못이 실록에 많아 기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들은 진실이 결여 되어 있으며 칠천도 전투와 같은 중요한 전투 기록물이 없다. 조선 수군이 완전히 사라질 뻔한 전투인데 전투 상보가 없다. 칠천량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이순신이 기록한 일기가 고작이다.

이순신의 7월20일자 일기를 보자. “거제 현령 등이 와서 통곡하였다.” “배설은 달아나 보이지 않고.... 대장 원균이 뭍으로 달아 났다.” 고 한다는 기록이 주를 이룬다.

이순신의 7월22일자 일기를 보자. “경상우수사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이 패망하던 일을 많이 말했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

배설 장군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난 후에 죄인 이순신을 만나 종일토록 칠천량 전투 상황에 대하여 전하였는데 그 기록은 없고 이순신 개인과 관련

된 기록이 주를 이룬다. 이순신의 일기는 개인의 일기이지 공적인 기록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적인 일기를 공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권율이 이순신에게 칠천량 전투 상황을 파악하라고 하였는데 그 전투 상황이 난중일기에도 없고, 선조 실록에도 없다. 칠천량 전투 상황에 대한 기록을 찾아야 한다. 만약 그 기록이 없다면 권율과 이순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선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권율은 도원수로서 조선 수군을 지휘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권율은 조선 수군의 생명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균의 곤장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 수군을 죽음의 길로 가게한 최고 지휘관이다. 그리고 이순신이 죄인의 신분인데 권한을 부여하여 조선 수군의 장수들과 만나게하는 등 위계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

권율은 칠천량 전투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관직에 있는 관군에게 아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순신의 7월8일자 일기를 보면 이순신이 먼저 연해안 지방을 정찰하고 와서 사태 수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다. 이에 권율은 흔쾌히 승낙한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죄인에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칠천량 전투 상황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고 이순신이 쓴 일기에는 “도망갔다” 는 말만 여러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도 칠천량 전투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배설 장군이 왜군과의 전투에서 살린 조선 수군과 전선 12척은 하늘에서 내려 왔는가?
권율은 경상우수사 배설이 생존해 있는데도 수군의 최고 지휘관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이순신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권율은 1595년 원균의 후임으로 경상우수사가 된 배설 장군을 누명을 씌워 밀양 부사로 좌천시킨 적이 있다.
배설장군과 권율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배설 장군과 이순신과의 관계는? 원균과의 관계는? 유성룡과의 관계는?
선조와의 관계는?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조선에 충성한 배설 장군이 무슨 죄를 졌길래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 후 처형 하였을까? 임진 7주갑(420년)이 지난 지금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서론 (序論)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은 왜국의 짓밟힘 속에서, 명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 속에서, 조정의 당파 속에서 선조의 정권 유지와 조정 문인(文人)들의 세력 다툼으로 정치는 말 그대로 엉망 이었다. 충신(忠臣)이나 전공을 세운 무인(武人)들이 모함과 왜곡된 사건들로 인하여 억울하게도 죄인이 되었다.
당시의 정치적 환경은 이들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진실을 묻어 둔 채 소리 없이 당하기만 하였다.
임진왜란이 시작 된 후 420년이 지난 지금, 자료의 소실과 그 동안 왜곡되어 전해 내려오는 내용에 대한 반증 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진실을 찾아내어 개인과 가문의 명예를 회복 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거짓이 판을 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와 국가는 필히 망하고 만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역사의 왜곡은 죄앙을 초래한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아무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조선 침략을 당연시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일본은 또 다시 대한제국을 침략 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일본은 이 나라를 침략 할 것이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또 일본은 정신대에 끌고 간 대한제국의 청순하고 아름다운 어린 딸들을 일본군의 노예로 창녀로 놀이개감으로 취급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신사를 참배하며 조선과 대한제국을 침범한 일본의 수장들을 받들고 있다. 이는 언제인가 다시 이나라를 침략하겟다는 의도이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계속적인 시비를 자행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 당시의 과오를 회피하기에 바빴다. 그리고 패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기에 바빴다. 그래서 후손들은 임진왜란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오직 아는 것이 있다면 조선 군인들은 왜군의 조총에 겁을 먹고 다 도망 갔기 때문에 선조가 한성을 떠나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 가게 되었다. 당시 이순신 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으며, 원균은 역적과 같은 무능한 군인이 있어서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여 백의종군 하게 하였으며, 원균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경상우수사 배설은 칠천량 전투에서 도망 갔다가 체포 되어 처형 당했다. 오직 조선에는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 12척과 거북선을 가지고 왜군을 무찔렀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고무시키고, 승리한 지휘관을 영웅 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것으로 인하여 사실을 왜곡시키고 과장시키는 것은 잘못 된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당시의 형세와 전투 상황과 전투력 수준, 사기 등을 뒤로 한 채, 패전의

원인은 분석하지 않고, 정권 유지와 책임 전가와 동요하는 민심 수습을 위해 날조 된 이러한 왜곡 된 이야기들은 가감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묘사 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에 진실을 알지 못하는 필주자들은 패전의 원인을 찾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보다는 일부 전투에서 승전한 전투를 과대 확장하기에 급급 하였다. 필주자가 승리를 과대 확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사람과 사건이 있어야 한다. 필주자들은 신바람을 내어 그들의 글에, 소설에, 투고 논문에 왜곡 된 역사를 쓰기 시작 한다. 흥행을 위해 돈 벌이에 눈이 멀은 필주자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 하여 드라마화 하여 또 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작태를 바라보고 있는 후손들은 가슴이 찢어져옴을 느끼며, 필주자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선조에 대한 역사의 한을 풀고자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식자들과 역사가들이 임진왜란 당시의 왜곡 된 역사를 인식하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감사 한다.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의 역사를 명확히 고증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침략의도를 분석하고 일본인들의 사상을 파악해야 한다. 임진왜란 당시의 만행을 천하에 알리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희생 된 영혼을 달래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일본의 만행이 저질러져서는 안된다.

임란 후 유성룡이 재란을 예방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징비록을 남겨 다행이지만, 이제는 더욱 철저히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를 분석해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세월이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역사를 바로 잡아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조정이 충신을 처형하는, 정부가 선량한 가문을 말살시키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춤무공 이순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가 있기 까지 왜적의 침략으로 인해 희생 된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당파의 이익을 위하여, 한사람을 영웅 시 하면서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자초한 왜국과 왜놈을 응징해야 한다. 역사는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처참하게 상처받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백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배설 장군은 조선 수군을 살린 죄로 죽임을 당한다. 그 가문도 함께 몰락한다. 또 다시 배설 장군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는 군인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은 망하고 만다고 하였다. 가문의 억울함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 .

당시의 이러한 무고한 죄로 희생된 선조들의 억울함을 누가 속이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 다행스럽게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선진화 되면서 잊혀져 가고, 왜곡 되어진 역사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의로운 지식인들이 발을 벗고 나섰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 할 수 있는 사회, 왜곡 된 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정의로운 국가이다. 국가는 4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역사 자료를 고증하여 사실과 진실을 찾아 내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필주자의 손에 역사가 왜곡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 한 마디 글자 한 자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역적을 만들기도 한다. 근간에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한 후 녹취 된 사실 중 수정한 일부 기록 때문에 국가는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 내었다. 정말 잘 한 일이다.

임진왜란 이 후 조선의 조정은 선조 실록을 통 채로 바꾸며 역사를 왜곡하였다. 그리고 왜곡 된 역사를 사실인양 지금까지 믿고 있다.

젖고 찢어진 일기를 복원하면서, 필주하면서 수정한 것들이 진실인냥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일기는 일기로써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다. 역사의 사실을 일기로 대신하는 이 나라 필주자들의 무능을 또 하번 느끼면서 임진왜란 당시 전사하고 희생당한 선조들의 넋을 위로해 본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정세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연산군의 폭정과 선조의 무능과 사림 또는 유림이라 불리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명분 싸움에서 비롯 된 분파나 붕당으로 나뉘어져 정권쟁탈을 위한 싸움이 계속 되어, 민생의 문제나 국방 등 나라의 장래에 대한 일은 소홀히 하였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신으로 갔던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 서인)과 부사(副使) 김성일(金誠一:동인)이 조정에 보고 한 내용을 보면, 서인(西人)과 동인(東人)의 당파 싸움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다.

당시 사신들이 “왜국이 조선을 침략 할 기미가 있다” 는 보고만 했더라도 적의 침략에 대한 대비를 하였을 것인데, 김성일의 허위 보고로 인하여 조선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왜군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특히 선조는 즉위

초기에 올바른 정치를 펴고자 하였으나, 인빈(仁嬪)김씨의 치마 폭에 싸여 정사를 게을리 하였다.

군사제도는 비변사를 두어 모든 군사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였고, 그 밑에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를 두어 오위의 군무를 담당하고 팔도의 군사를 지휘 하였다.

지방의 군사조직은 각도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각각 1명 내지 3명을 두고 그 중 1명은 각도의 최고 장관인 관찰사가 겸무 하였다. 병마절도사는 병사(兵使)라고 불렀고 종2품 이었으며, 그 밑에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는데 역시 종2품이었다. 그 아래에는 만호(萬戶), 절제도위(節制都衛)를 두었다.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수사(水使)라고 불렀는데 정3품으로서 그 밑에 역시 정3품인 절제사, 만호 등을 두었다.

국방상 중요한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에는 병영과 수영을 함께 두었다. 경상도의 우병영은 진주에, 좌병영은 울산, 우수영은 거제(후에 고성), 좌수영은 동래에 배치 하였다. 전라도에서의 병영은 강진 한 곳에 배치 하였고, 우수영은 해남에, 좌수영은 여수(후에 한산도)에 배치 하였다. 함경도에는 북병영을 경성(鏡城)에, 남병영을 북청(北靑)에, 북수영을 경성에 두어 북병사가 겸임하도록 했으며, 남수영은 함흥(咸興)에 두어 함경도 감사가 겸무하도록 했다.

수군에서는 종2품인 수군통제사를 두어 경상, 전라, 충청 등 3도의 수군을 지휘하게 하였다. 각 도에는 순변사(巡邊使)를 두어 도의 병마를 지휘하게 하였고, 그 밑에 방어사를 두어 일부의 병마을 지휘하고, 방어사 밑에 조방장을 두어 일대의 병마를 지휘하게 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개 도의 병마를 지휘 할 수 있는 도순변사 (都巡邊使)를 두었으며, 전국의 병마를 통합 지휘 할 수 있는 도원수(都元帥) 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계획상의 제도 였고, 평시에는 병사들을 지휘 할 수 있는 장수들이 없는 직책이 많았다.

병역은 16세 이상 60세 까지의 평민의 남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 하였다. 직접 군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번(上番)이라고 하고, 군역을 면제 받는 사람을 하번(下番) 또는 보인(保人)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군역을 대신하는 댓가로 곡식과 베를 징수하여 군비에 충당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대 병력은 부족하였고, 소년군과 노년군이 섞여 있어 군기가 문란해 지고, 하극상과 병영 부조리가 난무하여 군의 사기는 저하 되었다. 지방의 수령들은 죄 아닌 죄로 수시로 교체 되었으며, 북방에 있는 육진에서의 근무를 기피하였다.

이는 문(文)을 중시하고 무(武)를 가볍게 여기는 조선왕조의 사상에서 비롯 된 현상으로써 자연히 국방력은 약해지고, 남과 북의 변경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정세

16세기의 일본은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들어가면서 16세기 후반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교토(京都)에서 통일정권을 세우는 기초를 마련하고, 각종 서양문물을 흡수하였다. 특히 포르투칼을 통해 조총이 유입됨으로써 전투력이 증강 되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 신식무기인 조총을 전투시 효과적으잘 사용함으로써 일본 통일을 확고히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신분이 아주 낮은 무사의 집에서 태어나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당시 일본의 패권을 잡은 오다 노부나가를 주군으로 섬기면서 출세의 길이 열렸다.

1582년 오다 노부나가가 그의 신하인 아케치 미쯔히데(明智光秀)에게 살해당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공을 세워 1587년 일본 전국을 통일 한다. 일본의 최고 통치자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황의 황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게획을 구상 하였다.

1591년(선조24년)에 접어 들면서 일본은 조선 침략을 위한 전투태세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의 조선 침략과 조선의 대응

1592년 4월 13일 오후 20만 여명의 왜군은 9개 부대로 나누어 시차를 두고 조선을 공격 하였다.

제1진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부대는 700여척의 전선에 병력 1만8천 7백 여명을 태우고 4월13일 아침 8시경 대마도의 오우라항(大浦港)을 출발하였다. 그 날 오후 5시에 부산 앞 바다에 도착하였고, 다음날인 14일 새벽에 부산진성을 공격 하였다. 15일은 동래성을 유린하였고, 양산, 밀양을 거쳐 청도, 대구를 지나 선산과 상주를 공격하고 계속 북상 하였다.

제2진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부대는 병력 2만2천 8백으로 4월18일 부산포에 들어와 언양, 경주,영천, 신령, 군위, 비안, 용궁, 풍진도를 거쳐 문경에서 제 1진을 따라 충주로 공격 했다. 이 두 부대는 5월2일 한강을 건너고, 5월3일 남대문과 동대문을 통해 한양을 가장 먼저 점령 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왜적이 북상한다는 보고가 날아 들자, 신립(申砬)을 도순변사로, 이일(李鎰)을 순변사로 삼아 조령(鳥領) 이남에서 왜군을 방어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4월25일 이일이 지휘하는 부대가 상주에서 패하고, 4월26일 문경 현감 신길원(申吉元)이 지휘하던 문경도 왜군에게 점령 당 하였다.
4월28일에는 도순변사 신립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인 조령을 적에게 물려주고, 8천명의 군사와 함께 충주에서 방어를 하였지만 역시 패 하였다.
이에 선조는 4월30일 밤 2시쯤 소나기를 맞으며 도승지 이항복이 들고 있는 등불을 따라 말을 타고 100여명의 신하와 함께 한양을 빠져 나갔다. 도성과 궁궐은 왜군이 점령하기도 전에 난민들에 의하여 방화 되고, 파괴 되었고, 민심은 극도로 흉흉하였으며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하였다.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한양이 점령 당하자 선조는 5월1일 개성부에 도착했다가 5월7일 급히 평양으로 피난 하였다.

제3진인 구로다 나가마시(黑田長政) 부대는 병력1만1천으로 4월19일 죽도 부근에 상륙 한 후 김해, 창령을 지나 오른쪽 부대는 무계, 성주 방향으로, 왼쪽 부대는 초계, 거창, 지례 방향으로 각각 북상하여 금산에서 합류한 후에 영동, 회덕, 청주를 거쳐 한양으로 공격 하였다.

제4진인 시마즈 요시히로(鳥律義弘) 부대는 병력이 1만여 명이었나 집결이 지연 되고 전선이 부족하여 제 때에 투입 되지 못하고 5월2일이 되어서야 부산에 상륙 하였다. 이에 앞서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가 지휘하는 4천명의 병력은 선발대로 4월 중순 부산에 상륙해 있었다.
이를 합한 1만4천1 왜군은 창령을 거쳐 현풍에서 머물다가 상주를 지나 한양을 공격 하였다.

제5진인 후쿠시마 마사노리(福鳥正則) 부대는 병력2만5천으로 제4진에 뒤이어 상륙 한 후, 제2진인 가토 기요마사 부대의 진출로를 따라 북상 하면

서후방 부대 역할을 하였다.
이어서 제6진 병력만5천7백명, 제7진 병력 3만명, 제8진 병력 1만명, 제9진 병력 1만1천5백명이 연이어 상륙 한 후방 부대 역할을 하거나 한양으로 이동 하였다. 그리고 1만2천명의 에비 부대가 투입 되어 주로 후방 경계를 담당 하였다.

왜군은 부산진을 공격한 후 한 달여 만에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수중에 넣었다. 의주로 피난한 선조는 급기야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으며, 명나라는 왜군이 평양을 점령 후에 자국의 영토까지 침범하리라는 우려하에 원군을 보내기로 하였다.
1592년 7월15일 명의 요양부총병 조승훈이 5천명을 지휘하여 평양성을 공격 하였고, 동년 12월 이여송이 4만3천의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지원 하였다. 그 결과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한성 이북의 대부분 지역을 단시일 내에 회복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군의 사기는 높아지고 불리한 전세는 역전의 기미를 보였다.
왜군의 무력 침공에 국토가 초토화 되고, 백성이 처참히 살해 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봉기 하였다.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 까지 힘을 합하여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왜군과 대적 하였다. 전국 각지의 의병들은 유격전과 매복, 기습 공격 등으로, 때로는 전면전을 감행하면서 왜군의 후방을 효과적으로 교란하여 북으로의 진출을 지연 시키고, 조선 관군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군과 명군과 의병의 연합 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3년 4월에 1년간의 침략을 자행한 후 강화 회담을 제의 하였다. 왜군은 강화를 제의하면서 6월22일 7만명의 병력으로 진주성을 초토화 시킨 후에 인근 지역에서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부산포, 동래, 기장, 서생포, 거제도 등 10여개 지역에 분산 주둔하면서 강화 회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은 최초부터 해결 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명나라에 제시함으로써 협상 기간 중에 재침의 기회를 노리며 전투력 보강을 하였다.
요구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나라의 황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비로 삼을 것,
둘째, 무역증서 제조를 부활시킬 것.
셋째, 조선의8도 중 4도(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일번에게 넘겨줄 것,

넷째, 조선 왕자와 대신 1, 2명을 인질로 줄 것
일본은 어처구니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스스로 협상을 파괴하고, 1597년 정유년에 왜국의 전 역량을 집중하여 조선에 대한 재침략을 감행한다. 이것을 정유재란(丁酉再亂)이라고 한다.

일본의 2차 침략 정유재란

1596년 9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를 파괴시키고 10월부터 전투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1597년(선조 30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12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한 후, 조선에 잔류하고 있는 왜군 2만명과 합세하여 조선을 재차 침략했다.
제1군 가토 부대가 1597년 봄에 부산의 다대포에 상륙하여 양산을 거쳐 울산의 서생포에 집결 하였으며, 제2군 고니시 부대가 웅천에 상륙하여 한성으로 북진 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조선은 1596년 11월에 일본의 재침략 의도를 파악하여 전투 준비에 돌입 하였다. 조선은 한강 이남에서 청야작전(淸野作戰)을 전개함으로써 장기전에 돌입 할 전략을 세우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삼남지방 수령들에게 청야전술(淸野戰術 : 주변에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물자와 식량 등을 없애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을 시행하여 장기전에 대비 할 것과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에게는 수륙합동작전을 전개 할 것을 명령 하였다. 그리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육군과 수군의 파병과 군사물품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명나라는 병부상서 형개(邢玠)를 총독, 양호(楊鎬)를 경리조선군무(經理朝鮮軍務), 총병관 마귀(麻貴)를 제독으로 삼아 5만 5,000명의 원군을 보내왔다. 이때 조선군의 전선 동원병력은 3만 명으로 권율부대를 대구 공산에, 권응수부대를 경주에, 곽재우부대를 창녕에, 이복남(李福男)부대를 나주에, 이시언(李時言)부대를 추풍령에 각각 배치했다.
7월초 일본은 주력군을 재편하여 고바야가와(小早川秀包)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우군은 대장 모리(毛利秀元) 부대를, 좌군은 대장 우키다 부대를 편성한 뒤 삼도를 완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했다.
일본군은 남해·사천·고성·하동·광양 등을 점령한 후 구례를 거쳐 전병력으로 남원을 총공격했다. 이에 이복남·이춘원·김경로 지휘하의 수성군은 격전을 벌였으나 수의 열세로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이후 일본군은 전주에 집결한 후 좌군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약탈을 하

고, 우군은 충청도로 북진했다. 9월초 충청방어사 박명현부대는 여산·은진·진산에서 일본군을 공격했고, 이시언부대도 회덕에서 일본 좌군을 격파했다. 그리고 정기룡(鄭起龍)부대는 고령에서, 조종도(趙宗道)부대는 황석산성에서 일본 우군과 치열한 격전을 전개했다.

9월 5~6일 권율과 이시언이 지휘하는 조선군과 해생(解生) 지휘하의 명나라 연합군은 직산에서 가토군과·구로다군을 대파했다. 이에 일본군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남하하여 고니시군은 순천, 가토군은 울산으로 후퇴하여 농성했다.

그 해 11월 명의 형개가 4만 명의 병력을 3로로 재편하자 조선군도 이시언, 성윤문,·정기룡이 각각 1영(營)씩 지휘하여 남진을 시작했다.

한편 1597년 1월 일본은 조선의 재 침략을 준비하면서 조선 수군을 와해시킬 계략을 획책 하였다. 왜장 가등청정이 당시 조선 진영을 자유로이 출입하던 요시라(要時羅)를 이용하여 경상우병사 김응서(金應瑞) 진영에 거짓 정보를 전하는 간첩 활동을 하게 하였다.

요시라는 가등청정이 1월21일 조선에 다시 출병하니, 해상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하면 그를 생포 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김응서에게 알렸다. 이 거짓 정보가 조선 조정에 전해지자 조정은 이 정보를 믿고 도원수 권율을 한산도로 급파하여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을 하달 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군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왜장 가등청정을 잡을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쳤다' 는 죄목과 과거의 잘 못 등을 죄목으로 이순신을 체포하여 1597년 2월 하순 하옥하고, 충청병사 원균을 수군통제사로 보직 하였다.

4월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은 조선 연해로 들어오는 일본수군을 중도에서 공격하려다 태풍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수군의 부산상륙을 허용했다. 이어 일본군은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해전에서 맹렬한 공세를 취하였다.

7월 원균은 선조의 독촉과 도원수 권율의 윽박지름으로 무모하게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다가 적의 전술에 말려들어 칠천도전투에서 대패 한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패전하고 원균과 이억기, 최호는 전사한다.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과 그의 휘하의 전선 12척만이 살아남는다.

원균이 전사하자 이순신은 8월초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복귀하여, 배설 장군이 지휘하고 있던 12척의 전선과 수군을 지휘 한다. 이순신은 9월 16일 수습한 1척의 배를 포함한 13척의 함선을 이끌고 서해로 향하는 300여 척의

일본전선을 명량(鳴梁)에서 대파 한다. 이 승리로 일본군의 수륙병진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조선수군은 다시 제해권을 장악했다.

육지와 바다에서 참패를 당한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패주하여 남해안 일대에 몰려 있었다. 그해 12월과 다음해 1월에 걸쳐 울산 도산성에서 권율 지휘하의 조선군은 가토군을 공격했고, 각 지역에서 일본군 잔당들을 섬멸했다. 그리고 이순신 지휘하의 수군도 절이도와 고금도에서 일본 수군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1598년 8월 마침내 도요토미가 죽자 일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에 조선군은 마귀, · 유정(劉綎) · 동일원(董一元) 등이 지휘하는 명군과 함께 육상에서 일본군을 추격했으나, 명군의 유정이 왜장 고니시로부터 뇌물을 받고 명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일본군을 섬멸하지 못했다. 한편 이순신의 조선수군은 진린(陳璘) 지휘하의 명 수군과 함께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11월 노량(露梁)에서 일본전선 300여 척과 해전을 벌였다. 그 결과 조선과 명이 일본의 함선을 200여 척이나 격침시키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순신은 전사하였다. 이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일본의 2차에 걸친 침략에 의한 7년간의 전쟁은 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막을 내렸다.

배설 장군과 칠천량 전투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1583년(선조 16)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하여 변방으로 거듭 기용되어 공을 세워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주부(主簿)로서 경상우도 방어사(防禦使) 조경(趙儆)을 따라 남쪽으로 출정하였다.

조경이 황간, 추풍에서 왜군에게 패전하자, 배설은 향병(鄕兵)을 규합하여 왜적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사력을 다 하였다.

또한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이 배설을 가장(假將)으로 삼아 왜적을 무찌르게 하였다. 이 때 배설이 용맹히 나아가 부상진(扶桑鎭)과 개산진(開山鎭), 무계진(茂溪陣)에서 적을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에 합천 군수가 되어 미숭산성(美崇山城)을 쌓았으며, 다시 부산 첨사(僉使)로 보직 되었다.

1594년(선조 27)에는 동래부사(東萊府使)로 보직 되었고, 그 해 가을에는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어 정사를 바르게 하고 덕을 베풀어 온 고을이 내내 평안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진주목사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치적을 기렸다.

1595년(선조 28) 2월 조정에서는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불화가 심화 되고 있어, 조선 수군의 지휘력과 전투력 발휘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원균 장군을 충청병사로 전출시켜 육군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조에게 보고 하였다. 이에 선조는 원균 장군을 충청병사로 전출 시킨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은 당시 보직대로 전라좌수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원균 장군이 수행하던 경상우수사의 직책을 담당 할 장군을 모색 한다. 이에 선조는 조정 대신들의 추천에 의하여 진주부사로 재직 중인 배설 장군을 원균의 후임 경상우수사로 임명 한다. 배설 장군이 경상우수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정을 바로 잡고 창고를 헐어 군병을 급식하고 함선과 병기를 수리하며 장졸들의 사기를 높이자, 유성룡과 이원익이 배설 장군을 간성(干城)이라고 칭찬 하였다. 그러나 시국의 폐단을 들어 상주한 것이 도원수 권율에게 거슬려 밀양 부사로 좌천 되었다가 다시 선산부사겸 금오산 별장으로 보직 되어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쌓아 진지를 구축하고 성내에 구정칠택(九井七擇:아홉 개의 우물과 일곱 개의 못)을 파고 혜창(惠倉:곡식과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을 설치 하였다.

이 사실이 금오산 폭포수 위 큰 바위에 선조선산부사배설천금오산성구정칠택<宣祖善山府使裵楔穿金烏山城九井七澤> 이라는 큰 글씨로 새겨져 전해 오고 있다.





금오산성(金烏山城)
이전부터 있던 성터로 고려 말기 왜구 침입에 보수하였고 임진왜란 때에 선산부사였던 배설(裵楔) 장군이 성(城)을 쌓았으며, 9정7택(九井七澤)을
는 사실이 바위에 '宣祖善山府使裵楔穿金烏山城九井七澤(선조선산부사배설천금오산성9정7택)'이라 새겨져 있다. 경북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내(內)

197

배설 장군은 1597년(선조 30) 2월 이순신이 죄인이 되어 관직을 삭탈 당하고 원균이 수군 통제사가 되자, 선조에 의해 다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보직 되어 정유재란을 맞이 한다.

정유재란을 시작 하면서 일본은 조선에 간첩을 보내어, 조선의 전투력을 분열시키는 모략을 시행 한다. 일본의 모략에 걸려 든 조선의 조정은 급기야 조선의 장군들을 불신하게 된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명령 불복종 죄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백의종군 하게 되고, 조선의 수군을 원균이 지휘하게 된다.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은 이순신이 지휘하던 지휘권을 인수하면서, 유일하게도 경상우수사만을 교체 한다. 이순신 함대의 경상우수사는 배흥립 장군이었다. 조선 조정은 이순신과 원균을 교체하면서, 경상우수사를 배흥립에서 배설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배흥립은 조방장으로서 임무를 수행 한다.

조선 수군의 지휘권을 인수한 원균은 경상우수사 배설, 전라좌수사 이억기, 충청병사 최호와 함께 앞으로 전개 될 왜군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전투력 증강에 박차를 가 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왜군의 북상을 우려하여 원균에게 무모한 요구를 한다. 일본 전투력의 1/10 수준인 원균 함대가 부산포에 집

결 하여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왜군을 공격하여 격퇴 시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왜군과 싸우다 죽으라는 것이다. 원균은 수군 단독으로는 불가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동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한다. 그러나 권율은 이 요구를 묵살하고, 패전의 죄와 명령 불복종 죄로 원균에게 곤장을 친다. 그것도 아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이 때 배설 장군도 원균과 마찬가지로 견해를 같이 한다.
권율이 시행한 원균을 대한 곤장 사건은 조선 수군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다. 그리고 칠천량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패전하는 원인이 된다.

배설 장군은 원균 함대의 선봉장으로 왜군과의 전투에 앞장을 섰다. 병법에 탁월하고 용감한 무인이었지만 전투력 수준이 왜군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상태에서, 수군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왜군과 싸워 이길 수 없었다.

마침내 칠천량 전투에서 왜군의 야간 포위에 의한 기습 공격으로 참패를 당하였으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용감히 싸운 배설 장군은 전세가 극도로 위험해지자 탁월한 지휘력과 돌격 정신으로 휘하 장병들을 격려하며 적의 포위망을 뚫기 시작 하였다. 전 장병이 하나 되어 용감히 싸운 결과 적의 포위망이 허물어지면서 간신히 한산도로 후퇴 할 수 있었다.
이 전투로 조선 수군은 전멸 하였으며, 오직 배설 장군이 지휘한 전선 12척과 장병, 그리고 전투에서 탈출한 일부장병들만이 살아 남았다.
칠천량 전투는 죽음의 전투였다. 제갈 공명, 관우,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맥아더, 역사의 인물 중 누가 참전 했어도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인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배설 장군은 살아 남았다. 그리고 전선 12척과 120여명의 수군도 살렸다.
하마터면 조선 수군이 사라질 뻔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될 만한 전투상보와 같은 전투상황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칠천량 전투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선조실록과 이순신의 개인일기, 유성룡의 징비록에 일부 거론 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필주자 들은 글로써 사실 아닌 사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왜곡되고 과장 된 것들이 전해지고 있다.
칠전량 전투와 배설장군에 대한 진실이 왜곡 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자 역시 진실된 자료를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1차 조선침공 (임진왜란)

1592년(선조 25년) 왜국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만 8천여명의 육군 병력과 수군 9천여명, 후방경비부대 1만 2천여명을 조선의 침략군으로 편성하여 호시탐탐 조선을 침략 할 준비를 하다가, 1592년 4월 13일 왜군 선봉부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지휘하는 1만8천여명의 장병을 실은 대선단이 쓰시마의 오우라항을 아침에 출발하여 부산 앞바다에서 하룻밤을 지새며 전투 준비를 한 후 부산진성을 무차별 공격 하였다.
이로써 왜국의 침략 전쟁인 임진왜란은 시작 되었고, 평화로운 조선은 왜군의 침략으로부터 살아 남기 위하여 온 백성이 전력투구 하였다.

일본군이 침략을 개시한 지 한 달도 못된 5월3일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의주로 피난한 선조까지 위협을 받게 되자 조선 조정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조선 천지가 일본군의 말 발굽에 무참히 짓밟히고, 잔인한 일본군의 조총과 칼에 군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여자, 노인, 심지어 임산부까지 닥치는대로 처참히 살해되는 참으로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연일 계속 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봉기 하였다.
의병은 신분을 초월하여 양반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 까지 대동단결하여 일체감을 이루었으며, 왜놈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우국충정으로 모여 든 의병들은 열악한 무기로 왜놈과 대적하여 죽음을 무릎쓰고 싸웠다.

왜군은 지상군이 평양을 함락시키고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전쟁 초기에 사기가 매우 충천 하였다.
그러나 점차 전선이 확대되면서 보급선 신장으로 인한 군수물자 조달이 지연되어 군량미와 전쟁물자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조선 수군이 전력을 재 정비하여 남해안에서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왜군의 서해안 진출이 차단되어 후방으로 부터의 지원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특히 각처에서 봉기한 의병들의 적극적인 전투로 인하여 왜군의 손실이 많아지고 병력의 집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왜군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전투상황도 불투명하였다.
1593년 1월에는 명나라 원군 이여송이 지휘하는 부대에 의해 평양성이 탈

환 되었으며, 왜군들은 한성으로 철수 하였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왜군은 재빨리 명군과 강화 교섭을 체결하여
1593년 4월 중순부터 남해안의 서생포로부터 웅천까지 철수하기 시작 하였다.
1년 동안 조선은 왜군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처참히 살해된 채
명나라에 의해 왜놈과 강화 교섭을 하게 된다.
강화 교섭이 진행 됨에 따라 왜놈은 일부 병력을 부산과 울산 등지에 남겨 둔 채 주병력을 1593년 말까지 본국으로 철수 하였다.

1596년 6월6일 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기 위해 책봉사 (冊封使)를 파견 하였다. 9월2일 오사카성에서 책봉식을 준비 했으나, 토요토미가 강화 회담의 내용과 다르다고 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무산 되었다. 4년간 끌어오던 강화교섭이 1596년 9월에 마침내 결렬되었다. 왜군의 강경론자인 가토(加藤淸正)가 재침공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왜국의 통치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재침략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청야작전(淸野作戰)을 전개하기로 하고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명군의 재파병이 결정 되었다.
왜국은 1597년 1월14일에 카토오의 제1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뒤이어 2군이 웅천에 상륙하면서 왜놈군의 제2차 조선침략 전쟁인 정유재란이 발생하였다.

일본의 2차 조선 침공(정유재란)

왜국은 임진왜란에 이어 1597년(정유년)에 전렬을 재 정비하고 왜군 선단 600여척과 병력 14만 여명을 이끌고 또 다시 조선을 침범하였다.
굳이 임진왜란을 왜국의 육군 침략이라고 한다면, 정유재란을 왜국의 수군 침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유재란 당시의 왜군은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벌어 임진왜란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에 대한 보강을 하였으며, 특히 수군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왜군의 함선 수가 600여척이나 되었고 함선의 나무도 임진왜란 당시 보다 강한 재질로 바꾸었다. 이는 임진왜란 때 왜선이 조선의 함선과 맞 부딪쳤을 때 부서져 침몰하였으므로 전선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였고, 전술과 화포도 크게 보강 하였다. 그리고 조선 수군의 동태를 신속히

파악 하기 위해 천성(天成), 가덕(加德), 안골포(安骨浦) 등지에 첩보병을 배치 하여 운영하는 등 임진왜란과는 비교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확보한 후 재침략을 시도 하였다.
또한 왜군은 조선 진영에 첩자를 보내어 조선 조정에 허위 정보를 흘렸다.
일본군 장수 고니시유기나가(小西行長)는 고시도끼라(要時羅)라고 하는 자를 첩자로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보내어
"1597년 1월 21일에 가토기요사마(加藤淸正)가 조선에 도착할 터인즉 해상에 매복해 급습을 하면 생포할 수 있다." 는 허위 정보를 전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 정보를 믿고 도원수 권율 장군을 한산도로 급파하여 삼군수군통제사 이순신에게 즉시 출동하여 "가토기요사마(加藤淸正)"를 생포하라는 출동 명령을 하달 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왜적의 정보는 믿을 수가 없으며, 사실인 경우에도 복병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군을 출동 시키지 않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가토기요사마(加藤淸正)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와 여러 가지 죄명을 들어 1597년 2월26일 이순신을 한산도 본영에서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였다.
그리고 후임으로 원균을 임명 하였다.
원균은 이순신과의 불화가 심화되자 1595년 2월 경상 우수사에서 충청 병사로 전출 되어, 2년여 동안 육군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원균의 후임은 선조가 조정의 천거에 의해 배설 장군을 보직 하였다.
원균은 1597년 1월18일부로 경상도 통제사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 였으나, 2월26일부로 다시 삼군수군통제사가 되어, 경상우수사 배설, 경상 좌수사 이억기, 충청 병사 최호 등과 함께 조선 수군을 지휘하게 된다. 그리고 왜 수군을 격파하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
이순신은 4월1일 하옥되어 공초를 받다가 풀려나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하라는 명을 받았고, 6월4일 경상우도 초계에 있는 권율 장군의 진영에 도착하였다.

부산포해전과 조선 수군

1597년 초순에 이순신이 하옥 되고 원균이 수군통제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왜군에게 전해지자 왜군은 조선 수군을 격파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공격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왜군의 후속 부대가 올 것이라는 첩보를 듣고 수군통제사 원균 장군에게 즉각 부산 지역으로 출동하여 왜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 하였다.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부산 공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원균 장군은 육군이 먼저 안골포의 왜군을 격파한 이후라야 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출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과 권율 장군의 성화에 못 이겨 출동이 불가피 하였다.
원균 장군은 1597년 6월 18일 한산도를 출항 하였다.
그러나 조선 수군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세히 알고 있던 왜 수군의 수륙합동 작전에 의해 안골포와 가덕도 지역에서 별다른 전공도 없이 보성 군수인 안홍국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리고 안골포의 왜군을 지상에서 먼저 공격해야만 수군 공격이 가능하다고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마치 도원수 권율이 육군지원을 하지 않아서 부산 공격을 못하는 것처럼 장계를 올린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권율은 원균이 있는 사천까지 가서 원균의 부산 공격 회피를 추궁하였다. 이에 원균은 육군의 안골포 공격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장계 내용의 부당함과 조정의 지시를 어긴 죄명으로 원균을 형틀에 잡아 묶고 곤장 50대를 때렸다.
삼도수군통제사로서 곤장을 맞은 원균은 정신을 잃고 군졸의 등에 업혀 실려 나갔다. 화가 치밀어 오른 원균은 한산도에 도착하여 며칠간 술만 마셨다.
원균은 고민에 빠졌다. 부산포의 왜군에 대한 공격은 승산이 없는 무모한 전투라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공격을 감행 할 시에는 조선 수군의 패배가 불가피 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경상우수사 배설장군과 전라우수사 이억기 장군, 충청수사 최호,
조방장 배흥립과 김완 등의 장수들도 조선 수군 단독 작전으로 부산포를 공격하여 전과를 획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배설 장군은 원균 장군과 같은 전술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균 장군과 뜻을 같이 하였다. 조선 수군 단독 작전으로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모하므로 육지의 육군과 연합 협동 작전을 한다면 부산포의 왜군을 격파 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 하였다.
배설 장군은 육도삼략 (六韜三略)의 병서(兵書)에 해박하고 임진왜란 발발 이 후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운 공적이 인정 되어 조정으로부터 발탁 되고, 원균 장군이 충청 병사로 승진하자 그 후임이 되었다. 배설 장

군은 육군과 수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공격을 미룰 수가 없다. 조정에서는 부산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닦달을 한다. 수군의 전술을 잘 알지 못하는 권율에게 곤장을 맞은 수모를 무엇으로 갚아야 하나? 권율이 또 다시 곤장을 친다면? 굴욕이나? 죽음이나?
원균 장군은 무모한 부산포 공격을 본의 아니게 조정의 강압에 의해 결심하게 된다. 이로써 조선 수군의 패배는 시작 되었다.
분노와 굴욕감에서 안정을 되찾은 원균 수군통제사는 휘하 장군들과 함께 부산포 공격을 위한 전술 토의를 하며 왜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계책을 강구 하였다.
조선 수군의 칠천량 전투는 전투 상황에 대한 전투 상보가 없고, 개인의 일기나 개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필주자(筆誅者 : 붓으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사람)가 근거나 고증없이 또 한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상상한 왜곡 된 글들이 난무하다. 선조 실록이나 난중 일기도 원본과 다르게 수정 보완되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진실이 허구에 묻혀 잠식되고 허구가 판을 치고 춤을 추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하여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고자 한다.

원균 장군은 배설 경상우수사를 선봉장으로 결정 하였다. 이유는 부산 첨사로서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부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봉장이 된 배설 장군은 휘하 장병들과 함께 죽음을 무릎쓰고 부산포의 왜적을 격파 할 것을 하늘과 조선 조정에 맹서 하였다.
좌익, 우익, 후방경계를 담당한 장군들과 장병들도 결전을 맹서하였다.

1597년(정유년) 7월7일 원균 장군은 배설 경상우수사를 선봉으로
하여 한산도에서 견내량을 지나 칠천도, 영등포, 가덕도를 거쳐
다대포 앞 바다에 도착 하였다. 이때 왜선 8척이 다대포 앞 바다에 정박해 있는 것을 선봉장인 배설 장군이 발견하고 공격하였다.
왜군들은 조선 함대가 공격해 오자 전선을 버리고 산으로 퇴각하였다. 경상우수사 배설은 왜선 8척을 모조리 불 태워 소각시키는 전과를 획득 하였다.
이 후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원균 장군의 명령에 의해 부산포로 진격 하였다.
절영도를 눈 앞에 두고 부산포로 접어들 시기에 대마도에서 절영도 쪽으로 왜군의 수송선단이 이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원균 장군은 부산포 공격을 멈

추고 왜군의 수송 선단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달 하였다.
조선 함대가 왜군의 수송선단을 공격하기 위해 남진을 하자, 왜군은 전투를 회피하고 서생포와 대마도로 퇴각하였다.
조선 함대는 전 속력을 내어 공격하였지만 왜선을 격파하지 못하고, 때마침 불어 닥친 거센 바람과 거친 풍랑으로 함대가 분산 되기 시작 하여 통제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 조선 수군의 7척의 전선이 심한 풍랑과 조류에 밀려 서생포 방향으로 떠밀려가 왜군에게 섬멸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 하였다.
원균 장군과 배설 장군, 이억기 장군, 최호 장군은 악천후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장병들을 격려 하여 한산 본영으로 복귀 하였다.
복귀 후 전투력을 확인해 보니 13척의 전선과 수백 명의 수군이 전사한 것이 확인 되었다.

원균 장군은 제대로 왜군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악천후로 인한
전투 손실로 또 다시 명예가 실추 되자. 명예 회복을 위하여 재차 부산포 공격을 무모 하게 감행 하였다.

7월14일 새벽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조선 함대는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선봉으로 또 다시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기 위해 북을 울렸다.
조선 수군의 지휘관은 통제사 원균, 경상우수사 배설,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조방장 배흥립과 김완 등 이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어떠 하였을까?
조선 수군의 전선은 판옥선 120여척과 협선130여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만5천 여명의 수군이 있었다. 사기는 원규 장군의 곤장 사건과 일주전의 공격 실패로 인하여 저하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왜군은 600여척의 대 선단과 141,490명의 왜군이 부산에 입항해 있었으며 사기가 충천 하였다.
당시 조선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왜군의 전투력 수준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무형전투력도 왜군을 능가하지 못한 상태 였다.

조선 수군이 부산포를 공격을 위해 한산도에서 출항하자 왜 수군은 웅천, 안골포, 가덕도로 이어지는 육지의 첩보 부대 연락망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왜군의 수군은 부산진에 약 600척의 전선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왜군의 육군은 거제도, 가덕도, 웅천, 안골포, 김해, 죽도, 부산포와 연계되어 있는 왜성을 근거지로 정찰대를 운용하여 조선 수군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의 전투상황을 손자의 병법인 모공편(謀攻篇)과 비교해 본다.손자는 모공편(謀攻篇)에서 어쩔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이기는 방법에대해 이렇게 기술하였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요
불지피지기(不知彼知己)면 일승일부(一勝一負)요
불지피불지기(不知彼不知己)면 매전필태(每戰必殆)니라
해석하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나 상대방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번 이기고 한번은 패배한다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로움에 빠진다.

조선 당대의 최고 무인인 원균 장군과 배설 장군, 이억기 장군이 병법의 기본인 손자의 모공편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선조와 조정 대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왜군을 부산포에서 공격하여 적이 한양으로 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압력 앞에 굴복하여 조선 수군의 장군들은 무인으로서의 지혜와 전술 전기를 바다속에 묻어 두고 오직 선조의 명령에 충성 또 충성하며 조선 조정의 무모한 공격 명령에 못 이겨 전략과 전술을 뒤로 한 채, 조선 수군의 목숨을 담보로 부산포의 왜군을 향해 또 다시 공격의 북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왜국은 임진왜란이 1년동안 진행되다가 명나라의 중재로 협상이 시작 되자 또 다시 재침략의 준비를 위하여 전투력을 보강을 철저히 하였다.
반면 조선 조정은 초토화 된 나라의 재건과 국방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야 하나, 왕권의 유지와 당파의 세력을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이순신 장군, 권응수 장군, 배설 장군 등의 무신들이 조정의 문신들에 의해 관직을 삭탈 당하거나, 강등 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1597년 왜군의 재침략에 겁을 먹은 선조와 조정은 또 다시 한양을 떠나 북으로 피신하지 않기 위하여, 온 군인과 백성이 죽음으로 왜군의 북상을 저지 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 첫 번째 죽음의 요구 대상이 조선 수군의 지휘관인 원균 수군통제사와 수군 함대였다. 선조는 원균 장군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왜군을 공격하라고

명령 하였다. 이에 권율은 수군통제사 원균을 곤장으로 체벌하여, 왜군을 공격하게 한다. 참으로 한심한 사건 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 수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 되었고, 원균은 지휘력을 상실 하였다.
무인으로서 전술과 전략에 능한 원균 장군과 배설 장군은 지금은 공격의 때가 아니니 차후 육군과 수군이 연합하여 공격작전을 시행 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을 누차 장계를 올려 조선 정부를 설득 하였다. 원균과 배설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있었으며,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왜군을 격멸 할 전투 훈련도 하였다.
조선 조정과 도원수 권율은 원균의 장계를 묵살하고 무조건적 공격을 감행시킨다. 특히 권율은 선조로부터 명령 불복종, 지시 불이행 이라는 죄명을 받아 이순신 처럼 하옥 되거나 처형 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군 통제사 원균 장군을 붙잡아 곤장 50대를 때리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즉결 심판을 감행 한다.
 이로써 상무정신, 화랑도 정신을 계승한 이 나라의 무인들의 道와 軍紀는 무너져 버린다. 국방장관 격인 권율이 해군참모총장격인 원균을 곤장으로 다스리는 무식하고 무지한 작태가 전쟁 중에 발생하여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군인괴 의병들과 백성의 사기를 크게 저하 시켰다.
군인은 명령에 의해 행동한다.
그러나 그 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 했다면, 어떻게 처신 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역모를 하고 배신을 하지만, 조선의 무인들은 죽음을 담보로 충성에 충성을 한다. 원균과 배설 역시 조선에 충성 하였다.

1차 부산포 공격)

6월18일(양력 7월30일) 안골포와 가덕도 앞바다에서의 전투 상황

 조정에서는 왜군의 후속 부대가 올 것이라는 첩보를 듣고 수군통제사 원균 장군에게 즉각 부산 지역으로 출동하여 왜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 하였다.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부산 공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원균 장군은 육군이 먼저 안골포의 왜군을 격파한 이후라야 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출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과 권율 장군의 성화에 못 이겨 출동이 불가피 하였다.

원균 장군은 1597년 6월 18일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선봉장으로하여 한산도를 출항 하였다. 그러나 왜군은 육지에서 조선 수군의 이동을 탐지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조선 수군의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전투를 회피 하였다. 따라서 조선 수군은 왜 수군의 수륙합동 작전에 의해 안골포와 가덕도 지역에서 별다른 전공도 없이 보성 군수인 안홍국이 전사하는 피해만 입고 한산 본영으로 철수 하였다.

그리고 안골포의 왜군을 지상에서 먼저 공격해야만 수군 공격이 가능하다고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마치 도원수 권율이 육군지원을 하지 않아서 부산 공격을 못하는 것처럼 장계를 올린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권율은 원균이 있는 사천까지 가서 원균의 부산 공격 회피를 추궁하였다. 이에 원균은 육군의 안골포 공격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장계 내용의 부당함과 조정의 지시를 어긴 죄명으로 원균을 형틀에 잡아 묶고 곤장 50대를 때렸다. 이것이 원균의 곤장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조선 수군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뻔 하였다.

2차 부산포 공격

7월7일(양력 8월19일) 부산포 앞바다에서의 전투 상황

원균 장군은 전 수군과 함께 부산의 왜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북을 울렸다.

6월18일 1차 부산포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 함대는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선봉장으로하여 한산도에서 견내량을 지나 칠천도, 영등포, 가덕도를 거쳐 다대포 앞 바다에 이르렀다. 왜선 8척이 보였다. 왜군들은 조선 함대를 보자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 하였다. 조선 수군은 힘들이지 않고 왜선 8척을 불태 울 수 있었다. 이에 사기가 충천한 조선함대는 부산포를 향해 계속 공격하였다.

부산만에 접어들어들자 원균은 왜군의 전선이 대마도에서 북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균은 부산포 공격을 뒤로 하고 북상하는 왜군의 전선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조선 함대가 공격을 시작하자 왜 선단은 전투를 회피하고 대마도와 서생포쪽으로 퇴각하였다.

때마침 불어닥친 풍랑으로 조선 함대가 분산 되고 지휘가 어려워 추격을 중단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풍랑으로 7척의 전선이 풍랑과 조류에 밀려 서생포로 떠 내려가 왜군에게 섬멸 당하였다. (난중일기 7월 16일자에 살아서 탈출한 세남이라는 종의 진술 기록)

이 전투로 13척의 배와 수 백명의 수군이 전사 하였다.

3차 부산포 공격

7월14일(양력 8월26일) 부산포, 가덕도, 영등포, 전투 상황

원균 장군은 2차에 걸쳐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였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악천후로 인한 전투 손실과 공격의 실패로 또 다시 명예가 실추 되자. 명예 회복을 위하여 재차 부산포 공격을 무모 하게 감행 하였다.

7월14일 새벽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조선 함대는 1, 2차 공격 시와 마찬가지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선봉으로 또 다시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기 위해 북을 울렸다. 조선 수군의 지휘관은 통제사 원균, 경상우수사 배설,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조방장 배흥립과 김완 등 이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어떠 하였을까?

조선 수군의 전선은 판옥선 120여척과 협선130여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만5천 여명의 수군이 있었다. *사기는 원균 장군의 곤장 사건과 일주전의 공격 실패로 인하여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반해 왜군은 600여척의 대 선단과 141,490명의 왜군이 부산에 입항해 있었으며 사기가 충천 하였다.

당시 조선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왜군의 전투력 수준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무형전투력도 왜군을 능가하지 못한 상태 였다.

조선 수군이 부산포를 공격을 위해 한산도에서 출항하자 왜 수군은 웅천, 안골포, 가덕도로 이어지는 육지의 첩보 부대 연락망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왜군의 수군은 부산진에 약 600척의 전선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왜군의 육군은 거제도, 가덕도, 웅천, 안골포, 김해, 죽도, 부산포와 연계되어 있는 왜성을 근거지로 정찰대를 운용하여 조선 수군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의 전투상황을 손자의 병법인 모공편(謀攻篇)과 비교해 본다. 손자는 모공편(謀攻篇)에서 어쩔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였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요

불지피지기(不知彼知己)면 일승일부(一勝一負)요

불지피불지기(不知彼不知己)면 매전필태(每戰必殆)니라
해석하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나 상대방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번 이기고 한번은 패배한다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로움에 빠진다.

원균 함대는 이날 정오쯤 되어 절영도를 눈 앞에 두고 부산포를 향하고 있었다. 이 때 절영도 남쪽에서 왜 전선이 갑자기 나타났다. 왜군은 쾌속선을 타고 빠른 속도로 조총을 쏘아대면서 공격해 왔다.
이에 선봉장인 배설장군의 함대가 재 빠르게 대응하여 반격하자 왜군은 공격을 멈추고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 하였다. 왜군은 조선 수군이 공격하면 후퇴하고, 멈추면 공격하는 기만 유인 전술을 구사하며 조선 수군을 지치게 만들었다. 거듭되는 왜군의 기만 전술에 농락 당한 조선 수군의 사기는 저하 되고 수군은 지쳐가고 있었다. 배설 장군과 이억기 장군, 최호 장군은 원균 장군과 합세하여 여세를 몰아 적을 추격 하였다. 그러나 왜군의 전선은 임진왜란 당시의 전선이 아니었다.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 2차 침략을 준비하면서 왜 수군의 전투력을 보강 하였다. 그리고 해전에서의 전술도 보완하였다. 왜 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높았다. 왜군은 조선 수군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지치게 만들었다.
이에 전라우수사 이억기장군이 원균장군에게 한산도로의 철수를 건의 하였으나 원균장군은 그 건의를 묵살하고 계속 공격을 명령 하였다.
왜군들은 공격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조선수군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고, 왜군은 조선 수군이 망망대해가 아닌 육지와 섬 사이의 좁은 수로로 들어오게 유인하였다가 수륙 합동으로 총공세를 펴 부었다. 조선 수군이 왜군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원균은 후퇴 명령을 내리고 재 빨리 가덕도로 철퇴 하였다. 왜군은 후퇴하는 조선수군을 뒤쫓아 계속 공격을 가하자 어절 수 없이 가덕도를 떠나 아군의 진지가 있는 거제도로 철수 하였다. 이 때가 저녁이었다. 이 날은 흐리고 비가 와서 날이 어두워지자 주위가 캄캄한 암흑이었다. 원균장군은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거제도 북단의 영등포 해안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식수와 나무를 보충하기 위해 병력을 거제 섬에 상륙시켰다. 병력이 섬에 도착하여 나무와 물을 보충 할 때에, 왜군은 조선 수군이 오기를 기다리며 잠복해 있다가 일제히 기습 사격을 감행 하였다.
야간 매복 기습 사격에 우완 좌왕 정신을 차리지 못한 조선 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많은 병력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였다.
이에 원균장군은 급히 함대를 수습하여 아군의 진지가 있는 칠전도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20척의 전선이 파괴 되고 400여명의 수군이 전사 하였다.

칠전도에서의 작전회의

7월 14일 밤 통제사 원균 장군은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비를 맞으며 영등포에서 퇴각하여 칠천도로 퇴각하였다.
칠전도에 도착한 원균 장군과 예하 지휘관들은 밤새도록 차후 작전을 위하여 작전 회의를 개최 하였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 다시 왜 수군을 공격 할 것인가? 아니면 한산 본영으로 철수하여 시간을 가지고 전투력을 보강한 후에 육군과 합동하여 연합 작전으로 공격 할 것인가? 당시 원균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하였다. 왜군과의 전투를 회피하고 한산도로 퇴각하자니 도원수 권율의 곤장이 생각 난다. 왜군을 공격하자니 원균 함대만으로는 승산이 없다. 패배 할 것이 뻔하다. 침묵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선불리 나서서 계책을 논하는 장군이 없었다.
패전 상황에서 자칫 말을 잘 못 했다가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장군들은 침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 수군의 장군들에게는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듯이 죽음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것 쯤은 알고 있었다.
얼마간의 침묵을 깨고 전투의 선봉장 임무를 수행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 말문을 열었다.
“함대를 전투에 유리한 한산도 본영으로 철수 시켜 왜군의 공격을 잠시 피한 다음 전투력을 복원하여 부산포로 재 출병 하는 것이 조선 수군을 살리고 조선을 살리는 길입니다. 칠천도는 물이 얕고 협착(狹窄: 좁고 얕다)해서 전선을 운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니 함대를 한산 본영으로 옮겨 차후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하 장군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원균에게 한산도로의 철수를 건의 한다. 원균은 한 동안 말이 없다. 명예냐? 죽음이냐? 원균장군은 평소 신임하고 신뢰하고 있는 배설 장군의 계책이 지당하였지만, 당시의 패전으로 또 선조와 조정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권율로부터 곤장 세례를 받거나 이순신처럼 투옥

될 것을 생각하니 한치 앞을 생각 할 겨를이 없었다.
원균은 비장한 각오를 한 후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날이 밝으면 왜군을 공격 할 것이다.”
원균은 예하 장군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않고 현 위치에서 휴식을 하다가 날이 밝으면 공격 할 것을 결심 한다.
임진왜란의 역사는 당시 원균 함대가 패전하기 직전의 상황과 패전 당시의 전투 상황을 묻어 두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칠천량 전투의 아픔은 묻어 버리고 이순신의 활약에만 초점을 맞추어 버렸다. 자연히 칠천량 전투 상황은 조선의 치욕적인 패전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당시 전사하고 희생 된 조선 수군과 죽음에서 살아 난 배설 장군과 전선 12척에 대한 사실은 역사의 기록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생존한 배설 장군은 칠천량 전투 패배의 책임을 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원균장군은 배설 장군의 계책을 뒤로 한 채 칠전도에서 왜군과 싸울 것을 명령 하였다. 원균장군의 고뇌를 잘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뜻을 같이 한 배설 장군과 휘하 장수들은 통제사의 명령에 따를 것을 다짐 하였다.
작전 회의를 마친 후 배설 장군은 날이 새면 왜군을 공격하는 선봉장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선을 점검하고 수군을 격려한다. 휘하 장군들도 자기 부대를 점검하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독려 한다. 조선 수군들은 적과의 전투에 시달리며 150㎞ 정도의 거리를 쉬지 않고 노를 저었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들어 있었다.
이 때가 7월 14일(양력 8월26일)로써 보름 전날 야밤이었지만 비가 내려 달은 보이지 않고 앞은 캄캄 하였다.

칠전도 전투와 조선수군의 피해 (조선 수군을 살려라!)

7월 14일 왜군은 조선 수군이 한산도에서 부산포로 공격을 감행하자 육지에 배치한 정탐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유인전술로 조선 수군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며 쉽사리 조선 수군을 퇴각 시킨 왜군은 수륙 합동 작전을 가 하면서 조선 수군에 압박을 가하였다.
왜군의 작전에 말려 든 조선 수군은 마침 불어 닥친 거센 바람과 비로 인하여 왜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거제도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이에 추격전을 벌인 왜군은 조선 수군이 칠천도에 집결하자 추격을 멈추고 전투

력을 집결 시킨 후 다음 공격을 계획 한다. (15일의 전투 기록을 찾아라)



7월16일 이 날은 비가 내렸다. 밤이 되면서 어둠이 짙어져 주위를 분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군은 비가 내리는 악천후의 유리한 조건 속에서 야음을 이용한 포위 작전을 시행 하였다. 1천여척(어떤 문헌은 1천5백여척이라고 한다)이 판옥선 등 큰 전선 조선 함대를 첩첩이 포위 하였다. 그리고 한산도로의 진출로를 봉쇄하였다. 기동력이 좋은 작은 배를 조선 수군의 판옥선 사이로 침투시켜 공격 개시 신호가 떨어지면 일제히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왜군의 일부 병력은 칠천도와 거제도에 상륙하여 매복을 하였다.

왜군은 수륙 합동 작전 태세를 갖추고 공격 개시 신호를 숨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7월 16일 새벽 조선 수군이 깊이 잠든 사이에 어둠을 이용하여 사방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 하였다. 왜군의 조총 소리와 대포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고, 왜군의 불화살은 불꽃 놀이를 하듯 쉴새 없이 날아 다녔다. 적의 함성과 기세는 산을 무너뜨릴 만큼 웅장 하였다.

적의 공격에 대항하여 조선 함대는 사력을 다하여 대항 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 했다. 진퇴양난(進退兩難 :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의 누란지세(累卵之勢 : 포개어 놓은 알의 형세(形勢)라는 뜻으로, 몹시 위험(危險)한 형세(形勢)를 비유함)에 빠져 버렸다.
원균 장군과 배설 장군, 이억기 장군, 최호 장군은 각자의 휘하 부대를 지휘하며 왜군과 치열하게 싸운다. 왜군의 포위망을 뚫어라. 전투력이 우세한 왜군을 격퇴 할 힘이 부족하다. 끝까지 싸워라!
원균과 배설, 이억기, 최호 장군들은 외친다.
“조선 수군을 살려야 한다. 한산 본영을 살려야 한다.”

이 전투에서 수군통제사 원균과 경상 좌수사 이억기, 충청 병사 최호는 장렬히 전사하고, 경상우수사 배설은 전선 12척과 함께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한산 본영에 도착한 후 청야 작전을 시행하고 적의 추격을 피해 회령포로 후퇴한다.

칠천도 전투 당시의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의 행적에 대하여 추적해 보자.
1. 원균이 주최한 작전회의에 참가 한다.
1597년 7월 15일(양력 8월 27일) 저녁에 칠전도에 도착한 원균 함대는 부대별로 집결지를 편성 한 후에 밤 늦게 까지 작전 회의를 한다. 이 때 배설 장군과 모든 지휘관이 참석 하였다.

2. 왜군의 공격에 대비 할 수 있는 유리한 집결지 편성.
집결지 편성 시에 부대가 한 군데 모여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배설 장군은 거제도에 본영이 있는 경상우수사로서 칠천량의 지형과 물길에 대해서는 박식하게 알고 있었기에 적의 공격에 대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3.원균은 작전회의 시에 휘하 장군들에게 부산포 공격을 위하여 각자의 임무를 부여 한다.
- 배설에게 선봉장으로서의 임무를 부여 한다.
- 배설에게 한산 본영의 진지 방어 임무와 청야 작전 임무를 부여 한다.
- 만약 적과 전투 시 전세가 불리해 지면 청야 작전을 시행하는 임무 부여

4. 배설은 칠천도에서 원균과 함께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한다.
- 선조 실록에 기록 된 내용을 보자.

▶선조 90권, 30년(1597년 7월 22일(신해) 2번째기사
선전관(宣傳官) 김식(金軾)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다

"15일 밤 2경에 왜선 5~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 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자 우리 나라 제장들이 장졸간에 병선을 동원하여 어렵게 진을 쳤는데 닭이 울 무렵에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왜선이 몰려 와서 서너 겹으로 에워싸고 형도(刑島) 등 여러 섬에도 끝없이 가득 깔렸습니다. 우리의 주사(舟師)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 지역 추원포(秋原浦)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元均) 및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했는데,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니 왜노 6~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옥포(玉浦)·안골(安骨)의 만호(萬戶)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전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5. 배설은 왜군과의 전투 시 포위망을 뚫고 한산도로 후퇴 한다.
- 대사헌(대사헌) 김간(김간)이 쓴 원균 행장기에 의하면
7월16일 날이 밝자 우리 배에서 불이 일어나므로 원균은 즉시 바라를 쳐서 변고를 알렸으나 그 때 돌연히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 오고 적탄이 비오듯이 날아 왔다. 적의 함성은 하늘을 진동하고 그 기세는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말아 올릴 듯하니 도저히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먼저 닻을 거두어 작전상 후퇴하는데 우리 수군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다. 원균 장군도 할 수 없이 배에서 내려 작전상 뭍으로 올라 갔는데 매복되어 잇는 6-7명의 적이 달려 오리지간(五里之間)을 싸우다 끝내 힘이 모자라 목을 베어 갔다.

6. 배설은 왜군과의 전투 시 유리한 지역에 점령해 있다가 적의 공격이 시작 되자 반격을 하다가 조선 수군이 전멸 되는 것을 보고 한산도로 후퇴 한다.
- 이 가정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왜선이 조선 함대를 철저하게 포위

하였기 때문이다.

칠천도 전투 상황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 다만 선조 실록과 필주자들의 글과 일기 등에 기록 된 내용을 토대로 가정하여 유추 할 뿐이다.
선전관 김식의 장계와 대사헌(대사헌) 김간(김간)이 쓴 원균 행장기에 의하면 분명히 배설 장군은 원균 장군과 함께 왜군과 전투를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적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 하였다.
칠천량 전투는 왜군의 우세한 전투력과 기상과 지형과 때를 잘 이용한 포위 기습 공격에 의해 조선 수군이 사라질 뻔한 참패를 당한 전투이다. 이러한 중요한 전투에 대한 전투 상황 분석이 없다는 것이 의아 할 뿐이다. 조그마한 승전은 배를 부리면서 찬사를 하며 필주하는데, 큰 패전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다. 그래서 패전의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고 희생 된 군인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원균 장군과 조선 수군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칼과 창을 휘둘렀지만, 역 부족으로 처참히 살해 되고, 왜군은 원균 장군의 목을 베어 갔다. 원균 장군은 패전의 모든 책임을 뒤로 한 채 전사 하였다.
전라좌수사 이억기, 충청병사 최호 역시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나 끝내 왜군의 총탄을 맞고 전사 하였고, 적의 포위망 속에서도 용감히 싸운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만이 평소 잘 알고 있는 지형과 물길을 이용하여 휘하 전선 12척과 함께 적진을 탈출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다.
이로써 조선 수군의 원균 함대는 칠천량 전투에서 사라지고,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 지휘하는 12척의 전선만이 조선 수군의 명맥을 이어 갔다.
조선 수군의 진영인 칠천도에서의 패배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전투다. 만약 이 전투에서 경상우수사가 구출한 전선 12척이 없었더라면 조선 수군은 왜군에게 전멸 당 하였다. 그리고 이순신은 권율에게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전멸 당하였다고 보고 하였을 것이고, 권율은 선조에게 조선 수군이 전멸 했다는 장계를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 수군을 완전히 전멸 시킨 해전사상 최고의 전투라고 대서특필 하였을 것이다.
만약 배설장군과 전선 12척이 없었더라면 조선 수군이 있었을까? 이순신은? 권율은?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배설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정유재란을 평가하는 선조나 조선의 조정은 이 대목에서 입을 함구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탁월한 지휘력과 전투감각으로 신출귀몰한 전법

으로 전선 12척과 약 천 여명의 부하를 살려 낸 배설 장군의 용맹을 조선 선조와 조정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
또한 당시 도원수 권율과 백의종군으로 관직 없이 권율의 휘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순신은 배설 장군의 업적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왜군과의 전투에서 원균 장군의 휘하 장군은 다 죽었는데 배설 장군 만이 살아 남았기 때문일까?
만약 배설 장군 마저 칠천량 전투에서 전사 하였다면 역사는 칠천량 전투를 어떻게 평가 하였을까?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칠천도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경상우수영 수군들도 매일 훈련하며 지나다니던 곳이라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지만 적절히 대항하며 여명을 이용하여 물길을 따라 재 빨리 한산 본영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추격하는 적의 공격을 피해 한산도로 후퇴 하면서 칠천도에서 타 오르는 조선 전함의 불길을 바라보며 원균 통제사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억기 장군은? 최호 장군은? 조방장 배흥립과 김완은? 수병들은? 배설 장군은 조선 수군의 생사를 하늘에 부탁 한 후 뱃머리를 한산 본영을 향하여 돌렸다.
(칠천량 전투는 한 민족의 해전사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전투이다. 문헌에 따라 그 내용이 각각 다르게 표현 되어 있고, 필자의 취향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표현 되고 있다. 특히 원균과 이순신이라는 라이벌을 만들어 낸 筆誅者들의 손 끝에 의해 기술 된 글이 역사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N이라는 자의 투고논문에 의하면 256척이 침몰하고, 원균, 이억기, 최호는 전사하고 배설은 10척을 지휘하여 도망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에 관한 일부 투고 논문과 일부 소설, 글들에 약방의 감초처럼 왜곡되이 필주되는 기록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는 안된다.)

한산 본영을 불사르고 한산도의 백성을 대피 시켜라.

7월 16일 새벽에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주도권을 장악한 왜군과의 치열한 교전에서 휘하의 많은 전선과 장병을 잃어 버린 채, 겨우 12척의 전선과 함께 한산 본영으로 후퇴를 시작 하였다. 한산 본영에 도착한 배설 장군은 주둔지에서 본영을 지키고 있던 장졸들을 집합 시키고, 전투상황을 알려 준 후에 청야 작전을 시작 하였다. 청야작전(淸野作戰)은 선조가 정유재란을

대비하여 장기전을 계획하면서 수령들에게 명령한 작전이다. 한강 이남에서 사태가 불리하게 되면 주변에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물자와 식량 등을 없애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을 말 한다.

배설 장군은 왜군에게 유리하게 사용 될 수 있는 양곡이이나, 병기, 막사 등을 불사르고 성안에 남아 있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란 시켰다.

왜군들은 칠전도에서의 승리를 기세로 한산도 본영을 공격하였다. 한산도에서 청야 작전을 전개하며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던 배설 장군은 왜군이 수백척의 전선과 함께 한산도로 공격해 오자, 한산 본영으로부터 철수하여 회령포로 철수하였다. 또 다시 치루어야 할 왜군과의 전투준비를 원균장군과 이억기 장군, 최호 장군과 함께 하던 것을 혼자서 외로이 하였다.



7. 전선 12척과 조선 수군을 이순신에게 인계하고 전투력을 보강하다 병이 악화 되어 사직서를 제출 한다.

배설 장군은 칠천도에서 왜군에게 패하고 한산 본영으로 후퇴하여 한산 본영에서 청야 작전을 시행한 후에 적의 공격을 피해 회령포로 철수 하였다. 조선 수군의 생사여부를 모른 채 회령포에서 전투력을 보강하는 배설 장군의 당시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원균 통제사와 이억기, 최호 장군은 무사할까? 조선 수군의 전선과 병력은

무사할까? 배설 장군은 불확실한 전투상황 속에서 전투준비를 하며 회령포에서 외로이 밤을 지새운다.
그리고 이순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게 된다.
(이순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원균이 당한 수모를 겪게 된다.)
이순신의 일기에 기록 된 내용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가정해 보자.

1) 7월16일(양력 8월28일)
7월7일 부산포 공격 시 풍랑에 밀려간 배중에서 살아 난 종 세남(世男)이 서생포에서 왔다. 듣고 보니 참 놀라운 일이다. 조선에서 믿을 것은 수군뿐인데 수군마저 희망이 없게 되었으니 거듭 생각 할수록 분하여 간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2) 7월18일(양력 8월30일)
16일 새벽에 수군이 몰래 기습 공격을 받아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 여러 장수와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다. 수군이 대패 했다.

3) 7월21일(양력 9월1일)
노량에 이르니 거제 현령 안위, 영등포 만호 조계종 등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경상수사(배설)는 도망가 보이지 않고 ……
대장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뭍으로 달아 났고, 여러 장수들이 뭍으로 가서 이지경이 되었다. 그것은 대장의 잘못을 말한 것인데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고 그 살점을 씹어 먹고 싶다고들 하였다.

4) 7월22일(양력 9월3일)
경상수사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의 패망하던 일을 많이 말 했다.
(이 내용은 곧 전투 상황인데 기록 되지 않았고, 권율과 조정에 보고 되지 않았다. 이 기록을 찾으면 칠천량 전투 상황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

5) 8월2일(양력 9월12일)
   이 날 밤 꿈에 임금의 명령을 받을 징조가 있었다.

6) 8월3일(양력 9월13일)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뜻밖에 교유서를 가지고 왔다. 명령은 곧 겸 삼

도수군통제사의 임명이다.

7) 8월12일 (양력 9월22일)
거제 현령 안위, 발포 만호 소계남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 갔다. 그들 편에서 배설의 겁내던 꼴을 들으니 더욱 한탄스러움을 이길 길이 없다.

8) 8월13일 (양력 9월23일)
거제 현령 안위, 발포 만호 소계남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 갔다. 수사(배설)와 여러 장수 및 피해 나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들었다.

9) 8월17일 (양력 9월27일)
장흥땅 백사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 군영구미(장흥군 안양면 해창리)에 이르니 일대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은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10) 8월18일 (양력 9월28일)
회령포에 갔더니, 경상수사 배설이 멀미를 핑계 대므로 보지 않았다.

11) 8월19일 (양력 9월29일)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는데 경상수사 배설은 숙배하지 않았다. 그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는 꼴을 말로 다 나타 낼 수 없다. 너무 놀랍다. 이방과 그 영리에게 곤장을 쳤다.

12) 8월27일 (양력 10월7일)
경상우수사 배설이 왔는데 많이 두려워하는 눈치이다. 나는 불쑥 “수사는 어디로 피해 갔던 것이 아니오 ” 라고 하였다.

13) 8월28일 (양력 9월 28일)
새벽 여섯시 즘에 적선 8척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들어 왔다. 여러 배들이 두려워 겁을 먹고 경상수사는 피하여 물러나려 하였다.

14) 8월30일 (양력 10월 10일)
저녁 나절에 배설은 적이 많이 올 것을 염려하여 달아나려고 했으나, 그 속

뜻을 알고는 있지만, 딱 드러나지 않은 것을 먼저 발설하는 것은 장수의 도리가 아니므로 참고 있을 즈음에, 배설이 제 종을 시켜 솟장을 냈는데, 병세가 몹시 중하여 몸조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몸조리를 하고 오라고 공문을 써 보냈더니 배설은 우수영에서 뭍으로 내렸다.

15) 9월2일 (양력 10월 12일)
오늘 새벽에 경상수사 배설이 도망 갔다.

16) 11월3일(양력 12월11일)
선전관 이길원이 배설을 처단할 일로 들어 왔다. 배설은 벌써 성주 본집으로 갔는데 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본가로 왔다. 그 사정을 보아주는 죄가 더 크다.

이순신의 일기 속에 등장하는 배설 장군에 대한 기록들은 이미 계산되고 게획 된 의도에 의해 기록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이순신은 배설 장군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죄인의 신분으로 기록 한 것을 보면 꼭 배설 장군의 상관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경상우수사와 죄인의 관계는 엄연히 다르다.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의심을 하며 배척 한다. 그리고 이순신은 배설이 스스로 자기 곁을 떠나게 한다.

8. 조선 조정은 배설 장군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의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서 동시에 역모 사건을 포함 한다. 이 사건으로 가족 3대(아버지, 아들, 자식)를 문초 하였으며 배설 장군은 1599년 참형을 당한다. 그리고 수정 실록은 배설 장군을 도망자로 낙인 한다.

.

- 조선 조정은 전쟁 후 발생 할 지 모르는 반정이나 역모 사건을 우려하여 덕망 있는 가문에 대하여 경계를 하며 처벌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당시 성산배씨 배덕문 家는성주의 대표적인 토성 사족 가문이었으며 임진왜란 시에는 가족 전체가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다.

선조 실록과 수정 실록에 기록 된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알

아보자

▣[조선왕조실록]: 증병조판서공(贈兵曹判書公) 배설(裵楔).

▶선조 54권, 27년(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8월 10일(을묘) 2번째 기사
중국에 자문을 보내는 일과 몇가지 인사 문제를 논하다.

"부하(部下)에 발탁할 만한 자는 없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곽재우(郭再祐)가 쓸 만한 사람이고, 배설(裵楔)도 우도 병사(右道兵使)로 삼을 만합니다."
하고, 김늑이 아뢰기를,
"재우는 인심을 얻었는데 배설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재우의 사람됨을 보니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고, 김늑이 아뢰기를,
"왜적을 토벌하는 즈음에 인심을 많이 얻었으므로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곤수가 아뢰기를,
"본도의 사람들도 모두 재우를 병사로 삼고자 합니다."
하였다.

▶선조 58권, 27년(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12월 30일(계유) 3번째기사
비변사가 진주 목사 곽재우로 하여금 조방장을 겸하게 하도록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주(晉州)는 호남과 영남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실로 경상우도의 보장 구실을 하고 새로 진주 목사에 제수된 곽재우도 바로 힘껏 싸우는 장수이니, 배설(裵楔)의 예처럼 조방장(助防將)을 겸해 주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방수(防戍)토록 하며, 또한 본주는 삼가(三嘉)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삼가현의 산성 일도 전처럼 주관하게 하고 그대로 조방장을 겸하여 우도의 군무(軍務)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6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4일(정미) 3번째 기사

비변사가 김응서의 병세·병수사의 교체 등의 일을 아뢰다.

"이일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므로 신들도 염려하였으나 대신 거느리게 할 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처럼 아뢰었는데, 지금 상교를 받고 보니 극히 윤당합니다. 단 선전관 조광익(趙光翼)이 새로 남쪽 지방에서 와서 비변사에 말하기를 **'진주(晉州)의 백성들이 배설(裵楔)이 떠나는 것을 막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여 온 경내의 노인과 어린애들이 떼를 지어 에워싸고 지키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배설이 아직도 부임하지 못했다.' 합니다.**

배설이 아직까지 부임하지 못했다면 원균(元均)과 선거이도 다 교대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만일 차차로 교대한 뒤에, 선거이가 남하한다면 지체될 듯싶습니다. 그러나 선거이로써 대신 거느리게 할 것을 도원수에게 하유하고, 만일 선거이가 미처 내려가기 전에 김응서의 병이 위중하고 대신 거느릴 사람이 없으면 곽재우(郭再祐)가 그대로 잠시 대신 거느릴 만하니, 이 내용을 하서(下書) 중에 아울러 기입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6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6일(기유) 1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관찰사의 임명·군공의 허위 문제 등을 논의하다.

"김응서(金應瑞)의 병이 위중하니 그 군사를 대신 거느리도록 마땅히 전지를 하셔야 합니다. 선거이(宣居怡)가 차차로 부임한 뒤에 내려간다면 그 기간이 너무 멀고, 또 들으니 **배설(裵楔)은 수질(水疾)이 있어서 주사(舟師)의 임무에 합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설이 용맹이 있는 장수라고 하나 수질이 있으면 주사에 쓸 수 없을 것이다."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윤선각이 아뢰기를,

"선전관(宣傳官) 조광익(趙光翼)이 도원수의 처소에서 와서 말하기를 **'배**

설이 부임하려고 하는데 진주 백성들이 길을 막고 더 머물러 주기를 원하여 성을 나가지 못하게 하니, 도원수도 난처하게 생각하여 선거이로 하여금 막하에 와서 있게 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김응서는 병이 위중하여 군사의 일을 보살필 수 없으니, 우선 곽재우(郭再祐)로 대신 그 군사를 거느리도록 이에 대한 전지를 속히 내려 보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속히 하라."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배설은 이미 수사(水使)가 되었으니 즉시 부임해야 할 것인데, 백성들에게 차단당하여 성을 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같은 말이 조정에 들리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윤선각에게 이르기를, "경이 유사 당상으로 있으니, 속히 의논해서 하라."

▶선조 6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8일(신해) 6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낙동강의 방어·기복의 제한 등의 일을 논의하다.

"배설(裵楔)이 어찌 백성들에게 만류당하여 부임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헌국은 아뢰기를,
"도원수는 대궐 밖을 전제해야 하는데 임기 응변하는 일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매양 품명(稟命: 상관의 명령을 받는 일)하는 것으로 규칙을 삼으니, 남쪽 지방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체찰사를 반드시 내려보내서 진압하게 하고 모든 일도 재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조 65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7월 14일(을유) 2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김응서의 주장을 능멸한 죄에 대해 치계하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리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근래 무장들의 교만한 습관이 점차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설(裵楔)의 범죄 사실이 놀라왔으므로 잡아다 국문까지 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켰는데, 이 장계를 보건대 김응서가 주장(主將)을 능멸한 정상이 배설에 비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중한 벌을 주어 방자한 죄를 징계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적병의 거류(去留)가 미정이므로 기관(機關)이 매우 염려되니 장수를 교체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우선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도원수로 하여금 김응서를 잡아다가 엄중히 곤장을 쳐서 경계를 보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도원수도 다시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서 만약 부하 중에 법을 따르지 않거나 주장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처단하여 군율을 엄숙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관청에서 문서를 보내어 조회하는 일을 이르던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 66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8월 5일(을사) 1번째 기사

남방과 북방의 위급한 형세에 대한 비변사의 대책 논의

선산(善山)의 금오 산성(金吾山城) 및 인동(仁同)의 천생 산성(天生山城)도 형세를 살펴 아울러 요리하여 큰 진(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산 부사(善山府使) 김윤국(金潤國)은 오졸한 서생(書生)이어서 일을 초창하여 경영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니, 어쩔 수 없다면 배설(裵楔)에게 전적으로 맡겨 조치하게 하여야 거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 곳의 일을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체찰사에게 물어서 그 회보를 기다린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선조 72권,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2월 16일(계축) 2번째 기사

이조 판서 김우옹이 시무를 논한 상차

1. 모든 장관(將官)과 여러 고을 수령을 나누어 위장(衛將)을 삼고 각각 자기의 성채를 지키면서 사세를 연락하여 서로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걱정거리는 장수가 많은데 있습니다.** 장수가 많으면 명령이 나오는 곳이 많아 제장과 열읍이 일정하게 따를 곳이 없게 되니, 이것이 끝내 패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주역(周易)》에 **'장자가 군사를 거느릴 것이니, 제자들이 모두 주장하면 흉하다.** [長子帥師弟子輿尸凶]' 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도체찰사가 있고 또 부사(副使)가 있는데, 어찌 다시 원수를 보내 모두 주장케 함으로써 흉하다는 것을 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별도로 대장을 두어 융무(戎務)를 총괄하게 한다면 곽재우(郭再祐)·박진(朴晉)·배설(裵楔) 같은 사람이 적임자일 것입니다.**

▶선조 74권,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2일(무술) 1번째 기사
유성룡이 노모를 만나고 돌아오자 영남의 정세를 묻고 여러 가지 정사를 논의하다

"체찰사가 성주(星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던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그 사람은 애민(愛民)을 위주로 하여 수습하고 무마하는 뜻이 지성에서 우러나오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거처가 숙연합니다. 체찰사의 명령으로 공산 산성(公山山城)을 수축하니 영남 사람들이 모두 공산 산성에 들어가 계획을 펴며, 근일에는 모두 '천생 산성(天生山城)을 수축하면 거기에 들어가 웅거할 만하다.' 고 하므로 배설(裵楔)로 하여금 이 성을 수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중국 장수들이 늘 '이 성을 수축함이 옳다.' 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조 82권,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1월 17일(기유) 2번째기사
도체찰사 이원익이 왜적의 방비책·기인·방납 등에 대해 아뢰다.

"성주 산성(星州山城)은 수축(修築)하여 지키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수축했어도 성 모양이 좋지 않고 골짜기의 평평하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장사(將士)들이 다들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산(善山)의 금오산성(金烏山城)은 선산의 수령(守令)인 배설(裵楔)을 장수로 정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선조 89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6월 26일(을유) 6번째 기사
수군의 여러 부대를 바다에 나가게 하여 위세를 삼도록 하다

남쪽의 일은 이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 보아도 매우 염려가 되는데, 근일에 이르러서는 남풍(南風)이 연달아 불어 전선이 연속적으로 와서 정박하게끔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나라 수군이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낱낱이 소탕

해 막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선박을 합쳐 몇 개 부대로 나누되 배설(裵楔)은 경상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이억기(李億祺)는 전라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며, 최호(崔湖)는 충청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원균(元均)은 그가 거느린 선박으로 일개 부대를 만듦으로써 한산도를 굳게 지켜 근본을 삼고 부대별로 교대로 해상에 나가 서로 관측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혹은 서로 가고 오기도 하고 먼 거리까지 혹은 가까운 거리를 다녀 정처(定處)가 없이 하면서 금고(金鼓) 소리로 서로 통하고 깃발이 연락하게 해야 합니다.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2일(신해) 2번째 기사
선전관 김식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다

"15일 밤 2경에 왜선 5~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 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자 우리 나라 제장들이 창졸간에 병선을 동원하여 어렵게 진을 쳤는데 닭이 울 무렵에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왜선이 몰려 와서 서너 겹으로 에워싸고 형도(刑島) 등 여러 섬에도 끝없이 가득 깔렸습니다. 우리의 주사(舟師)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 지역 추원포(秋原浦)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元均) 및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했는데,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니 왜노 6~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옥포(玉浦)·안골(安骨)의 만호(萬戶)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전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2일(신해) 3번째 기사
원균이 지휘한 수군의 패배에 대한 대책을 비변사 당상들과 논의하다

"원균은 처음부터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남이공의 말을 들으면 배설도

'비록 군법에 의하여 나 홀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군졸들을 어떻게 사지에 들여 보내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대체로 모든 일은 사세를 살펴보고 시행하되 요해처(지세가 자기편에게는 유리하고, 적에게는 불리한 곳)는 고수해야 옳은 것이다. 이번 일은 도원수(권율)가 원균을 독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배가 있게 된 것이다."

▶선조 91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8월 5일(계해) 4번째 기사

원균을 비롯하여 패주한 장수들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치계하기를,

"주사(舟師)의 각 장수들에 대한 생사와 거처는 전에 태안 군수 이광영(李光英)이 진술한 바에 의거하여 이미 장계를 올렸는데, 뒤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전후 말한 것이 각기 달랐으므로 권율(權慄)에게 전령하여 무사를 각처로 파견하여 사실을 확실히 조사케 한 후에 계문(啓聞)하려 합니다."

임진난 이후 분궤(奔潰: 싸움에 져서 뿔뿔이 달아 남)한 장관(將官)들을 한 사람도 군법에 의해 치죄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관습이 되어 보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주사들은 처음부터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다가 패멸된 것이 아니라 살아 남은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증론을 참고해 보니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사한 자는 조방장 김완(金浣)뿐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에게 모두 군법을 시행할 수 없다 해도 **원균(元均)은 주장(主將)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조방장 배흥립(裵興立) 두 장수는 제장의 우두머리였으니 배흥립에게는 우선 군령을 시행하고, 배설은 지금 병선을 이끌고 바다에 있으므로 이 사람까지 제거하면 해로(海路)가 모두 비게 될 것이니 우선 뒷날을 기다려 논의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이하 수령과 변장들도 등급을 나눠 죄를 주되 그 중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을 주장하여 서로 구원해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군법으로 처리할 것을 도원수 권율과 이미 의정(議定)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주사의 패군한 장수에게는 원래 해당되는 군율이 있으니 장계대로 시행해

야 합니다. 수령이나 변장들도 거처를 찾아내어 등급대로 죄를 주되 그 중 먼저 도망할 것을 선동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자는 그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 모두 군법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배설은 지금 주사를 영솔하고 바다 가운데에 있으니 잠시 후일을 기다려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 다만 원균(元均)을 죽이려 할 경우 균이 마음 속으로 복종하지 않을 듯하니,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원균이 군사를 잃은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간에 잘못한 죄를 오로지 원균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을 듯하니, 우선 원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선조 93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10월 11일(무진) 5번째기사
비변사가 도망친 수사 배설 등의 처벌을 논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주사(舟師)의 차장(次將)으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율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 내의 사연(辭緣)과 곧 선전관을 보내 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접반사 이덕형으로 하여금 경리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절(南截)과 송남수(宋枏壽)의 도망한 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왕옥(王獄)에 잡아왔으니 국문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망한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부득이 하나하나 잡아다가 문초해서 그 중에 범법한 정상이 가장 중한 자는 베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 107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12월 23일(갑술) 3번째기사

병조 판서 홍여순이 중국군 철수 뒤 국내의 변란을 우려하여 아뢰다

"해상의 왜적은 이미 물러갔으나 중국군이 철수하여 돌아간 뒤에 국내의 변란이 일어날까 극히 우려되니,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배설(裵楔)이 지난 가을에 나주에서 도망하여 지금은 충청도에 와 있는데, 현몽(玄夢)과 합세하여 무뢰배들을 많이 모으고 있다. 그의 행적이 이미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지적하여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떠도는 말이라 믿을 것은 못 되지만 뜻밖의 사변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이니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은밀히 하유하여 비밀리에 추격해 기필코 체포하도록 하고, 다른 도에도 아울러 유시하여 특별히 기미를 살피게 함으로써 그들이 용납될 것이 없게 하소서.
다만 나라의 기강이 이미 해이해 졌으니 유시를 내리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심상하게 여길까 몹시 염려될 뿐입니다.
옛사람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잡게 하였으니 지금도 역시 높은 벼슬과 후한 상을 내린다고 한다면 필시 마음을 다해 고발하거나 체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모두 적이 물러갔다고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데, 신만 구구하게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110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3월 6일(을유) 5번째 기사
전 수사 배설이 법에 의해 처형되다

전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복주(伏誅: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함)되었는데, 그 아비 배덕문(裵德文)과 아들 배상룡(裵尙龍) 등은 모두 방송(放送: 죄인을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어 주는 일)하였다. 배설은 지난 정유년 7월 한산(閑山)의 전투에서 패전한 수범(首犯: 우두머리 범인)이었으나 외지에 망명해 있었으므로 조정이 찾아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원수 권율이 선산(善山)에서 잡아 차꼬(두 개의 긴 나무토막을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한 옛 형구)를 채워 서울로 보냈으므로 참수(목을 벰)하였다.

▶선조 122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2월 20일(갑오) 1번째기사

지평 윤홍이 경상 감사 한준겸과 대동 찰방 정묵 등의 파직을 청하다

지평 윤홍(尹宏)이 와서 아뢰기를,

"남이신을 파직시키소서. 경상 감사 한준겸(韓浚謙)은 외람되이 아권(衙眷: 지방관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두 곳에 나누어 주거(住居)하게 하여 영(營)이라 호칭하고 온갖 지공(支供:필요한 물품)을 각 고을로 하여금 판출해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빙(藏氷:얼음을 떠서 곳간에 저장함)에 동원되는 1정(丁)의 댓가를 포목(布木)으로 환산해서 받는 등 그가 자행하는 탐학한 짓을 이루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설(裵楔)은 방형(邦刑: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체계)을 받을 적에는 여정(輿情: 어떤 일이나 사건 따위에 대한 여러 사람의 정적인 반응)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한준겸(인조의 장인)은 단지 인아(姻婭: 왕의 외척)라는 것 때문에 사대부의 장산(葬山)을 빼앗고 또 호상(護喪)하는 군관(軍官)을 보내어 적의 뼈를 완전히 묻도록 하였습니다.

▶선조수정실록 31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1일?(경인) 2번째기사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리니 원균과 이억기, 최호가 전사하다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렸다. 통제사 원균(元均)이 패하여 죽고 전라 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 수사 최호(崔湖) 등이 죽었으며,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은 죽음을 면하였다.

당초 원균이 한산도(閑山島)에 도착하여 이순신이 세워 놓은 규약을 모조리 변경시키고 형벌에 법도가 없어, 군중의 마음이 모두 떠났다. **권율은 원균이 적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고 하여 불러 매를 쳤는데, 원균이 분한 마음을 품고 가서 마침내 수군을 거느리고 절영도(絶影島)에 이르러 제군(諸軍)을 독려하여 나아가 싸우게 하였다. 적은 아군을 지치게 할 계책으로, 아군의 배에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문득 피하였다. 밤이 깊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 배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원균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가덕도(加德島)로 돌아왔는데, 사졸들이 갈증이 심하여 다투어 배에서 내려 물을 먹었다. 그러자 적이 갑자기 나와 엄습하니, 원균 등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

을 모르고 급히 배를 이끌고 퇴각하여 고성(固城)의 추원포(秋原浦)에 주둔하였는데, 수많은 적선이 몰려와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원균은 크게 놀라 여러 장수와 더불어 힘껏 싸웠으나 대적해내지 못하고, 아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억기와 최호 등은 물에 뛰어들어 죽고, 원균은 해안에 내렸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배설은 도망하여 한산도에 이르렀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배설 장군이 죽임을 당해야 할 큰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칠천량 전투에서의 패전에 대한 책임과 수질의 악화(이순신과의 갈등 및 조선 조정의 냉대)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휴양을 한 것 뿐이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배덕문 가를 문책하는 칼을 빼어 들었다. 조선 조정은 약해지고 무디어진 칼을 조선을 침략한 일본 왜적 놈을 향해 겨누지 못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배덕문가에 빼어 들었다. 그리고 그리고 조선 조정은 모범적이고 행복하고 다복한 배덕문 가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배덕문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지지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서 당시의 선조를 기리고 있다.

사후에 배덕문 가를 공신록에 등록 시킨다.

배덕문

1610년(광해 2년)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을 증직 하였고, 1873년(고종 10년)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겸지경연의금부사(知經筵義禁府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知春秋館成均館事),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을 증직하였다.

배설

임란공신을 녹훈할 때 공을 (선무원종1등공신(宣武原從 1等功臣))으로 책록 하였고, 녹권(錄卷)이 전한다.
1871년(고종 8) 도내 유림들이 상소하여 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훈련원사(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訓鍊院事)에 증직되었다.

배건

그 공로로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증직 되었다.

배즙

1610년(광해 2) 선무원종 2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녹훈되었고, 가선대부 병조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에 증직되었으며, 의금부와 훈련원의 지사(知事)에 추증되었다.

임진왜란 시 전가족이 왜군과의 전투에 참전한 가문

전쟁 참여 자 현황
父 : 배덕문 : 의병장
子 : 배설 : 선산부사, 경상우수사
배건 : 의병 (38세 전사)
배즙 : 조방장 (35세 전사)
배력 : 주부

가족 약력

배 설(裵 楔)

공은 1551년 (명종 6) 서암공(書巖公) 덕문(德文:贈吏曹判書)의 장남으로 태어 났다.자는 중한(仲閑), 호는 **서강(西岡)**으로 성산배씨(星山裵氏) 17세(世)이다.
공은 용력이 출중하였으며, 국량이 과인(過人)하였다. 어려서 부친(德文)이 울산군수로 부임 할 때 공도 함께 갔었는데 절도사 장필무(張弼武)가 공을 보고, 그 그릇이 범상치 않음을 간파하여 글보다 무예를 우선으로 힘쓸 것을 권고 하였다.
1583년(선조 16)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하여 변방으로 거듭 기용되었는데, 부임해서는 모두 치적의 명성이 있었다.
주부(主簿)로 승진되어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공은 방어사(防禦使) 조경(趙儆)을 따라 남쪽으로 출정하였다.

황간, 추풍 등지에서 격전이 벌어져 조경이 패전하자, 공은 향병(鄕兵)을 규합하여 왜적에게 대항 하였다.
또한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이 공을 가장(假將)으로 삼아 적을 치게 하였는데, 이 때 공이 용맹히 나아가 부상진(扶桑鎭)에서 적장 黑甸句의 목을 베었으며 개산진(開山鎭)에서 적장 平義智를 격파하고 다시 무계진(茂溪陣)에서도 격파 시켰다.
그 후 합천군수를 배수하였으며, 1594년(선조 27)에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전임하였고, 그 해 가을에 진주목사(晉州牧使)에 제수되어 정사를 바르게 하고 덕을 베풀어 온 고을이 내내 평안 하였으니 백성들이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공의 치적을 기렸다.
1595년(선조 28)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겸부원수(水軍節度使兼副元帥)로 배수되었을 때 병사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군정을 바로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으므로 서애 류성룡(柳成龍) 과 완평 이원익(李元翼) 선생이 모두 공을 일컬어 간성(干城)이라 높히 칭찬하였다.
다시 밀양부사를 거쳐 선산부사를 지내면서,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쌓았으며 성내에 9정 7택(九井七澤)을 팟다는 사실이 금오산 폭포수 위 큰 바위에 <宣祖善山府使裵楔穿金烏山城九井七澤> 이라 큰 글씨로 새겨져 전해 오고 있다.
1597년(선조 30) 다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원균 장군과 함께 해전에 참가 하였으며, 칠천도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아, 이순신(李舜臣) 장군과 함께 활동하다가, 오랜 수중 생활로 인한 질병이 악화되어 사직서를 올리고 육지에서 병을 치료 하였다. 칠천량 전투 패전의 책임과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모함으로 1599년(선조 32) 향년 49의 나이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 하였다.
공은 전략에서도 남다른 식견이 있었고, 장수로써 공격과 방어에도 능하였으므로 병사의 신임 속에서 무사의 길을 걸었으며 어려서 부터 가풍을 몸에 익혀 군막에서도 문장이 해박하고 필법이 정묘하여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이도 유문(遺文)은 모두 전화에 유실되었고, <석양(夕陽)의 문 밖의 길은 동서(東西)로 나뉘어 졌다>라는 의미가 깊은 시(詩) 한 구절과 <양가(兩家)의 좋은 인연이 만복의 근원이다>는 글귀가 남아 사람들에게 애송되었다.
또한 공의 행적 중, 일부 오류였음이 밝혀졌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상유 12척(尙有12隻: 신에게는 아직 배 열두 척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명구>는 바로 배설(裵楔)장군이 칠천량(漆川樑) 전투에

서 구해 낸 배 12척이었으며, 이 열 두척의 배가 조선 수군의 모체가 되어 정유재란의 말미에 승전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종전 후, 뒤이어 그 전공을 인정하여 임란공신을 녹훈할 때 공을 (선무원종1등공신(宣武原從 1等功臣))으로 책록 하였고, 녹권(錄卷)이 전한다.

1871년(고종 8) 도내 유림들이 상소하여 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훈련원사(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訓鍊院事)에 증직되었으며, 도정(都正) 정교(鄭矯)가 분향문(焚香文)을 지었다.

공의 사실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19회 등재되었고, 충훈록(忠訓錄), 동국사(東國史), 경산지(京山誌) 등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묘소는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 주현산에 있으며,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숭조대(崇祖臺)와 백호(白虎) 등 에 공의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父: 배덕문(裵德文)

공은 성산배씨(星山裵氏)로 성균진사 현(俔)의 후손이며 자는 숙회(叔晦), 호는 서암(書巖)이다.

1525년(중종 12년) 주(綢)의 아들로 태어나서 향년 78세로 1603년(선조 36년)에 돌아갔다. 선생은 천성이 공손하고 자애로우며 행실이 단정하였다. 6세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하루는 노루가 병아리를 차고 문앞을 달리는데 뭇 아이들이 떠들며 구경한다고 법석을 떨었으나 선생은 태연히 독서만 하였다고 한다. 10세에 칠봉 김희참(七峰 金希參)에게 성리학을 배웠고 1553년(명종 8년),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주서(注書), 한성서윤(漢城庶尹)을 거쳐 언양, 영덕, 울산, 고부 등지의 현감, 군수를 역임하였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倭)의 제3군 흑전장정(黑田長政)은 김해에 상륙, 거창, 고령을 거쳐 음력 4월27일, 당시의 성주목사 제말(諸沫)을 죽이고 성주성을 점령, 왜군의 앞잡이가 된 중(僧) 찬희로 하여금 성주목사를 시켜, 장차 성주의 백성들을 도륙하려고 하였다. 이에 공은 68세의 노구를 일으켜 성주성을 쳐 들어가 성 아래서 적승(賊僧) 찬희와 적장 **흑전구(黑甸句)**를 쳐 죽이고 성주성을 수복하였다. 이 때에 선생은 적장의 물건인 금부채 1자루와 큰 칼 2자루를 빼앗아 후손에게 전하였는데 **부채는 잃어버리고 지금은 종갓집에 큰 칼 1자루만 남아 있다 한다.**

임진왜란 당시 공의 아들 설(楔)은 경상도 수사(水使)로 활약하였고, 건

(楗)은 왜군과 싸우다 여남현(汝南峴 : 지금의 금릉군내 소재)에서 38세에 전사하였다.

셋째 아들 즙은 정유재란 시 조방장으로 왜군과 싸우다 적의 유탄을 맞아 35세에 전사 하였다.

~ 선생이 돌아가신 후 1610년(광해 2년)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을 증직하였고, 1873년(고종 10년)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겸지경연의금부사(知經筵義禁府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知春秋館成均館事),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을 증직하였다.

1920년 후손들이 대가면 도남동 뒷개마을에 신도비를 세웠다.

형제들 : 건(楗), 즙(楫, 력(櫟)

배 건(裵楗)

공은 1555년 (명종10)에 태어났다. 자는 수부(守夫), 호는 고암(高巖)이다. 배 덕문의 차남(次男)이다.

공은 어려서 부터 성품이 단중하고 온아하였으며 효행이 있었다. 일찍이 부친(德文)을 따라 다니며 행실을 익혀 태도와 몸가짐이 의연하였으며, 칠봉(七峰) 김희참(金希參)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오묘한 학문의 뜻을 터득하였다.

그 후 과거에 두 차례나 응시하였으나 두 번 다 실패하자 영달의 뜻을 접고, 효제충신(孝悌忠臣)의 네 글자를 자리 오른편에 써 붙히고 자신을 깨우치는 좌우명(左右銘)으로 삼았다.

1587년(선조 20) 음직(蔭職)으로 선무랑(宣務郞)에 제수 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선산부사(善山府使)로 있던 백형(伯兄) 설(楔)이, 향리에서 의병(義兵)활동으로 부친(德文:義兵將)을 도우던 공에게 김산(金山) 여남현(汝南峴)으로 출명을 요청 받았다.

공이 병사를 거느리고 가는 중 도중에서 적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산의 병사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공은 적과의 치열한 공방전을 치루었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 하였다. 그의 나이는 37세 였다.

그 공로로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증직 되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 1리 후포(뒷개) 숭조대(崇祖臺)와, 금수면 광산리 신기(新基)에 공의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배 즙(裵 楫)

공은 1564년 (명종19)에 태어 났다. 자는 통중(通衆), 호는 명암(明庵)으로 배 덕문의 3남이다.
공은 기국이 넓고 뛰어났으며 용력이 출중하였다. 일찍이 가풍을 몸에 익혔으며 학문에 전념하여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 통달하였다.
1590년(선조 23)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하여 훈련원 습독(訓鍊院習讀)에 올랐는데, 조정에서 말하기를 "지방 고을에서 이와 같이 빼어난 인걸(人傑)이 배출되리라고는 미쳐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했으며, 다시 사직(司直)에 제수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친(書巖公)이 의병을 일으켜 왜장 黑甸句의 목을 벨 때에 공도 참여 하였고, 개산진(開山津)의 싸움에서도 크게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행재소(行在所:임금이 임시로 거쳐하는 곳)로부터 선무사(宣撫使)에 제수되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는 조방장(助防將)으로써 백씨(伯氏) 설(楔:경상우도 수군절도사)과 함께 한산도(閑山島)에서 대승(大勝)하고 노량(露梁)에 이르러 갑자기 불어난 적에게 포위되었다. 이 때 공은 비분강개하여 호령하기를 "바다의 기운을 맑게 할 수만 있다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바치리라" 하고 적진을 종횡무진 유린타가 유탄(流彈)을 맞아 순절하였으니 향년 35세였다.
1610년(광해 2) 선무원종 2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녹훈되었고, 가선대부 병조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에 증직되었으며, 의금부와 훈련원의 지사(知事)에 추증되었다. 이같은 공의 사실이 경산지(京山誌)와 영지(嶺誌)에 등재 되었으며,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 1리 후포(뒷개) 숭조대(崇祖臺)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묘소는 경북 고령군 노 2리 명곡 서우재에 있다

배 력(裵 櫟)

공은 1567년 (선조1년)에 태어 났다. 자는 통중(通衆), 호는 명암(明庵)으로 배 덕문의 4남이다.
공은 1590년(선조 23)에 무과에 올라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를 지냈다.

손자들 : 상룡(尙龍). 상호(尙虎), 상조(尙藻), 상보(尙黼)

[1574(선조7)~1655(효종6)] 자는 자장(子章), 호는 등암(藤庵)으로 성산배씨(星山裵氏) 18세(世)이며 서암(書巖 德文:贈吏曹判書)공의 손자이며, 서강(西岡 楔:贈兵曹判書)공의 장남이다.
공은 어려서 부터 기품이 출중하였으며 효우가 돈독하였다. 일찍이 한강(寒岡) 정구(鄭逑) 선생의 문하에 수학하였는데, 의리의 학문을 깊히 연구하여 몸에 익히고 실천하는데 전력 하였으며, 조예가 깊어 한강 선생의 총애를 받았다. 또한 매사를 공에게 부탁하였으며 문생들에게 말 하기를 "공자(孔子)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자로(子路:공자의 제자)를 얻은 후 부터 악성(惡聲)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나도 子章(裵尙龍)을 얻은 후 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함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하였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한강 정구 선생의 고명한 제자들 중에서 공을 제일로 여겨 추중하였다.
선생이 하세하자 3년동안 심상(心喪)하였으며 선생의 뒤를 이어 사문(斯文)의 대사가 모두 공에게 맡겨졌으니, 한강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고, 비석을 세우고, 서원(書院)을 건립하는 등 모두 공의 주도하에 이루어 냈다. 또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였는데, 선생이 하세하자 공이 초종범절(初終凡節)을 모두 주관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친(楔)을 따라 수군영(水軍營)에 있을 때, 전투에 임해 바다신에게 고유(告由)하는 글을 지었으며, 1624년(인조 2) 이괄 의 난이 일어나자 분개한 공은 도내에 격문(檄文)을 보냈고,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을 당하여서는 통유문(通喩文)을 지어 올렸으며,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호소사참모관(號召使參謨官)을 지내면서 기무(機務)를 도왔다.
1725년(영조 1) 사림에서 도천서원(道川書院)을 세워 공을 배향하였으며, 영정(影幀)을 봉안하였으며 1774년(영조 50)에 통훈대부사복시정(通訓大夫

司僕寺正)에 증직되었다. 문집 4권이 있다.

배 상호(裵 尙虎)

1594년(선조 27)~1632년(인조 10). 조선 중기 유학자. 자는 계장(季章)이고, 호는 괴제(愧齋)이다. 본관은 성산(星山)이고, 출신지는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이다.
조부는 배덕문(裵德文)이고, **부친은 수사(水使) 배설(裵楔)이고**, 모친은 송원(宋源)의 딸 야로송씨(冶爐宋氏)이다.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형 배상룡(裵尙龍)이 있다.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24년(인조 2) 식년시 진사 2등으로 합격하여 태학(太學)에 입학하였다.
태학에 있을 때 명성이 높아서 당대의 이름난 선비들과 친분을 맺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형을 부친처럼 섬겨서, 칭송을 받았다.
스승 정구의 가르침에 따라 행실을 독실하게 하고 자기 수양에 힘썼다.
저서로 《괴제선생문집(愧齊先生文集)》 4권 2책이 있다. 이 저서는 1860년(철종 11)에 간행되었다.

배 상조(裵 尙藻) : 자료 수집 중

배 상보(裵 尙黼) : 자료 수집 중

2014.1.6 29대손 裵在榮 쓰다.

경 과 보 고

- 영화 소설 <명량>의 허위 대처 위원회(비대위) -

2014년 7월 30일. 영화 <명량>(김한민 감독) 개봉

* 영화 '명량' 관련회사로 **제작사는 김한민 감독이 세운 빅스톤 픽쳐스**, 대성창업투자 등의 19개 창투사가 투자함.
배급은 CJ엔터테인먼트(CJ E&M). 배급사가 CJ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CJ CGV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진행됨.

2014년 8월 3일. 성산성주배씨 서암공파 종친회(우성식당)
신재(서강)공 배설장군의 임란시 활동 - 배한동 교수 발표
영화 <명량>의 허위사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논의.

2014년 8월 6일. 영화 <명량> 박근혜 대통령 관람. 관객 700만.

2014년 8월 7일. 배씨 대종회(서울) 배병수 사무국장께 자료 배송.
변호사 자문결과 회신.

2014년 8월 8일. 역사소설과 서적들. **김호경 <명량>(전철홍 김한민 극본)**, **박은우<명량>**, 16년만에 재출간되는 **김탁환<불멸의 이순신>(21세기북스)와 김훈<칼의 노래>(문학동네)**,
<증보교감완역 난중일기>(여해)

* 이순신 암살시도를 그린 <전쟁의 늪>(고즈늑)은 배영숙 종친이 구매하여 배설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연락 줌.

** 박은우 소설 <명량>도 배설님을 비겁자 도망자로 표현했다고 배한순 종친이 독서평으로 제보함.

2014년 8월 9일, **성산성주배씨 서암공파 긴급 종친회**

영화 <명량> 15명 단체관람: 롯데시네마 대구역, 11시15분
재기 재소 재경 두호 원호 한경 한동 한곤 한익 준영 (이상 대구)
재영 (부산) 재관 재현 선효 관호 (이상 성주)

영화 소설 <명량> 허위사실 대책회의, 하여가(들안길입구) 2-4시
배재소 회장님 인사말
인사말: 배재기 전회장님, 배재관 성주배씨 종친회 감사, 배한동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배재영 신라대 교수
경과보고 - 배한익 경북대학교 교수

- 영화 소설 <명량>의 허위사실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위 원 장 : 배한동 교수,

부위원장 : 배재영 (신라대 초빙교수), 배한익 (경북의대 교수),
배재회 (대구대 초빙교수)

고 문 : 배양호(종손), 배재기(전회장)

총무팀(연락, 종친 주소록 제작): 배두호(팀장), 배재석(조직팀장,
교장퇴임), 배재룡, 배한상(길웅스틸), 배한욱, 배재회,
배재관, 배배무호, 배지호,
배재록, 배영진, 배일현, 배재석(조합장)

재무감사팀(소송경비, 회의비): 배원호(팀장), 배관호(뒷개),
배건호(화성산업 전무이사), 배한곤(하여가), 배만동,
배수환(인쇄소), 배한원(정안전기이사), 배한성(약국),
배도호(가정의학과), 배운호(병원), 배재권 배신호
배원호 배월호, 배을호(현대건설), 배준호(한중건설),
배중호(농기술센터)

법무팀(법률자문): 배윤호(팀장),
한두동생(검찰)

섭외팀(성주성산배씨 종친회와 대종회): 배재영 부위원장(팀장),
배재관(갈밭), 배만호(대구한전, 잘섬)

홍보팀(언론 담당): 배우호(도청 홍보관, 퇴임), 배한열(서울),
배한일(성서서), 배한천(MBC PD) 배태호(TV조선,
정치부 차장, 미특파원 주재)

서기(기록): 배한익 부위원장. 배준영(대구폴리텍 교수)

당연직: 배한경, **배재소 (종친회 회장님)**

자문위원: 배영식(국회의원), **배재권(성산성주배씨 회장)**

***대구 연락처: 배재회 부위원장(010-,** (우)704-9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486-2번지 2층053-623-4091 (Fax 053-625-0580)

서울 연락처: 배재권 회장, (우) 110-053,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9
사학회관 803호 배씨 대종회 전화 02-736-6488 02-737-6488
(Fax 02-723-6573), 배신호, 배한욱 **(010-3282-8713)**

성주 연락처: 배재룡 대표 (010-9129-2899), 배윤호

부산 연락처: 배영식 회장, **배재영 부위원장 (010-8989-1332)**

홈페이지 http://cafe.daum.net/1525-
(까페지기: 배윤호, sowoo6500@hanmail.net)
http://cafe.daum.net/seungsanbae
(까페지기: 배재기, baejaeki@hanmail.net)

2014년 8월 14일, **영화 소설 <명량>의 허위 대처 제2차 비상대책회의**
오후 7:00-11시 20분, 하여가 (들안길 입구)

2014년 8월 15일, **뒷개 재실에서 집안대표 종친회의 개최**
일 시: 8월 15일 12:00-1:30 (종친회의 후 '성재네 시골밥상'에서 점심)
참석자: **양호(종손) 재소 한익** 재관 재인 선호 재철외 안어른 7(총14명)

2014년 8월 18일, 관객 1500만.

2014년 8월 19일, **영화 소설 <명량>의 허위사실대처 제3차 비대위**
8월 19일 11시20분~13시30분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동 3층 병리센터 회의실
회의 후, 학정동 '강원도집' 점심, 재소 두호 한동 재영 윤호 한익.
후원금 약정: 배한동 50만, 배재소 50만, 배재영 50만, 배한익 100만.
홍보책자 60권 제작: 벌초 추석때 배부용(60부 8월23일에 모두 나감).

성주성산배씨 대구종친회 배효열 회장(동구 3선의원) **방문**. 19일, 2-3시.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약속하심. 인사말 주심.

8월 26일(화) 12:00-14:00, **성주 대책위 모임,** 성주 감골식당.
배윤호, 배재룡, 배재만(군의원), 준호, 재석, 재국, 중호(이상 성주)
배재영(부산)

2014년 8월 28일, 관객 1600만 돌파.

2014년 8월 29일(금), **제4차 비대위.**오후 3시-5시, 원양참치(영등포동)
재소(서암공파 회장) 한동(비대위원장) 재영(부") 한익(부")
윤호, 한욱 신호, 영진(경주배씨 대종회 회장) 재권(성산성주
배씨 회장), 병탁(성산성주배씨 전회장), 업무팀

1. 회의.
2. 대구 성주 서울 조직 결성(추진 중).

토의 내용 (요약정리)

- 배정숙 종친(서울) 이 10여년 전 김탁환을 개인적으로 만나 허구성을 항의하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절을 90도 했다고 함. 그러나 **다시 <불멸의 이순신>(21세기북스) 재출간하였음.**
- 영화 ‘명량’의 흥행으로 이순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높은 가운데 **KBS 1TV가 내년 1월 대하드라마 <징비록>**(가제)을 선보인다. 또 **KBS 1TV는 2004년작 <불멸의 이순신>을 9월 33부작으로 재편성**한다. 영화 소설 만화 홍보물 광고물 홈페이지 등에 배설장군을 오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

따라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함.

(1) 제작사, 배급사 및 상영관 등에 형사 고발을 하자.
(선고 유예되면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을 하자)

(2) 고소장 낼 때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기관, 언론사 및 방송국에 배부하자.
(도포입고, 도청 기사실에서 기자회견하는 이벤트를 준비 하자.)

(3) 영화 및 소설<명량> 허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작가 출판사 제작사, 배급사 및 상영관 등에 보내 경고하자.

가. 역사에 없는 **이순신 시해 장면** :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성웅 이순신을 시해하는 배설장군의 부장으로 설정하여 호국공신 집안(선무 원종1등 공신, 임란시 3대에 걸친 전공이 있는 서암공파 배씨 후손)을 대단히 스트레스에 쌓여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나. 역사에 없는 **거북선 방화 장면** :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거북선을 불태운 사람이 배설장군(과 군사)으로 만들었음.

다. 역사에 없는 **(배설 장군) 배를 타고 도주하다가 안위에게 화살을 맞는 장면**: 실제 장군은 충무공에게 수질로 병가 신청했고, 충무공으로부터 요양신청 솟장을 보내 공문을 받아(이상 난중일기 기록) 요양 중, 모함과 수배를 받고 (방. 이규문집 피신 중) 권율에게 체포되어 서울에서 1599년 참형. 10년 후 1610년(광해 2년) 선무 원종1등 공신호조 참판으로 1차 신원되고, 1873년(고종 10년) 2차신원 병조판서로 증직. 현재 임란시 공적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난중일기의 역사왜곡 가능성: 이순신이 합천 초계에서 귀양살이 중, 종으로부터 칠천량 해전의 내용을 듣고 적음. 이순신 사후 45년 뒤, 후손 이식이 난중일기를 재편집함.

라. 역사에 없는 **왜장 도도에 매수되었다**는 소설 내용 (소설<명량> 158쪽)

마. (배설장군의) **군대 내의 하극상** 내용과 장면

바. 후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었나?

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영화 자막에 넣었나?**

(3) 회의비, 법률비용은 후원금을 모금하자.

(4) 홍보가 중요하다.

- 개인 Blog, 성산성주배씨 서암공파 Cafe 등 개설 홍보하고 배설장군의 주요 업적물과 자료를 받자.

성산성주배씨 daum 까페.

http://cafe.daum.net/seungsanbae

성산(성주) 배씨 종친회 daum cafe

http://cafe.daum.net/1525-

배한일 종친 개인 Blog

http://blog.naver.com/hibae7418

- 집안 친목모임을 할 때 참석하여 교육하자.

- 언론에 시론 게재 (배한동 위원장)

(5) <배설장군 역사왜곡 규명>책자 2판 발간 (1판은 8월23일에 모두 나감)

1) 비대위 조직에 종친이름 모두 올리자!
2) 재소 회장님, 성산성주배씨 종친회장 배효열씨 인사말
3) 판례는 빼자! 실미도 사건은 사료 발굴이 부족했다.
4) 의병장 서암 배덕문 선생의 의병 활동과 학덕 (배한동 배재영 공동저자)도 추가하자.
5) 후원금, 자료집 구매종친, 참여자 및 비대위 활동을 자료집과 족보에 올리자.
6) 성주배씨 진사공위현세계보 넣자.
7) 선조교지 사진 넣자.

(6) **소장 모임 발굴 -친목회 배주호 회장.**

성주향우회 명부. (배한상 배재회).

8월 29일(금), **성산성주배씨 분성배씨 경주배씨 대종회 회장단 회의**

일 시 : 5시-8시, 원양참치(Tel 02-2678-9872, 영등포동)

참석자 : 배영진 (경주배씨 대종회 회장), 배병수 사무국장, 유완성 종보 편집장 (기자출신), 편집위원 - 달성배씨 배홍열, 배영민 (4년전 종보에 배설장군 기사 싣었음), 배선기 (분성배씨 회장), 배재권 (성산성주배씨 회장), 배병탁 (“ 전회장), 배재휴 (성주성산

배씨 부회장), 배신호(서울), 배한욱(서울), 배상현(동국대교수, 퇴임), 배재소(성산성주배씨 서암공파 회장), 배한동 (비대위원장) 배재영(부위원장) 배한익(부위원장), 배윤호(비대위 성주대표)

사회 및 경과보고 - 배한익 부위원장

인사말 - 배재소, 성산성주배씨 서암공파 회장
배한동, 소설 영화<명량> 허위 대처 비상대책위원장

(토의)

배재영 (비대위 부위원장 지명토의자): 칠천량 해전의 12척 배와 1200여명 조선수군을 구하신 배설장군에 대한 명예회손 때문에 모였습니다. 부산에 오시면 안내를 하겠다.

배윤호(성주대표 지명토의자): 친고죄 형사소송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지역에서 하겠다.

배상현(사학자, 동국대 퇴임) - 원저가 중요하다. 자료를 모으고, 배씨 집안의 단합의 기회로 삼자. 이 기회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배영진 경주배씨 대종회 회장: 동아일보 배인준 주필에게 알리고 싶다. 12척 배설장군의 왜곡역사에 대한 진실된 자료를 만들어 달라. 추석 이후에 전폭적으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싶다. 제작사에게 "대종보에 사과기사를 실어라. 영화 사과자막을 넣어라. 4대 일간지에 공개 사과하라, 명예회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하는 등의 단계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종친들의 서명을 받으신 서류를 만드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소설 앞머리 첫 쪽에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역사적 서술은 keword.pessian.com을 참조하였습니다.">라는 일러두기에 적힌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으나, 배설장군에 대한 오도가 지나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배설장군을 특집으로 꾸며 2014년 종보 8월호를 완성했습니다.

배선기 분성배씨 회장: 경남창녕 (부곡 온천 옆) 영산 도천에 재실이 있습니다. 배대유(광해 승정원비서실장, 정3품), 장남 문관, 차남은 무관이었습니다. 23대 "기"자 항렬. 대종회 모임 참석에 오래전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성산성주배씨 흥안제에 참석 참배를 했습니다. 영산 도천의 제사에는 배재권 회장이 참석하십니다. 시급히 인터넷, 신문, 언론 홍보를 활발히 하고, 법률적 조치를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배재권 성산성주배씨 회장(전 육군항공대령 퇴임): 대가면 옥성동이 고향. 국방대학원 공부시 배설장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영화<명량>을 보고, 임진사 관련 책을 구입하여 공부하였다. 서울에서 할 일을 찾다가 분성배씨 배선

기 회장에게 이 모임을 알렸다. 위기가 기회다. 단합합시다. 대동단결의 기회다. 선양사업으로 칠천량 해전지에 배설장군 신도비 세워야 하지 않느냐?
배병탁 성주성산배씨 전회장: 마음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뒷개후손들이 주축이 되면, 견마지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관부에 빨리 연락해서 영화 가장 앞에 나오는 <경상우수사 배설>이란 자막부터 빼라고 요구하세요.
배신호: 대종회 회장님 모시고 회의하게 되어서 뜻이 깊습니다. 등암할아버지 영각을 모시고 있음. 10월15일 묘사를 모십니다. 영화<명량>을 보고 울분을 느꼈는데, 자료집을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주성산 족보가 빠진 것은 다시 만나 이야기합시다. 전체 대종회가 이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재휴 부회장님: 문관부 영상미디어부에 빨리 영화 편집을 요청해서 문제되는 부위를 짤라 달라 하십시오. 내 아들(배태호)이 TV조선에 있어요. 문관부 기자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달라.
배병수 사무국장님: 종보는 이멜 주소를 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일) **비상대책위 도남재회의,** 오후 5시-8시
- 성주에서는 벌초후 모인 종친 약 25-30명이 (윤호 원호 한동 한익 재인 관호 재국 종손어른 재소 회장님 등) 재실에서 모여서

1. 서암 신재 등암 3조손의 자랑스러운 역사 공부.
2. 역사의 진실이 어디 가나요?
   대종회의 큰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명분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3. 또한 세 분과 관련한 역사학회나 세미나가 역사학자를 모시고,
   내년 전반기에 성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중.
4. 등암문집이 잘 나왔습니다. 5만원으로 판매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5. 배재국 종친이 저녁 식사로 짜장면을 후원하심 (56,000원)

9월 4일(목), 오후7시, **소설 영화 <명량>대처 5차비대위 전체모임**
푸른식당 (565-7722, 010-3504-8759 배한목),
안건 및 토의: (사회- 한익 부위원장)
- 인사: 한동 위원장, 재기 전 회장님
- 경과보고 (자료집 71쪽), 법적대응 (윤호, 대변인 겸 법무팀장)
  1) Cafe에 벌떼같은 방문과 댓글, SNS 홍보가 필요.
  2) 이슈는 A. 역사왜곡으로 문화를 빙자한 폭력 피해 집안이다.
     B.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출(9월 5일). 형사고소 (9월15일).

도남재 고유제와 상경투쟁은 국가에 짐을 주지 말자는
종친의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 솟장만 9월 15일에 성주경찰서에 제출

9월 5일. 민원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9 사학회관803호 배씨 대종회
경북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로 562 http://cafe.daum.net/1525-

수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신: 소설영화(명량)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제목: 허위 사실을 널리 유포하고 있는 영화 및 소설 "명량"에 대한 호소
소설 영화 명량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배한동
경주배씨 대종회 회장 배영진
성산파 서암문중 회장 배재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관부로 이첩함.

- 비대위 활동의 목적, 비전, 행동지침을 정하자! 열성 종친의 활동에 대한 공훈 평가후 1,2,3등 공신으로 자료집, cafe 문중사에 남기자! (배한익)
- 교육과 서울 대종회 합동기자회견 홍보 전단지는 재실에 보관함.
- 기존 집행위원회(배한동 위원장)와 운영위원회(배한경 위원장, 종손) 구성
  1) 집안 대표 1-2명의 운영위원이 연락 및 후원금 모금을 담당함.
     - 결혼한 가구당 20만원 이상 추렴 (개인 후원금 기탁자 증가)
  2) **<배설장군 역사왜곡 규명**-증보판**>** 자료집이 회의 중에 모두 가져가 100부를 더 인쇄하여 9월 5일 재실에 보관함. (필요하시면 윤호 규호 종친께 연락 바랍니다)- 전단지와 함께 교육과 후원금 모집에 사용함.
- 9월 11일. 전단지 100장, 자료집 15권 배한욱(서울) 종친께 택배 우송.

9월 8일(월), **추석 도남재 재실 모임**

일시: 오후 2시, 도남재 회의실.
참석자: 양호(종손) 재관 규호 윤호 재석 재국 재영(처 오윤정),
재흔(자:인호, 며느리: 이지희, 손:예지) 등
안건: 자손 교육
자료집 전단지 배부

사진 촬영

9월 13일(토), **소설 영화 <명량>대처 비대위 집행 운영위원회 모임**

일시: 낮 12시-2시, 본향 논메기 매운탕집.

참석자: 재소 한동 재회 재국 재석 윤호 한경 한용 한익 상수(용암)

안건:

1. **형사소송 고소장 제출** - 9월 15일 성주경찰서, 배윤호 재소 한동,
   고소인: 소설영화(명량)관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배윤호,
   피고소인들: 김한민, 전철홍 (영화사 ㈜빅스톤픽쳐스),
   김호경(출판사 ㈜북이십일)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처스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온 상태이고, 배설 장군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사 측은 **"창작물은 창작물로 봐달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2. 서울 종친회 활성화 - 재권 한욱 (신호 두호 형제분 작성한 주소록 전달)
3. 명부 작성 총책: 재석 교장선생님 - 하루 2시간씩 봉사
   60세 이상 연락 총무 - 추호 두호(대구)
   한용(이상 성주)
   3,4,50대 연락 총무 - 주호(성주?) 만동(대구)
4. 배상수(용암, 성산배씨 30세손) 종친
   - 점심식대 131,000원을 후원하심.
   - 비용 필요함
   - 명부와 가가호호 조직을 완성,
   - 소명자료 필요함 - 임란사 논문발굴 (목포 부산 제주 등에서)
5. Cafe, SNS 활동, 대종회의 지지와 동참 필요함 (예) 배문 변호사소집
6. 아래는 진정서 형사고발 결과를 지켜 본 후에 결정.
   - 박은우 소설 <명량>, KBS1 <불멸의 이순신> 등에 대한 대처
   - 고유제(9월 17일)와 상경 투쟁
   -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 기념 사업회 (배한동 위원장 제안)
     1). 영화 명량 관련 비상 대책위원회 개칭
     (경상우수사 배설장군 기념사업회 또는 선양회)

2). 사업개요 : 배설 선조 명예회복 사업

<장기사업>

가. 배설장군에 관한 역사 기록(소설, 영화, 논문 등)바로 잡기

나. 배설장군의 업적 홍보: 이야기, 스토리텔링, 소설, 만화, 영화, 카페나 블로그 활용

다. 배설장군 업적 홍보 강좌 - 명절, 성묘 전후 (마을 회관)

라. 배설장군 묘소 환경 개선

마. 칠천량 공원에 배설장군 기념비 건립

- 조선 수군을 살린 배설 장군 (배 12척 구함)

바. 서암 신재 등암 3조손의 기념비, 기념관, 동상, 의병장공원

아. 기타 - 문중사 발간 (배윤호 제안)

<단기사업>

가. 배설장군 얼 찾기 역사 탐방

합천--> 동래--> 부산--> 진주(거사비)--> 좌수영(?) --> 밀양-->선산(금오산성, 9정 7택, 기념비)--> 한산도 --> 회령포, 벽파진

3). 기금 조성과 회원 확보 등

9월 16일(화), 11시 40분, **소설 영화 <명량>대처 비대위 집행위원회 모임**

장소 : 강원도식당, 칠곡경북대병원 앞

안건 :

1. 조직의 활성화와 대종회지지
2. 형사 소송후 활동
3.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 - 후원금과 추후 피고인 행동에 따름
4. 대종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임원회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배문 변호사를 선임하자. - 후원금이 적다.
5. 조직적으로 종친 명부를 작성하여 후원금 모금하자! - 집안 대표 중심으로 구성 --> 배재석 회장님이 명부작성(현대판 족보)
6. 캐비넷 컴퓨터 프린터 인터넷 연결 table 구입하기로 (원호팀장)
7. 난중일기가 정유2책으로 이순신이 2번 작성하였다.

9월 16일(화). **국민신문고/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1차 답변**

1. 국민신문고, 2AA-1409-074671(2014.9.5.)호 관련입니다.

2. 금번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표순철 입니다.... 다만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소재의 선택 등의 제작과정은 민간 영화제작사(기획·투자·배급사 포함)의 업무 영역으로 이에 대해 정부가 법률 등 제도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를 제작 시 이에 대한 허가·등록·신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당해 영화에 대한 상영 중단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관련 법률에 근거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민원 접수 즉시 관련 제작사 및 배급사에 답변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별첨...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7)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9월 17일(수) 오전, 재실 (도남재) 고유제. 종친대표 조상님께 사죄, 조상님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아룀.
(KBS2 TV 뉴스타임 취재진이 2일간 취재 - 신재공 산소, 재실 고유재, 한동 윤호 인터뷰 등, 9월 18일 오전 8시 30분 KBS2 TV 뉴스타임 방영).

9월 20일(토) 오후 3시. **서암공 후손 전체 비상종회 개최**
장소 : 도남재(뒷개 재실)
- 인사말 : 재소 회장님

- 비상대책위 활동보고

- 임진왜란 역사강의
  (1) 서암 신재 등암 3 조손의 의병활동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2) 조선수군을 살린 배설장군 (배재영 신라대 교수)

- 비상대책위 활동방향 토의

- 문중 재건을 위한 토의

- 격려사 : 양호 대종손

명량 영화 허위, 조작 내용에 대한 분석

작성자 (배재영 행정학 박사)

(참고 문헌 :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충훈록, 동국사, 경산지, 성산지,한려승남,성주성산 배씨 족보, 공신록, 배덕문실기, 원균 대장군, 백과사전, 인명사전 등)

조작 내용	영화 조작 각본 (명량 소설 참고)	조작 내용에 대한 분석
1. 배설 장군을 비겁한 장군으로 조작 **2. 칠천량 전투 시 싸우지 않고 전선 12척을 가지고 도망 간 장군으로 조작**	**명량 소설 17쪽** 그 갑작스럽고 가멸찬 공격에 원균의 명을 받고 출병한 경상우수사 배설裵楔은 한번 싸워 볼 각오도 갖지 않은 채 닻을 올리고 줄행랑을 쳤다. **명량 소설 20쪽** 저곳에 있는 12척도 배설이 도망쳐 나왔기에 겨우 보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많았으나 배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나를 비겁하게 하려거든 저 12척을 바닷속에 침몰시켜라.	배설 장군은 1597년(선조 30) 2월 이순신이 죄인이 되어 관직을 삭탈 당하고 원균이 수군 통제사가 되자, 선조에 의해 다시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 보직 되어 정유재란을 맞이하여 전투에 임한다. **# 1차 부산포 공격** **- 6월18일(양력 7월30일) 안골포와 가덕도 앞바다에서의 전투상황** 조정에서는 왜군의 후속 부대가 올 것이라는 첩보를 듣고 수군통제사 원균 장군에게 즉각 부산 지역으로 출동하여 왜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 하였다.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부산 공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원균 장군은 육군이 먼저 안골포의 왜군을 격파한 이후라야 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출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과 권율 장군의 성화에 못 이겨 출동이 불가피 하였다. **원균 장군은 1597년 6월 18일 한산도를 출항 하였다.** 그러나 왜군은 육지에서 조선 수군의 이동을 탐지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조선 수군의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전투를 회피 하였다. 따라서 조선 수군은 왜 수군의 수륙합동 작전에 의해 안골포와 가덕도 지역에서 별다른 전공도 없이 보성 군수인 안홍국이 전사하는 피해만 입고 한산 본영으로 철수 하였다. 그리고 안골포의 왜군을 지상에서 먼저 공격해야만 수군 공격이 가능하다고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마치 도원수 권율이 육군지원을 하지 않아서 부산 공격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게면 더 이상 입방아를 찧지 마라. 내가 조선 수군을 끝까지 지켜낸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전장에서 도망친 죄를 물어 관직을 박탈하지 않은 것은 조정에서도 그의 공적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이순신은 그러한 배설이나 조정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명량 소설 58쪽** 칠천량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전세가 불리함을 짐작하고 12척을 이끌고 줄행랑을 쳤다. 한산도로 퇴각해 무장고와 군량을 모두 불태우고 남아 있던 백성들을 피난시켰다.	장계를 올린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권율은 원균이 있는 사천까지 가서 원균의 부산 공격 회피를 추궁하였다. 이에 원균은 육군의 안골포 공격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장계 내용의 부당함과 조정의 지시를 어긴 죄명으로 원균을 형틀에 잡아 묶고 곤장 50대를 때렸다. 이것이 원균의 곤장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조선 수군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뻔 하였다. **# 2차 부산포 공격** **7월7일(양력 8월19일) 부산포 앞바다에서의 전투상황** 6월18일 1차 부산포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 함대는 한산도에서 견내량을 지나 칠천도, 영등포, 가덕도를 거쳐 다대포 앞 바다에 이르렀다. 왜선 8척이 보였다. 왜군들은 조선 함대를 보자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 하였다. 조선 수군은 힘들이지 않고 왜선 8척을 불태 울 수 있었다. 이에 사기가 충천한 조선함대는 부산포를 향해 계속 공격하였다. 부산만에 접어들자 원균은 왜군의 전선이 대마도에서 북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균은 부산포 공격을 뒤로 하고 북상하는 왜군의 전선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조선 함대가 공격을 시작하자 왜 선단은 전투를 회피하고 대마도와 서생포쪽으로 퇴각하였다. 때마침 불어 닥친 풍랑으로 조선 함대가 분산 되고 지휘가 어려워 추격을 중단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풍랑으로 7척의 전선이 풍랑과 조류에 밀려 서생포로 떠 내려가 왜군에게 섬멸 당하였다. (난중일기 7월 16일자에 살아서 탈출한 세남이라는 종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투로 13척의 배와 수백 명의 수군이 전사 하였다. **# 3차 부산포 공격** **7월14일(양력 8월26일) 부산포, 가덕도, 영등포, 전투 상황** 원균 장군은 2차에 걸쳐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였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악천후로 인한 전투 손실과 공격의 실패로 또 다시 명예가 실추 되자. 명예 회복을 위하여 재차 부산포 공격을 무모 하게 감행 하였다. 7월14일 새벽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조선 함대는 1, 2차 공격 시와 마찬가지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선봉으로 또 다시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였다. 조선 수군의 지휘관은

		통제사 원균, 경상우수사 배설,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조방장 배흥립과 김완 등 이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어떠 하였을까? 조선 수군의 전선은 판옥선 120여척과 협선130여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만5천 여명의 수군이 있었다. **사기는 원균 장군의 곤장 사건과 일주전의 공격 실패로 인하여 썩 좋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왜군은 600여척의 대 선단과 141,490명의 왜군이 부산에 입항해 있었으며 사기가 충천 하였다. 당시 조선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왜군의 전투력 수준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무형전투력도 왜군을 능가하지 못한 상태 였다. 조선 수군이 부산포를 공격을 위해 한산도에서 출항하자 왜 수군은 웅천, 안골포, 가덕도로 이어지는 육지의 첩보 부대 연락망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왜군의 수군은 부산진에 약 600척의 전선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왜군의 육군은 거제도, 가덕도, 웅천, 안골포, 김해, 죽도, 부산포와 연계 되어 있는 왜성을 근거지로 정찰대를 운용하여 조선 수군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다. 원균 함대는 이날 정오쯤 되어 절영도를 눈 앞에 두고 부산포를 향하고 있었다. 이 때 절영도 남쪽에서 왜 전선이 갑자기 나타났다. 왜군은 쾌속선을 타고 빠른 속도로 조총을 쏘아대면서 공격해 왔다. 원균 함대가 재 빠르게 대응하여 반격하자 왜군은 공격을 멈추고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왜군은 조선 수군이 공격하면 후퇴하고, 멈추면 공격하는 기만 유인 전술을 구사하며 조선 수군을 지치게 만들었다. 거듭되는 왜군의 기만 전술에 농락 당한 조선 수군의 사기는 저하 되고 수군은 지쳐가고 있었다. 당시 왜군의 전선은 임진왜란 당시의 전선이 아니었다.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 2차 침략을 준비하면서 왜 수군의 전투력을 보강 하였다. 그리고 해전에서의 전술도 보완 하였다. 왜 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높았다. 왜군은 조선 수군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지치게 만들었다. 이에 전라우수사 이억기장군이 원균장군에게 한산도로의 철수를 건의 하였으나 원균장군은 그 건의를 묵살하고 계속 공격을 명령 하였다. 왜군들은 공격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조선수군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고, 왜군은 조선 수군이 망망대해가 아닌 육지와 섬 사이의 좁은 수로로 들어오게 유인하였다가 수륙 합동으로 총공세를 퍼 부었다. 조선 수군이 왜군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

		게 알아차린 원균은 후퇴 명령을 내리고 재 빨리 가덕도로 철퇴 하였다. 왜군은 후퇴하는 조선수군을 뒤쫓아 계속 공격을 가하자 어절 수 없이 가덕도를 떠나 아군의 진지가 있는 거제도로 철수 하였다. 이 때가 저녁이었다. 이 날은 흐리고 비가 와서 날이 어두워지자 주위가 캄캄한 암흑이었다. 원균장군은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거제도 북단의 영등포 해안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식수와 나무를 보충하기 위해 병력을 거제섬에 상륙시켰다. 병력이 섬에 도착하여 나무와 물을 보충 할 때에, 왜군은 조선 수군이 오기를 기다리며 잠복해 있다가 일제히 기습 사격을 감행 하였다. 야간 매복 기습 사격에 우완 좌왕 정신을 차리지 못한 조선 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많은 병력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였다. 이에 원균장군은 급히 함대를 수습하여 아군의 진지가 있는 칠전도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20척의 전선이 파괴 되고 400여명의 수군이 전사 하였다. **# 칠전도 전투와 조선수군의 피해** **7월 14일 왜군은 조선 수군이 한산도에서 부산포로 공격을 감행하자 육지에 배치한 정탐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유인 전술로 조선 수군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며 힘들이지 않고 조선 수군을 퇴각 시킨 왜군은 수륙 합동 작전을 가 하면서 조선 수군에 압박을 가하였다. 왜군의 작전에 말려 든 조선 수군은 마침 불어 닥친 거센 바람과 비로 인하여 왜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거제도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이에 추격전을 벌이던 왜군은 조선 수군이 칠천도에 집결하자 추격을 멈추고 전투력을 집결 시킨 후 다음 공격을 계획한다. **선조 실록에 기록 된 내용을 보자.** ▶선조 90권, 30년(1597년 7월 22일(신해) 2번째기사 선전관(宣傳官) 김식(金軾)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다 “15일 밤 2경에 왜선 5~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 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자 우리 나라 제장들이 장졸간에 병선을 동원하여 어렵게 진을 쳤는데 닭이 울 무렵에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왜선이 몰려 와서 서너 겹으로 에워싸고 형도(刑島) 등 여

		러 섬에도 끝없이 가득 깔렸습니다. 우리의 주사(舟師)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 지역 추원포(秋原浦)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元均) 및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했는데,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니 왜노 6~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옥포(玉浦)·안골(安骨)의 만호(萬戶)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전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 대사헌(대사헌) 김간이 쓴 원균 행장기에 의하면** 7월16일 날이 밝자 우리 배에서 불이 일어나므로 원균은 즉시 바라를 쳐서 변고를 알렸으나 그 때 돌연히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 오고 적탄이 비오듯이 날아 왔다. 적의 함성은 하늘을 진동하고 그 기세는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말아 올릴 듯하니 도저히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먼저 닻을 거두어 작전상 후퇴하는데 우리 수군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다. 원균 장군도 할 수 없이 배에서 내려 작전상 뭍으로 올라 갔는데 매복되어 있는 6-7명의 적이 달려 오리지간(五里之間)을 싸우다 끝내 힘이 모자라 목을 베어 갔다. **난중일기 :** **7월18일(양력 8월30일)** **16일 새벽에 수군이 몰래 기습 공격을 받아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 여러 장수와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다. 수군이 대패 했다.** **7월21일(양력 9월1일)** **노량에 이르니 거제 현령 안위, 영등포 만호 조계종 등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경상수사(배설)는 도망가 보이지 않고· · ·** **대장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뭍으로 달아 났고, 여러 장수들이 뭍으로 가서 이지경이 되**

		었다. 그것은 대장의 잘못을 말한 것인데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고 그 살점을 씹어 먹고 싶다고들 하였다. **7월22일(양력 9월3일)** **경상수사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의 패망하던 일을 많이 말 했다.** **(이 내용은 곧 전투 상황인데 기록 되지 않았고, 권율과 조정에 보고 되지 않았다. 이 기록을 찾으면 칠천량 전투 상황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 배설 장군은 왜군의 공격에 대응하다 전투력 열세로 왜군의 포위망을 뚫고 퇴각하여 한산 본영으로 후퇴 한다.이 때 살아남은 전선이 12척이다.
	명량 소설 57 -58쪽 배설이라는 인물을 평하자면, 예로부터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합천 군수가 되었는데 의병장 김면의 지원 요청을 거절해 낭패에 빠뜨렸다. 그때 비겁한 심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선산부사가 되어 금오산성을 쌓고 경상우수사가 되어 원균의 명에 따라 수백 척의 전선을 거느리고 웅천을 급습 했다.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1583년(선조 16)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하여 변방으로 거듭 기용되어 공을 세워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주부(主簿)로서 경상우도 방어사(防禦使) 조경(趙儆)을 따라 남쪽으로 출정하였다. 조경이 황간, 추풍에서 왜군에게 패전하자, 배설은 향병(鄕兵)을 규합하여 왜적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사력을 다 하였다. 또한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이 배설을 가장(假將)으로 삼아 왜적을 무찌르게 하였다. 이때 배설이 용맹히 나아가 부상진(扶桑鎭)과 개산진(開山鎭), 무계진(茂溪陣)에서 적을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에 합천 군수가 되어 미숭산성(美崇山城)을 쌓았으며, 다시 부산 첨사(僉使)로 보직 되었다. 1594년(선조 27)에는 동래부사(東萊府使)로 보직 되었고, 그 해 가을에는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어 정사를 바르게 하고 덕을 베풀어 온 고을이 내내 평안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치적을 기렸다. 1595년(선조 28) 2월 조정에서는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불화가 심화 되고 있어, 조선 수군의 지휘력과 전투력 발휘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원균 장군을 충청병사로 전출시켜 육군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조에게 보고 하였다. 이에 선조는 원균 장군을 충청병사로 전출 시킨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은 당시 보직대로 전라좌수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원균 장

		군이 수행하던 경상우수사의 직책을 담당 할 장군을 모색 한다. 이에 선조는 조정 대신들의 추천에 의하여 밀양부사로 재직 중인 배설 장군을 원균의 후임 경상우수사로 임명한다. 배설 장군이 경상우수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정을 바로 잡고 창고를 헐어 군병을 급식하고 함선과 병기를 수리하며 장졸들의 사기를 높이자, 유성룡과 이원익이 배설 장군을 간성(干城)이라고 칭찬 하였다. 그러나 시국의 폐단을 들어 상주한 것이 도원수 권율에게 거슬려 밀양 부사로 좌천 되었다가 다시 선산부사겸 금오산 별장으로 보직되어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쌓아 진지를 구축하고 성내에 구정칠택(九井七擇:아홉 개의 우물과 일곱 개의 못)을 파고 혜창(惠倉:곡식과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을 설치 하였다. 이 사실이 금오산 폭포수 위 큰 바위에 선조선산부사배설천금오산성구정칠택<宣祖善山府使裵楔穿金烏山城九井七澤> 이라는 큰 글씨로 새겨져 전해 오고 있다. **▶선조 66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8월 5일(을사) 1번째기사** 남방과 북방의 위급한 형세에 대한 비변사의 대책 논의 **선산(善山)의 금오 산성(金吾山城) 및 인동(仁同)의 천생 산성(天生山城)도 형세를 살펴 아울러 요리하여 큰 진(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산 부사(善山府使) 김윤국(金潤國)은 오졸한 서생(書生)이어서 일을 초창하여 경영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니, 어쩔 수 없다면 배설(裵楔)에게 전적으로 맡겨 조치하게 하여야 거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 곳의 일을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체찰사에게 물어서 그 회보를 기다린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선조 74권,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4월 2일(무술) 1번째기사** 유성룡이 노모를 만나고 돌아오자 영남의 정세를 묻고 여러 가지 정사를 논의하다 **“체찰사가 성주(星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던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그 사람은 애민(愛民)을 위주로 하여 수습하고 무마하는 뜻이 지성에서 우러나오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거처가 숙연합니다. 체찰사의 명령으로 공산 산성(公山山城)을 수축하니 영남 사람들이 모두 공산 산성에 들어가 계획을 펴며, **근일에는 모두 ‘천생 산성(天生山城)을 수축하면 거기에 들어가 웅거할 만하다.’고 하므로 배설(裵楔)로 하여금 이 성을 수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중국 장수들이 늘 ‘이 성을 수축함이 옳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조 82권, 29년(1596 병신 / 명 만력(萬曆) 24년) 11월 17일(기유) 2번째기사 도체찰사 이원익이 왜적의 방비책 · 기인 · 방납 등에 대해 아뢰다. “성주 산성(星州山城)은 수축(修築)하여 지키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수축했어도 성 모양이 좋지 않고 골짜기의 평평하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장사(將士)들이 다들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산(善山)의 금오 산성(金烏山城)은 선산의 수령(守令)인 배설(裵楔)을 장수로 정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명량 소설 58쪽 칠천량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전세가 불리함을 짐작하고 12척을 이끌고 줄행랑을 쳤다. 한산도로 퇴각해 무장고와 군량을 모두 불태우고 남아 있던 백성들을 피난시켰다. 이순신이 옥에서 풀려나 벽파진으로 왔을 때 바다에 떠 있던 판옥선 12척은 그가 이끌고 온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도망쳤다는비난이 분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재빠르게 후퇴했기에 그나마	**7월 16일 새벽**에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주도권을 장악한 왜군과의 치열한 교전에서 휘하의 많은 전선과 장병을 잃어 버린 채, 후퇴를 시작 하였다. 한산 본영으로 후퇴한 전선을 확인해 보니 겨우 12척 밖에 없었다. 한산 본영에 도착한 배설 장군은 왜군의 공격을 피해 즉시 청야 작전을 시작 하였다. **청야작전(淸野作戰)**은 선조가 정유재란을 대비하여 장기전을 계획하면서 수령들에게 명령한 작전이다. 한강 이남에서 사태가 불리하게 되면 주변에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물자와 식량 등을 없애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을 말 한다. 배설 장군은 왜군에게 유리하게 사용 될 수 있는 양곡이이나, 병기, 막사 등을 불사르고 섬안에 남아 있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란 시켰다. 왜군들은 칠전도에서의 승리를 기세로 한산도 본영을 공격하였다. 한산도에서 청야 작전을 전개하며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던 배설 장군은 왜군이 수백척의 전선과 함께 한산도로 공격해 오자 왜군과 전투를 하며, 회령포로 후퇴하였다.

	12척을 건질 수 있다는 공로 섞인 의견도 많았다. 배설을 따라와 살아남은 120명의 수군들은 입을 모아 배설을 칭송 했다. “그 때 왜적에 대항해 끝까지 싸웠더라면 우리 수군은 아예 몰살당했을 것이고, 판옥선도 한척 남지 않았을 것이네.”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무능한 원균에 있지, 우리 배설 장수님에게는 없다네.“ 목숨을 건진 병사들이야 배설을 칭송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위인이 못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 였다.	**배설 장군은 전선 12척과 조선 수군을 이순신에게 인계하고 전투력을 보강하다가, 칠천량 전투 패배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악화 되어 이순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한다.** 배설 장군은 칠천도에서 왜군에게 패하고 한산 본영으로 후퇴하여 한산 본영에서 청야작전을 시행한 후에 적의 공격을 피해 회령포로 철수 하였다.조선 수군의 생사여부를 모른 채 회령포에서 전투력을 보강하는 배설 장군의 당시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원균 통제사와 이억기, 최호 장군은 무사할까? 조선 수군의 전선과 병력은 무사할까? 배설 장군은 불확실한 전투상황 속에서 회령포에서 전투준비를 하며 전투상황을 파악한다. 그런데 전투상황을 알 수가 없다. **이순신의 개인일기를 보자.** **7월21일(양력 9월1일)** 노량에 이르니 거제 현령 안위, 영등포 만호 조계종 등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경상수사(배설)는 도망가 보이지 않고 ..... 대장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뭍으로 달아 났고, 여러 장수들이 뭍으로 가서 이지경이 되었다. 그것은 대장의 잘못을 말한 것인데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고 그 살점을 씹어 먹고 싶다고들 하였다. **7월22일(양력 9월3일)** 경상수사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의 패망하던 일을 많이 말 했다. (이 내용은 곧 전투 상황인데 기록 되지 않았고, 권율과 조정에 보고 되지 않았다. 이 기록을 찾으면 칠천량 전투 상황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 **8월2일(양력 9월12일)** 이 날 밤 꿈에 임금의 명령을 받을 징조가 있었다. **8월3일(양력 9월13일)**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뜻밖에 교유서를 가지고 왔다. 명령은 곧 겸 삼도수군통제사의 임명이다.

		8월12일 (양력 9월22일) 거제 현령 안위, 발포 만호 소계남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 갔다. 그들 편에서 배설의 겁내던 꼴을 들으니 더욱 한탄스러움을 이길 길이 없다. (안위와 소계남이 자기 상관인 배설 장군에 대하여 통제사 이순신에게 보고하는 대목이다.) **8월13일 (양력 9월23일)** 거제 현령 안위, 발포 만호 소계남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 갔다. 수사(배설)와 여러 장수 및 피해 나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들었다. (이 때 배설 장군이 회령포에 있다는 것을 이순신이 알게 된다.) **8월17일 (양력 9월27일)** 장흥땅 백사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 군영구미(장흥군 안양면 해창리)에 이르니 일대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은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8월18일 (양력 9월28일)** 회령포에 갔더니, 경상수사 배설이 멀미를 핑계 대므로 보지 않았다. **8월19일 (양력 9월29일)**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는데 경상수사 배설은 숙배하지 않았다. 그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는 꼴을 말로 다 나타 낼 수 없다. 너무 놀랍다. 이방과 그 영리에게 곤장을 쳤다. (이 때부터 이순신과의 관계가 악화 된다.) **8월27일 (양력 10월7일)** 경상우수사 배설이 왔는데 많이 두려워하는 눈치이다. 나는 불쑥 “수사는 어디로 피해 갔던 것이 아니오 ” 라고 하였다. **8월28일 (양력 9월 28일)** 새벽 여섯시 즘에 적선 8척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들어 왔다. 여러 배들이 두려워 겁을 먹고 경상수사는 피하여 물러나려 하였다.

		8월30일 (양력 10월 10일) 저녁 나절에 배설은 적이 많이 올 것을 염려하여 달아나려고 했으나, 그 속 뜻을 알고는 있지만, 딱 드러나지 않은 것을 먼저 발설하는 것은 장수의 도리가 아니므로 참고 있을 즈음에, 배설이 제 종을 시켜 솟장을 냈는데, 병세가 몹시 중하여 몸조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몸조리를 하고 오라고 공문을 써 보냈더니 배설은 우수영에서 뭍으로 내렸다. (이순신은 배설과의 개인적 감정을 일기에 기록하여 폄하시킨다. 배설과 이순신과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마침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끝이 난다. 이미 조선 조정은 이순신을 통제사로 세우면서 배설을 칠천량 전투 패전의 죄과를 물어 처형하기로 하였다. 이에 배설 장군은 부당한 죽음을 피해 이순신을 떠나 종적을 감춘다. 조선 수군을 살리고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배설 장군에 대해 역사는 배설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 해야 한다.)
3. 배설 장군을 왜군 적장의 첩자로 조작하여 이순신을 암살하다 발각 되고, 거북선을 불태우고 도망가다가 부하의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사라지는 매국노로 조작	**명량소설** **150 -154쪽** 단도 하나가 휙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이순신의 어깨에 박혔다. 우욱! 짧은 비명을 내지르며 이순신이 앞으로 휘청거렸다. 온통 검은 옷에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쓴 괴한 셋이 칼을 들고 달려 들었다.(p150) “불이야! 불이야!”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절박한 순간에 이순	**이순신을 암살하려는 첩자와 불타는 거북선을 등장시키고, 암살자를 배설 장군의 부장으로 각인시켜, 배설 장군이 이순신을 암살하게 한 배후로 조작 하였다.** **그리고 배설 장군의 부하 장수였던 거제현령안위가 상관인 배설 장군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아대는 하극상의 진풍경을 연출 하였다.** .

	신은 자신의 모습보다 거북선이 더 염려 되었다..... 쿵. 괴한이 쓰러졌다. 그 와중에도 커다란 불길이 거북선을 잡아 삼키고 있었다.(p151) 안위가 괴한의 복면을 벗기고 화들짝 놀랐다. “아니, 너는 배설의 부장 아니냐!” 안위와 이회는 눈만 깜박거렸다. 왜적 자객이 아닌 같은 편의, 그것도 배설의 부장이라는 사실은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거북선이 활활 타오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볼을 끄느라 아수라장이 된 모래밭을 지나 안위는 산위로 올라 갔다. 저 멀리 피섬 쪽으로 나아가는 거룻배 한척이 있었다. 안위는 그 배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배설이 “하핫”하고 웃음을 터트렸다.(p153) 또 하나의 화살이 날아와 발밑	

	에 퍽 하고 박히자 배설은 움찔 했다. 그러나 기고 만장은 사라지지않았다. “나는 살 방도를 찾았노라! 그러니 어서 너희들도 내 뒤를 따르라.”(p154)	
	명량소설 **157 -158쪽** 그때, 우당탕 소리가 들리면서 흥분 된 얼굴로 와키자카와 가토가 들어섰다. 잔뜩 상기 된 와키자키가 다급히 외쳤다. “장군 이순신의 거북선이 불탔습니다.”(p157) "우리가 매수한 배설이 벌인 일인가?“‘배설은 어찌 되었나?” “거룻배를 타고 도망 쳤는데....., 생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쥐새기 같은 놈이라 필시 목숨은 보전했을 것이다. 그깟 놈이 주든 살든....., 그런 놈이 조선의 장수로 있기에 우리가 승리 할 수 있는 것이다.”(p158)	**왜장들을 등장 시켜 배설 장군을 왜군이 매수한 첩자인 매국노로 만들어 놓고, 배설 장군의 인격체를 쥐새끼 같은 놈으로 만드는 천인공노 할 만행을 저질렀다.**

영화 “명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1. 개요

영화와 출판물이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나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표현한 내용이 문제가 될 경우 망자의 친족이나 자손은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사자(死者)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망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그 침해의 중단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영중지가처분 등의 보전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위 3가지와 기타 효과적인 대응수단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 사자명예훼손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검토

(1) 성립요건

사자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8조)를 의미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사자를 생존자에 준하게 보아 사자의 명예라는 견해가 통설이며, 이때 사자의 명예란 외부적 명예, 곧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밖에 유족의 명예라는 견해, 유족이 사자를 애모·숭경하는 감정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는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보호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법적 조치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범죄이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27조). 만약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228조). 배설 장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고소는 친족(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 내지는 자손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배씨대종회나 성산배씨 서암공파 종중은 자손의 범위에 해당되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나 소설에서 표현된 내용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쟁점은 “과거의 인물에 대해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구적인 창작 표현과 허위의 사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입니다. 감

독이나 작가는 당연히 자신들의 작품이 창작적 표현이므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항변할 것이 자명하고 이에 반해 사자의 자손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영화 및 드라마에서 작가적 상상력의 표현과 허위의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작가적 상상력(허구)과 허위사실의 구분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영화나 드라마는 작가 및 연출자 등을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기초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이므로 등장인물과 내용이 실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작품의 현실감을 더하고 관객의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했던 인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 및 역사드라마도 예술 장르의 일종이므로 그 제작 및 방영에 대해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을 받습니다. 다만 예술·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영화 "실미도"와 역사드라마 "서울 1945"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및 드라마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실미도
영화 실미도는 백동호의 소설 [실미도]를 바탕으로 2003년 12월에 제작된 영화로 684 부대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 완전한 전투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침투하는 것이 하루하루 늦어지다가 결국은 불만이 폭발해 실미도 사건을 일으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08만명의 관객이 관람하면서,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천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이 영화를 계기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실미도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미도 사건 훈련병들의 유가족들은 영화 '실미도'가 영화에 등장하는 훈련병들을 사형수 출신 용공주의자로 보이게 하여 훈련병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실미도의 제작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실미도 사건의 훈련병들 전원에 대하여 살인범이나 사형수 또는 사회의 낙오자들로 표현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영화에서 훈련병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극중 배역과 연관지을만한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는 않은 점과 영화를 전체적으로 볼 때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을 추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혐오나 멸시 등 비방의 의도를 드러내기보다는 남

북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훈련병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참조).

② 드라마 '서울 1945'
드라마 서울 1945는 KBS에서 2006년 1월 7일 부터 9월 10일에 걸쳐 방영한 대하드라마로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까지의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며, 친일파에 대한 재해석 등으로 정치권의 화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1945의 등장인물 중 실제인물의 유족들은 이 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드라마 "서울 1945"는 일제시대 및 해방전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같은 마을에서 성장하였지만 출신계층과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허구의 가상인물들, 즉 김해경, 최○○, 이○○, 문석경, 박○○ 등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그들 간의 사랑과 우정, 이념적 대립과 가족애 등을 그린 드라마이고,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로는 이승만, 장택상, 여운형, 김구, 김일성, 박헌영 등이 있는데, 총 71회분(1회당 50분)에 이르는 전체 방영분 중 이승만, 장택상은 제29회분에 이르러서야 처음 등장하고, 그 등장하는 장면의 횟수도 위 중심인물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며, 이들은 위 중심인물들 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인물로 등장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2010다8358 판결 참고).
아울러 대법원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상업영화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등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영화를 관람하는 일반 관객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참조).
또한 역사드라마도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아니면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각색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지 않을 정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2010다8358 판결 참고).

(3) 영화 “명량”의 내용에 대한 검토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영화나 드라마는 작가 및 연출자 등을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기초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것이므로 영화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에피소드 등은 작가적 상상력에 기반한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료 등을 통해 과거 사건 등에 대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왜곡하여 마치 역사적으로 실재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드라마 “서울 1945”에서 대법원이 설시한 기준에 따라 본 영화 “명량”에 대해 검토해 보면;

①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아니면 배경인지 여부
영화의 가장 큰 중심축은 명량해전이며 전투 장면에 총 1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량에서의 전투와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본 영화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설장군의 경우 명량해전 전투장면 자체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칠천량해전과 한산본영으로의 후퇴 및 이순신장군과의 만남 및 갈등과정 등이 극중 상당한 분량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북선을 불지르고 이순신장군의 암살의 배후로 그려지는 등 관람객이 느끼기에 침략자인 왜군보다 더 악랄한 이미지를 가진 악역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설장군의 극중 역할과 이야기는 단순한 배경이라기 보다는 극적 긴장감과 갈등 구조를 유발하는 이야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명량의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역사적 실존인물들이며 이순신장군을 비롯한 실존인물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정씨부인이나 임준영 등 단역들은 허구적 캐릭터라고 볼 수 있으나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③ 드라마 상에서 가상인물과 실존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위에서 언급한 “서울 1945”대법원 판결에서는 극의 주인공들이 모두 가상의 인물이며 당시 시대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배경요소로 이승만대통령 등의 실존인물이 나온 것이므로 실존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명량에서는 실존인물인 이순신장군과 대척점에서 배설장군이 갈등구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배경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④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 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각색되어 관객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지 않을 정도인지
명량의 서사 구조상 명량해전의 대승이라는 클라이막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동을 주기 위해 극중 장치로 작용한 것이 배설장군이라는 악역캐릭터를 배치한 것이고 그의 행동 하나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업적에 대비될 수 있도록 관객의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리텔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극중 인물들은 모두 실존자들이고 명량해전 역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배설장군에 대한 묘사는 관객들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순신장군의 암살시도 장면을 넣고 이의 배후가 배설장군인 것으로 묘사하거나, 배설장군이 왜군과 내통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 명량 해전이 발발하기 보름 전에 배설장군은 병가를 내고 군영에서 물러났으나 거북선을 불지르고 도망가다가 휘하 장수인 안위에게 화살을 맞고 죽는 것으로 묘사하는 등 배설장군이 등장하는 주요 장면들이 모두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허위이며 이는 실존인물인 배설장군을 등장시켜 이순신장군과의 갈등구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구성하여 영화 내에서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적 “사건”인 것과 같이 묘사하였으므로 이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사실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영화의 감독을 담당한 김한민, 각본을 담당한 전철홍, 소설 명량의 작가 김호경에 대해서는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영화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김한민, 전철홍, 출판사인 21세기북스와 김호경에 대해서는 배설장군의 자손들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검토한 법리는 실미도와 서울1945가 민사사건이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대법원이 설시한 기준들이지만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상영중지가처분 기타 조치에 대한 검토
현재 상영중인 영화 명량에 대해서는 후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영중지가처분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영화가 상영 막바지에 이른 점 등을 보았을 때 실제 가처분이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재판실무상 영화의 상영중단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영화 상영전에 해당 정보가 있었다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 후 상영하라는 명령이 가능하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를 다룬 “그 때 그 사람들”의 경우 문제가 되는 장면들의 일부 삭제 처리 후 상영하라는 법원명령이 있었습니다.) 명량의 경우 이미 개봉 이후 상영 막바지에 이른 영화이기 때문에 상영중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PR효과(언론을 이용하여 영화의 내용에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노리고 상영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술한 PR효과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추가조치들은 각 언론사에 문중의 입장을 표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일, 영화사와 감독과 출판사 및 작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자료를 언론에도 배포하는 일, 가처분이나 명예훼손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이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결과와 관계 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가급적 영화가 상영되는 기간 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본 영화를 접하면서 문중 후손들의 격앙된 감정은 충분히 공감되는 바입니다. 다만 제3자인 일반인들과 재판부의 동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영화사측을 상대로 하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을 적시하여 부당하게 허위사실을 들어 왜곡한 내용을 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그릇된 묘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영화사 측의 묘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가적 상상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고 이를 접한 사람들이 진실인 것으로 믿게 만들어 실존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용이하게 입증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자료>

소설영화(명량)관련 비상대책위원회

대구 연락처: 배재회 부위원장, (우)704-91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486-2번지 2층053-623-4091 (Fax 053-625-0580)
서울 연락처: 배재권 회장, (우) 110-053,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9 사학회관 803호 전화 02-736-6488 02-737-6488 (Fax 02-723-6573)
성주 연락처: 배재룡 (010-9129-2899)
홈페이지 http://cafe.daum.net/1525-
(까페지기: 배윤호, sowoo6500@hanmail.net)
http://cafe.daum.net/seungsanbae
(까페지기: 배재기, baejaeki@daum.com)

수 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귀하
발 신 : 소설영화(명량)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제 목 : 영화 (명량)의 상영 중지 조치 요청

1. 귀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영화 “명량”에서 역사적 실존 인물인 배설장군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과 10만여 자손들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3. 영화 “명량”의 상영으로 배설장군의 역사적 진실과 상관없는 허구의 악역으로 사회에서 회자되는 배설장군과 자손들에 대한 악성 폄훼 비하 등의 발언으로 자손들은 일상의 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져있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조롱과 왕따를 당하여 면학과 병영생활, 회사 업무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 삼중의 고통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4.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왜곡하여 창작한 문화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회적

폭력이 되었고 그 자손들은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5. 이러한 잘못된 영화의 상영은 저희 문중 자손들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국가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폭력문화를 생산하고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6. 사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10만여 자손들과 50만 문중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 는 물론 사회 갈등을 막기 위해 즉각 영화“명량”의 상영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처 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정중히 요청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영화‘명량’에 나오는 배설장군은 역사적 실존인물이며 10만여 직계자손과 50만여 문중 자손이 생존해 있음.

2. 영화‘명량’을 본 사람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영화의 주인공 이순신장군을 부각시키기위해 사용된 배설장군의 허위 악역으로 인해 “왜군보다 배설이 더 죽일놈”이라고 인식하고 말하고 있음.

3. 현재 어린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군대에 간 자손 장병들은 군대 내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집으로 호소해 오며 배설장군의 문중 후손들이 집성으로 사는 마을 자손인 노인들은 깊은 시름에 젖어 일상에서 식욕과 의욕을 상실하고 있음

4. 영화‘명량’에서 등장하는 배설장군은 명량해전이 있기 보름 전에 오래된 수질로 말미암아 병가를 얻어서 요양차 고향으로 갔기 때문(난중일기, 선조실록 기록)에 명량해전에서의 등장은 전혀 허구이며 영화에 나오는 배설 관련 내용 전부는 고증이 없는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임.

5. 배설장군의 10만여 자손들과 단본인 경주배씨 문중 50여만 자손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장군의 부각을 위한 배설장군의 허위 악역 때문에 생겨난 것임.

참조 - (배한동위원장님이나 배재영부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난중일기의 기록날짜와 전쟁날짜, 선조실록의 기록된책 을 정확히 넣어 주세요)

2014년 9월 일

소설 영화 명량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경주배씨 성산공파 서암공문중

경주배씨 성산공파 전국종친회

경주배씨 분성공파 전국종친회

경주배씨 달성공파 전국종친회

경주배씨 흥해공파 전국종친회

(더 추가할 종친회가 있으면 추가)

[SNS 대응용] 영화'명량'과 관련하여 극중 인물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제기한 영화'명량'의 상영중지요청과 관련하여 후손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밝히는 입장.

영화'명량'에 나오는 극중 인물인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상영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조작 된 영화 상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후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영화가 한 참 방영 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늦은 감이 있지만, 조작 된 명량 영화로 인하여 배씨 후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작 된 명량 영화 상영중지요청이라는 진정어린 호소를 하였다.

명량 영화사는 영화를 창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 아래, 역사의 인물을 허위, 과장, 조작하여 상업화와 흥행화에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예술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한 삶에 있다. 이 영화를 관람한 후에 누구나 공감하고 느낌을 받아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영화 창작과 예술성의 진실이다. 그런데 명량 영화는 역사의 실존 인물을 등장 시켜 허위 조작하여, 역사의 인물인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 했을뿐만 아니라, 현재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도 적잖은 피해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명량 해전 당시 배설 장군이 일본군 간첩이었고, 이순신을 암살하고, 거북선을 불태우고 도망을 갔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후손들이 나서서 조작된 명량 영화 상영을 중지 하겠는가?
지금 이 나라는 허위, 조작에 대하여 진실을 찾고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일본이 안중근을 테러범이라고 하여, 온 국민이 안중근은 테러범이 아니고 대한민국 군인이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정당한 전투 행위를 실행한 독립군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
정신대, 종군 위안부, 등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희생 된 우리 선조들을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신을 똑 바로 차려야 한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데 대하여 지금도 우리는 전쟁아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세우고, 종군위안부의 소녀상을 세우고, 이순신 동상을 세우고, 독도에 군인을 배치시키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해야 하는가?

이 나라에 역사를 조작하는 소설가, 작가, 영화감독, 칼럼리스트, 우매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려 되는 것은 조작 된 명량 영화를 본 우매한 국민들이 “일본 간첩 배설 장군 죽이자”하는 글을 사용하여 배씨 후손을 음해하고 난도질 하여, 지금까지 이 나라가 지역 감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첨가하여 씨족 감정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 된다.

미국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되어 배설 장군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조작 된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 조작 된 영화가 인기가 좋고 돈벌이가 잘 되어 일본에서도 상영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분통터질 일이다.

이 조작된 명량 영화를 본 일본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왜냐하면 칠천량 전투 당시 왜군이 조선 수군을 전멸시켜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과 전선12척과 2천여명의 수군을 죽이지 못했다. 배설함대의 전선12척만 파괴시켰다면, 이순신이 수군통제사가 될 수 없었고, 명량해전에서도 패하지 않았을텐데..... 배설함대의 전선12척만 파괴시켰다면, 유네스코에 “일본이 조선수군 전멸시켰다”라는 기록을 등재시켰을텐데.....

그런데 명량 영화에 배설 장군이 일본의 간첩으로 등장 한다. 이조작 된 영화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 할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다. 우리가 배설장군의 후손이기 이전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명량의 조작 된 부분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 할 길이 없다.

배설 장군의 업적에 대한 진실을 우리 후손이 밝혀 주지 않으면, 조작 된 영화를 본 사람들과 조작 된 소설과 조작된 글을 읽은 사람들이 조작 된 내용의 허위를 사실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우리 후손들은 이 조작 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분연히 일어섰고, 조작 된 영화의 상영 중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배씨 후손들은 예술창작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과 스트레스와 불행의 사회적 피해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영화‘명량’은 상영전 홍보를 통해서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는 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고증이 전혀 안도었으며, 창작이라는 조작으로 인해 후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영화사측은 우선적으로 잘못에 대한 인정과 함께 사과를 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 조처를 취해야 하나, 영화사측은 지금까지 사과한마디 없이 ‘후손들에

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 '영화로만 보아달라'.'영화를 매도하지말라'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주장만 하고 있다.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영화상영중단의요구는 영화 '명량'의 상영으로 인해 발생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사측은 즉시 영화 상영을 중지하고, 발샌된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영화 제작사를 옹호하는 개인과 단체가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역사의 인물 묘사로 인하여 분쟁이 다소 있었다. 창작의 자유라는 명목아래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상업화 흥행화를 위하여 역사적 인물을 조작하고 매도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못 된 행위이다. 이 명량 영화는 영화의 본질을 망각한 채 배설장군 한 사람을 죽이고 흥행에 성공 하였다.

어떤 이유로도 영화로 인하여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 국가로서 법치국가이며 한사람의 행복을 지향하는 복지 국가이다. 영화도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한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이번 명량 영화 조작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 된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 배씨 후손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분들께서는 후손들의 주장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함께 앞장 서 주시길 당부 합니다.

'농부가 잡초를 뽑는 것은 알곡을 거두기 위한 것이며 농부의 심정으로 글을 쓰고 창작을 하는 것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행복을 해치는 작품은 잡초에 지나지 않는다 잡초에게는 제초제가 있다. 잡초는 두 계절을 살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영화'명량'조작관련 대책위원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명량" 소설작가와 영화 제작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성실히 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소설 이순신>의 작가께 답한다.

소설 이순신의 작가는 영화 명량에 관한 우리 문중의 <명예 훼손 및 허위 사실>이라는 이의 제기를 7 개 쟁점으로 분류하여, 그중 6개 쟁점은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하여 우리의 입장에 동의한 점에 감사드린다. 영화와 소설이 허구라고 하지만 역사 소설의 실존인물 만큼은 고증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공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에 대한 폄하나 비난등 사실왜곡은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명량의 작가와 감독이 이 영화를 스스로 역사 고증에 충실했다고 언론에서 둘러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양심불량 행위이고, 종의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귀하께서 제시한 쟁점에 대한 후손의 입장을 3가지 밝힌다.

1. 쟁점 5에서 작가는 배설장군의 '수질로 인한 휴양을 탈영'으로 간주하고 있다. 휴양과 탈영은 이 영화의 쟁점이 아님을 작가도 잘 알 것이다. 난중일기는 이 순신 장군이 분명히 8월 30일 육지(뭍)로 내려 치료하라고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인 9월 2일에는 '배설이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병세가 위중했던 장군의 병세가 어떻게 이틀 만에 치유가 가능한 일인가? 휴양 시 장군이 벽파진에 머물러 치료할 수 있다면 병가 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배설장군의 병세는 1595년 진주목사에서 경상 우수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수질이있다는 것이 선조실록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결국 이순신은 성급하게 권율(도원수)에게 배설 장군의 도망과 체포를 건의하여 고향에서 치료중인 배설장군을 비겁한 도망자, 병영을 이탈자라는 죄인으로 몰아 버렸다. 결과적으로 이순신은 장군이 신병치료 후 병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마저 막아 버렸다.
2. 이 순신 장군이 배설 장군에 대한 불만과 갈등은 임란시의 역사적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순신은 자신이 당시 파직된 원인을 수군통제사 원균과 그 휘하 배설장군 등이 자신을 모함한 결과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배설 장군을 불신, 시기하는 장면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수군내의 이 순신, 권율 진영과 원균, 배설로 이어지는 진영 간의 갈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한동안 이 순신 관련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통제사 원균까지 악역의 역적으로 묘사하였다. 원균 장군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 되자 이번 명량 영화에서는 배설 장군을 최악의 악역 캐릭터로 만들어 버린 결과이다. 이순신의 영웅화에 대한 원균 장군에 대한 역할과 입장 옹호는 역사학계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어 공로가 인정되었다.(이정일, 원균론, 역사 학회보,

1981)

3. 배설의 당시 처형은 임란 후 민심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 선조는 자신이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친 죄는 보지 않고, 패전의 책임을 배설 장군 등에게 물었던 것이다. 역사에서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친 무능한 선조의 행각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패전에 대한 책임만을 물은 것이 당시 조정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다행히 선조는 재임 중 1605년 배설장군을 선무 원종 1등 공신에 책록함으로서 임란시의 공적과 함께 그에 대한 도망과 모반이라는 죄과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입증하였다. 더구나 배설장군은 임란시의 공적으로 가선 대부 호조참판(광해군)과 자헌대부 병조판서(고종)로 증직됨으로서 역사는 그에 대한 단죄가 잘못 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재심이 청구되어 사면 복권 된 배설 장군을 다시 병영 이탈 등을 내세워 폄하하는 행위는 앞으로 일체 중지하여야 한다.

소설 영화 <명량> 비상 대책 위원회　　배한동

명량 영화와 명량 소설에 등장시킨 배설 장군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조작으로 인한 배씨 문중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 (사실 증명) 자료 : 배재영 (행정학 박사) 작성

1. 사건 개요 :

"명량" 소설과 영화는 정유재란 시 조선 수군의 이순신 부대와 왜군의 전투장면을 묘사하였다. "명량" 소설과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나타내기 위해 명량 해전에 참전하지 않은 당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하 배설 장군이라 함)을 등장시키고 배설의 활약을 허위, 날조하여 선무원종1등 공신인 배설 장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50만의 배씨 성을 가진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공하여 고통과 아픔을 가하였다. 또한 역사를 왜곡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역사 인물들을 등장시켜 서로 대립하게 함으로써 후손들간의 갈등을 크게 조장시켰다.

배설 장군에 대한 명량 소설과 영화의 허위와 조작은 극에 달하여 참으로 눈을 뜨고 보고,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며, 그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후손들이 불행을 겪고 있다.

"명량" 소설과 영화는 배설장군에게 하급자가 상급자를 죽이거나 명령 불복종하는 하극상을 범하게 하였고, 배설 장군이 전시 상황에 기생과 놀아나는 주색잡기에 빠진 장면을 연출시켜 명예와 인격을 크게 추락시켰다.

또한 "명량" 소설과 영화는 배설 장군 죽이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천인공노 할 조작을 한다. 배설 장군이 왜장에게 매수되어 간첩 활동을 하는 첩자가 되어서 통제사 이순신을 암살하게 하고, 조선의 위대한 거북선을 불태우는 매국노가 되게 한다.

명량 소설과 영화는 역사적 실제 인물인 배설장군을 이용하여 허구와 조작으로 그의 업적과 인격과 명예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였으므로. 배씨 문중과 후손들은 끓어 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이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배씨 문중에서는 허위와 조작 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배설 장군의 훼손 된 명예를 복원하고자 하며, 왜곡 된 역사를 진실인냥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또한 "명량" 소설과 영화가 배설 장군에 대하여 허위 조작한 내용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에 처한 후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명량" 소설과 영화의 작가와 제작자, 제작 회사 등 관련자와 단체에게 소송를 제기하고자 한다.

2. 관련자 (단체)

가. 명량 영화 감독(각본) : **김한민**(1967년11월5일생, 동국대 대학원 연극 영화과 졸업)

나. 명량 소설 작가 : **김호경**(1962년생,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다. 영화 제작 회사 : **CJ 이재현 회장**, CJE&M 영화사업부

3. 소송제기자

가. 배씨 대종회

나. 성주성산 배씨 문중

다. 성주성산 배씨 서암공파 문중

4. 관련 사실 증명

가: 영화 “명량”은 김한민이 CJE&M 영화사업부의 지원을 받아 각본하고 감독하여 제작하였으며, 2014.07.30 개봉하였고 15세이상이 관람가능하고 128분간 전국 지정 영화관에서 방영 되었다.

나. “명량”소설은 김호경이 “명량” 영화 각본을 소설화 하여 2014년 7월 18일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5. “명량”영화 / “명량”소설의 문제점 분석

가. 명량의 문제점 요약

“명량”영화 / “명량”소설 (이하 “명량”이라 한다)은 정유재란 당시 죄인이 되어 백의종군 하던 이순신이 왜군의 야간 기습공격에 의한 참패를 당한 칠천량 전투에서 다시 복직 되어 당시의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 구사일생으로 살려 낸 전선 12척과 어선 1척으로 울돌목에서 왜군과 전투하여 승리한 내용이다.

명량해전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실존 인물인 배설 장군(당시 직책: 경상우수사)을 등장시켜, 교묘히 허위하고 과장하고 조작하여, 원종1등공신록에 책정된 역사적 인물을 폄하하여 상업화 흥행화 돈벌이 수단에 사용 하였다.

그리고 악랄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배설 장군을 악인으로 묘사하여 모욕하고 명에를 훼손시킴으로써 그 후손들의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

나. 명량 소설(영화)가 배설장군 관련하여 허위, 조작한 내용

“명량”은 명량 해전의 전투에 대한 것으로써 명량해전에 참전하지 않은 배설장군을 등장시켜 그의 업적을 과소 평가하고, 사실을 왜곡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설장군과 관련하여 허위, 조작 된 내용을 삽입하여 역사를 왜곡 하였다.
배설장군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허위, 조작 된 내용을 요약한다.

⑴ 칠천량 전투 패배의 원인을 배설 장군에게 전가 시킨다.

배설 장군은 1597년(선조 30) 2월 이순신이 죄인이 되어 관직을 삭탈 당하고 원균이 수군통제사가 되자, 선조에 의해 다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보직 되어 정유재란을 맞이 한다.

칠천량 전투 (1597. 7. 15,음력)에서 왜군의 기습 공격에 의한 조선 수군의 처절한 패배는 조선 정부의 무능과 군사력 열세와 군대 지휘관들의 지휘력 부재에서 빚어졌다.
칠천량 전투에서 다행히 배설 장군의 분투로 전선 12척을 구해 낸 후 한산 본영에 도착하여 선조의 명령인 청야 작전을 실시하고, 추격하는 왜군과 접전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다. 그러나 영화는 배설 장군이 도망함으로써 조선 수군이 패한 것으로 묘사하고 그 책임을 배설 장군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

칠천량 해전 현황

칠천량해전 일시 : 1597. 7. 15(음력)　　장소 :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 해협

전과 : 원균이 지휘한 조선수군 200여척 전선 거의 전멸,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 전선 12척을 이끌고 후퇴, 원균 장군은 춘원포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서 전사



전투개요

1597년(선조 30) 7월 15일 칠천량에서 벌어진 해전이다. 임진왜란 중 일본은 명나라와의 화의가 결렬되자 1597년 조선을 재차 침략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7월 일본은 앞서 조선 수군에게 패배하였던 한산도를 다시 공격하기 위하여 먼저 정탐으로 가나메 도키쓰라[要時羅]를 밀파하여 조선군을 유혹하니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은 원균을 불러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였다.

이에 원균은 전병력을 동원하여 7월 7일 다대포(多大浦)에서 일본군의 빈 군함 8척을 불사르고 서생포(西生浦)에 이르러 적의 주력함대를 만나 패전하고 일부 군사는 풍랑으로 표류하는 지경이 되었다. 간신히 가덕도(加德島)에 당도한 원균은 다시 일본군의 복병을 만나 막대한 손해를 입고 거제도 앞 칠천에 정박하고 말았다. 이 전투의 패전으로 사기가 떨어진 원균은 도원수 권율에게 패전의 책임을 추궁당하여 태형(笞刑)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에 원균은 불만과 실의에 빠져 군사를 돌보지 않고 전략상 해전에 불리한 칠천에서 이진(移陣)도 않고 그대로 있다가 다시 일본군 함대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일본군은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가 전함 수백 척을 이끌고 부산에서 출진(出陣)하고,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시마즈 다다유타[島津忠豊] 등의 육군도 칠천으로 향하였으며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의 수군까지 합세하여 공격하였다.

결국 원균은 일본군의 수륙양면공격을 받아 대패하고 자신도 육지로 탈출하다가 전사하였다. 이 해전의 승리로 일본군은 한때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조선군은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수사 최호(崔湖) 등의 용사가 전사하고 경상우수사 배설(裵楔)만이 생존하여 12척의 전함을 이끌고 한산도로 후퇴하여 청야 작전을 감행하고 한산도 주민을 안전지대로 철수 시켰다.

⑵ 죄인에서 수군통제사가 된 이순신과 경상우수사 배설과의 관계를 악화 시킨다.

선조는 칠천량 전투 참패 후에 조선 수군의 지휘권을 배설 장군에게 맡기고자 하였으나, 당파를 일삼는 조선 조정 일부 대신들은 칠천량 전투에서 생존한 배설 장군에게 패배의 모든 책임을 전가 시켜 처형을 결의 하였고,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 중에 있는 이순신을 세운다.
배설 장군은 칠천량 전투 후에도 살아남은 조선 수군을 지휘하며, 전투태세를 유지 하였으며, 이순신이 수군통제사가 되자, 이순신에게 조선 수군의 지휘권과 전선 12척을 인계하고 계속 임무를 수행 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명량해전 15일전에 이순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순신의 제가를 받은 배설 장군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살아남은 조선 수군과 전선 12척을 이순신에게 맡기고 바다를 떠나 육지로 내려온다.
배설 장군은 1597년 음력 8월 30일 부로 경상우수사로서의 임무를 사실상 종결한다.
그리고 명량 해전은 1597년 음력 9월 15일 시작 된다.

⑶ 작가는 배설 장군이 수군통제사가 된 이순신에게 불복종하게 하고, 대적하는 파렴치한 장군으로 만들기 위해 악랄한 수법으로 허위 조작하여 흥행과 상업화에 이용한다.

- 배설 장군을 전시 상황에 기생과 놀아나는 주색잡기하는 장면을 연출시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하고, 전투의지가 없는 **파렴치한 장군**으로 묘사한다.
- 배설 장군을 이순신에게 대적하여 **하극상을 하는 장군**, 매사에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부하들의 **전투의지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장군**으로 만든다.
- 급기야 조작은 극에 달하여 배설 장군이 왜군의 장수에 매수 되어 간첩 활동을 하는 **간첩장군**으로 연출 시킨다.
- 간첩이 된 배설 장군이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이순신을 암살하는 장군,** 명량 전투에 참전시킬 **거북선을 불태우는 매국노 장군**으로 만든다.
- 배설 장군의 부하였던 거제 현령 안위가 간첩이 되어 배를 타고 도주하는 배설 장군을 활을 쏘아 죽이려는 하극상을 또 한번 연출 한다.
- 마지막으로 왜장의 입에서 배설 장군이 왜장에게 매수 되어 간첩 활동을 하였으며, 이순신의 암살과 거북선을 불태운 것이 배설 장군이 소행인 것을 확인 시키며, 왜장의 입으로 조선 수군을 살려 낸 배설 장군을 **“쥐새끼”**로 표현 하면서 배설 장군에 대한 허위와 조작의 기록은 종결 된다.

6. “명량”은 배설 장군을 상업화 흥행화에 이용하여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를 기록(제작)하여 배설 장군의 명예 훼손과 함께 그 후손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7. 명량 소설의 허위, 조작 내용에 대한 분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난중일기, 징비록, 충훈록(忠訓錄), 경산지(京山誌), 성산지(星山誌), 배씨 진사공파 족보, 공신록, 배덕문실기, 백과사전, 기타

	조작 내용	조작 내용에 대한 분석
17쪽 * 배설 장군의 칠천량 전투 사실 왜곡	그 갑작스럽고 가멸찬 공격에 원균의 명을 받고 출병한 경상우수사 배설裵楔은 한번 싸워 볼 각오도 갖지 않은 채 닻을 올리고 줄행랑을 쳤다.	배설 장군은 1597년(선조 30) 2월 이순신이 죄인이 되어 관직을 삭탈 당하고 원균이 수군 통제사가 되자, 선조에 의해 다시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 임명 받아 정유재란을 맞이하여 왜적과 수차례 전투를하고 칠천량전투에 참가하여 전멸하는 조선 수군을 구해 낸다. # 1차 부산포 공격 **- 6월18일(양력 7월30일) 안골포와 가덕도 앞바다에서의 전투상황** 조정에서는 왜군의 후속 부대가 올 것이라는 첩보를 듣고 수군통제사 원균 장군에게 즉각 부산 지역으로 출동하여 왜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 하였다.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부산 공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원균 장군은 육군이 먼저 안골포의 왜군을 격파한 이후라야 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출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과 권율 장군의 성화에 못 이겨 출동이 불가피 하였다. **원균 장군의 조선 함대는 1597년 6월 18일 한산도를 출항 하였다.** 그러나 왜군은 육지에서 조선 수군의 이동을 탐지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조선 수군의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전투를 회피 하였다. 따라서 조선 수군은 왜 수군의 수륙합동 작전에 의해 안골포와 가덕도 지역에서 별다른 전공도 없이 보성 군수인 안홍국이 전사하는 피해만 입고 한산 본영으로 철수 하였다. 그리고 안골포의 왜군을 지상에서 먼저 공격해야만 수군 공격이 가능하다고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마치 도원수 권율이 육군지원을 하지 않아서 부산 공격을 못하는 것처럼 장계를 올린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권율은 원균이 있는 사천까지 가서 원균의 부산 공격 회피를 추궁하였다. 이에 원균은 육군의 안골포 공격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장계 내용의 부당함과 조정의 지시를 어긴 죄명으로 원균을 형틀에 잡

		아 묶고 곤장 50대를 때렸다. 이것이 **원균의 곤장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조선 수군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뻔 하였다.** **# 2차 부산포 공격** **7월7일(양력 8월19일) 부산포 앞바다에서의 전투상황** 원균 장군은 전 수군과 함께 부산의 왜군을 공격하였다. 6월18일 1차 부산포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함대는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을 선봉장으로 하여 한산도에서 견내량을 지나 칠천도, 영등포, 가덕도를 거쳐 다대포 앞 바다에 이르렀다. 왜선 8척이 보였다. 왜군들은 조선 함대를 보자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 하였다. 조선 수군은 힘들이지 않고 왜선 8척을 불태 울 수 있었다. 이에 사기가 충천한 조선함대는 부산포를 향해 계속 공격하였다. 부산만에 접어들자 원균은 왜군의 전선이 대마도에서 북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균은 부산포 공격을 뒤로 하고 북상하는 왜군의 전선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조선 함대가 공격을 시작하자 왜 선단은 전투를 회피하고 대마도와 서생포쪽으로 퇴각하였다. 때마침 불어닥친 풍랑으로 조선 함대가 분산 되고 지휘가 어려워 추격을 중단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풍랑으로 7척의 전선이 풍랑과 조류에 밀려 서생포로 떠 내려가 왜군에게 섬멸 당하였다. **(난중일기 7월 16일자에 살아서 탈출한 세 남이라는 종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투로 13척의 배와 수백 명의 수군이 전사하였다.** **# 3차 부산포 공격** **7월15일(양력 8월27일) 부산포, 가덕도, 영등포, 전투 상황** 원균 장군은 2차에 걸쳐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였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악천후로 인한 전투 손실과 공격의 실패로 또 다시 명예가 실추 되자. 명예 회복을 위하여 재차 부산포 공격을 무모 하게 감행 하였다. 7월14일 새벽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조선 함대는 1, 2차 공격 시와 마찬가지로 경상우수사 배

		설 장군을 선봉으로 또 다시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기 위해 북을 울렸다. 조선 수군의 지휘관은 통제사 원균, 경상우수사 배설,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조방장 배흥립과 김완 등 이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어떠 하였을까? 조선 수군의 전선은 판옥선 120여척과 협선130여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만5천 여명의 수군이 있었다. 사기는 원균 장군의 곤장 사건과 일주전의 공격 실패로 인하여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반해 왜군은 600여척의 대 선단과 141,490명의 왜군이 부산에 입항해 있었으며 사기가 충천 하였다. 당시 조선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왜군의 전투력 수준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무형전투력도 왜군을 능가하지 못한 상태 였다. 조선 수군이 부산포를 공격을 위해 한산도에서 출항하자 왜 수군은 웅천, 안골포, 가덕도로 이어지는 육지의 첩보 부대 연락망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왜군의 수군은 부산진에 약 600척의 전선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왜군의 육군은 거제도, 가덕도, 웅천, 안골포, 김해, 죽도, 부산포와 연계 되어 있는 왜성을 근거지로 정찰대를 운용하여 조선 수군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다. 원균 함대는 이날 정오쯤 되어 절영도를 눈 앞에 두고 부산포를 향하고 있었다. 이 때 절영도 남쪽에서 왜 전선이 갑자기 나타났다. 왜군은 쾌속선을 타고 빠른 속도로 조총을 쏘아대면서 공격해 왔다. 이에 선봉장인 배설장군의 함대가 재 빠르게 대응하여 반격하자 왜군은 공격을 멈추고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 하였다. 왜군은 조선 수군이 공격하면 후퇴하고, 멈추면 공격하는 기만 유인 전술을 구사하며 조선 수군을 지치게 만들었다. 거듭되는 왜군의 기만 전술에 농락 당한 조선 수군의 사기는 저하 되고 수군은 지쳐가고 있었다. 배설장군과 이억기 장군, 최호 장군은 원균 장군과 합세하여 여세를 몰아 적을 추격 하였다. 그러나 왜군의 전선은 임진왜란 당시의 전선이 아니었다.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 2차 침략을 준비하면서 왜 수군의 전투력을 보강 하였다. 그리고 해전에서의 전술도 보완 하였다. 왜 수군의 전투력

		수준은 높았다. 왜군은 조선 수군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지치게 만들었다. 이에 전라우수사 이억기장군이 원균장군에게 한산도로의 철수를 건의 하였으나 원균장군은 그 건의를 묵살하고 계속 공격을 명령 하였다. 왜군들은 공격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조선수군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고, 왜군은 조선 수군이 망망대해가 아닌 육지와 섬 사이의 좁은 수로로 들어오게 유인하였다가 수륙 합동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조선 수군이 왜군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원균은 후퇴 명령을 내리고 재 빨리 가덕도로 철퇴 하였다. 왜군은 후퇴하는 조선수군을 뒤쫓아 계속 공격을 가하자 어절 수 없이 가덕도를 떠나 아군의 진지가 있는 거제도로 철수 하였다. 이 때가 저녁이었다. 이 날은 흐리고 비가 와서 날이 어두워지자 주위가 캄캄한 암흑이었다. 원균장군은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거제도 북단의 영등포 해안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식수와 나무를 보충하기 위해 병력을 거제 섬에 상륙시켰다. 병력이 섬에 도착하여 나무와 물을 보충 할 때에, 왜군은 조선 수군이 오기를 기다리며 잠복해 있다가 일제히 기습 사격을 감행 하였다. 야간 매복 기습 사격에 우완 좌왕 정신을 차리지 못한 조선 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많은 병력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였다. **이에 원균장군은 급히 함대를 수습하여 아군의 진지가 있는 칠전도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20척의 전선이 파괴 되고 400여명의 수군이 전사 하였다.** **칠전도에서의 상황** **7월 15일 밤** 통제사 원균 장군은 부산포의 왜군을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비를 맞으며 영등포에서 퇴각하여 칠천도로 퇴각하였다. 칠전도에 도착한 원균 장군과 예하 지휘관들은 밤새도록 차후 작전을 위하여 작전 회의를 개최하였을 것이다.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 다시 왜 수군을 공격 할 것인가? 아니면 한산 본영으로 철수하여 시간을 가지고 전투력을 보강한 후에 육군과 합동하여 연합 작전으로 공격 할 것인가? 당시 원균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하였을 것이다.. 왜군과의 전투를 회피하고 한산도로 퇴각

		하자니 도원수 권율의 곤장이 생각 난다. 왜군을 공격하자니 원균 함대만으로는 승산이 없다. 패배 할 것이 뻔하다. 침묵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섣불리 나서서 계책을 논하는 장군이 없었다. 패전 상황에서 자칫 말을 잘 못 했다가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장군들은 침묵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 수군의 장군들에게는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듯이 죽음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얼마간의 침묵을 깨고 **전투의 선봉장 임무를 수행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 말문을 열었다.** “함대를 전투에 유리한 한산도 본영으로 철수시켜 왜군의 공격을 잠시 피한 다음 전투력을 복원하여 부산포로 재 출병 하는 것이 조선 수군을 살리고 조선을 살리는 길입니다. 칠천도는 물이 얕고 협착(狹窄: 좁고 얕다)해서 전선을 운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니 함대를 한산 본영으로 옮겨 차후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의하면** **배설은 그 전부터 원균이 반드시 패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여러번 간 했으나 이 날은 칠천도 물이 얕고 협착(狹窄 : 좁다)해서 배를 운행하기 불편하니 다른 곳으로 옮겨 진을 치라고 말했으나 원균은 전혀 듣지 않았다.** 裵楔(先是屢諫均必敗 **(배설선시누간균필패)** 是日又言**(시일우언)** 漆川島狹窄**(칠천도협착)** 칠천도는 경상우수사가 관장하는 섬으로 배설장군은 이곳의 지형과 물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예하 장군들도 현명한 판단으로 원균에게 한산도로의 철수를 건의 한다. 원균은 한 동안 말이 없다. 명예냐? 죽음이냐? 원균장군은 평소 신임하고 신뢰하고 있는 배설 장군의 계책이 지당하였지만, 당시의 패전으로 또 선조와 조정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권율로부터 또 다시 곤장 세례를 받거나 이순신처럼 투옥 될 것을 생각하니 한치 앞을 생각 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원균은 예하 장군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고 현 위치에서 휴식을 하다가 날이 밝으면 공격 할 것을 결심 하였을 것이다.한다. 그러나 왜군은 조선 한 대를 전멸시키기 위해 영

		등포에서 퇴각하는 조선 함대를 추격하고 있었으며, 원균의 지휘부가 회의를 하고 있을 동안에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 함대는 왜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하고 만다.** **임진왜란의 역사는 당시 원균 함대가 패전하기 직전의 상황과 패전 당시의 전투 상황을 묻어 두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칠천량 전투의 아픔은 묻어 버리고 이순신의 활약에만 초점을 맞추어 버렸다. 자연히 칠천량 전투 상황은 조선의 치욕적인 패전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당시 전사하고 희생 된 조선 수군과 죽음에서 살아 난 배설 장군과 전선 12척에 대한 사실은 역사의 기록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생존한 배설 장군은 칠천량 전투 패배의 책임을 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원균장군은 배설 장군의 계책을 뒤로 한 채 칠전도에서 왜군과 싸울 것을 명령 하였다. 원균장군의 고뇌를 잘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뜻을 같이 한 배설 장군과 휘하 장수들은 통제사의 명령에 따라 각자 전투 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작전 회의를 마친 후 예하 장군들은 날이 새면 왜군의 공격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선을 점검하고 수군을 격려하엿을 것이다. 조선 수군들은 적과의 전투에 시달리며 150Km 정도의 거리를 쉬지 않고 노를 저었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들어 있었을 것이다. **이 때가 7월 14일(양력 8월26일)로써 보름 전날 야밤이었지만 비가 내려 달은 보이지 않고 앞은 캄캄 하였다.** **칠전도 전투와 조선수군의 피해 (조선 수군을 살려라!)** **7월 15일 왜군은 조선 수군이 한산도에서 부산포로 공격을 감행하자 육지에 배치한 정탐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유인 전술로 조선 수군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며 힘들이지 않고 조선 수군을 퇴각 시킨 왜군은 수륙 합동 작전을 가 하면서 조선 수군에 압박을 가하였다. 왜군의 작전에 말려 든 조선 수군은 마침 불어닥친 거센 바람과 비로 인하여 왜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거제도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이에 추격전을 벌이던 왜군은 조선 수군이 칠천도

		에 집결하자 추격을 멈추고 전투력을 집결 시킨 후 다음 공격을 계획 한다.
명량 소설 20쪽	저곳에 있는 12척도 배설이 도망쳐 나왔기에 겨우 보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많았으나 배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나를 비겁하게 하려거든 저 12척을 바닷속에 침몰시켜라. 그렇지 않을 게면 더 이상 입방아를 찧지 마라. 내가 조선 수군을 끝까지 지켜낸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전장에서 도망친 죄를 물어 관직을 박탈하지 않은 것은 조정에서도 그의 공적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이순신은 그러한 배설이나 조정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7월15일** 이 날은 비가 내렸다. 밤이 되면서 어둠이 짙어져 주위를 분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군은 비가 내리는 악천후의 유리한 조건 속에서 야음을 이용한 포위 작전을 시행 하였다. 1천여척(어떤 문헌은 1천5백여척이라고 한다)이 판옥선 등 큰 전선 조선 함대를 첩첩이 포위 하였다. 그리고 한산도로의 진출로를 봉쇄하였다. 기동력이 좋은 작은 배를 조선 수군의 판옥선 사이로 침투시켜 공격 개시 신호가 떨어지면 일제히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왜군의 일부 병력은 칠천도와 거제도에 상륙하여 매복을 하였다. 왜군은 수륙 합동 작전 태세를 갖추고 공격 개시 신호를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7월 16일 새벽** 조선 수군이 깊이 잠든 사이에 어둠을 이용하여 사방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 하였다. 왜군의 조총 소리와 대포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고, 왜군의 불화살은 불꽃 놀이를 하듯 쉴새 없이 날아 다녔다. 적의 함성과 기세는 산을 무너뜨릴 만큼 웅장 하였다. 적의 공격에 대항하여 조선 함대는 사력을 다하여 대항 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 했다. 진퇴양난에 빠져 버렸다. 원균 장군과 배설 장군, 이억기 장군, 최호 장군은 각자의 휘하 부대를 지휘하며 왜군과 치열하게 싸운다. 왜군의 포위망을 뚫어라. 전투력이 우세한 왜군을 격퇴 할 힘이 부족하다. 끝까지 싸워라! 원균과 배설, 이억기, 최호 장군들은 외친다. “조선 수군을 살려야 한다. 한산 본영을 살려야 한다.” 이 전투에서 수군통제사 원균과 경상 좌수사 이억기, 충청 병사 최호는 장렬히 전사하고, 경상 우수사 배설은 전선 12척과 함께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한산 본영에 도착한 후 청야 작전을 시행하고 적의 추격을 피해 회령포로 후퇴한다. **- 선조 실록에 기록 된 내용을 보자.** **▶선조 90권, 30년(1597년 7월 22일(신해) 2번째**

		기사 선전관(宣傳官) 김식(金軾)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다 "15일 밤 2경에 왜선 5~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 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자 우리 나라 제장들이 장졸간에 병선을 동원하여 어렵게 진을 쳤는데 닭이 울 무렵에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왜선이 몰려 와서 서너 겹으로 에워싸고 형도(刑島) 등 여러 섬에도 끊없이 가득 깔렸습니다. 우리의 주사(舟師)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 지역 추원포(秋原浦)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元均) 및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했는데,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니 왜노 6~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과 옥포(玉浦)·안골(安骨)의 만호(萬戶)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전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 대사헌(대사헌) 김간(김간)이 쓴 원균 행장기에 의하면** 7월16일 날이 밝자 우리 배에서 불이 일어나므로 원균은 즉시 바라를 쳐서 변고를 알렸으나 그 때 돌연히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 오고 적탄이 비오듯이 날아 왔다. 적의 함성은 하늘을 진동하고 그 기세는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말아 올릴 듯하니 도저히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먼저 닻을 거두어 작전상 후퇴하는데 우리 수군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다. 원균 장군도 할 수 없이 배에서 내려 작전상 물으로 올라 갔는데 매복되어 있는 6-7명의 적이 달려 오리지간(五里之間)을 싸우다 끝내 힘이 모자라 목을 베어 갔다.

		▶선조수정실록 31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1일(경인) 2번째기사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리니 원균과 이억기, 최호가 전사하다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렸다. 통제사 원균(元均)이 패하여 죽고 전라 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 수사 최호(崔湖) 등이 죽었으며,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은 죽음을 면하였다. 당초 원균이 한산도(閑山島)에 도착하여 이순신이 세워 놓은 규약을 모조리 변경시키고 형벌에 법도가 없어, 군중의 마음이 모두 떠났다. 권율은 원균이 적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고 하여 불러 매를 쳤는데, 원균이 분한 마음을 품고 가서 마침내 수군을 거느리고 절영도(絶影島)에 이르러 제군(諸軍)을 독려하여 나아가 싸우게 하였다. 적은 아군을 지치게 할 계책으로, 아군의 배에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문득 피하였다. 밤이 깊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 배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원균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가덕도(加德島)로 돌아왔는데, 사졸들이 갈증이 심하여 다투어 배에서 내려 물을 먹었다. 그러자 적이 갑자기 나와 엄습하니, 원균 등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배를 이끌고 퇴각하여 고성(固城)의 추원포(秋原浦)에 주둔하였는데, 수많은 적선이 몰려와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원균은 크게 놀라 여러 장수와 더불어 힘껏 싸웠으나 대적해내지 못하고, 아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억기와 최호 등은 물에 뛰어들어 죽고, 원균은 해안에 내렸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배설은 도망하여 한산도에 이르렀다. 배설 장군은 왜군의 공격에 대응하다 전투력 열세로 왜군의 포위망을 뚫고 퇴각하여 한산 본영으로 후퇴 한다. 이 때 살아남은 전선이 12척이다. 조선 수군을 살려내고도 그 공적을 인정 받지 못하고 조선 조정에 의해 칠천도 전투의 책임을 지고 처형 되어야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정치와 당파 싸움과 군인들간의 갈등 등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칠천도 전투 상황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다**. 조선 수군이 전멸하였는데도 배설 장군이 싸우지 않고 전선 12척을 빼돌려 달아났기 때문에 패배

		했다고 필주자들은 이순신을 영웅화하는 사람들은 억지 주장을 한다. 다만 선조 실록과 필주자들의 글과 일기 등에 기록 된 내용을 토대로 가정하여 유추 할 뿐이다. **선전관 김식의 장계와 대사헌(대사헌) 김간(김간)이 쓴 원균 행장기에 의하면 분명히 배설 장군은 원균 장군과 함께 왜군과 전투를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적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 하였다.** 칠천량 전투는 왜군의 우세한 전투력과 기상과 지형과 때를 잘 이용한 포위 기습 공격에 의해 조선 수군이 전멸하다시피 참패를 당한 전투이다. 원균 장군과 조선 수군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칼과 창을 휘둘렀지만, 역 부족으로 처참히 살해되고, 왜군은 원균 장군의 목을 베어 갔다. 원균 장군은 패전의 모든 책임을 뒤로 한 채 전사 하였다. 전라좌수사 이억기, 충청병사 최호 역시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나 끝내 왜군의 총탄을 맞고 전사하였고, 적의 포위망 속에서도 용감히 싸운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만이 평소 잘 알고 있는 지형과 물길을 이용하여 휘하 전선 12척과 함께 적진을 탈출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다. 이로써 조선 수군의 원균 함대는 칠천량 전투에서 사라지고,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 지휘하는 12척의 전선만이 조선 수군의 명맥을 이어 갔다. 조선 수군의 진영인 칠천도에서의 패배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전투다. 만약 이 전투에서 경상우수사가 구출한 전선 12척이 없었더라면 조선 수군은 왜군에게 전멸 당 하였다. 그리고 이순신은 권율에게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전멸 당하였다고 보고 하였을 것이고, 권율은 선조에게 조선 수군이 전멸 했다는 장계를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 수군을 완전히 전멸 시킨 해전사상 최고의 전투라고 대서특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수군은 전선 12척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배설장군과 전선 12척이 없었더라면 조선 수군이 있었을까? 이순신은? 권율은?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배설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정유재란을 평가하는 선조나 조선의 조정은 이 대목에서 입

		을 함구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탁월한 지휘력과 전투감각으로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전선 12척과 약 천 여명(명량은 120명으로 묘사하고있다. 판옥선 1척에 10명씩 타고 있었다는 것일까?)의 부하를 살려 낸 배설 장군의 용맹을 조선 선조와 조정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 또한 당시 도원수 권율과 백의종군으로 관직 없이 권율의 휘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순신은 배설 장군의 업적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왜군과의 전투에서 원균 장군의 휘하 장군은 다 죽었는데 배설 장군 만이 살아 남았기 때문일까? 만약 배설 장군 마저 칠천량 전투에서 전사 하였다면 역사는 칠천량 전투를 어떻게 평가 하였을까?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칠천도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경상우수영 수군들도 매일 훈련하며 지나다니던 곳이라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지만 적절히 대항하며 여명을 이용하여 물길을 따라 재 빨리 한산 본영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추격하는 적의 공격을 피해 한산도로 후퇴 하면서 칠천도에서 타 오르는 조선 전함의 불길을 바라보며 원균 통제사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억기 장군은? 최호 장군은? 조방장 배흥립과 김완은? 수병들은? 배설 장군은 조선 수군의 생사를 하늘에 부탁 한 후 뱃머리를 한산 본영을 향하여 돌렸다. 칠천량 전투는 한 민족의 해전사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전투이다. 문헌에 따라 그 내용이 각각 다르게 표현 되어 있고, 필자의 취향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표현 되고 있다. 특히 원균과 이순신이라는 라이벌을 만들어 낸 필주자筆誅者들의 손 끝에 의해 기술 된 글이 역사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순신에 관한 일부 투고 논문과 일부 소설, 글들에 약방의 감초처럼 왜곡 되이 필주되는 기록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는 안된다. 소설 명량과 영화 명량도 칠천량 전투와 배설 장군에 대하여 허위, 조작하였다.
명량 소설 57 -58쪽	배설이라는 인물을 평하자면, 예로부터 설왕설래가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1583년(선조 16) 무과(武科) 별시에 급제하여 변방으로 거듭 기용되어

	적지 않았다. 합천 군수가 되었는데 의병장 김면의 지원 요청을 거절해 낭패에 빠뜨렸다. 그때 비겁한 심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선산부사가 되어 금오산성을 쌓고 경상우수사가 되어 원균의 명에 따라 수백척의 전선을 거느리고 웅천을 급습 했다.	공을 세워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주부(主簿)로서 경상우도 방어사(防禦使) 조경(趙儆)을 따라 남쪽으로 출정하였다. 조경이 황간, 추풍에서 왜군에게 패전하자, 배설은 향병(鄕兵)을 규합하여 왜적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사력을 다 하였다. 또한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이 배설을 가장(假將)으로 삼아 왜적을 무찌르게 하였다. 이 때 배설이 용맹히 나아가 부상진(扶桑鎭)과 개산진(開山鎭), 무계진(茂溪陣)에서 적을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에 합천 군수가 되어 미숭산성(美崇山城)을 쌓았으며, 다시 부산 첨사(僉使)로 보직 되었다. 1594년(선조 27)에는 동래부사(東萊府使)로 보직 되었고, 그 해 가을에는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어 정사를 바르게 하고 덕을 베풀어 온 고을이 내내 평안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치적을 기렸다. 1595년(선조 28) 2월 조정에서는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불화가 심화 되고 있어, 조선 수군의 지휘력과 전투력 발휘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원균 장군을 충청병사로 전출시켜 육군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조에게 보고 하였다. 이에 선조는 원균 장군을 충청병사로 전출시킨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은 당시 보직대로 전라좌수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원균 장군이 수행하던 경상우수사의 직책을 담당 할 장군을 모색 한다. 이에 선조는 조정 대신들의 추천에 의하여 밀양부사로 재직 중인 배설 장군을 원균의 후임 경상우수사로 임명 한다. 배설 장군이 경상우수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정을 바로 잡고 창고를 헐어 군병을 급식하고 함선과 병기를 수리하며 장졸들의 사기를 높이자, 유성룡과 이원익이 배설 장군을 간성(干城)이라고 칭찬 하였다. 그러나 시국의 폐단을 들어 상주한 것이 도원수 권율에게 거슬려 밀양 부사로 좌천 되었다가 다시 선산부사겸 금오산 별장으로 보직 되어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쌓아 진지를 구축하고 성내에 구정칠택(九井七擇:아홉 개의 우물과 일곱 개의 못)을 파고 혜창(惠倉:곡식과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을 설치 하였다. 이 사실이 금오산 폭포수 위 큰 바위에 선조선산부사배설천금오산성구정칠택<宣祖善山府使裵楔

		穿金烏山城九井七澤> 이라는 큰 글씨로 새겨져 전해 오고 있다.
명량 소설 58쪽	칠천량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전세가 불리함을 짐작하고 12척을 이끌고 줄행랑을 쳤다. 한산도로 퇴각해 무장고와 군량을 모두 불태우고 남아 있던 백성들을 피난시켰다.	한산 본영을 불사르고 한산도의 백성을 대피 시켜라. **7월 16일 새벽**에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주도권을 장악한 왜군과의 치열한 교전에서 휘하의 많은 전선과 장병을 잃어 버린 채, 후퇴를 시작 하였다. 한산 본영으로 후퇴한 전선을 확인해 보니 겨우 12척 밖에 없었다. 한산 본영에 도착한 배설 장군은 왜군의 공격을 피해 즉시 청야 작전을 시작 하였다. **청야작전(淸野作戰)**은 선조가 정유재란을 대비하여 장기전을 계획하면서 수령들에게 명령한 작전이다. 한강 이남에서 사태가 불리하게 되면 주변에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물자와 식량 등을 없애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을 말 한다. 배설 장군은 왜군에게 유리하게 사용 될 수 있는 양곡이이나, 병기, 막사 등을 불사르고 섬안에 남아 있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란 시켰다. 왜군들은 칠전도에서의 승리를 기세로 한산도 본영을 공격하였다. 한산도에서 청야 작전을 전개하며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던 배설 장군은 왜군이 수백척의 전선과 함께 한산도로 공격해 오자 왜군과 전투를 하며, 회령포로 후퇴하였다.
명량 소설 58쪽	이순신이 옥에서 풀려나 벽파진으로 왔을 때 바다에 떠 있던 판옥선 12척은 그가 이끌고 온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도망쳤다는 비난이 분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재빠르게 후퇴했기에 그나마 12척을 건질 수 있다는 공로 섞인	**배설 장군은 전선 12척과 조선 수군을 이순신에게 인계하고 전투력을 보강하다가, 칠천량 전투 패배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악화 되어 이순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한다.** 배설 장군은 칠천도에서 왜군에게 패하고 한산 본영으로 후퇴하여 한산 본영에서 청야 작전을 시행한 후에 적의 공격을 피해 회령포로 철수 하였다.조선 수군의 생사여부를 모른 채 회령포에서 전투력을 보강하는 배설 장군의 당시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의견도 많았다. 배설을 따라와 살아남은 120명의 수군들은 입을 모아 배설을 칭송 했다. “그 때 왜적에 대항해 끝까지 싸웠더라면 우리 수군은 아예 몰살당했을 것이고, 판옥선도 한척 남지 않았을 것이네.”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무능한 원균에 있지, 우리 배설 장수님에게는 없다네.“ 목숨을 건진 병사들이야 배설을 칭송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위인이 못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 였다.	원균 통제사와 이억기, 최호 장군은 무사할까? 조선 수군의 전선과 병력은 무사할까? 배설 장군은 불확실한 전투상황 속에서 회령포에서 전투준비를 하며 전투상황을 파악한다. 그런데 전투상황을 알 수가 없다. **이순신의 개인일기를 보자.** **7월21일(양력 9월1일)** 노량에 이르니 거제 현령 안위, 영등포 만호 조계종 등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경상수사(배설)는 도망가 보이지 않고 ..... 대장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물으로 달아 났고, 여러 장수들이 물으로 가서 이지경이 되었다. 그것은 대장의 잘못을 말한 것인데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고 그 살점을 씹어 먹고 싶다고들 하였다. **이순신이 쓴 일기에 배설장군이 쌀아 있다는 것이 기록 되어 있다.** **이순신은 배설 장군이 도망 갔다고 표현 한다.** **안위와 조계종은 과거 이순신 부하였다.** **이들이 원균에 대하여 고자질을 하는 대목이다.** **7월22일(양력 9월3일)** 경상수사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의 패망하던 일을 많이 말 했다. (이 내용은 곧 전투 상황인데 기록 되지 않았고, 원율과 조정에 보고 되지 않았다. 이 기록을 찾으면 칠천량 전투 상황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 **조선수군이 칠천량 전투에서 패전한 이후 7일만에 배설 장군은 죄인 이순신을 만난다. 그리고 전투상황을 소상히 알려 준다.** **이때 이순신은 원율의 휘하에서 계급도 없이 원율을 도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배설과 이순신과의 관계가 어떠하였을까?** **배설장군은 이순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게 된다. 임진왜란 당시 배설 장군이 기록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배설장군에 대한 기록은 선조실록과 수정 실록, 유성룡이 쓴 징비록과 이순신이 쓴 일기에서 찾아 볼 수 잇다.** **이순신이 쓴 일기에 기록 된 내용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7월18일(양력 8월30일) 16일 새벽에 수군이 몰래 기습 공격을 받아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 여러 장수와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다. 수군이 대패 했다. **7월21일(양력 9월2일)** 노량에 이르니 거제 현령 안위, 영등포 만호 조계종 등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경상수사(배설)는 도망가 보이지 않고 ..... 대장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물으로 달아 났고, 여러 장수들이 물으로 가서 이지경이 되었다. 그것은 대장의 잘못을 말한 것인데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고 그 살점을 씹어 먹고 싶다고들 하였다. **7월22일(양력 9월3일)** 경상수사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의 패망하던 일을 많이 말 했다. **8월2일(양력 9월12일)** 이 날 밤 꿈에 임금의 명령을 받을 징조가 있었다. **8월3일(양력 9월13일)**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뜻밖에 교유서를 가지고 왔다. 명령은 곧 겸 삼도수군통제사의 임명이다. **8월12일 (양력 9월22일)** 거제 현령 안위, 발포 만호 소계남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 갔다. 그들 편에서 배설의 겁내던 꼴을 들으니 더욱 한탄스러움을 이길 길이 없다. (안위와 소계남이 자기 상관인 배설 장군에 대하여 통제사 이순신에게 보고하는 대목이다.) **8월13일 (양력 9월23일)** 거제 현령 안위, 발포 만호 소계남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 갔다. 수사(배설)와 여러 장수 및 피해 나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들었다. (이 때 배설 장군이 회령포에 있다는 것을 이순신이 알게 된다.) **8월17일 (양력 9월27일)** 장흥땅 백사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 군영구

		미(장흥군 안양면 해창리)에 이르니 일대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은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8월18일 (양력 9월28일)** 회령포에 갔더니, 경상수사 배설이 멀미를 핑계 대므로 보지 않았다. **8월19일 (양력 9월29일)**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는데 경상수사 배설은 숙배하지 않았다. 그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는 꼴을 말로 다 나타 낼 수 없다. 너무 놀랍다. 이 방과 그 영리에게 곤장을 쳤다. (이 때부터 이순신과의 관계가 악화 된다.) **8월27일 (양력 10월7일)** 경상우수사 배설이 왔는데 많이 두려워하는 눈치이다. 나는 불쑥 "수사는 어디로 피해 갔던 것이 아니오 " 라고 하였다. **8월28일 (양력 9월 28일)** 새벽 여섯시 즘에 적선 8척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들어 왔다. 여러 배들이 두려워 겁을 먹고 경상수사는 피하여 물러나려 하였다. **8월30일 (양력 10월 10일)** 저녁 나절에 배설은 적이 많이 올 것을 염려하여 달아나려고 했으나, 그 속 뜻을 알고는 있지만, 딱 드러나지 않은 것을 먼저 발설하는 것은 장수의 도리가 아니므로 참고 있을 즈음에, 배설이 제 종을 시켜 솟장을 냈는데, 병세가 몹시 중하여 몸조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몸조리를 하고 오라고 공문을 써 보냈더니 배설은 우수영에서 물으로 내렸다. (이순신은 배설과의 개인적 감정을 일기에 기록하여 폄하시킨다. 배설과 이순신과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마침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끝이 난다. 이미 조선 조정은 이순신을 통제사로 세우면서 배설을 칠천량 전투 패전의 죄과를 물어 처형하기로 하였다. 이에 배설 장군은 부당한 죽음을 피해 이순신을 떠나 종적을 감춘다. 조선 수군을 살리고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배설 장군에 대해 역사는 배설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 해야 한다.)
명량 소설 58 -59쪽	배설은 김억추가 곤장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 황급한 마당에 장수에게 곤장을 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겠구나. “그렇습죠만, 어디 김억추뿐이겠습니까? 전사한 원균 장군도 도원수 권율에게 곤장을 두 차례나 맞았습지요” ..... 김억추가 적의 탐망선을 쫓다가 뜻밖에 가세하는 적들을 보고 놀라 진을 세우지도 않고 맨 먼저 물러났다 하옵니다. ..... 그래 몇 대 맞았다더냐?“ 열닷 대라 하더이다. 기생이 오른쪽 허벅지로 손을 옮겨 지그시 누르자 배설은 갑자기 에헴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껄껄 웃었다.	**사실 없음.** **김억추 장군과 배설 장군은 가까운 사이이다.** **이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역사를 왜곡한다.** **그리고 기생을 등장 시켜 배설 장군을 주색잡기 하며 군무를 소홀히 하는 졸장부로 폄하 한다.**
명량소설 59-60쪽	지금 이순신은 뭐하고 있느냐? 한성 교지가 대장선을 향했다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설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멋!	**한성 교지와 기생을 등장 시켜 배설 장군을 졸장부로 폄하 한다.** **한성교지는 선조가 내리는 명령이다.** **선조의 명령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또 폄하 한다.**

	기생이 깜짝 놀라 손을 멈칫 했으나 배설은 하찮게 밀쳐냈다. “교지가 왔다고?” “뭐라고 쓰여 있다더냐?” 수군을 파하고 권율 휘하로 들어가라는 어명이었다. 배설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것 참, 잘 되었군 이제야 우리가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구나.“ “하오나.....” 하오나?“ “이순신이 그 명령을 들을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배설의 눈썹이 파르나니 떨렸다.	
명량소설 150 -154쪽	단도 하나가 휙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이순신의 어깨에 박혔다. 우욱! 짧은 비명을 내지르며 이순신이 앞으로 휘청거렸다. 온통 검은 옷에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쓴 괴한 셋이 칼을 들고 달려 들었다.(p150) “불이야! 불이야!”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절박한 순간에 이순신은 자신의 모습보다 거북선이	**이순신을 암살하려는 첩자와 불타는 거북선을 등장시키고, 암살자를 배설 장군의 부장으로 각인시켜, 배설 장군이 이순신을 암살하게 한 배후로 조작 하였다.** **그리고 배설 장군의 부하 장수였던 거제현령안위가 상관인 배설 장군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아대는 하극상의 진풍경을 연출 하였다.** .

	더 염려 되었다..... 쿵. 괴한이 쓰러졌다. 그 와중에도 커다란 불길이 거북선을 잡아삼키고 있었다.(p151) 안위가 괴한의 복면을 벗기고 화들짝 놀랐다. “아니, 너는 배설의 부장 아니냐!” 안위와 이회는 눈만 깜박거렸다. 왜적 자객이 아닌 같은 편의, 그것도 배설의 부장이라는 사실은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거북선이 활활 타오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볼을 끄느라 아수라장이 된 모래밭을 지나 안위는 산위로 올라 갔다. 저멀리 피섬쪽으로 나아가는 거룻배 한척이 있었다. 안위는 그 배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배설이 “하핫”하고 웃음을 터트렸다.(p153) 또 하나의 화살이 날아와 발밑에 퍽 하고 박히자 배설은 움찔 했다. 그러나 기고 만장은 사라지지않았다. “나는 살 방도를 찾았노라! 그러니 어서 너희들도 내 뒤를 따르라.”(p154)	

명량소설 157 -158쪽	그때, 우당탕 소리가 들리면서 흥분 된 얼굴로 와키자카와 가토가 들어섰다. 잔뜩 상기 된 와키자키가 다급히 외쳤다. “장군 이순신의 거북선이 불 탔습니다.”(p157) "우리가 매수한 배설이 벌인 일인가?“ “배설은 어찌 되었나?” “거룻배를 타고 도망 쳤는데....., 생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쥐새기 같은 놈이라 필시 목숨은 보전했을 것이다. 그깟 놈이 주든 살든....., 그런 놈이 조선의 장수로 있기에 우리가 승리 할 수 있는 것이다.”(p158)	**왜장들을 등장 시켜 배설 장군을 왜군이 매수한 첩자인 매국노로 만들어 놓고, 배설 장군의 인격체를 쥐새끼 같은 놈으로 만드는 천인공노 할 만행을 저질렀다.**
	임진왜란 시 전 가족이 왜군과의 전투에 참전한 가문	**전쟁 참여 자 현황** **父 : 배덕문 : 의병장** **子 : 배설 : 선산부사, 경상우수사** **배건 : 의병 (38세 전사)** **배즙 : 조방장 (35세 전사)** **배력 : 주부**
	사후에 배덕문가를 공신록에 등록 시킨다	**배덕문** **1610년(광해 2년)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을 증직 하였고, 1873년(고종 10년)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겸지경연의금부사(知經筵義禁府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知春秋館成均館事),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을 증직하였다.**

		배설 임란공신을 녹훈할 때 공을 (선무원종1등공신(宣武原從 1等功臣))으로 책록 하였고, 녹권(錄卷)이 전한다. 1871년(고종 8) 도내 유림들이 상소하여 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훈련원사(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訓鍊院事)에 증직되었다. 배건 그 공로로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증직 되었다. 배즙 1610년(광해 2) 선무원종 2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녹훈되었고, 가선대부 병조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에 증직되었으며, 의금부와 훈련원의 지사(知事)에 추증되었다.

결론

명량 소설의 작가 김호경과 명량 영화 감독 김한민은
명량소설과 영화의 상업화와 흥행을 위하여 원종1등공신록에 책정 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의 행적에 대하여 허위, 조작, 축소, 과대 확장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명예의 실추와 정신적,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하여 고통과 아픔을 주었고 이 소설과 영화로 인하여 계속적인 명예 실추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배씨 문중과 배설 장군 후손들은 관련자와 업체에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뜻을 모았다.

2014. 8. 14

배재영

소설영화(명량)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9 사학회관803호
경북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로 562
http://cafe.daum.net/1525-

수　　신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　　신 : 소설영화(명량)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제　　목 : 허위 사실을 널리 유포하고 있는 영화 및 소설 “명량”에 대한 호소

1. 귀 위원회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영화 “명량”이 전대 미문의 관람객(8월말 기준 17백만명)을 기록하고 있어 국내외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제의 영화를 관람한 저희 경주 배씨 50만 문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 영화의 내용 중 역사적 실존 인물인 배설장군이 실명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바, 배설장군이 거북선을 불태운다거나 왜군과 내통하여 이순신장군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고, 명량해전 초기에 달아나다 부하장수 안위의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는 등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묘사가 상당한 비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문중의 조상인 배설 장군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의 왜곡 표현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문중에서 알아본 본 바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설 ‘명량’이 존재하며 본 영화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 영화에 등장하는 명예훼손적 표현들은 굳이 전문적 사료를 검토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허위의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배설장군은 칠천량해전에서 12척의 전함을 보전하여 퇴각하며 패전 후 왜군에 의한 양민 학살을 염려하여 백성들을 피난시킨 바 있고, 12척의 전함을 그

대로 이순신장군에게 인계하여 명량대첩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명량해전이 있기 전에 수질 치료를 위해 허가를 얻어 (난중일기1597년 8월 30일 참조)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칠천량 패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권율장군과 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극형을 당하였으나 사후 1605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전반에 걸친 공적이 인정되어 원종 일등 공신으로 책권되어 복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왜군과 내통하여 이순신장군의 암살을 시도한다거나, 당시 남아 있지도 않았던 거북선을 불지른다거나, 전장에서 도망가다 부하장수인 안위의 화살에 맞아 숨진다는 등 허무맹랑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간단한 확인이 가능한 역사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폄훼하여 명예를 훼손하기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저희 문중은 작가와 감독의 상상력과 창작적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명백히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이를 왜곡하여 명백한 허위의 표현물을 대중에게 유포하고 이를 접한 사람들이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후손으로서 당연한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5. 영화 “명량”의 상영으로 배설장군의 역사적 진실과 상관없는 허구의 악역 설정으로 사회에서 회자되는 배설장군과 자손들에 대한 악성 폄훼 비하 등의 발언으로 자손들은 일상의 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져있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조롱과 왕따를 당하여 면학과 병영생활, 회사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 삼중의 고통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왜곡하여 만든 허위의 표현물에 의해 빚어진 사회적 폭력에 다름 아니며 우리 후손들은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7. 이러한 잘못된 영화의 상영은 저희 문중 자손들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국가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폭력문화를 생산하고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10만여 후손들과 50만 문중의 인격권 보호는 물론 사회 갈등을 막기 위해 즉각 영화“명량”의상영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처 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정중히 요청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영화‘명량’에 나오는 배설장군은 역사적 실존인물이며 10만여 직계자손과 50만여 문중 후손이 생존해 있음.

2. 영화‘명량’을 본 사람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영화의 주인공 이순신장군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배설장군의 악역으로 인해 “왜군보다 배설이 더 죽일놈”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

3. 현재 어린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군대에 간 자손 장병들은 군대 내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배설장군의 문중 후손들의 집성마을 노인들은 깊은 시름에 젖어 일상에서 식욕과 의욕을 상실하고 있음

3. 영화‘명량’에서 등장하는 배설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름 - 배설장군은 명량해전이 있기 보름전에 오래된 수질로 말미암아 병가를 얻어서 요양차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명량해전에서의 등장인물이 될 수 없으며 영화에 나오는 배설장군 관련 내용 전부는 허구임.

2014년 9월 5일

소설 영화 명량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배한동

경주배씨 대종회 회장 배영진

성산파 서암문중 회장 배재소

답변일
2014.09.16. 16:53:31

처리결과(답변내용)

1. 국민신문고, 2AA-1409-074671(2014.9.5.)호 관련입니다.

2. 금번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표순철 입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영화관련 주무 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소재의 선택 등의 제작과정은 민간 영화제작사(기획·투자·배급사 포함)의 업무 영역으로 이에 대해 정부가 법률 등 제도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를 제작 시 이에 대한 허가·등록·신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당해 영화에 대한 상영 중단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관련 법률에 근거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민원 접수 즉시 관련 제작사 및 배급사에 답변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7)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4. 상기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 속 등장인물 묘사에 관하여는
영화는 창작의 산물이며,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전제되는 바,
작가-감독 및 제작사의 창작의 영역에 대해
당사가 배급사로서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5. 아무쪼록 귀 부처의 양해를 부탁 드리오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강 석 희

3. 지금까지 영화"명량"에 보여주신 사랑에 저희의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갈등을 야기 시킬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위 사안이 공식적인 법률 분쟁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답변이 아닌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번 주 내에 성실히 정리된 입장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6일

㈜ 빅스톤 픽쳐스 대표 김한민

우리가 반박하는 글입니다.

- 영화‘명량’과 관련하여 극중 인물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제기한
영화v‘명량’의 상영v중지요청과 관련하여 후손들의 주장에
비난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밝히는 입장 -

비대위 대변인 배윤호

영화 ‘명량’에 나오는 극중인물 배설장군의 후손들은 영화 상영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영화 상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후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이다.

영화를 창작물로 보아야 한다며 후손들의 주장은 예술을 알지 못하는 무지라면서 예술창작의 자유를 하는 주장하는데 예술창작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을 무시한 채 창작한 예술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영화 ‘명량’은 상영전 홍보를 통해서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는 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고증이 전혀 안된 상상력에 의한 허구로 인해 후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니까 가장먼저 사과를 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 조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사과한마디 없이 ‘후손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 ‘영화로만 보아 달라.’ ‘영화를 매도하지 말라.’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주장만 하고 있다.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영화상영중단의요구는 영화 ‘명량’의 상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집단적 피해를 해소하라는 당연한 주장인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공동체 구성원인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화 제작사를 옹호하고 배설장군의 후손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분들께서는 후손들의 주장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며, ‘농부가 잡초를 뽑는 것은 알곡을 거두기 위한 것이며 농부의 심정으로 글을 쓰고 창작을 하는 것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행복을 헤치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잡초에 지나지 않는다 잡초에게는 제초제가 있다. 잡초는 두계절을 살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영화‘명량’허위관련 대책위원회는 지금 당장 소설작가와 영화제작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고 소 장

고 소 인　소설영화(명량)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주　소)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산 21

(연락처) 010-7267-5080

고소인의 대표자　배　윤　호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산 21

(연락처) 010-7267-5080

피고소인들

1. 김 한 민 (주민번호 불상)

(주소　불상) 영화사 ㈜빅스톤픽쳐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6길20. B동 2층(논현동, 에스앤엠빌딩)

(연락처 불상)

2. 전 철 홍 (주민번호 불상)

(주소　불상) 영화사 ㈜빅스톤픽쳐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6길20. B동 2층(논현동, 에스앤엠빌딩)

(연락처 불상)

3. 김 호 경 (주민번호 불상)

(주소　불상) 출판사 ㈜북이십일 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01(문발동)

(출판사 연락처 031-955-2100)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형법 위반(사자 명예훼손)

가. 피고소인 1. 김한민은 영화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의 대표이사이자 영화 “명량”의 감독으로서 각본가 전철홍과 함께 영화의 시나리오를 완성하여 제작 후 2014.07.30 부터 상영을 한 바 해당 영화의 내용 중 주요한 장면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며 이를 사자(死者)이자 극중 실명으로 등장하는 실존인물인 배설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 바 이러한 허위의 사실 유포가 1 천 7 백만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해당 명예 훼손 범죄행위는 고소일 현재 지속되고 있다.

나. 피고소인 2. 전철홍은 영화“명량”의 각본가로서 위 피고소인 1.과 함께 함께 영화의 시나리오를 완성하여 해당 영화가 제작된 다음 2014.07.30부터 상영되게 하였는데, 해당 영화의 내용 중 주요한 장면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며 이를 사자(死者)이자 극중 실명으로 등장하는 실존인물인 배설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 바 이러한 허위의 사실 유포가 1천 7백만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해당 명예 훼손 범죄행위는 고소일 현재 지속되고 있다.

다. 피고소인 3. 김호경은 피고소인1,2와 함께 영화 “명량”의 개봉에 즈음하여 해당 영화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소설 “명량”을 쓰고 이를 출판사인 21세기북스-㈜북이십일에서 출판하여 대중에 배포한 바 해당 소설의 내용중 주요한 장면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왜곡된 내용이며 이를 사자(死者)이자 극중 실명으로 등장하는 실존인물인

배설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 바 이러한 허위의 사실 유포가 소설의 독자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지위

고소인은 배설장군의 후손인 경주배씨 성산파 서암문중, 경주배씨 성산파 대종회, 경주배씨 대종회가 연합하여 발족한 소설 영화 (명량)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며 모두 역사적 실존인물이자 문중의 조상인 배설장군의 후손들로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친족 내지 자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소인들은 각각 영화와 소설을 통해 역사적 실존인물인 배설장군을 등장시켜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영화와 소설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입니다.

2. 피고소인1,2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死者) 명예훼손행위

피고소인1,2는 각각 영화 “명량”의 감독, 각본을 맡은 자들로서 2014. 7. 30. 개봉한 영화 “명량”의 대사에 대한 각본과 영화적 장면 표현 등을 모두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화의 경우 현재 고소인이 입수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수차례 관람한 기억에 의거하여 피고소인1,2의 범죄사실에 대해 우선 소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의 확인을 위해 피고소인들에게 관련 자료(삭제되지 않은 영화 필름의 사본 및 시나리오)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주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거보전을 위하여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 및 수색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비상대책위 보도자료)

배설장군의 후손들인 저희 문중은 '명량 '소설과 영화의 '허위 조작 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과 후손들의 인격권침해'와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와 종인들의 뜻을 따라 2014년 9월 1일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어서게 된 이유는 이번 사태를 촉발하고 사태해결에 전적인 책임을 진 소설작가와 영화제작자 및 배급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설작가와 영화제작사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이용하여 '직접 상영중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영화로만 봐 달라'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화를 매도하지 말라' '후손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을 하면서 후손들의 진정어린 호소를 폄훼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민한 언론플레이와 상반되게 소설작가와 영화제작사는 피해자인 후손들이 요구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자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중단될 수 있는 조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후손들의 호소에 대해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언론에 한줄 입장 표명을 하고서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연락 한번 없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손들은 소설작가,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는 소박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어쩔수 없이 배설장군의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경북 성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영화의 성공에 편승한 금전적 보상 따위가 결코 아닙니다. 소설작가와 영화제작사가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훼손된 우리의 선조인 배설장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자손된 자로서 조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은 인격권침해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조상의 명예회복으로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며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남모르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작은 몸부림일 뿐입니다.

대부분 시골에서 살며 세상 돌아가는 내용에 무지한 촌부들인 저희가 왜 이런 행동에 나서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 겸 제작자는 영화 상영을 전후해서 여러 매체를 통한 인터뷰에서 영화 명량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고증을 거쳤으며 일본까지 가서 사료를 수집하여 역사적인 부분에 충실했다는 강조를 반복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금에 와서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영화로 봐 달라는 자기 편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실존인물을 실명으로 영화에 등장시키면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해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그 역사의 인물을 폄하하여 첫 장면부터 등장시킨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 후손들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객들과 독자들로부터 분노의 감정을 끌어내어 상업화와 흥행화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명량 영화는 왜 이런 분노의 감정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상대역인 대상을 악인 중의 악인으로 만들어 관객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작가와 감독은 아주 쉬운 방법을 택 하였습니다. 실존인물을 등장시키되 역사적 사실만을 표현해서는 긴장감이 부족하니 거짓이라 하더라도 아주 자극적인 내용 이를테면 왜적과 내통하여 이순신장군을 살해하려 하거나, 전투를 앞두고 사기를 꺾기 위해 거북선을 불지르는 장면을 삽입해 놓으면 주인공인 이순신장군이 느꼈을 절망감에 감정 이입된 독자와 관객들이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뒤이어 명량 해전에서의 기적적인 승리를 보면서 극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조작 된 허위 장면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거기다 악인이 분노한 부하로부터 화살에 맞아 죽음에 이르니 권선징악의 절정을 맞보며 관객은 카타르시스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이 해소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를 느낍니다. 일견 그럴듯 하지만 그 본질은 한명의 관객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천박한 상술,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술에 이용되어 하지도 않은 악행들로 명예에 먹칠을 당한 당사자를 포함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허위 사실로 영원히 낙인이 찍힌

저희 후손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철저한 역사 고증을 거듭 강조하던 감독 겸 제작자가 후손들의 반발 이후엔 표변해서 영화로만 보아달라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얄팍한 상술에 속은 사람이 대통령을 포함하여 1700만명이 넘는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움과 함께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배급업자인 씨제이이앤엠은 한술 더 떠서 추석 연휴동안 영화무료관람을 추진한 바 있고, 영화 상영이 끝난 다음에는 교육용 자료로 학교와 군부대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한치의 더함도 없이 저희 문중 후손들이 갑자기 겪게 된 날벼락과도 같은 사건의 전말이며, 시골에서 농사짓던 촌로들이 분노해서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소설을 쓰고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신 분들께 고합니다.

1. 소설 작가와 영화제작자 및 배급사는 국민과 피해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상처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불편함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2. 역사적 실존인물이자 존경하는 배설장군에 대해 황당무계의 허위 표현으로 비겁하고 더러운 악역으로 묘사한 소설과 영화는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창작물임이 명백한 바, 지금이라도 그 거짓 표현들을 적시하고 바로잡아 이미 허위 표현을 접한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역사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허위의 사실을 대량 담고 있는 영화를 무상으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를 학

교, 군부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것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더욱 가중시키는 중대한 행위임을 양지하기 바라며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요구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영화의 상영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4.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 주는 것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컨텐츠 강국이 되고 나아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원인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제기한 '영화 명량의 상영중지요청'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법당국에 호소합니다.

사법당국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고소인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피고소인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치유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사법당국은 이번 고소사건을 엄정한 법기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돈에 눈이 멀어 스스럼없이 비윤리적 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이 단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관계자께 알립니다.

형사고소 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계획이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과 협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문중의 문제가 더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종친들의 뜻으로 이를 생략하고 본 보도 자료로 기자회견을 대신합니다.

향후의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영중지 요청'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켜보고 사법기관의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언론인 제위께

서도 저희 후손들의 절박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국민들께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든 입장표명과 절차의 진행은 비상대책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를 언론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소설영화 명량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대변인) 배윤호 배상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목표와 활동(후원)한 종친의 업적평가

비대위 부위원장 배한익 교수

8월 9일 소설 영화 <명량> 대처 비대위가 구성되었고 집행위원회(배한동 위원장)과 운영위원회(배한경 위원장)을 두어 배설장군에 대한 역사왜곡에 대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달 여동안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종친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은 대종회가 전국 종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내어 배씨가 대동단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정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조상에 대한 역사왜곡을 바로잡아 명예 회복함.”이라고 봅니다. 비전은 “조상의 바른 역사를 발굴하고 알려서 후손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도록 함”입니다.

배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목표는 (1) "훌륭한 인물을 키워내도록 노력"하고, (2) 역사교육과 연대로 "대동단결"하며, (3) 차후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대응, 진정서, 언론방송 조명, 기사화, 인터넷 활동 (카페, 개인 블로그, SNS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랑스러운 조상님의 업적을 공부하여 논문 게재, 자료집 발간, 학술활동을 장려함”입니다.

조상님과 종원 전체의 명예에 관한 일을 일부 의욕 넘치는 종원의 희생으로만 진행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하지만 열성적인 종친의 노력으로 배문 전체의 동참과 참여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종친의 행동하는 양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비용, 종원(宗員)의 단결, 적시에 행동하는 종친의 헌신입니다.

이 작업은 종친의 업적(공적)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목표가 달성된 후에 종친간의 단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결과가 90% 이상 나왔을 때 열심히 활동한 종친 스스로가 업적(공적)평가표(연구중)를 스스로 적어 업적심사위원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평가표를 심사위원이 채점하여 그 녹훈을 책록하여 족보 문중사 카페 자료집 등에 올려 기록에 남겨야 겠습니다.

교수 사회에서도 학교행정업무를 늘 하는 사람만하고, 연구와 맡은 교육시수만 챙기면서 봉사는 외면하는 철밥통 교수가 있어서 업적평가를 교육, 연구(논문 특허), 봉사로 나눠서 점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 평가표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창의적인 활동 (상한선은 1000점)

1. 신재공 관련 논문과 언론 기사 게재자 편당 200점
2. " 관련 Blog cafe, 자료집 개당 100점 + 알파는 50점까지
   (인용 또는 회원가입자, 방문수 만큼 추가 점수. 자료집은 + 알파 없음)
   " Blog 또는 cafe 자료집 글 게재 편당 20
   언론플레이에 기여 건당 10
   " 조중동 3대 언론에 댓글 게재 건당 2
   " SNS 활동 언론 매체 댓글 게재 건당 1
   (단, (1)번에서의 투자시간은 활동시간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심사위원이 그 시간을 정한다.)

(2) 활동시간 (상한선은 1000점)

1. 활발한 참여 (10시간 이상 봉사자) 가산점 20점
   (예, 성주 재실 참여 - 교육 시간, 이동왕복시간 포함 10시간이면, 시간당 1점으로 10점, 가산점 20점 합해서 30점)
2. 소극적 참여 (5-10시간 참여, 총 발언 3-5회) 가산점 10점
   (예, 시간당 1점으로 5-10점, 가산점 10점 합해서 15-20점)
3. 단순 출석자 (4시간 이하이고, 발언 2회 이하) 가산점 없음
   (출석한 회의시간당 1점)

(3) 후원금 액수 (상한선 없음)

10000원이 1점. 따라서 1억 기부자는 1000점. 2억 기부자는 2000점 등.

(4) 기타

자료집 구입자는 1만원당 1점. (재무님 통장에 이름 기록된 자에 한함)

이상의 심사평가는 평가위원회 (종친회 회장, 비대위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고문)에서 결정하여 아래의 녹훈을 준다.

1등공신(배설 장군급)---1000점 이상,
2등공신---600점 이상,
3등공신---200점 이상 (이상은 족보, 문중사, 자료집, 카페,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 이하는 자료집, 문중사, 카페, 블로그에 올립니다.)

이 내용은 비대위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위원)

성 명	근 무 처 (	휴 대 폰	Email 주소	본향	부친(택호), 처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대구)	010-3933-5875	hdbae@knu.ac.kr	뒷개	위원장
배재영	신라대 교수(부산)	010-8989-1332	haplus8989@hanmail.net	머지미	부위원장(섭외)
배한익	경북의대 교수(대구)	010-3544-1228	baehi@knu.ac.kr	갈밭	부위원장
배두호	대구은행(대구)	010-9354-6927	dooho6927@gmail.com	뒷개	사무국장
배재회	달서구 이곡2동 1192 우방타운 102-1102	010-3090-8808	bjhoe@hanmail.net	갈밭	부위원장
배한경	달서구 용산동 영남우방2차 103/702	010-5362-4485		뒷개	운영위원장(차종손)
배원호	북구 (대구 성주)	010-5504-9086		잘섬	재무팀장
배윤호	성주군 수륜면 법전리		sowoo6500@hanmail.net	청용	법무팀장(대변인)
배재기	대구	010-3449-3109	baejaek@hanmail.net	뒷개	
배준영	한국폴리텍대학(대구)	010-5520-6330	jybae@kopo.ac.kr	잘섬?	
배한욱	서울	010-3282-8713	hanwbae@heartscan.co.kr	갈밭	
배한상	대구	010-3503-4492	kw5877788@naver.com	갈밭	
배재석	성주군 대가면 도남4길 26-5	010-8563-3486	baejs8282@hanmail.net	뒷개	
배재관	성주군 대가면 도남2길 41	010-5504-7315		갈밭	
배재소	대구	010-6335-3245		뒷개	종친회 회장
배한곤	하여가(대구)	010-3527-7021	HYG9222@naver.com	뒷개	
배관호	**성주군 대가면 대금로 168**	017-8042-4702		갈밭	
배추호	**달서구 이곡동 우방타운 101/1307**	010-8920-0375	cngh6333@hanmail.net	**뒷개**	총무팀
배재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5번지 (서울 성산성주배씨 회장)	010-9257-3690	jkbious@naver.com		성산성주배씨 회장

성 명	근 무 처	휴 대 폰	Email 주소		비 고
배효열	동구 팔공로 29길8-1(불로동)	011-527-7300			성산성주 대구 회장
배선기			yonseil@naver.com		분성배씨 회장
배영진	원양참치(영등포)		byjrotc3		대종회 회장
배성호	한솥도시락 계명대점	010-8033-3882	bsh@hanmail.net		
배현호	팔공	010-2806-0005	bkb31950@hanmail.net		
배형호	자영업	010-3514-1174	gudgh1174@hanmail.net		
배인호	세운재활용	010-3526-2942			
배규현	현대자동차(울산)	010-2346-7289	bkh1133@huyndai.com		
배신호	성주군 대가면 도남1리 186	010-4118-4089			
배재철	성주군 대가면 도남1리 228	010-9326-4685			
배선호	성주군 대가면 도남3길 11-3	010-3530-5935			

(갈밭)

성 명	근 무 처 (주소지)	휴 대 폰	Email 주소	본향	부(택호), 처/사위
배한욱	서울	010-3282-8713	hanwbae@heartscan.co.kr	갈밭	영호(영천), 동숭 임연정
배한익	경북의대 교수(대구)	010-3544-1228	baehi@knu.ac.kr	갈밭	영호(영천), 금호 이현주
배정숙	서울	010-6352-2907	maewon		김일기
배한순	지곡초등(포항)				권혁주
배영숙	서울				이민전
배한금	약사(서울)				
배성남	간호사(일산)				한정훈
배은경	서울				고서방
배영두	서울	010-3931-3997			
석진	미국				
배옥성	서울	010-5223-6456			
배동화	prudential 생명	010-8776-0923	dhgn0923@naver.com		
배관호	성주군 대가면 대금로 168	017-8042-4702		갈밭	
배한성	서울	010-6409-1273	magyver@naver.com		
배한일	성서서	010-4922-7418	hibae@naver.com	갈밭	

(갈밭)

성 명	근 무 처 (주소지)	휴 대 폰	Email 주소	본향	부(택호), 처
배한상	대구	010-3503-4492	kw5877788@naver.com	갈밭	창호(군위), 대구
주동	서울				
승동	KTB 투자증권	010-3157-7288	baeguns@naver.com		
옥순					
을순					
숙희					
미예					
점수					
배준동	신세계(인천)	010-2741-4705	baejd74@gmail.com		
배수동	ING생명	010-2042-4705	ahachame@naver.com		
배한원	정안건설(일산)	010-3828-8123		갈밭	창호(군위), 대구
호동	윌비스(공무원학원)	010-8971-9123	hipure01@naver.com		
배윤호					
배한명	대구도시철도	010-5491-1466			

(갈밭)

성 명	근 무 처 (주소지)	휴 대 폰	Email 주소	본향	부(택호), 처/사위
배재인					
배구호					
배재화					
배재주					
배재회	대구	010-3090-8808			, 김영숙
정진	KT(서울)			갈밭	재회
배재관	성주군 대가면 도남2길 41	010-5504-7315		갈밭	
배재천					
배재목					

성 명	근 무 처 (주소지)	휴 대 폰	Email 주소	본향	부(택호), 처/사위
배재국		010-6653-1289			
배규호		010-3500-5697			
배재직	평택시청 안중출장소(건축 녹지 관리)	010-2422-1203			
배재영	대구	010-3814-0289			
배재룡	성주	010-9129-2899			
배한목	푸른식당	011-504-8759			
고향 친목회					
배대호		010-3808-2921			
배달호		010-5586-6306			
배한두		010-8599-9314			
배재윤		010-8320-5689			
배만동		010-3526-3606			
배재호		010-3546-0619			
배길호		011-539-7188		청	
배규호		010-7170-8874		청	
배일현	자영업	010-3503-7038	bih120@hanmail.net		
배재진		010-3504-9227		친목회장	
배중호		010-3828-0110		청	
배규호		011-536-7080		뒤	
배주호		010-8694-7070		친목총무	

성 명	근 무 처 (주소지)	휴 대 폰	Email 주소	본향	부(택호), 처/사위
배정현		010-3806-6130			
배치호		010-3522-1660			
배한원		011-510-3603			

성 명	근 무 처 (주소지)	휴 대 폰	Email 주소	본향	부(택호), 처/사위

배설장군 2012.07.05 04:25
공감 http://pann.nate.com/b314243682

이글은 작성일이 12년 7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명량 영화를 보고 적은 글이 아니고 또 우리 일가가 적은 글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후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3자의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복사하여 보내니 참고 바람.

또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니 7:3정도로
부정적인 글이 많고 새로운 조명을 요구하는 안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만큼 최선을 다 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성을 느낌.

(인터넷에서 복사해 온 내용)
칠천량해전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원균이 권율에게 육지로 공격해서 배후를 확보해주면 바로 수군으로 공격하겠다고 작전을 올립니다.
하지만 권율은 수군이 단독으로 먼저 공격하는것이 이롭다고 판단하여 원균에게 공격을 명령합니다.
이에 원균은 수군만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기회를 놓칠까 염려되어 상급자인 권율에게 승락을 받지못하자 도성으로 직접 작전을 올리게됩니다.
임금은 격전지에서 상황을 잘 알꺼라 생각하고 다시 권율에게 지시하여 알아서 하라고 지시하게되죠.
그러자 권율은 원균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성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공격을 미루기만하고 감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균을 불러 곤장을 때리게 됩니다.
이에 원균은 패전할것을 뻔히 알면서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경상우수사 배설은 "비록 군율에 의해서 내가 홀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어찌 군졸들을 사지로 끌고 갈 것 인가"라며 한탄하였고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은 ' 명령을 어기면 우리 세 사람이 죽을 뿐이다. 명령에 따라 진군하면 나라일이 크게 욕될 것이다"라며 서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수군들은 모두다 승산없는 싸움임을 알고 있었지만 명령에 따라 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선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 입니다.
배설의 경우에도 책임을 물어 참수되지만 이후 복권되어 장남에게 관직을 주려하자 장남은 고사하고 차남으로 대신하여 관직을 받게 하였습니다.

배설장군에 대한 또다른 기록은 '현무공실기'를 보면 "거북선은 지금으로 부터 약 2천년전에 한나라 고조의 공신 한신이란 사람이 위표를 잡을 때 쓰던 목앵전법이다"라고 전라 우수사

김억추가 말한것을 착안하여 경상 우수사 배설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배설장군은 처음에는 경상우도 방어사에 군관으로 있다가 황간에서 패하자 향군을 모아 싸우게 됩니다.
이에 합천군수로 임명되어 계속 승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겁장이라면 애초에 도망가면 되지 향군은 왜 모아서 왜적과 싸웠을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배설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퇴각하다가 한산도에서 백성을 대피시키고 왜적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우리 군이 비축해둔 군량 등을 태워버린 것 등이 이후 죄가 되었던 것이고 칠천량 해전 후 도망가다가 권율에게 잡혀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칠천량 해전 이후 이순신장군 휘하에서 거북선의 제작 등을 주도하다가 수질이 악화되어 이순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선수군을 떠납니다. (1597. 8.30)
이때에 권율이 명하여 죄를 물어 처형하게 되지만 전란이 끝난 후 전공이 인정되어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으며 후손에게 관직을 주게 됩니다.
드라마나 야사는 누군가 나쁘게 나와야 재미가 있어서 꾸며놓은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흥미는 줄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모두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훌륭한 분들이고 그 전란의 상황에 조정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천거하여 중요 격전지에 보낸만큼 그 어떤 분들도 후손들에게 명예를 깍여서는 안되는 훌륭한 분들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윤호 종친이 보내준 멜입니다.>

대구교육청: 영화 '명량', 실제 역사와 비교해 볼까요-네이버 블로그

(배재영 교수의 전달 자료)

* 댓글을 달았습니다. POINT.01을 홍보해 주세요.

*<이탤릭체로 쓰여진 것*은 우리 종친이 노력해서 고쳐야할 부분입니다.>



흥행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명량',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영화 명량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과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었다는 호평을 얻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역사와의 차이가 군데군데 있어 아쉽다는 평도 있었답니다. 영화는 단지 영화로서 재미있게 감상하는 편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우리 민족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명량대첩'을 소재로 한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 '명량' 실제 우리 역사에 기록된 '명량대첩'과의 차이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해요.

● 명량대첩이란?

1597년(선조 30) 9월 정유재란 때, 조선 수군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의 수군이 아군의 10배 이상이나 되는 적을 협수로의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대승을 거두고 이로써 왜적의 서해 진출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정유재란의 대세를 조선군에게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싸움은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조선수군의 사기를 다시 불태울 수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답니다.



POINT.01 배설, 이순신 암살 계획을 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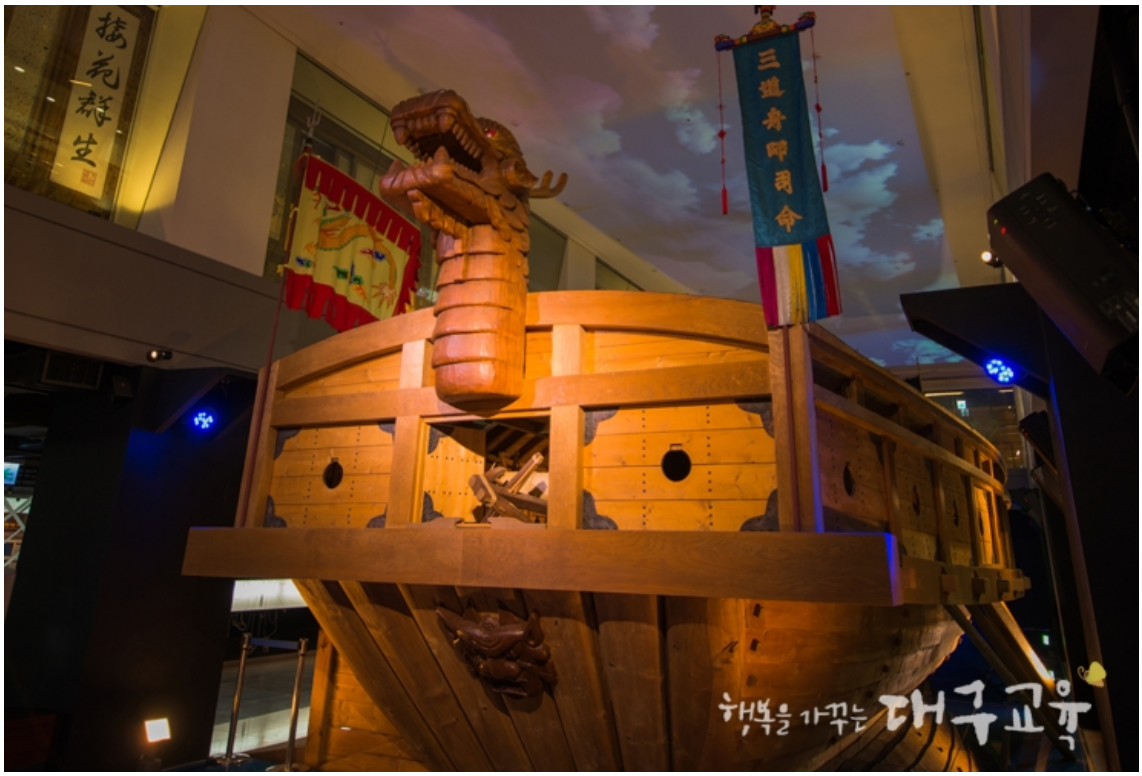
영화'명량'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한 배설이 거북선을 불태우고 이순신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작전에 실패하고 나룻배를 타고 달아나던 배설을 안위가 뒤쫓아 활을 당겨 사살하죠. 하지만 이 장면은 역사에는 없는 장면이랍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배설은 명량대첩 직전에 이미 탈영을 했습니다. 신병을 치료하겠다고 상부에 허락을 받은 뒤 그 길로 도망을 간 것이죠. 조정에서는 배설을 체포하라 명령을 내리지만 한 동안 종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 후 1599년, 선산에 숨어있던 배설은 권율에게 발각당해 한양으로 끌려와 참수형에 처하게 되죠. 즉, 영화에서처럼 배설이 도망을 간 것은 사실이지만* 거북선을 불태우거나 이순신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해 각색된 부분이랍니다.

- 잘못 된 글 수정

영화'명량'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한 배설이 거북선을 불태우고 이순신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작전에 실패하고 나룻배를 타고 달아나던 배설을 안위가 뒤쫓아 활을 당겨 사살하죠. 하지만 이 장면은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장면이랍니다. 난중일기에 따르면 배설은 명량대첩 직전에 이미 신병을 이유로 이순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관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신병을 치료하겠다고 상부에 허락을 받은 뒤 그 길로 경상우수사 직책을 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조정에서는 이미 칠천량 전투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배설 장군에게 물어 처형할 것을 결의하고, 처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설 장군은 왜적의 공격으로 전멸되는 상황에서 조선의 판옥선 12척과 조선수군을 살리고도 억울한 모함으로 죽게 되자, 1597년 8월30일 (음력)관직을 그만 두고 고향 성주로 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1597년 9월 15일(음력) 명량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명량 영화는 배설이 명량해전과 상관이 없는데도 왜놈의 간첩이 되어 거북선을 불태우고 이순신을 암살하는 장면을 만들어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을까요?* *관직을 벗은 배설은 죽음을 기다리며 고향 성주에 머물다가 1599년* 3월, 고향 친구 집에서 체포되어 한양으로 끌려와 참수형에 처하게 되죠. 즉, 영화에서처럼 *배설이 사직서를 내고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거북선을 불태운다거나 이순신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영화의 극적 효과와 상업화와 흥행을 위하여 조작하고 각색한 것입니다.

POINT.02. 장검, 조총, 화포의 사용

영화에는 이순신 장군이 장검으로 적을 베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영화에서 그려진 장검은 길이 약 2m 정도의 의장용 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충무공 이순신이 사용한 검은 길이가 90~100㎝인 쌍룡검이라고 알려져 있죠. 결국, 이 역시 영화의 극적효과를 위해 각색된 부부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명량'에서 조선군은 칼을 들고 싸우지만 왜군은 조총을 들고 원거리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 기록과도 상통합니다. 당시 왜군의 주무기는 유럽에서 들여온 조총이었죠. 유럽식 조총을 일본식으로 개량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조총은 화살만큼의 거리를 날아가지는 못했답니다. 당시 조총의 유효사거리는 50~100m 정도였으며 최대로 보아도 200m 정도뿐이었답니다.
조선 수군의 화려한 화포 공격은 '명량'의 볼거리 중 하나죠. 영화에서처럼 조선의 주무기는 화포가 맞습니다. 판옥선은 두껍고 단단한 소나무로 만들어져 원거리 화포를 장착하는 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반면 왜군의 첨저선은 소나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른 삼나무로 만들어져 화포의 반동을 이겨내지 못했죠. 당시의 화포는 충격과 함께 폭발하는 형태가 아닌 배를 부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쇠탄환이었습니다. 불을 내는 목적으로는 화포가 아니라 불화살이 주로 쓰였습니다.



POINT.03. 명량해전 직전, 龜선이 소실되었다?
영화에서는 배설에 의해 명량해전 직전 龜선(거북선)이 소실된 것으로 그려지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랍니다. 명량대첩 당시 거북선은 건조되지 않았습니다. 명량 대전 이전,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우리 수군에게 남아있는 거북선은 한 척도 없었어요. 따라서 거북선이 불타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선에 맞섰다는 '명량'의 이야기는 각색된 것이죠. 다만 이순신의 조카 이분(1566~1619)이 쓴 '행록'에 따르면 "장군이 전선을 구선처럼 꾸며 군세를 도

우라 명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POINT.04. 대장선에서의 백병전

영화에는 장군이 탄 대장선이 왜선에 둘러싸여 백병전을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역사적 기록과는 조금 다른점이 있답니다. 백병전이란 칼,창,총검 등으로 직접 상대와 맞서 싸우는 전투를 의미합니다. 명량해전 당시에도 실제로 백병전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왜군과 조선군이 맞붙은 전투는 대장선이 아닌 안위의 배 위에서 벌어집니다.

'난중일기'에 따르면 "적장의 배와 다른 두 척의 적선이 안위의 배에 달라붙어 앞다투어 올라갔다. 안위와 그 배 위의 사람들이 각자 죽을 힘을 다해 몽둥이를 들거나, 창을 잡거나, 혹은 수마석으로 무수히 어지럽게 쳐댔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장선 위에서 모든 일이 그려지는 영화의 구성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된답니다.

<참고자료 : http://www.aha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429>

정유재란, 일본군 조선을 다시 침략하다를 보고서
배재영 2014-06-30 20:33 조회 125스크랩 0

임진왜란 4부작이 역사 토크 쇼라는 프로그램으로 민족의 치욕적인 역사를 또 다시 후손들에게 보여 준다.
역사를 모르는 만족은 망하고야 만다는 교훈이 있다.
역사는 진실을 전해야만 하는데 .....
근간에 글 장난, 말 장난하는 소인배들이 많아서 , 진실이 왜곡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많은 필주자(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사실을 뒤로 한 채 흥행을 위하여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갑에 대하여는 무진장 하게 관대히 영웅 대접을 하고, 을에 대하여는 아예 상황을 무시한 채, 사실을 왜곡하여 졸장부, 비겁자, 도망자로 낙인을 찍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역사 드라마는 잘 보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어제 6월 29일 저녁 늦게 한통의 전화가 날아 왔다.
팔순의 연세를 가진 친족 형님이시다.
동생! 동생! 지금 TV 보고 있어요. 형님의 목소리는 놀란 사슴마냥 다급하다.
저는 지금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TV 켜봐. 지금 KBS에서 정유재란 하는데.....
조금 있으면 칠천량 전투 나온다고 해. 원균 장군과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나올 거야.
배 12척! 우리 할아버지가 살려 낸 것 나올거야.
형님은 그래도 KBS가 국민의 방송이고 공영 방송이라서 어느 정도 진실을 가지고 방송하므로,
이번에 진행자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역사 교수도 2명이나 있고,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여자 선생도 있고 하여 이번에는 칠천량 전투 참패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이 죽음에서 살려 낸 배 12척에 대한 사실이 조금이나마 언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차 있었다.
칠천량 전투에서 배설 장군은 경상우수사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그의 활약상이 왜곡되었고 , 이로 인하여 명예가 실추 되었다. 언제인가 역사 바로 잡기에서 그 명예가 회복 되겠지 하고 내심 반신반의 하면서 TV를 지켜 보다가. 칠천량 전투 애기가 나온다니까 후손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필자와 나에게 전화를 한 형님은 배설장군의 12대 후손이다.
배설 장군은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조선에 충성하였으나 칠천량 전투의 패전에 대한 책임과 임란 7년 후의 정세 수습의 희생양으로 1599년 3월6일 선조의 명에 의거 세상을 하직한다.
배설 장군의 아버지는 임진왜란 시 관직 은퇴 후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였고 4아들 모두 전투에 참가하여 2아들은 왜놈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장남 배설 장군은 억울한 누명으로 자기가 섬기던 조선, 선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의 아버지 배덕문 의병장은 임란으로 3아들과 생이별하는 수모를 겪는다.
나는 이 사실을 어릴 때에는 몰랐다.
왜냐하면 갑이 너무나 강하게 설쳐 대니까, 을은 주눅이 들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

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내가 철이 들면서 부터 비명에 떠난 배설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기 시작 했다.
칠천량 전투에 대한 것과 조선의 군함 12척과 수많은 조선수군을 살려낸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의 전투 상보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수군 전멸의 전투인 칠천량 전투에 대한 기록과 연구는 거의 없다.
이순신과 명량해전에 관한 기록은 너무 많아 진의를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 이다.
자연히 을의 입장에 선 통제사 원균과 경상우수사 배설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다.
고작 있다면 원균은 도망가다 죽고 경상우수사 배설은 도망갔다고 필주자들은 적고 있다. 장군이 탈영병도 아닌데.... 도망갔다는 표현은 갑이 을을 난도질하는 처사이며 후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치명적인 필주이다.
그날의 진행자들은 배설 장군과 그들 집안, 후손들에게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에 못을 박는 이상의 치명적인 못을 박았다. 특히 류근 시인은 배설 장군을 조롱하듯 비아냥 거린다.

선조실록에 기록 된 칠천량 전투에 대한 기록을 보자
선전관 김식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보고하다.(선조90권, 30년/ 1597년 7월 22일)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과 안골의 만호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존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을 향하였습니다.
대사헌 김간이 쓴 원균 행장기에 의하면
7월 16일 날이 밝자 우리 배에서 불이 일어나므로 원균은 즉시 바라를 쳐서 변고를 알렸으나 사방에서 왜군의 총탄이 비 오듯이 날아 왔다. 적의 함성은 하늘을 진동하고 그 기세는 산을 무너뜨리고.....도저히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은 먼저 닻을 거두어 작전상 후퇴하는데.....
원균 장군도 할 수없이 배애서 내려 작전상 뭍으로 올라 갔다.....
배설 장군은 왜군의 새벽 기씁 공격에 대항하다가 적의 총 공세에 밀려 한산도로 퇴각한다. 거제도는 경상우수영이 있는 곳이라 배설 장군이 지형을 잘 알고 있어 다행히 한산도로 퇴각 할 수 잇었지만, 다른 함대는 왜선단에 의해 전멸 당한다. 칠천량 전투는 조선 수군의 참패 이다.그런데 전투상보가 없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
이외에도 배설 장군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다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의 상황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올바르게 평가 하여 진실을 후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필자나 토크 쇼하는 자나 영화감독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개인의 영달과 권력 유지, 정권 찬탈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또 다시 실록을 수정하고 의인을 죄인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겨서는 안된다.
역사는 신중하게 심도 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평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 비평은 진실되고 정의롭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다루어야 한다.
역사의 사실을 개그나 토크 쇼를 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비평을 시인이나 영화감독, 그리고 역사를 잘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수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공영 방송은 공영 방송답게 갑과 을, 병 모두가 공감하는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가슴에 새기며 10대1의 약한 전투력으로 왜놈과 싸우며 죽어간 칠천량 앞바다의 조선 수군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칠천량 전투의 참패가 발생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그런데 칠천량 전투에 대한 분석이 없다. 한심하다. 매번 같은 소리만 한다.
통제사 원균이 지휘력이 없어 죽고(다행히 이번에는 술 먹고 방탕하는 내용은 생략 되었다.) 경상우수사 배설은 도망가고 (다행히 겁쟁이라서 말은 빠져 있다.)
한약방에서 조제하는 약애는 어디에나 들어가는 감초가 있다.
이순신 장군이 나오면 꼭 따라 다니는 약방의 감초가 있다.
그것은 원균 장군과 배설 장군이다.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감초가 꼭 필요하다.
2005년 7월 19일 필자는 KBS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제작국에 한통의 편지와 자료를 경주 배씨 서울 종친회 이름으로 보냈다.
김탁환이 쓴 소설 '불멸의 이순신에 대한 오류와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약방의 감초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때는 이순신과 원균의 화해 무드로 배설 장군이 타켓 감초가 되었다. 전투가 겁이 나서 도망 갔다는 것이다. 그 때 우리 후손은 많이 울었다.
김현준 드라마 국장, 윤선주 PD,이성주, 김정규, 그리고 김 탁환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당시 서해 교전으로 우리 해군 사상자가 많았다. 서해 교전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에 이런 글귀가 있다. 내가 만약 두려워 한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젊은 영웅들이여, 조국은 그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실을 잘 파악하고 왜곡하지 마라!)
 이제는 감초가 제자리를 잡을 때가 되었다. 감초에 대한 약효를 분석해야 한다.
다행히 '임진선양회'에서 임진/정유재란에 대한 역사 찾기를 하고 있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 손자 3대가 참전하여 아들 4명 중 3명이 전쟁통에 희생 되었으며,아버지는 의병장으로서 맹활약을 하였으나, 장남 배설 장군에 대한 모략과 음모로 당시는 공적을 인정 받지 못하였으나 전쟁 후에 그 공로가 재평가 되어 원종1등공신에 책봉 되었고, 가문도 명예를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투고 하였다.
우리는 칠천량 전투에 대하야 좀 더 신중하게 분삭 할 필요가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왜곡 되고 잘못 인식되고 있는 사실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역사의 인물들에게는 후손들이 많이 있으며, 후손들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라 난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들에게 왜곡 된 사실을 사실인양 가르쳐서는 안된다. 사실을 애기 할 땐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잘 모르는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교수와 선생은 시인과 영화감독과 MC와 달라야 한다. 그런데 옥석이 구분이 안된다. 류근 시인이나 영화감독, MC가 하는 헛소리는 들어 줄만한데.... 교수와 선생은 정신차려야 한다. 교육자는 정의와 진리만을 가르쳐야 한다.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명예를 훼손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역사가는 역사가 답게, 시인은 시인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영화감독은 영화감독답게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할 때 이 나라는 또 다시 일본의 잿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복한 국가가 된다.
4명의 진행자는 배설장군에 대하여 언급할 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손들과 일가족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더 공부를 하고 심사숙고하길 당부한다.

KBS는 공영 방송답게 사실을 사실만을 시청자에게 전해라! 갈등을 더 이상 조장시키지 마라!

후손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배설 장군 이야기

배설장군은 전장에서 도망하여 처형을 받았다고 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의 이야기는 모르고 지내 왔습니다.

이번에 뜻있는 종인들께서 십수 년간 수집하고 발굴한 역사적 기록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간추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암공 배덕문의 장남인데 모두 사형제였습니다.
부친 서암공은 여러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벼슬을 살고 노년에는 향리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지낼 때 임진난이 발발하여 왜군이 성주를 점령하고 당시 성주목사였던 제말을 죽이고 중 찬희를 목사로 내세워 성주백성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68세의 노구로 의병장이 되어서 지금의 김천가는 초전의 부상고개에서 한성을 향해 올라가던 왜장을 죽여서 성주지방 백성들의 몰살의 위기를 모면하게 한 애민호국의 영웅적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가지신 할아버지의 아들이신 배설 할아버지는 무과에 급제하여 변방 곳곳에 부임하여 외적을 막아 백성들이 평안히 살도록 하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나라에서 주부라는 벼슬을 내리고 방어사 조경이라는 장수와 남쪽으로 출정하여 황간 추풍등지에서 조경이 전투에서 패하자 할아버지는 지역의 향병들을 모아서 왜적들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계속하여 부상진에서 왜장의 목을 베고 개산진에서 적장을 격파하고 다시 무계진에서 적을 격파시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합천군수에 배수 되었다가 진주목사로 제수되어 진주백성들이 어진 정사에 감복하여 거사비를 세워 할아버지의 공을 기렸습니다.

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겸부원수에 배수되어 병사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아끼고 군정을 이끌어 서애 류성룡과 완평 이원익선생이 배설 할아버지를 간성(干城-풀이하면 나라에 있어서 방패와 같은 단단한 성이란 뜻)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또 밀양부사 선산부사를 거치며 금오산성을 쌓고 우물과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금오산 폭포위 암벽에 당시에 기록한 글씨가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금오산 가시면 꼭 한번 확인 해 보시길 ..ㅎㅎㅎㅎ)

다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원균장군과 함께 해전에 참가하여 이 전투에서 동생 배즙이 당시 35세의 나이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원균과 다른 장수들이 모두 전사하고 할아버지는 판옥선(전함) 12척과 병사들을 구하여 살아남아 이순신과 함께 활동을 하다가 수질이 악화되어 사직하고 요양을 하면서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를 돌면서 백성들의 생활상들을 살펴보고 향후에 왜침을 대비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가 앞전 해전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이 정치권과 권율장군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한 권율이 체포 하여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패한 전투는 원균장군이 권율장군에게 해전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하니 왜구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육지와 바다에서 협공을 하자고 하였으나 권율이 해전을 명하여 다시 원균장군이 조정에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권율이 이 내용을 알고 원균장군에게 곤장50대를 때리고 해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군율을 어기면 우리 장수 3사람이 죽으면 되지만 전장에서 무수한 병사들을 죽일수 없다며 해전을 반대 하였으나 원균장군의 명령에 따라 선봉장으로 전투에 참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투의 패전의 책임은 당연히 권율에게 있었지만 권율은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할아버지에게 책임을 씌우고 또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백성들과 나라를 걱정하여 전국 고을들을 돌면서 후일 외침에 대비하던 장수를 역모를 꾸미고 다닌다는 모함으로 처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또 상부의 명령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던 이순신은 권율의 눈에 들기위해 할아버지에 대해서 시기심과 모함심을 가지고 난중일기에 장수답지 못한 치졸한 표현으로 할아버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1599년 향년 49세의 나라를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음에도 국운이 기울려는 징조인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후 11년 후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조정에서 다시 조사하여 선무원종 일등공신으로 공훈록에 기록되고 호조판서의 공직이 주어져 명예가 회복되고 다시 261년후인 1871년(고종8)에 도내 유림들이 상소하여 선무원종 1등 공신 가선대부 호조판서에 증직되었 할아버지의 명예는 회복 되었으나 이미 나라는 당쟁으로 270 여년전 국가의 내일 보다는 오늘의 자신만을 위하던 매국 벼슬아치들의 반역적 모함으로 애국충정의 인재를 죽임으로써 나라가 망하는 씨앗을 심었던 결과가 나타나던 시기였으니 우리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나라가 왜국에 넘어가는 시기였다는 사실이 참담하기만 할 뿐이다.

지금 또 당시의 매국 반역도들과 같은 무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국가기관요직과 사회 경제 문화부문 곳곳에 숨어서 나라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은 외면한채 소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임진왜란 당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밉보인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도마뱀같은 인간들, 여기에 편성하여 돈벌이와 인기를 누리겠다는 인간들 중에 하나가 지금 명량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다.

이순신전기에 나오는 거북선은 우리 배설 할아버지가 1595년과 1597년에 경상좌도와 경상우도 수군통제사로 발령받았을 때 만든 것이라고 송인호는 실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뒷받침하는 기록

당시 경상감사 한준겸과 대동찰방 정묵은 배설 할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군관을 보내 호상하고 장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당시 도백인 경상감사가 할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역모의 죄인으로 죽었다면 어떻게 장례를 도왔겠는가? 또 11년후 신원이 되었지만 죽은후 270년이 지나도록 유림과 사림에서는 이 억울함을 전해져 내려왔고 나라가 외침으로 멸망의 위기에 왔을 때 이날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뜻이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에 뒷받침되는 자료들은 아주 방대하고 많이 수집 발굴되어 있습니다.
종인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우리 가문의 명예를 다시 되살려 내는 일은 가문의 영광을 떠나서 국가의 내일을 바로 세우는 애국적 행위입니다.
지금 매국 반역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막아내는 일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을 너머서 국가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애국적 행동입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대구에서는 뜻있는 종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종친회와 대종회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배씨 진사공위현세계보

進士(諱 俔)公派 宗史錄.

◈ 登科錄.

▶ 배덕문(裵德文: 16世).자:숙회(叔晦).호:서암(書巖). 父:배 주(裵 綢).
명종 8년(1553) 별시(別試) 文科 25位로 급제.
주요관직: 義兵將, 贈吏曹判書.

▶ 배 설(裵 楔: 17世). 자:중한(仲閑).호:서강(西岡). 父:배덕문(裵德文).
선조 16년(1583) 癸未別試 武科 45位로 급제.
주요관직: 慶尙右水使, 贈兵曹判書.

▶ 배상호(裵尙虎: 18世). 호:괴재(愧齋). 父:배 설(裵 楔).
인조 2년(1624) 甲子式年試 進士 2位로 급제.
주요관직: 贈左承旨.

▶ 배정휘(裵正徽: 20世).자:미숙(美叔).호:고촌(孤村). 父:배세위(裵世緯).
현종 14년(1673) 癸丑式年試 文科 7位로 급제. 주요관직:승지(承旨),
현종 10년(1669) 己酉式年試 進士 52位로 급제. <兩科 급제>

▶ 배익휘(裵益徽: 20世). 자:겸숙(謙叔). 父:배세위(裵世緯)
숙종 22년(1696) 丙子式年試 生員 2位로 급제. 주요관직:진사(進士).

▶ 배진휘(裵晋徽: 20世). 호:인촌(仁村). 父:배세위(裵世緯).
숙종 22년(1696) 丙子式年試 生員 5位로 급제. 진사(進士).

▶ 배윤명(裵胤命: 21世). 자:대수(大受). 父:배정휘(裵正徽).
경종 3년(1723) 增廣試 文科 22位로 급제. 주요관직:울진현감(蔚珍縣監).
숙종 39년(1713) 增廣試 生員 21位로 급제. <兩科 급제>

▶ 배윤성(裵胤性: 21世). 자:선유(善由). 父:배정휘(裵正徽).
숙종 40년(1714) 甲午增廣試 進士 1位로 급제.

▶ 배윤휴(裵胤休: 21世). 자:여환(汝還). 父:배정휘(裵正徽).
영조 3년(1727) 丁未增廣試 進士 14位로 급제.

◈ 功勳錄

○ 배 설(裵 楔) : 선무원종1등공신(宣武原從一等功臣).
~ 성산배씨 17세(世)이며 성균진사(俔)공 후 증이조판서 덕문(德文)의 장남이다. 경상우도수군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를 거쳐 자헌대부 병조판서(資憲大夫兵曹判書)에 증직 되셨다.

○ 배몽성(裵夢星) : 선무원종2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
~ 성산배씨 15세(世)이며 군수(永成)공 후 통정대부 억련(億璉)의 장남이다. 수문장(守門將)을 지냈다.

○ 배덕문(裵德文) : 선무원종3등공신(宣武原從三等功臣).
~ 성산배씨 16세(世)이며 성균진사(俔)공 후 경릉참봉 주(綢)의 아들이다. 의병장(제독)을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셨다.

◈ 忠. 孝烈錄

▶배 건(裵楗:17世) 宣務郎. 先親(諱 德文)을 따라 의병활동.

▶배 즙(裵楫:17世) 宣撫使. 助防長으로 한산도전투에 임함.

▶배상룡(裵尙龍:18世) 壬辰倭亂때 先親(諱 楔)을 따라 전투에 임함.

◈ 文士錄.

- 배 덕 문(裵德文: 字,叔晦 號,書巖. 성산배씨 16세) 七峰 金希參 門人.
- 배 건(裵 楗: 字,守夫 號,高巖. 성산배씨 17세) 七峰 金希參 門人.
- 배 상 룡(裵尙龍: 字,子章 號,藤庵. 성산배씨 18세) 寒岡 鄭逑, 旅軒 張顯光 門人.
- 배 상 호(裵尙虎: 字,季章 號,愧齋. 성산배씨 18세) 寒岡 鄭逑 門人.
- 배 상 조(裵尙藻: 字,國章 號,蓮亭. 성산배씨 18세) 寒岡 鄭逑 門人.
- 배 세 유(裵世維: 字,持卿 號,慕軒. 성산배씨 19세) 藤庵 문하에서 수학.
- 배 세 위(裵世緯: 字,順卿. 성산배씨 19세) 藤庵 裵尙龍 門人.
- 배 세 일(裵世逸: 字,子安 號,明谷. 성산배씨 19세) 藤庵 裵尙龍 門人.
- 배 정 휘(裵正徽: 字,美叔 號,孤村. 성산배씨 20세) 藤庵, 眉叟 許穆, 葛庵 門人.
- 배 익 휘(裵益徽: 字,謙叔. 성산배씨 20세) 藤庵 裵尙龍, 葛庵 李玄逸 門人.
- 배 철 휴(裵哲烋: 字,誠彦 號,又省. 성산배씨 28세) 磊軒 鄭宗鎬 門人.
- 배 재 하(裵在夏: 字,禹洪. 성산배씨 29세) 恭山 宋浚弼 門人.
- 배 재 용(裵在容: 字,敬九. 성산배씨 29세) 磊軒 鄭宗鎬 門人.

정복규의 한국 성씨를 찾아서-88 성주배씨(星州裵氏) 성주배씨와 성산배씨는 같은 뿌리… 시조는 배위준

배극렴.배명인.배영호.배덕진.배의환.배동조.배성동 등

성산(星山)과 성주(星州)는 같은 지명이다. 따라서 성주배씨와 성산배씨는 뿌리가 같다. 그러나 지금도 본관을 성주와 성산으로 각각 쓰고 있다. 시조 배위준(裵位俊)은 배현경(裵玄慶)의 후손으로 고려조에 삼중대광벽상공신에 올랐다. 고려조에 성산군에 봉해진 배천룡을 시조로 삼는다는 설도 있다. 성산은 경상북도 성주군의 지명이다.

배현경(?~936)과 배극렴(1325~1392)은 각각 고려와 조선의 창업 공신이다. 고려 4대 개국공신 중의 한 사람인 배현경은 궁예의 폭정이 심해지자 신숭겸, 복지겸, 홍유 등과 함께 궁예를 축출하고 왕 건을 추대했다.

배극렴은 1392년 조준, 정도전 등과 함께 공양왕을 폐하고 이성계를 추대했다. 성산백(星山伯)에 봉해지고 문하좌시중이 됐다.

현대 인물은 배명인(국가안전기획부장), 배정현(대법원장서리), 배영호(법무부장관), 배상욱(체신부장관), 배덕진(체신부장관), 배의환(한국은행총재, 주영대사), 배상명(상명여대이사장), 배철세(동아대총장), 배병주(적십자병원장), 배무(이화여대교수), 배종열(한양그룹회장), 배정일(남광토건회장), 배동조(한국통신기술사장), 배기은(동양나일론사장), 배정도(육군소장), 배광석(육군소장), 배원식(육군소장), 배병로(육군소장), 배명국(국회의원), 배성동(국회의원), 배길기(서예가, 국전심사위원, 동국대교수), 배좌식(부산가평초교장), 배렴(동양화가), 배융(서양화가), 배희한(인간문화재), 배성기(농림부차관), 배응도(상공부차관), 배수곤(은행감독원장), 배영준(남광대표이사), 배영환(삼화고속대표), 배현규(한일투자금융 회장), 배용광(대구교육대학장), 배문한(수원가톨릭대학장), 배동원(경기대교수), 배석현(동명전문대학장), 배재식(서울대법과대학장), 배도중(진주여중교장), 배복석(서울대명예교수), 배흥직(경안고등학교장), 배병희(전북대교수), 배대식(충북대교수), 배길관(충북대교수), 배상웅(제주원호지청장), 배성진(대한실업교재대표), 배재식(서예가), 배상오(충남대교수), 배양찬(목사), 배은희(국회의원), 배석(광주고등법원장), 배만운(광주지방법원장), 배양태(외과병원장), 배기완(단국대교수), 배문환(올림픽위원회환경담당이사), 배성근(신창여중재단이사장), 배성식(사중한의원장), 배계섭(강원도보사국장), 배원탁(극동해상급유대표), 배정호(울산.울주축협조합장), 배문수(영화해운대표), 배문수(마산원예협동조합장), 배두환(신학박사), 배수

환(군산수산전문대교수), 배석제(군산수산전문대교수), 배옥연(여수수협전무), 배환갑(영생토건사장), 배도(효성물산 대표이사), 배지열(관세사), 배민홍(전북은행장), 배병휴(매일경제신문편집부국장), 배정석(광주소년원장), 배선홍(동산유지공업 대표이사), 배진성(동아투자금융 상무이사), 배호원(체신부기획관리실장), 배규성(농지개량조합연합회장), 배건섭(감사원대변인), 배순훈(대우전자사장), 배성순(농협중앙회이사), 배학철(작가), 배갑덕(도남모방공업사장), 배완수(남천병원장), 배석구(의학박사), 배윤재(동아간설전무이사), 배경조(문화철물 사장), 배경병(전주종친회장), 배준호(유니온가스 사장), 배명창(부산적십자사무국장), 배철환(서강산업 사장), 배강흔(의학박사), 배금윤(주일영사), 배기문(경제기획원기획관리실장), 배기태(성균관대교수), 배기형(건축가), 배기훈(부산수산대교수), 배광호(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배길도(국회의원), 배대한(농학박사), 배달이(삼성운수사장), 배동조(체신부공무원교육원장), 배동환(수산청국장), 배만규(의학박사), 배병근(변호사), 배숙(국세청직세국장), 배점모(군산호원대교수) 씨 등이다. (무순, 본관 및 전·현직 구분 안 됨)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는 42명이다. 인구는 2000년 현재 90,239명이다. 서울 15,184명, 부산 7,466명, 대구 16,010명, 인천 3,829명, 광주 808명, 대전 3,774명, 울산 1,726명, 경기 12,950명, 강원 1,509명, 충북 3,216명, 충남 3,825명, 전북 2,441명, 전남 5,593명, 경북 6,689명, 경남 5,010명, 제주 209명이다. 대구, 경북 지역에 많다.

배씨 명단

배창호 [現] 영화감독 [前] 건국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배용균 [現] 영화감독

배덕광 19대 국회의원 해운대 기장

배영식 18대 국회의원 대구 중구 남구 (한나라)
배은희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나라)

배용일 1941 [現] 포항문화원 부원장
[前] 포항대학 한국사 교수

배영부 1943 [前] 일간스포츠 전무이사
[前] 한국일보 사업담당 전무이사

배일도 1950 [現] 한국사회발전전략연구원 대표
[前] 국회 제17대 국회의원
[前]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초대, 9~11대 위원장

배승철 1951 [前] 전라북도의회 의원(부의장)
[前]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용수 1953 [現] 한국항공진흥협회 상근부회장
[前] 대통령실 제2부대변인 겸 춘추관장
[前]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배영호 1956 [現] 효명고등학교 교장
[前] 천주교중앙협의회 평촌성당 주임신부
[前] 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배해수 1940 [前]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배동환 1943 [前]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배정웅 1945 [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무역관 관장

배영길 1946 [現] 한국수산법제연구소 이사장
[前]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前] 부경대학교 법률지원센터 센터장

배기동 1952 [現]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관장
[前]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前]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배인환 1954 [現] 한국키스톤발부 대표이사 사장

배충식 1963 [現]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배호근 1964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배동천 1968 [現]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 배동천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원달 1928 [前] 안동공업전문대학 학장

배정윤 1933 [前] 대구문화방송 상무이사
[前] 대구동구CATV 사장

배효덕 1934 [前] 경북일보 사장

배기열 1935 [現] 경희대학교 불문과 명예교수
[前] 신아일보 문화부 기자[前] 경희대학교 불문과 교수

배평일 1937 [前] 전라북도의회 시도의회의원

배재열 1940 [前] 경상남도의회 의원

배재동 1942 [前] 대전매일신문 논설위원

배영호 1944 [現]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문
[前]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前] 코오롱 대표이사 사장

배재욱 1945 [現] 대한변호사협회 배재욱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4과장

배경한 1946 [現] 파라다이스건설산업 대표이사

배용일 1941 [現] 포항문화원 부원장[前] 포항대학 한국사 교수

배영부 1943 [前] 일간스포츠 전무이사[前] 한국일보 사업담당 전무이사

배일도 1950 [現] 한국사회발전전략연구원 대표
[前] 국회 제17대 국회의원[前]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초대, 9~11대 위원장

배승철 1951 [前] 전라북도의회 의원(부의장)[前]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용수 1953 [現] 한국항공진흥협회 상근부회장
[前] 대통령실 제2부대변인 겸 춘추관장[前]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배영호 1956 [現] 효명고등학교 교장[前] 천주교중앙협의회 평촌성당 주임신부
[前] 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배경록 1958 [現] 씨네21 부사장
[前] 한겨레신문 애드본부 본부장(상무이사)[前] 한겨레신문 광고국 국장(이사대우)

배기선 1961 [現] 루돌프테크놀로지 한국지점 상무
[前] Azores Asia 상무[前] DE&T 선행기술담당 상무

배재천 1964 [現]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과 전임강사

배해수 1940 [前]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배동환 1943 [前]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배정웅
1945 [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무역관 관장

배영길 1946 [現] 한국수산법제연구소 이사장
[前]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前] 부경대학교 법률지원센터 센터장

배기동 1952 [現]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관장
[前]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前]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배인환 1954 [現] 한국키스톤발부 대표이사 사장

배충식 1963 [現]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배호근 1964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배동천 1968 [現]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배동천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신호 1939 [前] 예성 대표[前] 극동건설 전무이사

배철웅 1939 [現] 부산사회체육센터 상임이사
[前] 국제신문 논설위원[前] 동명대학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배철곤 1942 [現]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前] 영남대학교 사범대 수학교육과 교수

배양일 1942 [前]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장

배준웅 1943 [現]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前] 경북대학교 화학과 교수[前] 한국전기화학회 부회장

배병관 1945 [現] 3BH HOLDINGS 회장
[前] 코엑스 대표이사 사장[前]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배상호 1946 [現] S-Oil 고문[前] S-Oil 부사장

배인휴 1952 [現] 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배성인 1955 [現] 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대학 교수

배원달 1928 [前] 안동공업전문대학 학장

배정윤 1933 [前] 대구문화방송 상무이사[前] 대구동구CATV 사장

배효덕 1934 [前] 경북일보 사장

배기열 1935 [現] 경희대학교 불문과 명예교수
[前] 신아일보 문화부 기자[前] 경희대학교 불문과 교수

배평일 1937 [前] 전라북도의회 시도의회의원

배재열 1940 [前] 경상남도의회 의원

배재동 1942 [前] 대전매일신문 논설위원

배영호 1944 [現]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문
[前]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前] 코오롱 대표이사 사장

배재욱 1945 [現] 대한변호사협회 배재욱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4과장

배상오 1933 [現] 충남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前]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배성환 1934 [現] 한국공론 회장[前] 한주건설 회장[前] 한국일보 부사장

배인수 1937 [前] 대동은행 상무이사

배권호 1938 [前] 동아일보 총무국 부국장

배창모 1939 [前]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배봉휘 1944 [前] 한국일보 부사장[前]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배영식 1949 [前] 국회 제18대 국회의원[前]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실장

배양호 1952 [前] 강원도 인제군의회 의원

배준동 1959 [現] SK네트웍스 IM총괄[前] SK텔레콤 사업총괄
[前] SK텔레콤 네트워크 CIC 사장

배연국 1960 [現] 세계일보 논설위원[前] 세계일보 편집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배경한 1946 [現] 파라다이스건설산업 대표이사

배정운 1940 [現] 한국철강신문 대표이사 회장[前] 연합철강공업 부사장

배호득 1952 [前] 고용노동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前] 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

배효점 1952 [現] 에스에프에이 고문
[前] 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사장

배태모 1958 [現] 현대자동차 상무

배낙호 1958 [現]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의원[前]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의장, 부의장

배석홍 1961 [現] KPX홀딩스 전략기획팀 상무[前] 동부건설 경영혁신팀 팀장(상무)

배중남 1961 [現]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관광학부 교수

배상근 1966 [現]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前]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 본부장(상무)

배영철 1970 [現]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팀장
[前]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콘텐츠본부 만화애니캐릭터팀 팀장

배준현 1973 [現]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수영구지역위원회 위원장
[前] 열린우리당 중앙당 민생경제특별위원

배희철 1937 [現]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 대표회장

배옥석 1952 [現]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배효식 1955 [現] 대구광역시청 공무원교육원 원장
[前] 대구광역시청 건설방재국 건설산업과 과장

배영철 1957 [現] 대구광역시청 국제통상과 과장

배정호 1958 [現]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前]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배효섭 1958 [現] Kadesh NZ Ltd 대표

배명수 1961 [現] 한국BMS제약 대외협력업무총괄 전무

배준호 1964 [現] 파이낸셜뉴스 AD기획국 국장
[前] 경향신문 마케팅국 부장



뒷줄: 배선기 분성배씨 회장, 대종회 부회장, 배병탁, 배한동, 배신호, 배재소,
배영진 대종회 회장 배상현 동국대교수, 배재권 성산성주배씨 회장,
유완성 종보 편집장, 편집위원 배홍열, 배영민
앞줄: 배윤호, 배한욱, 배재영, 배재휴 성주성산배씨 부회장,
(배한익 부위원장은 사진찍는다고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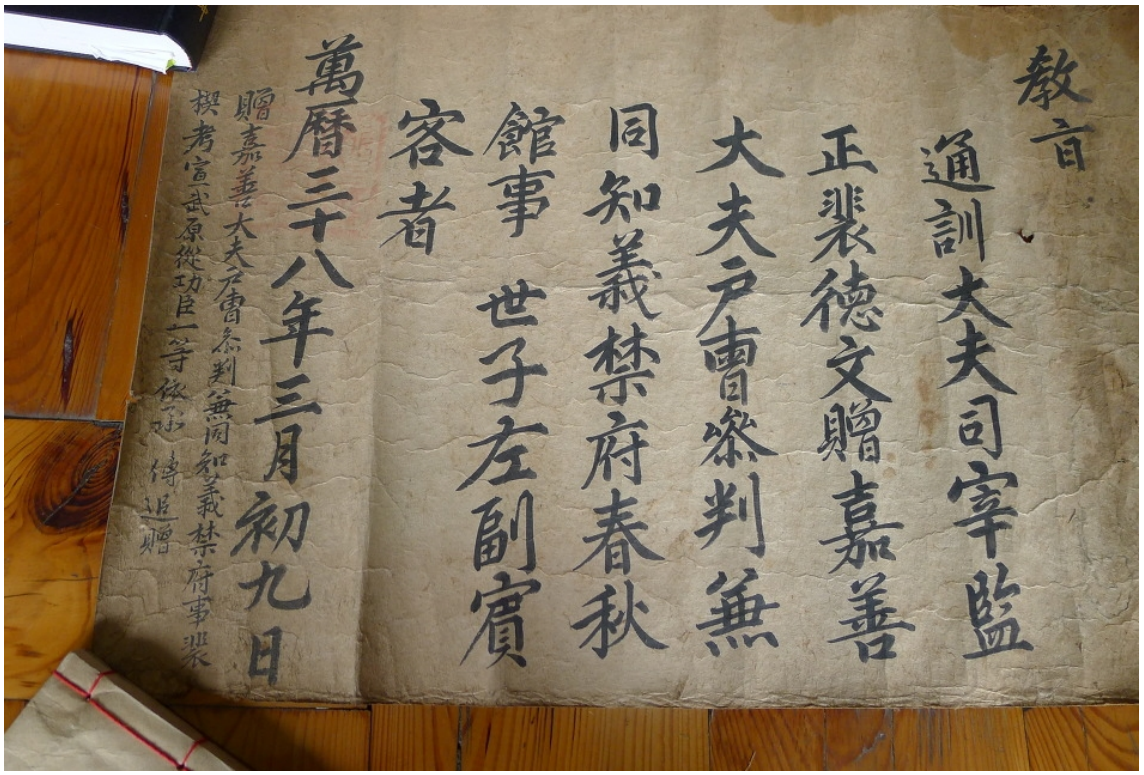





모든 자손 일어나서 조상님의 명예 되살리자!!
경주배씨종친회
일등공신 배설장군 후손들은 통곡한다!!
영화〈명량〉관련비상대책위원회〈서암문중〉
역사외곡 명량영화 김한민은 사죄하라!!
성산배씨종친회






敎旨
通訓大夫司宰監
正裴德文贈嘉善
大夫戶曹參判兼
同知義禁府春秋
館事 世子左副賓
客者
萬曆三十八年三月初九日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裴
撰考宮武原從功臣一等敬祖傳追贈


모든 자손 일어나서 조상님의 명예 되살리자!!
경주배씨종친회


星山裵氏旅譜卷之初
星山裵氏諸公事實

박은우 소설 <명량>(고즈넉 간)에서 본 배설장군

서암공파 31대손 배한순 종친(여, 55세)

박은우 소설 <명량>은 1597년 정유재란시 이순신의 백의종군에서 시작하여 명량해전으로 끝난다. 여기서 배설은 한 마디로 도망자에 패배자에 의지와 용기와 소신이 없는 무능한 비겁자요 겁쟁이요 전쟁 낙오자로 표현되어 있다. 오직 이순신만 명장이요 덕장으로 표현하였다.

이순신 파직 후 원균이 수군통제사로 임명된 후 경상우수사는 이순신파 배홍립에서 배설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원균이 차일피일 출전을 미루고 있자 도원수 권율이 직접 배설에게 출전을 명한다. 작가가 소규모의 전투라고 명명한 부산 앞바다의 전투에서 배설은 일본의 군선 십여 척을 격파했으나 왜가 대규모 함대였기에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물러났다.(수백 척의 대규모 함대를 만났는데 일본 함대도 조선 수군과의 전면전을 회피함) 그러나 풍랑이 일어 조선 함대들이 표류하다가 서생포에 상륙한 조선 수군들은 주변의 왜군에게 전멸했다.(p.95)

이 후 원균이 출정한 해전에서 수백 척의 왜군 함대에 맞선 조선 수군(100여척의 판옥선과 거북선, 1만 여명의 수군을 거느리고)은 부산에서부터 칠천량(거제도 부근 칠천도)까지 쫓겨왔으나 몰살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원균이 "모두 온 힘을 다하여 빠져 나가라!"고 명령하여 배설과 원균은 칠천량을 빠져 나와 거제도 해안으로 갔다가 배설은 한산도로 먼저 탈출했다. 원균은 고성에 상륙했다가 왜의 총알에 숨지고, 배설은 전세를 보고 있다가 배 아홉 척을 이끌고 서쪽으로 도망갔다. 떠나기 전에 한산의 모든 무기는 바다에 던져 버렸고 곡식은 불태웠다. 섬에 남아 있는 일부 백성은 그의 머릿속에 없었다.(p.101~103)

이순신과 부장이 말한다. "경상우수사 배설이 이끄는 배가 십여 척 있는데 그걸로 무얼 하겠습니까? 전선이 거의 멸실되었다 하나 수군을 없앨 수는 없지요. 누군가에게 수장을 맡겨야 하는데 배설은 그럴만한 위인이 안 됩니다." 이순신은 오합지졸이 정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P.110~113)

노량에서 배설을 만난 이순신은 "어찌 그리 멀쩡하오? 패하여 도주하셨다고?"(중략) "그것이 살아서 도망친 이유가 되오? 한산도의 병영을 모두 불태웠다면서? 장수가 전장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장수로서의 소임을 저버리는 것이오. 싸움에서 물러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몰러났다고 하는 그대의 행

동은 병법의 절반에 불과하오.” 라고 비꼬며 추궁하였다.(이 때 이순신은 백의종군하였으므로 하극상이 됨) 모든 자들이 배설을 배척하고 심지어 류황은 칼을 빼어들고 칠 기세였다. 이순신은 배설을 잡아 추궁하고 죄를 묻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였다.(p.137~141)

배설이 패전의 책임 때문에 숨어 버리거나 도주하리라는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 버릴 줄은 몰랐다. “부하들은 자신의 대장이 어떤 사람인줄 아니까 배설이 배를 버리고 도망친다고 여겼을 자가 있으리라. 싸울 정신은커녕 도주하는데 더 바빴을테니 가능한 멀리 달아나려고 했겠지. 배설이 아니라 그가 숨긴 배들을 찾아야 한다. 섬은 숨기에는 좋으나 도주하기에는 불리하지. 특히 배설같은 위인은...”(p.178~183)

배설이 회령포에 숨겨둔 배를 찾았다는 전갈을 받고 “배수사가 멀리도 갖다 놓았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찾았다고 볼 수 있겠다.”(2권, P. 43)

어딘가 숨어 있던 배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대는 어찌하여 항상 찾을 때마다 없으며 싸움에서 멀리 벗어나려 했소?” “제가 원통제사와 길을 달리하여 이 먼 곳(회령포)까지 와 함대를 숨겨 놓았기에 사또께서 조금이나마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순신의 힐난에 배설이 항변하듯 말했다. 싸움에서 물러남이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력을 유지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죄를 묻기도 어려운 법이다. 당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결과 또한 그러니 배설의 비겁함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소관의 능력으로는 맡겨진 함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싸움은 사또께서 젊은이들과 하시고 소관은 뒤에서 지원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수사, 어찌 그런 궤변으로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는 것이오?” “ 배수사는 후위에서 지원에 힘쓰시오.” 배설은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2권, p.169~171)

명량 해전 전 어느 날 밤 배설은 전라우수사 김억추와 중군장 김응함, 거제현령 안위를 자신의 배로 불렀다. 이들은 이순신의 직계가 아닌 까닭에 늘 소외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이순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없기에 거리를 두고 있는 까닭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에 책임이 있든 서로가 겉도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배설이 격앙된 목소리로 침을 튀기며 말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심란하지 않소이까? 통제사(이수신)가 고집을 피워 수전을 하겠다는 바람에 예까지 끌려왔지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몰살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오. 침몰이 뻔한 배에 계속 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무모한 죽음보다는 살아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이 시국에서 주상과 조정을 위한 길이오. 영감들도 잘 생각해

보시오."(2권, P. 226~228)

명량해전 보름 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배설이 보이지 않았다. 이순신은 그가 지휘하는 장수들을 불러 찾아오게 했다. 한참이 지나 군관이 왔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언제나 마음 한편에 근심으로 자리 잡아 그대로 두기도 뭐하고 한 군의 수사나 되는 인물을 쫓아 버릴 수도 없었다. 어리거나 지위라도 낮으면 호통을 치든 고된 훈련을 시키든 해서 겁을 쫓아내게 할 수도 있으련만 그러지도 못했다. 그대로 놔두자니 그 용렬한 마음이 주변에 퍼질까 염려스러웠다. 두려움이란 역병과 같아서 빠르게 주변을 물들이고 썩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한 번은 부딪쳐 보리라 생각했는데 그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다. (중략)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싶었다. 이순신은 뭍으로 내려 몸조리를 하고 오라고 공문을 써 주었다. 나중에 들으니 우수영에서 내려서는 다음다음날 그대로 도망쳐 버렸다고 했다. 한 군의 고위 지휘관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퍼지면 군의 사기는 말할 것도 없이 떨어진다. 이순신은 배설이 도망친 사실을 당분간 함구하라고 주변에 알렸다. (2권, P.233~234)

"나는 병을 핑계로 뭍에 올라 달아난 배설을 욕하지 않네. 실은 욕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야. 적의 대군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 역시 인지상정이지."(2권, P.251)

위 인용글에서 보듯이 저자는 배설 장군을 칠천량 전투에서 겁에 질려 도망치고 이 후 숨어 지내다가 지는 것이 두려워 전투에서 빠지고 싶어서 병을 핑계로 꽁무니를 빼는 비겁자로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곳곳에서 용렬한 소인으로 병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장수로 표현하고 있다. 배설 장군이 칠천량에서 구해서 감추어 둔 배 10척을 이순신의 부하가 추적하여 찾아낸다는 내용도 있다. 이순신 이외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 비겁하거나 용렬하고 자격이 없는 수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배설의 보직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조연들은 소개하면서 주요 등장인물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작가는 <난중일기> <선조실록> <징비록>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밝히면서도 <u>소설적 변용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후기에 밝히며</u>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 기념 사업회(안)

1. 영화 명량 관련 비상 대책위원회 개칭

경상우수사 배설장군 **기념사업회**

선양회

2. 사업개요 : 배설 선조 명예 회복 사업

((장기))

1) 배설 장군에 관한 오도된 역사 기록(소설, 영화, 논문 등)바로 잡기
2) 배설 장군의 업적 홍보 - 이야기 배설 장군, 스토리텔링, 소설, 만화, 영화, 카페나 블로그 활용
3) 배설 장군 업적 홍보 강좌 - 명절, 성묘 전후 (마을 회관)
4) 배설 장군 묘소 환경 개선
5) 칠천 량 공원 배설 장군 기념비 건립 - 조선 수군을 살린 배설 장군 (배 12척 구함)
6) 서암 신재 등암 3조손의 기념관 기념비 동상(부상진)
7) 전국적인 조상의 역사자료 발굴

((단기))

1) 배설 장군 얼 찾기 역사 탐방

합천--> 동래--> 부산--> 진주(거사비)--> 좌수영(?)
--> 밀양-->선산(금오산성, 9정 7택, 기념비)--> 한산도
--> 회령포, 벽파진

3. 기금 조성 방안 : 목표액 ?원

4. 조직 운영 방안 : 회원 확보 등

윤재욱 달서구출신 국회의원님께 협조 요청 내용 (배재회)

‘윤재옥’ 국회의원님 귀하
‘윤재옥’ 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도를 잊지 않고 소통하며 함께 하시는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달서구의회 제2대 구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달서구 의정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배재회입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전대미문의 관람객을 기록하는 영화 “명량”이 우리 배씨 50만 문중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 역사를 왜곡하여 실존인물인 배설 장군을 천하의 역적으로 묘사함으로서 배설장군 뿐만 아니라 배씨 가문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서 고발 등 관련기관에 영화 상영중지 및 감독과 제작사의 정중한 사과, 명예회복,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우기 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만으로는 추진에 부족한 점이 많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의원님의 협조를 요청 하오니 첨부된 ‘각종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다음카페“ http://cafe.daum.net/1525- ”또는“성산(성주)배씨 서암공파”에 상세한 내용이 게제 되어 있사오니, 심도 있게 파악하시어 왜곡된 역사로 인하여 조상님에 대한 불효/ 배씨 성에 대한 불명예/ 후세에 대한 무책임 등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인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시겠습니다만 여건 되시면 전화 통화를 요청 드리며, 대구에 내려오시면 방문하여 인사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달서구의 번영을 위하여 일하시는‘윤재옥’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14년 9월 일

소설영화(명량)관련 비상대책위원위원회
배재회(010-3090-8808) / 053)262-6448) 드림